

建築土



건축시협회의 당면과제와 해야 할 일(II)
WTO와 건축 향(II)

한국
건축
협회
회원
전체
총회
개최
예고

96.11
November

建築士



표지사진 / 신도리코아산공장본관(민현식)

발행인 : 김규태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위원장 : 조정상
위원 : 봉철린, 승효상, 섬영선, 원대연
편집·취재 : 양원석, 정호상,
조한국, 윤태일, 김광미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 1965년 10월 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등록번호 : 서울 라-26(월간)
등록일 : 1967년 3월 23일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Cho Jeong-Sang
Member : Bang Cheol-Rin, Seung Hchih-Sang,
Shim Young-Seop, Won Dai-Yun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23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2)266-4555

- 월간 '건축사'는 한국건축을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오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차례

1996년 11월호 통권 331호

칼럼	20
건축모형 / 송인호	
논단	22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바란다 / 김인철	
시론	24
건축사협회의 당면과제와 해야 할 일(2) / 최찬환	
특별기고	28
WTO와 건축환경(1) / 박서홍	
책풀리뷰	38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 / 민현식	
대담 / 고성룡	43
비평 / 전봉희	50
학원작품	54
대전 SAY 백화점 / 김자호+이광만+김태집	
청주 사직 1동 성당 / 조구현	60
구리시청사 / 우시옹	64
대한교원공제회 광주회관 / 김인석	70
고향산천 / 최운호	74
신시동 542-8 / 김희곤	80
삼보컴퓨터 시옥 / (주)정림건축	84
개획작품	88
국립환경연구원 및 교육원 청사 / 노형래	
일하며 생각하며	90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 박종기	
기고	91
설계실의 컴퓨터 / 조성룡	
설계자와 시방서(2) / 이중호	94
기획연재	100
한국의 건축가 - 강윤(2) / 김승제	
현상설계경기	106
2002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리포트	116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1) / 이정근	
해외잡지동향	118
동계	122
96년도 9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협회·건축계 소식	124

CONTENTS

VOL. 331 NOVEMBER 1996

COLUMN

An Architectural Model / Song In-Ho 20

PLATFORM

An Opinion for Korean Architecture Awards / Kim In-Cheol 22

FOCUS

KIRA's Present Questions & Tentative Measure(2) / Choi Chan-Hwan 24

SPECIAL FEATURE

Architecture Environment & WTO(Ⅱ) / Park Suh-Hong 28

REVIEW

Sindo Ricoh Headquarters, Asan / Min Hyun-Sik 38

Interview / Go Seong-Ryong 43

Critique / Jeon Bong-Hee 50

WORKS

Taejeon SAY Department Store / Kim Ja-Ho, Lee Kwang-Man & Kim Tae-Jip 54

Sajik Catholic Church / Cho Gu-Hyun 60

Kuri City Hall / Uh Shi-Yong 64

The Korea Teacher's Mutual Fund / Kim In-Seok 70

Go Hyang San Chon / Choi Yoon-Ho 74

Shinsa-dong 542-8 / Kim Hee-Kon 80

Sambo Computer Head Office / Junglim Architecture 84

PROCESS WORK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Ro Heung-Rae 88

ESSAY

Makes a Fresh Start / Park Jong-Ki 90

FEATURE

A Computer in Design Room / Cho Seong-Ryong 91

Architect & Specifikations(2) / Lee Chung-Ho 94

SERIAL

Korean Architects - Kang Yoon(2) / Kim Seung-Je 100

COMPETITION

Asian Game Stadium, 2002 106

REPORT

A Report on the ACA-7(1) / Lee Jeong-Keun 116

JOURNAL TREND

STATISTICS 122

NEWS 12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관악구건축사회/884-0048·강북구건축사회/903-3425·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강동구건축사회/484-6840·강서구건축사회/804-7168·광진구건축사회/735-0905·마포구건축사회/333-5251·송파구건축사회/423-9158·중구건축사회/231-5748·용산구건축사회/717-6607·서초구건축사회/552-8468·은평구건축사회/388-1486·동작구건축사회/815-3026·강남구건축사회/517-3071·노원구건축사회/933-8076·양천구건축사회/653-2892·중랑구건축사회/437-7356·성북구건축사회/922-5117·구로구건축사회/6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3-6662·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096·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676-0458·송도지역건축사회/(033)366-6153·고양지역건축사회/(03463-8902·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6-0545·광명지역건축사회/(02)684-5846·안산건축사회/(0345)80-9150·시흥지역건축사회/(032)68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00·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3708·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출원지역건축사회/52-3307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53-7342

충주시지역건축사회/(0441)847-3082·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8253·옥천지역건축사회/(0476)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서산지역건축사회/(0456)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915·남원지역건축사회/(0671)83-2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여수지역건축사회/(0662)8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구미지역건축사회/(0540)51-1537~8·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660·문경지역건축사회/(0561)53-6677·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868·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6·영천지역건축사회/(0538)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진주지역건축사회/(0501)745-6403·통영지역건축사회/(0567)845-7420·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22·밀양지역건축사회/(0527)335-4848·거창지역건축사회/(0596)43-6020·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거제지역건축사회/(0568)635-3432·삼천포지역건축사회/(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건축모형

An Architectural Model

송인호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by Song In-Ho

이탈리아 피렌체의 대성당의 뒤쪽 블럭에 '성당박물관' (Museo dell'Opera del Duomo)이 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있는 우피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있는 아카데미아, '도나텔로의 다비드'가 있는 바르젤로 등의 미술관에 비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텔 알려진 곳이지만, 건축가들이 찾아야 할 중요한 미술관이다. 미술관에 들어서서 첫번째 방이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Fillipo Brunelleschi, 1377-1446)를 위한 전시실이다. 그곳에는 그가 만든 대성당의 둥근지붕(dome)과 정탑(lantern)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브루넬레스키를 르네상스의 첫번째 건축가라고 말한다. 그 이전 중세시대에 건축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석공의 우두머리나 건축적 재능도 더불어 갖춘 금속공예가나 조각가들과는 다르다. 그는 건축전문가로서 건축주와 계약을 맺고, 책임아래 설계와 시공을 진행함으로써 같은 시대의 다른 예술가들과는 구별되는,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를 정립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설계안과 새로운 시공방법을 제안하고, 건축주와 기술자들을 설득하여 실현하였다. 전시되어 있는 모형들은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피렌체 대성당, '꽃의 성모마리아'의 둥근지붕은 직경 38미터, 높이 114미터이다. 건축가에게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그 높은 곳에 그 큰 지붕을 얹는 시공방법이었다. 브루넬레스키는 홍예발침들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교차방식으로 조금씩 내 쌓아, '스스로 지탱하면서 쌓아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창안한다. 아울러 구조체의 하중을 줄이고 작업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붕면을 여덟개의 뼈대(rib)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뼈대의 안쪽에 맞추어 내력벽을, 바깥쪽으로 마감벽을 쌓아 그 사이에 통로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두 겹질의 사이의 계단과 통로를 지나 둥근 지붕 위로 오른다.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 토스카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 웅장한(L.B.Alberti)' 둥근 지붕 꼭대기에서 장미빛 지붕돌과 멀리 올리브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구릉들을 바라본다.

성당박물관에 있는 '둥근지붕' 모형은, 고면지붕과 그 아래 드럼부

분,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앱스 부분이 남아있다. 중앙의 둑근 지붕은 높이 1미터 직경90센티미터, 어른 키 넘짓한 높이로 전시되어 있는데, 약 40분지 1정도일까? 팔각형의 벽체위에 여덟 개의 리보가, 둑근지붕의 구성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의심하는 건축주들과 두려워하는 시공자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만든 모형이라고 한다.

한쪽에는 정탑의 모형이 있다. 높이 84센티미터 직경 70센티미터인데, 그 모형은 1436년 제작되었다. 둑근 지붕이 건설되고 있는 동안, 이제 확고한 믿음과 존경을 바탕으로 브루넬레스키는 정탑의 모형을 만들었다. 여덟 개의 큰 뼈대와 그 사이에 있는 열여섯 개의 작은 뼈대가 둑근 지붕위 정점에 모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 힘들이 아름다운 정탑으로 모아져서, 황금공과 십자가의 빛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브루넬레스키는 1446년에 죽었고, 이 정탑은 1471년에 완성되었으니, 이 모형은 죽은 건축가를 대신한 셉이다.

모형 한쪽에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아래 브루넬레스키의 데드마스크가 있다. 죽음을 맞이한 건축가의 표정과 건축가의 생각이 담겨있는 나무, 무덤과 같은 그 방이 감동적이었다.

'성당박물관'의 동남쪽, 기벨리나 거리에 '까사 부오나로띠' (Casa Buonarroti)가 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집으로, 지금은 그의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다. 중정이 있는 집, 그리고 아름다운 부조 '제단에 앉아 있는 마돈나', 그것만으로도 낯선 길을 찾아 헤맨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만, 이 집에는 더욱 훌륭한 작품이 있다. '싼 로렌조 성당을 위한 정면모형'이다. 미켈란젤로는 1516년에 베니치가문의 주문으로, 싼로렌조 성당의 정면을 설계하게 된다. 여러 안을 거쳐서, 이 모형으로 안이 결정되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다. 높이 216센티미터, 폭 283센티미터, 두께 50센티미터의 12분지 1 모형조각이란 들에 갖혀있는 영혼을 꺼내는 작

업이라고 했던가. 그 나무 모형에 미켈란젤로의 정신이 살아있는 듯 하였다. 크고 작고 대칭이 중첩되어 이룬 기하학적 구조, 그 모형은 크기와 정교함으로 실제 건물에 못지않은 감동을 전하고 있었다.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건축가의 정신은 오백년을 너머 그 모형에 남아 있었다.

나는 건축모형이 건축가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작품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표현수단이라고 믿는다. 건축은 입체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모형은 그 어느 표현수단보다도 건축가의 설계개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솔직하게 설계안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 주고, 설계안의 장점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요즈음은 가히 컴퓨터의 시대이어서, 모형의 위상이 위축되었다. 이제는 컴퓨터의 삼차원작업을 통하여, 실로 가상현실과도 같은 입체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현상설계에 제출된 도면들을 보면 건물의 안팎을 움직이면서 바라보는 투시도들로 현란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정교하고 환상적인 그림들에게서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얼핏 다 비슷비슷한 그림들, 장면의 구도, 그 안에 서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 금속성의 재료가 잘 어울리는 건물의 차가운 질감 그리고 컴퓨터가 준비한 장면들만을 순서에 따라 보다보면 컴퓨터의 미로에 갇힌 느낌이다. 편리하고 뛰어난 표현도구이지만, 그 안에 건축가의 영혼이 자리할 틈이 좁아보인다.

건축가들의 생각이 담긴 모형들이 많았으면 싶다. 속물적인 건축주를 혼혹하기 위한 예쁘고 정교한 모형보다 건축적인 고민과 그것을 해결하는 개념을 입체적으로 잘 드러내는 모형들의 전시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가 되면, 건축가들의 모형으로 채워진 건축박물관이 있었으면 싶다. 그 모형들이, 이념과 자본의 방향에 따라 어이없이 헐리고마는 건물들보다 더 오래 남아서, 건축가의 고민과 열정을 후배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손을 들어 선서하건대 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하여 티끌만큼도 개인적인 유감을 갖고 있지 않다. 시작도하기전에 서둘러 선언하는 것은 혹시나 상을 받지 못한 섭섭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협회 편찬과로부터 이에 대한 시론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한사코 사양하였던 것은 후보자였기도 하고 언젠가는 혹시라도 수상자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 감히 그것에 대해 시비를 걸기는 참으로 난감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편찬과에서는 내가 올해에 두점을 신청하여 둘 다 현장심사까지 겪었고, 한편으로는 일반공모전의 심사를

맡았던 관계가 있으므로 이 시상제도에 대한 느낌과 제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탁을 받기는 했지만 참으로 거북하다. 쓰기로 한바에야 제대로 하여야 할텐데 이제껏 느슨하게 지내나 보니 공식적인 치례말을 구사할 줄도 모르게 되었고 완곡하게 말을 꾸며 은근하게 빗대는 예의마저 잊게 되었기에 시상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우선 거북한 글이 될지도 모르겠다. 다만 한가지 제

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따라서 우아한 것과 함께 거친 애정 표현도 같은 맥락으로 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상이란 크면 클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어줍잖게 설계를 하고 있는 나도 몇 번인가 상을 받아 보았고 그때마다 기분이 좋았으며 주변에서 축하해 주면 우쭐해 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특강 요청을 해 오는 것도 대개 그때이므로 상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주변의 동료들이 그런 경우가 되면 함께 축하해 주며 '저 친구 한동안 바쁘겠군' 하고 속으로 싱긋이 웃기도 하였다.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하고 싶은 심리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어서 아마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자신의 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 이상은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없을 것이다. 한번 받는 것보다 두번 세번 받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작은 것 여러번 보다 큰 것 한 번 받는게 더욱 좋기 마련이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오스카상의 시상식을 보면 극적인 연출과 함께 수상자들의 화려한 표정에서(그것이 비록 언기라 할지라도)상이 주는 환희의 절정을 짐작할 수 있다. 노벨상의 수상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온 나라가 나서서 바라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것이 굉장한 일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확인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건축에 관련된 이런저런 상이 꽤 많다. 기관, 단체, 잡지 등등 상을 주고 싶어하는 곳이 무척 많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까리끼리 하는 집안잔치이거나 명분을 내건 홍보행사이거나에 관계없이 여기저기에서 상을 주고 또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상주는 것 자체가 경쟁이 되어 수와 격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 방송매체들이 경쟁적으로 벌리는 가요, 드라마, 보도, 디큐멘터리 등의 ○○대상, △△대상을 방송과 수만큼이나 자주 보게 된다. 아무리 대중성을 갖는 분야라고 하여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순서만 조금씩 바뀐 시상내용을 반복해서 보아야하는 것은 고역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바란다

An Opinion for The Korean Architecture Awards

김인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by Kim In Cheol

다. 그것이 미안해서인지 사이사이에 불거리를 끼워놓아 구색을 갖추는 게 그들로서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만들 수 있는 평계가 된다. 성격도 구분되지 않고, 본질도 분명하지 않은,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결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상과 △△상이 둘다 존재하기 위하여 여는 ○○파 △△의 차별성이 우선 설정되어야 하고 그로인한 결과로서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북한 뉴스를 보면 군복전체를 훈장으로 뒤덮다시피한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그들이 안쓰럽게 보이는 것은 군복과 훈장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유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훈장들의 상징과 가치가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의미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양철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목숨을 잃을 뻔한 결과로 달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일 터이기에 더욱 그렇다. 너무 비약이 심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결정된 상의 의미가 수고에 대한 위로인지, 성과에 대한 찬사인지, 가능성에 대한 격려인지를 뚜렷이 하지 않는다면 위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설계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건축을 내세운 이런저런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에 나가는 일이 있게 마련이나. 어쩐지 계면쩍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분위기여서 회할 수 있다면 피하는 편이지만 마냥 그럴 수만도 없다. 그런 경우를 어색해 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건축은 창조적 예술」 운운하는 상투어의 반복 때문이다. 연공서열의 순서대로 단상에 오르는 관료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의 첫머리에 한결같이 그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들으면 건축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연단의 위와 아래에서의 말이 항상 일치한다면 모르지만 건축, 창조, 예술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그토록 쉽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건축은 쉬운것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풍토에서 건설과 건축을 구분하는 것은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다. 반듯하게 잘 지어지기만 하면 건축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건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지 않은가? 아무것도 아닌 건축이 쉽게 대우받고 있는 것은 구태여 예를 들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목메이게 반대해온 건설사의 설계행위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상할 것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건축상에 시공자와 건축주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어서 전혀 반대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은 당초의 목적의 지금은 많이 변형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척박한 사회적 환경에서 건축을 위한 삼위일체의 관계가 강조되었던 것과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지금이기는 하여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에 필요한 새로운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릇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가치가 변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에 대한 검증은 언제나 필요할 것일지도 모른다. 당국과 관련협회와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형 행사에서 건축주에 관련된 시상내용만 유난히 형식적인 것을 보면 쓸데없는 기우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상을 받는 실제대상은 설계와 시공이 된다. 추리소설의 전개에서 수사의 시작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는 쪽을 찾는 것임을 보면 상의 반대급부는 설계와 시공에 관한 것일 뿐 건축주의 경우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명분에 집착하는 건축주가 있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일 것이다.

설계와 시공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되었을 때 모순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설계의 입장이라고 하여서 시공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편견을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설계와 시공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만큼 가치의 척도 또한 별개의 기준을 갖기 때문에 이중의 가치가 하나를 결정하는 이상한 모양이 된다. 잘 다듬어진 설계와 잘 마무리된 시공 이상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답답해진다. 그것은 건축의 기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기에 충실한 것만으로 올림픽의 금메달은 획득되지 않는다. 기본기의 완성에 아직도 연연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을 넘어서는 무엇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며, 예술이자 문화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그것은 기술의 끝이 아니라 의지와 감성의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건축과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나마 아껴야 할 단어를 너무 서둘러 시장에 풀어 놓은 것이 아닐까?

각 분야의 여럿이 모여 하는 심사방법 또한 일반상식이 상의 결론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보편타당함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심사에서의 결과란 응모작의 타이틀을 뛰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모임에서 과반수의 의사가 채택되는 의사결정 방법은 보편적 합리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역사를 보면 안다. 그럼에도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책임임을 면하려는 이기적인 편의주의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심사위원의 설명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명일뿐 그들은 다수라는 또다른 익명에 가려진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 글의 목적도 아니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 대안없는 비판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토론을 위한 문제제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모두 인정한다면 한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이라는 상의 이름을 「한국건설문화대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5. 조직의 활성화

1) 조직의 개편방향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체제, 경영마인드를 가진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협회는 현안 문제해결식에서 벗어나 장기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전향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회장의 임기에 따라 중단되거나 바뀌어졌던 지금까지의 협회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제도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각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 설계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실태를 비교할 때 지금의 협회의 조직구성과 예산집행 대한건축사협회의 목적추구와 기능수행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 일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원들이 협회에 무관심 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

건축사협회의 당면과제와 해야 할 일(2)

KIRA's Present Questions & Tentative Measure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무처리에 오해와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업무의 기획과 예산 그리고 감사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을 살리고 기획기능을 보강하여 대외교섭력을 강화할수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협회내에 특수성있는 소그룹을 포용하고 별도의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중앙정부의 기구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보아왔으며, 이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의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월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개선과 자기 발전적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외부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순응하지 못한다면 쇠퇴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자기스스로의 변혁과 생존의 대처능력이 없다면 외부충격에 의해 개혁과 변화를 가져야 한다. 내부조직의 결속과 의견의 일치는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협회는 회원의 공동 '선'을 위한 조직이며, 개별회원이 구조적으로 갑당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시행해야한다.

2) 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

협회는 회원상호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의 해결에는 전원의 관심사로서 일치된 의견통일과 일사분란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강력한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과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까지 대한건축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개인적인 비리나 품위의 손상이 현저한 회원에게 지나친 포용력을 드러냄으로써 협회의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고 개혁적이고 양심적인 회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보수적이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단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였다. 이제는 문제회원의 발생시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총회 또는 회장단의 결단을 통하여 협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회원간의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에게는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므로써 회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리고 모든 회원이 아끼는 협회가 되어야 하며, 회비징수에 골몰해서는 안된다.

3) 법제연구소의 조직과 기능강화

건축사업무는 설계 및 공사감리가 주종이며, 이는 인·허가를 받게 되므로 행정부에서 규제하는 법·제도가 건축사의 업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입법부나 행정 관리가 일방적으로 제정·개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함께 공공성의 확보 그리고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건설교통부에 제한된 건축공무원이 건축관련법제도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회가 여러 회원들의 실무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연구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회가 개정시안을 미리 마련하여 법·제도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와 같이 행정부가 시안을 마련한 뒤 의견조회를 할 때 이를 검토하고 활기 활부하는 사후처리방식의 즉흥적 그리고 단속적인 대응 방식은 힘만들지, 별 효과가 없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제연구소의 조직강화와 기능활성화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대외교섭력 강화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논리적 체계와 이론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 그리고 지속적 연구가 요청된다.

4) 인력관리

건축설계는 창작활동으로 건축가의 창작력(idea)에 의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건축설계 분야의 발전과 국제사회 속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명성을 가진 유명한 건축가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설계인력의 조직화와 협동작업, 협력체계 등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고급인력의 양성과 창작활동의 지원, 고도한 전문성을 지닌 지원팀 육성 등의 전문인력양성 및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교육제도와 연관되며, 건축가에서부터 설계보조인력까지 그리고 기술자에서부터 기능공까지 전문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설계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보를 위시한 설계보조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정책적인 과제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일차적으로는 협회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해결할 과제이다. 또한 건축사의 교육에 대한 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건축사협회 및 기타 건축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기간은 매년 7일이내, 교육대상자가 필요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사자격자의 건축사협회 정회원에 따른 문호개방을 전제로하여 등록건축사 뿐만 아니라 미등록건축사도 모두 연수 교육 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등록건축사

와 미등록건축사의 특성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교육효과 운영의 묘를 살려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협회의 역할과 기능

1) 열린 협회와 사랑방 모임

협회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결차를 거쳐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으나 일단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지지를 보내고 대외적으로는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포용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사고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누구나 협회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폭넓은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져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열린협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협회공간이 협회내의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행사와 연극·영화공연, 전람회 등이 항상 열리고 있는 개방된 삶이 숨쉬는 공간이 되어 거리문화창달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2) 대의원의 전문성 활용

전국 각지에서 그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 대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대의원들, 사실상 우리 건축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인 이들이 어렵게 모여 토의하는 것은 무언가를 토론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집행부 선임과 예산안 통과 등에 국한되어 있다. 회원 10명을 대신하여 참석한 대의원들은 10명의 회원들이 갈구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총회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의원이 다양한 전문 소그룹을 형성하여 집행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의 의사가 협회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틈에 짜여진 행사진행과 진지함이 결여된 일회성 다행질 발언들, 자기파시형 발언, 대안없는 시비성 문제제기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협회는 회원들의 불만을 들을줄 알아야 한다. 회원들의 소망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협회발전을 고대하는 회원이 일부회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와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불붙여 한데 결집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회원이면 누구나 협회가 리더쉽을 발휘하여 불만을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3) 자금조달과 배분문제

협회에 따른 기구의 확대개편은 불가피 할 것이다. 경제성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각 조직의 경영마인드에 따른 자금조달과 부족한 부분은 지원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협회와 회원들의 잠재력을 배양하고 결집시키는데 협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라는 입장과 공정거래

법에 따른 규제에 의해서,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설계감리비의 덤핑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감리의 원인이 됨은 물론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고 건축사들을 폐쇄시키게 된 물론 협회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문제해결을 해야한다. 건축사의 창작활동은 가격경쟁보다는 질적경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회원들과 협회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리라 본다. 덤핑과 부실한 업무는 건축사의 위상을 낮추게 되며, 건축사들의 소진된 경제적 역량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경쟁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세계화의 작업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건축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덤핑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함을 인식해야 한다.

4) 건축사지원제도

협회에 등록을 하게되는 등록 건축사는 복지회비, 월정회비, 실적회비 등의 각종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기금이나 회비가 건축사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나 공동사업으로 사용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등록 회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등록을 제한하는 역직용의 우려도 있다. 협회는 이와같은 기금이 신규회원의 등록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을 정책적으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협회도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신규등록회원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공제제도

건축설계와 감리용역은 전문업무 분야이며 업무의 수행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건축사의 업무는 재산권을 취급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원유발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한 막중해 고의 아닌 실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보증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건축부문에서의 공제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건설협회 등 다른 전문단체에서는 단체적으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진흥육성법에서도 명문화가 되어 있다. 이와같이 타 전문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제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서 설계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하자보증, 현금지급보증, 계약보증 등의 다양한 공제제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건축물에 대한 각종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한 후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는 하자보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하자보증제도는 크게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가 한안의 문제가 될 것이다.

보험제도가 개발·정착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제제도가 운영은 필요하게 되며,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

임을 지는 신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보험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과도적 단계로서 공제제도를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연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6) 보험과 보증

개방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축설계사무소는 보험과 보증이 전혀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행이 다급한 상황이다.

건축사업부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빠른 시일내에 이에따른 여건을 마련하여 신용사회의 풍토가 정착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방화에 따른 외국업체와 불가피하게 공동계약을 통한 설계를 해야할 경우 사무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업체와의 무리없는 작업을 수행하여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공동으로 외국사무소와의 공동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사회봉사

협회가 틀刎하기 위해서는 국민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한다. 따라서 건축이 소수의 돈많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 모든 국민이 건축사의 업무를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생활에 대단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때 전문영역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고, 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는 개인의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직업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설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나 봉사가 지금보다 한층 확대되어야 한다. 서민주택, 농어촌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사회봉사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본부 또는 시도건축사회별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8) 실비 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

기획설계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보수요율의 책정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기술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설계의 질이 같지 않고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설비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설계가 창작활동으로 볼 때 투입하는 인력과 그 기간이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설계내용과 결과물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설계비 산정방법을 점차적으로 실비 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로 바꿔 설계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 산정방법은 각 설계사무소마다 그 설계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건축설계사무소마다 G&A(General Express & Administration)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G&A은 사무소의 간접운영비를 말한다. 실비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에서 중요한 것은 각 팀에 대한 인원의 직접인건비이다. 각 건축설계사무소마다 팀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비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실

비 정산 건축설계용역비을 산출하는 방법은 G&A비율과 직접운영비 그리고 근무이외에 초과 운임(휴가, 보너스, 예비군훈련, salary overhead) 등으로 산출한다. 설계비는 설계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산출된다. 대부분의 용역비는 실비정산에 의해 산출하고 있다.

7. 연구개발(R&D)의 투자

R&D투자는 종자(種子)에 해당된다. 한해의 수확을 거둘 때 이듬해 농사를 위해 가장 튼튼하고 좋은 종자를 골라 이를 사용한다. 이는 하느님의 법칙이다. 이를 계율리 하면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연구개발의 투자는 UR체제의 출범,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첫번째로 해야 할 방안이며, 또한 생존전략의 한 방편을 위한 것이라 할수 있다. 매년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비율을 살펴보면 포항제철이 2%, 현대자동차가 현재 매출액의 5.3%를 투자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8%로 늘릴계획을 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건설회사가 일반적으로 2%내외를 R&D에 투자하는 것을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설계업무 디자인과 기술개발이 중요시되므로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체보다 R&D 투자비율이 훨씬 늘어나야 마땅하다. 따라서 협회가 R&D 사업을 투자하고 공동으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건축사협회의 R&D투자의 비율은 현재 거의 전무한(0.02%) 실정으로 시급하게 2%정도로 유지하여, 1%는 각 개별건축사사무소가 투자하여 R&D사업을 하고, 나머지 1%는 건축사사무소가 할 수 없는 공동사업을 협회가 맡아서 R&D투자를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 사무소 단위로는 필요한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복투자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협회는 공동화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개별사무소가 하기 힘든 업무서비스를 제공해 집적이익과 공동화 잇점을 살릴 수 있다.

사실 건설업의 해외진출은 매우 활발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니, 설계분야는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투자를 확대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R&D 투자가 매우 저조하다. 95년 전산업의 평균 R&D 투자가 매출액 대비 1.8%이며 일본은 14%로써 우리나라보다 약 7.7배나 높다. 반면 광고선전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매출액의 11.5%를 사용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4.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술개발투자에 역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외면하고 광고선전에 요란을 떨고 있는 셈이다. 어느것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어야 많은 소출은 낼 수 있다. 아무런 연구개발투자 없이 어떻게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건축사협회는 연구개발투자를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하고 출력을 기울여야 한다.

8. 시장개척과 판로확대

건축설계시장이 개방화가 됨에 따라 건축설계의 국내

외 시장개척은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 시장은 주문/판매시장으로서 외국설계업체들의 기술경쟁과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협회를 통한 시장개척과 판로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설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디자인과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건축설계의 발주 조건과 형태가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과제의 발굴 등 새롭고 적극적으로 잠재수요를 개척해야 하며, 종전의 괴동적인 단순주문에 의한 수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축설계의 발주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현상 경기설계, Turn Key, Fast Track 등 새로운 방법이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CM, EC 등 건설업 전반에 큰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여건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충분한 사전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9. 학교교육+실무교육&기존인력 훈련프로그램

건축설계교육도 학교교육에 실무교육을 더한 교육이 필요하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사협회도 회원들의 개별사무소 단위로 훈련시키는 것보다 신규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개별 건축사무소에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개별건축사사무소는 숙달된 기능인력을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 있게하여 실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능인력의 양성으로 공급기능을 확대해야 하며, 개별사무소 단위로 기존인력의 스카웃식의 확보방법은 수요를 부추겨서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0. 결론

21세기 문턱에서 있는 이시대, 우리 건축인은 국내외 적으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 국면에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당면해 있는 지금은 UR과 건설회사의 설계 참여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시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세계화, 개방화시대, 정보화시대로 진입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설계과정, 건설과정이 모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전달 보급관리하는 체계와 능력을 시급히 갖추어서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화시대인 21세기의 건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건축사 활동지원, 인력양성, 정보화, 공동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에서 건축사업부의 기본적 논의, 건축사협회의 과제, 건축사협회의 권익신장방안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설명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일반론에 그친 것 같다. 그러나, 현실상황의 대한 정확한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미래에 대한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WTO와 건축환경(Ⅱ)

Architecture Environment & WTO

WTO 협정의 실체와 관련법 해설

박서홍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위원장, (주)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 WTO의 개요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전세계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이다. 의결기관으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가 있고 일반업무와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이사회(General Conference)가 있다. 각료회의 산하에는 무역환경위원회를 비롯해서 3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서비스교역 이사회를 비롯 2개의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1994. 4. 15 모로코의 마라케ش에서 전세계 111개국이 서명한 ¹⁾WTO

협정은 세계헌법으로서의 구성을 갖추게됨으로서 WTO체제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우리나라도 1994.12. 16 국회 비준이 통과되어 1995. 1. 1부터 가입국이 되었다) WTO 협정은 전문과 16개조문 그리고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 보이는 WTO의 목표는 세계인의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 생산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증대 등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보존·유지해야 하는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²⁾이라는 환경보존에 대한 선언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다. 부속된 협약들은 해당분야의 시장개방을 주제로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MATG,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등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개방약속과 양허조건을 담은 국별 양허표가 첨부되어 협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 WTO의 특징

1. 규범성

WTO는 GATT 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³⁾

2. 포괄성

과거 GATT 체제하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물품교역 분야에서의 사각지대로 배제 되었던 농업분야를 체제에 편입시키는 등 교역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3. 진보성

WTO 체제는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축소·철폐하고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 각국의 교역정책,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캐함으로써 국경없는 교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룸

1) 현재는 UR협상 최종 참가국 수는 125개국임

2) Rio de Janeiro 환경정상회의에서 도출한 개념으로(1992 브라질) Rio Declaration(환경선언)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음 협상의 주제를 강력히 암시하는 것으로 "건축환경"에 관한 우리의 입장 및 기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혁신개발도상국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3) 1948년 이래의 GATT 체제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는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분쟁해결이나 감시기능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특히 선진국들의 상품분야의 경쟁력이 악화됨에 따라 저국의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의 시장확대를 통한 시장개방 측면을 도모하게 됨

□ WTO의 원칙

1. 최혜국 대우

특정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WTO체제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핵심 원칙이다.

2. 내국민 대우

외국인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GATS에서는 내국인 대우에 대한 원칙적용의 구체적인 약속을 국별 양허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시장접근 보장

관세와 조세를 제외하고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GATS에서는 국별 양허표에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투명성

각국의 행정,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 및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하여야 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개방의 실질적인 원칙이다.

투명성의 원칙은 WTO체제의 일관된 원칙이나 국가안전 보장관계, 법집행에의 방해요소, 영업상의 비밀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WTO협정문의 구성

전문 및 본문 (16조)

부속서 1.

- 1-가.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GATT, 1994)
-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⁴⁾
-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부속서 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허

부속서 3. 무역정책 검토제도

부속서 4. 복수국간 무역협정(PTA)⁵⁾

-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
- 국제 낙농협정
- 국제 우육협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 서비스의 정의

지금까지는 농림수산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나 UR에서는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2. 서비스의 종류

1) 업종별 분류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가 없기 때문에 GATT 사무국에서 서비스 분류 목록(MTN.GNS/W/120)을 작성하여 각국에서 양허협상을 진행시키는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 직업분류는 ⁶⁾CPC(중앙 상품분류기준,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하였다. 건축(설계)의 경우는 CPC, 8671과 GNS/W/120, I.A.d로 되어있다.

2)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없으므로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국으로 하여금 지방정부 및 기관들과 비정부기관들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정부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⁷⁾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상업적 차원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서비스는 협정적용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 서비스의 유형

① 서비스의 국경이동(Cross - border supply)

건축설계를 외국에서 하여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

그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②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전항과 대동소이.

설계도서를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경우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외국건축가가 건축설계를 수주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 법인의 설립

- 법인의 인수 또는 유지

- 지사나 대표사무실의 창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영업행위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④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

외국인 건축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설계행위를 함을 의미.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3. 협정문의 구성

GATS 협정문은 본문, 부속서, 국가별 자유화 약속표(양허표)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부 범위 및 정의

제1조 범위 및 정의

제2부 일반적 의무 및 규율

4)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교역을 대상으로 함. UR 서비스입증 분류표(11편, 표 8 참조)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설계)서비스는 사업 서비스중 전문적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발주되는 모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GATS의 규정을 반영 되어야 한다.

5)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개입국가이며 적용되는 협정으로서 우리나라에는 AGT 세부 협약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건설에 대해서는 AGT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우리나라는 1987. 1. 1.부터 적용을 받음)

6) UN에서 작성하여 각국에 배부. 1991

7) 법률에서 정한 고유전환을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 국가/민회(정부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 유전민의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제2조 최혜국 대우
 - 제3조 투명성
 - 제3조의2 비밀정보의 공개
 - 제4조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 제5조 경제통합
 - 제5조의2 노동시장 통합협정
 - 제6조 국내 규제
 - 제7조 인정
 - 제8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 제9조 영업관행
 - 제10조 긴급수입제한 조치
 - 제11조 지불 및 이전
 - 제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 제13조 정부조달
 -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 제14조의2 안보상의 예외
 - 제15조 보조금
 - 제3부 구체적 약속
 - 제16조 시장접근
 - 제17조 내국민 대우
 - 제18조 추가적 약속
 - 제4부 점진적 자유화
 - 제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 제20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제21조 양허표의 수정
 - 제5부 제도규정
 - 제22조 협의
 - 제23조 분쟁해결 및 집행
 - 제24조 서비스무역 이사회
 - 제25조 기술협력
 - 제26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 제6부 최종 조항
 - 제27조 혜택의 거부
 - 제28조 정의
 - 제29조 부속서
 -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 항공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 부속서
 - 해상운송 서비스 협상에 관한 부속서
 - 통신에 관한 부속서
 - 기본 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
 - 상기 부속서 외에 7개의 결정 및 1개의 양허각서가 포함되어 있다.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결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결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 (b)항에 관한 결정
 -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결정
- 금융서비스에 관한 결정
 -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결정
 - 전문직서비스에 관한 결정(Decision Concerning Professional Services)
 - 금융서비스 자유화 약속에 관한 양허각서

4. 주요내용

1)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treatment)

서비스무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각 회원국이 특정 서비스분야에 관하여 한 회원국에서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 즉, 다른 어느 나라에 개방을 한 사례가 있으면 동 서비스 분야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개방혜택이 모든 회원국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투명성(Transparency)

각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무역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수정 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서비스무역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개발도상국들을 국제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혜택과 유보 조항을 둠. 우리나라에는 OECD가입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도국 유보혜택에서는 제외됨

4)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각 회원국들이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을 양당사국간 혹은 여러 당사국들간에 체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종의 자유화 추진방식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추진과정에서는 서비스협정 발효당시의 국별 양허표에 무역장벽을 전부 기재토록 하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무역장벽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 (표-1)참조

5)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각국은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구체적으로 이미 양허한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Reasonable, objectives and impartial manner)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제1항)

① 규제권리(Rcognizing the right of members to regulate) : 국가정책목표(National policy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포함하여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제권리를 인정하고 있다.⁹⁾

② 인가/승인(Authorization)

관계당국은 신청서의 제출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신청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해 주어야 한

8) 건축(설계)의 경우 양허표(표-1)상의 추가 양허권의 외국인축사(이 경우 Architects의 개념은 매우 넓어하나)의 활동규율과 1)의 상업적 주제가 필요하다는 조건은 양후 험상 과정에서도 고수해야만 한 규정이다. 이후의 국내법에 이런 추가 규제는 불가능 하다는 학제적 해석에도 무방하다. (원문은 1권, 표-1 참조)

9) 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로 기술, 자본, 면허요건, 기술 표준 등에서는 이 규장을 활용하여 후후의 험상용 준비성이 대강할 것으로 사료됨.

(표-1) GATS에 의한 대한민국 양허표(설계분야)

주)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d. 건축설계서비스<8671> (Architectural services)	1) 상업적 주재 필요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1), 2), 4) : 96. 1. 1부터 한국건축사와 공동 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Foreign Architects) 의 건축설계 서비스 공급 외국건축사자격을 소지한자는 6개 건축사시험 과목중 건축사법규와 건축설계에 대한 시험만 합격하면 한국건축사 자격취득 가능
e. 엔지니어링 서비스<8672> (Engineering services)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f.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g.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서비스 <8674>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다.(제6조제3항)¹⁰⁾

(3) 면허요건(Licensing requirements)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규제하는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 제4항)

(4) 자격요건(Qualification requirements)¹¹⁾

③ 항과 동일

(5) 절차(Procedures)¹²⁾

③ 항과 동일

(6)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¹³⁾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기초로 하며,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제6조 제4항)

(7) 자격검증(Verify the competence of professionals)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문직업인(건축사 등)
의 자격(건축사면허)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
하여야 한다.(제6조 제6항)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자들의 능력이나¹⁴⁾기준(교육, 자격시
험, 학력등)을 검증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은
국내 규제와 관련하여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
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작업반을 설치하여 자격요건
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에 관한 조치들이 불
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6) 인정(Recognition)

건축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대
부분의 나라가 독특한 자격제도를 운영,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일정 요건의 자격취득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외국 건축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
하기 위해서는¹⁵⁾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자격시험을 통
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고려된 것이 인정제도이다.¹⁶⁾즉 외국의 자격증을 국
내 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한 회원국은
특정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특정국에서 부여받은
면허나 자격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정은 관련
국기가 체결한 협정 등에 기초하거나 자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제7조 1항) 회원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 공동표
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관행에
대한 국제공통표준의 설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간
기구 그리고¹⁷⁾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제7조
5항)

7) 독점 및 베타적 서비스 공급자(Monopolies and

10)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11) IQ 등의 관행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계사 선정방법, 인허가 절차, 진설증의 결차, 일방적인 계약반행 등은 할리성, 객관
성, 공평성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점 빠른 시간내에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사료됨13)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중의 기술표준이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시방서 등). 이점 특히 후술되는 AGP상의 기술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취급
하여야 할 부분이다.

14) Competence와 Qualification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용어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15) 표-1의 긴축설계서비스는 추가 조건으로 단서를 설정하여 외국건축사의 국내 활동을
위한 자격을 규제하고 있다. 이점은 합법적인 국내규제로서 인정받고 있다.16) 서비스무역에서의 장벽(barriers)은 관세(GATT상의)가 아닌 서비스를 규율하는 규
제(Regulation)라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임.17)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 기구)란 NAFTA 협정에서 보이는
relevant Professional bodies (해당 전문기관)와 유사한 어휘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exclusive service suppliers)

많은 나라가 독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독점서비스 공급자의 행동규칙을 정하여 독점지위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8) 영업관행(Business practices)

각국의 특정영업 관행을 인정하되 이러한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한하며, 서비스무역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러한 관행의 철폐를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제9조 제1항)

9) 긴급수입제한 조치(Emergency safeguards measures)

경쟁적인 서비스공급으로 인하여 자국의 서비스공급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10)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시에는 예외 인정함

우리나라는 이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관한 사항은 AGP의 적용을 받음¹⁸⁾

5. 구체적 추진방법과 약속(Specific commitments)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추진방식과 관련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하는 제3부는 시장접근(16조), 내국인 대우(17조), 추가적 약속(18조)등의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시장접근(Market access)

각국이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와 조건에 따라 서비스나 서비스공급자들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제16조)¹⁹⁾ 양허표에 기재하는 경우 국내규제로 간주되는 조치들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경제적 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조치²⁰⁾

② 서비스 총거래액 및 총자산에 대한 제한

③ 총영업량 및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

④ 총고용인력 제한

⑤ 업태제한

⑥ 외국인의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각국이 자국의 양허표²¹⁾에 기재한 분야에 대해서(제17조) 또한 양허표에 기재한 조건(제20조)에 따라서만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국내의 공급자와 동등한 대우와 형식적으로 상이한 경우를 부여한다. 즉 차별대우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6. 결정 및 양허각서

1)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허각서

분쟁해결을 위해서 GATS에는 별다른 절차는 두지 않

18) AGP(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1993. 12. 13 협정체결

19) 대한건축사협회에의 등록이나 설계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사장 된다는 등의 조치는 규제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 경제적 수요조사(ENT, Economic Needs Test)

서비스 공급업체의 설립을 시장의 수요공급 메카니즘에 막기지 않고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가하는 것을 말함.

21) 양허표의 수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부터 가능

고 있다. 대신 양허각서(분쟁해결을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① WTO의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② 패널의 권고안을 자동적으로 채택한다.

③ 상설 항소기구의 설치

④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각종 불변기간을 정하고 있음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결정

① 패널위원의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명부 작성

② 회원국들의 전문가들의 명부 제공

③ 패널은 서비스협정 및 서비스무역 관련 문제들에 대한 유경험자로서 구성 패널은 분쟁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분야에 관한 지식 보유

④ WTO 사무국은 명부 관리

⑥ 서비스 일반협정의 규정이 양허각서 규정보다 우선 한다.

3)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Decision concerning professional services)

협정문 제6조 국내규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 요건에 관한 조치들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규범을 조사·보고하기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party)을 설치한다.

금년 12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료회담의 주제가 전문직서비스 작업반에 의한 “회계서비스” 분야로 되어 있음.

건축의 경우는 1997년부터 작업반(w.p)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다.

이에대한 대비로 우리나라의 각종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는 별개로 1993년 9월에 타결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전문직서비스의

(표-2) 대한민국 정부조달시장 분야별 양허표

• 건축(설계)분야(부속서 Annex 4. 서비스)

GNSW/120	CPC	분야 및 업종	
I. A. d	8671	Architectural Services	건축설계서비스
I. A. e	8672	Engineering Services	엔지니어링 서비스
I. A. f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I. A. g	8674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 건설분야(부속서 Annex 5. 건설서비스)

CPC	분야 및 업종	
511	Pre-erection work construction sites	정지작업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s	건축
513	Construction work for civil engineering	토목
514	Assembly and erection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	조립건축
515	Special trade Construction work	전문건설
516	Installation work	설비공사
517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work	마감공사

주) 한글용어 및 명칭은 대한민국 공식 번역문임.

용어사용에 대한 문의 및 오류는 1편(96. 10. 전축사지)용어면 참조

국가간 상호인정을 힘에 있어서의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 시험, 직무경험, 행동윤리, 지식 등 광범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들은 정부간의 협상전에 해당전문기관(relevant professional bodies, 건축사협회를 의미)간에 의견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NAFTA의 기준은 작업반에서의 실무기준작업에 원용되리라고 본다.

□ 정부조달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1. 협정의 정의

『자국의 물품 및 서비스 또는 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을 제정, 채택해서는 안된다.²¹』고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정부조달 협정은 가입국간에만 적용되는 협정으로서 복수국간 협정이라고도 한다.²²

2. 협정의 범위

우리나라가 정부조달 협정에 포함시킨 부문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물품 및 서비스(건축설계포함), 건설 등 3개 부문과 23개 정부 투자기관의 물품 및 건설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으로(양허금액 하한) 국한시키고 있다. (표-3 참조)

3. 정부조달협정의 구성 전문

22) AGP 가입국은 24개국임.

오스트리아, 카나다, 뱅기아, 덴마크, 스페인, 독일연방공화국,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진랜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일본, 대한민국

- 제1조 적용범위
 - 제2조 가액평가 방법
 - 제3조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 제4조 원산지 규정
 -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 제6조 기술사양
 - 제7조 입찰절차
 - 제8조 공급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심사
 - 제9조 입찰 참가 조건
 - 제10조 입찰 참가자 선정 절차
 - 제11조 입찰서 제출시한 및 납품기한
 - 제12조 입찰 설명서
 - 제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 제14조 시답
 - 제15조 제한 입찰 절차
 - 제16조 오프셋
 - 제17조 투명성
 - 제18조 정보 및 검토 : 조달기관
 - 제19조 정보 및 검토 : 회원국
 - 제20조 이의신청 절차
 - 제21조 기구설치
 - 제22조 협의 및 분쟁해결
 - 제23조 협정 적용의 예외
 - 제24조 최종 규정
- 부속서 1. Annex 1. 중앙정부기관
 Annex 2. 지방정부기관
 Annex 3. 본협정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는 기타 기관
 Annex 4. 서비스
 Annex 5. 건설서비스

(표-3) 대한민국정부조달시장개방기관 양허표(부속서 Annex 1, 2, 3)

구분	해당기관	대상	금액하한
중앙 정부기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조정실, 정무자판(1,2실), 경제기획원, 통일원, 총부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관세청, 대검찰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공업진흥청, 특허청, 해운항만청, 철도청(42개기관, 신하보조기관 및 부속기관 포함)	물품 서비스 건설	130,000 SDR(1.3억원) 130,000 SDR(1.3억원) 5,000,000 SDR(50억원)
지방 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15개 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물품 서비스 건설	200,000 SDR(2억원) 200,000 SDR (2억원) 15,000,000 SDR(150억원)
정부 투자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 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통신, 한국관광진흥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물품 서비스 건설	450,000 SDR(4.5억원) — 15,000,000 SDR(150억원)

주) 1. ISDR(특별인출금)은 약 1,000원으로 환산

주) 2. 서비스는 건축설계를 말하며 설계와 공사는 각각의 금액기준에 의한다.

주) 3. 정부투자기관의 서비스 사항의 공란은 설계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협정의 원칙

1)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본협정이 적용되는 정부조달에서는 모든 법령, 규제, 절차, 관행상 국내업자와 다른 회원국의 공급업자 또는 회원국의 공급업자간에 무차별 대우를 한다. 관세와 부과금에는 예외로 한다.

2)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많은 유보 및 예외조항을 둔다.

3) 가액 평가방법 (Valuation)

조달기관들은 본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액 평가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요구를 분할시켜서는 아니된다.(제2조 제3항)²³⁾

5. 기술사양 (Technical specification)

1) 기술사양 규정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치수, 기호, 전문용어, 포장방법, 마크 및 라벨의 표기방법등과 같이 조달대상물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조달대상물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 및 방법, 적합성의 평가절차에 관련된 요구조건 등 조달기관이 규정하는 기술사양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작성, 채택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 제1항)』

2) 기술사양의 기준

① 품질(Quality) : 주로 시방서에 명기되는 사항으로 각종 재료의 품질 및 기준 (KS 등)에서부터 완성품(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성능(Performance) : 성능시방서의 기준이 되는 요건이다. 각국이 건축의 성능에 대한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국제 통일 규격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준이 선결요건이다.

③ 안전도(Safety) : 건축의 안전도에 관한 기준은 각국이 나르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국가 경제적인 측면과 좁은 의미의 시설물의 안전이라는 양면성을 파악하여 기준을 정하고 향후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²⁵⁾

④ 차수·기호(Dimensions, Symbols) :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자재의 표준에 대한 재전검이 필요

⑤ 전문용어 (Terminology) : ④항과 관계된 것으로서

23) 서비스 금액 1.3억, 2.0억 이하 임은 설계비가 기준기(1.3억, 2.0억)이상일 경우는 모두 개방(국제입찰형식)되는 것을 뜻한다. 또 설계가 개방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 말주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는 국제입찰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계도, 시방서 등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외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24) 본 협정에서 사용되는 조달기관(governments)은 그 관할기관(agencies)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계약가액(value of contracts)은 평가함이 목적이다. 또한 건설공사 등에서 자주 보이는 분할발주나 분리발주 등을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5) 시방·선진국들도 이 부분에서는 철저한 의견 갈등이 증폭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간극을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6) 기술규정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나 이를 관리하는 처리과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서 강제적인 행정명령도 이에 포함된다.

27)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나 공급자를 등록이나 조달절차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8조 ⑥항)

28) Multilateral Trade Organisation, 다자부역기구 WTO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맨땅

29) 현상설계경기에 의해 계약자를 결정하는 것.

30) 국산화 비율 지정, 기술라이센싱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거나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설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성능시방서 :『디자인 또는 외형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해야 한다. (제6조 제2항 ⑨)』② 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자체시방서의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능시방서를 일부에만 적용하는 구상도 고려해야 한다.

⑦ 특정 상호나 형태 사용 : 입찰서에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언급은 허용이 안된다.

- 특정 상표나 상호
- 특정 디자인이나 형태
- 특정 서비스 제공자나 특허

⑧ 표준 : 인정기관에서 승인한 문서로서 물품 또는 서비스나 이들과 관련된 처리방법 또는 생산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 특징 등을 보편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으로 기술사양은 국제표준에 따라야 한다. 단,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²⁶⁾기술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또는 전축기준법에 따를 수 있다. 예를들면 KS가 아니라 ISO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6. 입찰

1) 정의

① 공개입찰 (Open tendering procedures) :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

② 선택입찰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 조달기관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한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

③ 제한입찰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 조달기관이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를 개별적으로 접촉 선정하는 절차.

④ 입찰자격 : 외국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서비스 제공자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2) 자격심사 (Qualification)²⁷⁾

① 기업의 능력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만 국한되어야 함.

② 심사과정과 소요기간은 투명하여야 함.

③ 단일한 자격심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3) 조달참여 (Invitation to participate regarding intended procurement)

① 참가초청은 조달공고(Notice of proposed procurement)형식을 취한다.

② 참여초청은 다음의 공고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계획공고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 자격심사제도 공고(Notice regarding a qualification system)

③ 조달공고²⁸⁾

MTO공용어중의 하나로 요약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계약의 주대상물
- 입찰서 제출 기한

· 계약관련서류 입수 장소

4) 입찰서

입찰서를 제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최소 10일 이상 40일 이내) 제출, 접수 기준을 마련함.

5) 입찰설명서 (Tender document)

조달기관(발주자)이 서비스 제공자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로서 다음 정보 및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다수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중 MTO공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용언어

③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설명, 기술사양의 충족, 품질보증, 설계도면, 설명서 등

④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기술적 요건, 재정보증 및 기타 정보

6) 시담 (Negotiation)

시담은 주로 입찰서의 장단점을 확인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7) 제한입찰 (Limited tendering)²⁹⁾

디자인 경연대회(Design contest)의 우승자에게 낙찰하는 계약의 경우, 단, 디자인 경연대회는 본 협정의 원칙에 따라 조직 하여야 하며 특히, 조달공고(3항)에는 본 협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오프셋(Offsets)

조달기관들은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 과정이나 선별과정에서 또는 입찰서의 평가나 낙찰과정에서 오프셋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³⁰⁾

8. 회원국의 의무

1) 회원국은 타회원국이 요구하는 경우 정부조달절차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본 협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조달에 관한 기본적 통계자료를 수집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9조 제4항)

4) 본 협정에 위반사례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기된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타 이해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9.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1)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WTO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사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BS라 함)

DBS는 개념의 구성, 사안에 대한 권고 또는 판결, 감시의 권한등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허가할 권한을 갖는다. 또 패널에는 정부조달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10. 국내입법(National legislation)

1)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기입한 정부는 본 협정의 발효일 이전까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와 본 협정 Annex에 게재된 조달기관이 적용하는 규칙, 절차 및 관행 등이 본 협정의 제반규정에 따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본 협정에 관련된 각국의 법률 및 규정의 변경사항과 그러한 법률 및 규정 운용상의 모든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CPC기준에 의한 설계의 종류 및 구분

우리나라가 양허한 전문직 서비스중 건축 및 도시관련 업종은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건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건축관련 서비스 양허 내용

CPC	분야 및 내용
867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8671	Architectural Services(건축서비스)
86711	기획 설계 서비스(Advisory and pre-design architectural services) 건축관련 문제에 대한 협조와 자문 및 추천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획단계에서 연구되는 (preliminary studies) 문제가 포함된다. 예를들면 대지관련 사항 (site philosophy), 개발취지(intent of development), 기후와 환경관련 사항(climatic and environmental concrns) 건물 사용에 관한 사항(occupancy requirements), 부지선정의 분석(site selection analysis) 설계와 공사의 예정계획수립 등이다. 그 외에도 건물유지관리에 대한 조언과 건물의 개보수나 재활용(renovation, restoration, recycling), 절과 가치에 대한 강조평가도 포함될 수 있다.
86712	건축설계서비스(Architectural design services)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설계 서비스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①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services) 건축주와 함께 프로젝트의 중요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프로젝트의 취지, 공간적 요구사항, 예산과 시간 계획을 정하며, 배치도(site plans), 평면도(floor plans), 외부입면도(exterior views)와 관련 스케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② 기본설계(design development services)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의 배치도, 형태(form), 사용재료, 구조(structure), 전기 및 기계 시스템과 예상공사비를 준비하는 단계를 말한다. ③ 실시설계(final design services) 입찰과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도면과 시방서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필요시에 건축주에게 전문가로서의 조언(expert advice)을 하여 주는 것과 입찰자를 선정하는 직업에 도움을 주는 과정도 포함된다.
86713	현장지도(관리)³¹⁾ 서비스(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 건축주에게 공사기간중 조언 및 기술적 보조 서비스(technical assistant services)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건설이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사무실과 현장 어느곳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사감독(construction Inspection), 공정보고서 작성, 기성에 대한 지불확인서의 서명, 계약도서에 대한 해석, 공사기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조언도 포함된다.

CPC	분야 및 내용	CPC	분야 및 내용
86714	건축설계와 현장지도의 복합서비스(Combined architectural design and 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 건축설계와 현장지도 서비스의 일괄수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이는 또한 완공후 1년(12개월)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결정 및 보수방법에 대한 지시등 건축물 완공후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수조절시설, 타널, 고속도로, 도로, 인터체인지 및 관리시설, 수문, 운하, 부두, 항만, 상·하수시스템, 호수, 공업용 하수, 분뇨 및 오수 처리장 등 토목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 설계 종류 및 단계는 86722에서의 구분과 동일하다.
86719	기타 건축서비스(Other Architectural services) 건축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서 예를들면 재료의 선정, 준공도면(as-built drawings)의 준비,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현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운영자료(operating manuals)의 준비 등을 말한다.		
8672	공학기술서비스(Engineering services)	86725	공업체품 및 제작공정에 대한 기술적 설계 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for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ion) 생산공정 및 시설에 대한 기술적 설계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나무의 절단방법, 처리, 운반, 적재장비, 또는 광산개발에 대한 배치 및 지하공사와 쟁도, 펌프장, 파쇄기, 콘베이어, 찌꺼기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또 정유가공 공정 및 공사, 굴착장비의 유지보수, 석유관련 시설을 말하여, 제조공장의 자재 유통, 장비배치, 재료처리시스템과 특수기계 등의 제품생산과 설비에 대한 기술적 설계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설치단계의 서비스도 포함되며 만일 생산공장 또는 사설의 일괄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물의 기술적 설계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 설계 종류 및 단계는 86722에서의 구분과 동일하다.
86721	기술자문 서비스(Advisory and consultative services) 공학기술적 문제에 관련된 보조, 자문 및 선정작업 서비스를 말한다.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와 프로젝트의 과급영향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① 저항과 지질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도로, 파이프라인 또는 다른 매설 배관설비의 비용과 공사에 관한 연구 ②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의 질과 적정성 여부에 관한 연구로서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공사 및 설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③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에 관한 연구 ④ 내안으로서 공정이나 기술 또는 공장배치(plant layout)를 함으로서 생산에 효율적인 소득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도 해당된다. ⑤ 이상 열거한 서비스외에 직접공사에 관련이 없더라도 건물의 구조나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관한 감정평가와 소송전에 있어서의 전문가로서의 증언과 정부 입법안 수립시 보조역할도 포함될 수 있다.	86726	미분류 기술적 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n.e.c) 기타의 특수 기술적 설계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음향, 전동공학, 교통통제시스템, 새로운 제품과 특수 엔지니어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제외 : 제품의 미적(美的)인 면이 요구되는 설계와 복잡한 엔지니어링이 필요치 않는(예 : 가구)제품으로 복합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는 것은 별도의 87907(특수디자인 서비스)에 분류하였다.
86722	건물 기초와 구조에 대한 공학기술적 설계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for the construction of foundations and building structures)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공공건축 등의 구조(내력)에 대한 기술적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설계개념을 공학기술적으로 반영하는 단계로서 ① 준비계획(preliminary plans) ② 시방서(specifications) ③ 예상견적(cost estimates)과 설시설계단계에서 ① 최종계획(final plans) - 실시설계도면(working drawings) ② 시방서 - 사용재료 명세서, 설치방법, 시기제약 등 명시 ③ 견적서(cost estimates)를 말한다. 또 필요시에 건축주에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여 주는 것과 입찰자를 선정하는 작업 및 시공중에도 도움을 주는 과정이 포함된다.	86727	공사중의 기타 기술적 서비스(Other engineering services during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phase) 공사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기술적 보조서비스로서 실시설계(final design)에 따라서 시공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축주에게 확인(ensure)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86713(현장지도서비스)와 연관된 기술분야의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사무실과 현장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① 현장시공도면(Shop drawings)의 검토(review) ② 시공공정과 품질에 대한 평가(assess)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방문 ③ 건축주의 시공자에 대한 기술적 의문사항의 해석 등이 포함 된다.
86723	건물의 기계와 전기 설비의 공학기술적 설계 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for mechanical and electrical installations for buildings) 모든 건물의 전력, 조명, 화재경보, 전신, 전화시스템과 기타 전기적인 설치와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설비 및 기타 기계적 설치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 설계 종류 및 단계는 86722에서의 구분과 동일하다.	86729	기타 공학기술 서비스(other engineering services)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타의 지질, 자연수, 등에 관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86724	토목공사에서의 공학기술적 설계 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for the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works) 토목공사에서의 공학 기술적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리, 육교, 댐, 집수정, 옹벽, 관개수로시스템, 홍	8673	공학기술의 통합 서비스(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86731	턴키방식의 운송시설을 위한 공학기술의 통합 서비스(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f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urnkey projects)
		86732	턴키방식의 상수 및 위생시설을 위한 공학기술의 통합 서비스(Integrated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ervices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works turnkey projects)
		86739	기타 턴키방식의 공학기술의 통합서비스(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for other turnkey projects)

31) 작역을 하면 "계약관리 서비스"로 하여야 하지만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설계감리"를 뜻 하므로 여기서는 현장지도(관리)로 하였다. 또 건설기술관련분에서 사용중인 설계감리의 용어 또한 설계 자체를 감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계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전 형후 건설관련법 정비시에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신도리코 야산공장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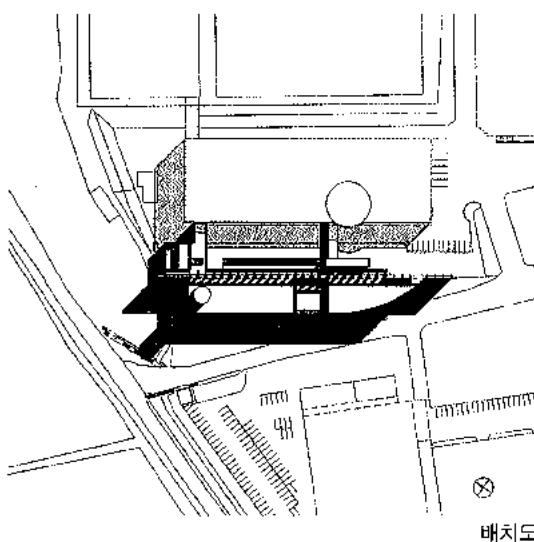
Sindo Ricoh Headquarters, A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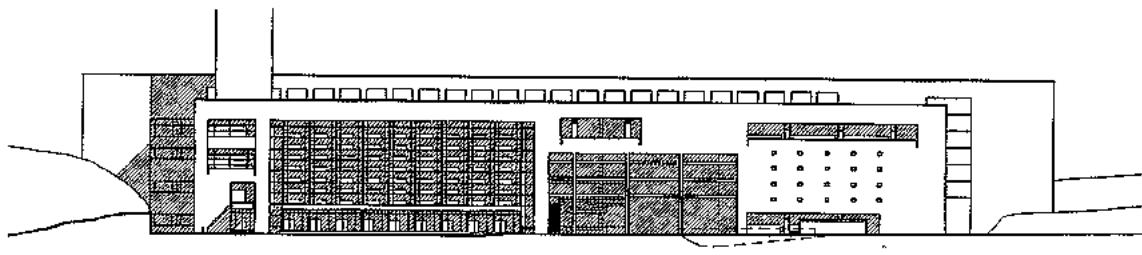
민현식 / (주)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로재
Designed by Min Hyun-Sik



전경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남동 1번지
지역 · 지구 / 도시설계 미수립 지역
대지면적 / 147,132.00㎡(44,507.43평)(※ 공장전체 대지면적)
건축면적 / 2,222.40㎡(672.28평)
연면적 / 7,787.38㎡(2,385.68평)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인조
최고높이 / 33.0m
층고 / 3.75/4.5m
주요설비방식 / FCU+AHU
주요용도 / 업무시설
외부마감 / 외벽 / 석재밸브, T 24 복층유리, 75×150AL BAR
내부마감 / 바닥 - 비닐시트
벽 - 애벌건 페인트
천장 - 암면홀음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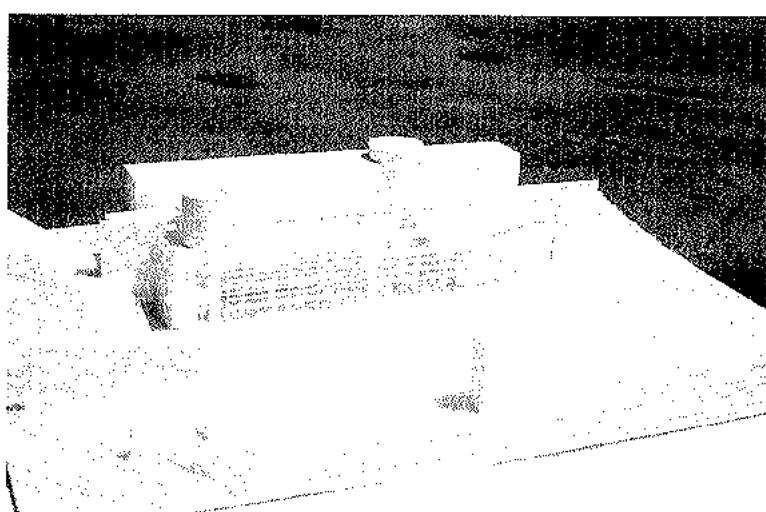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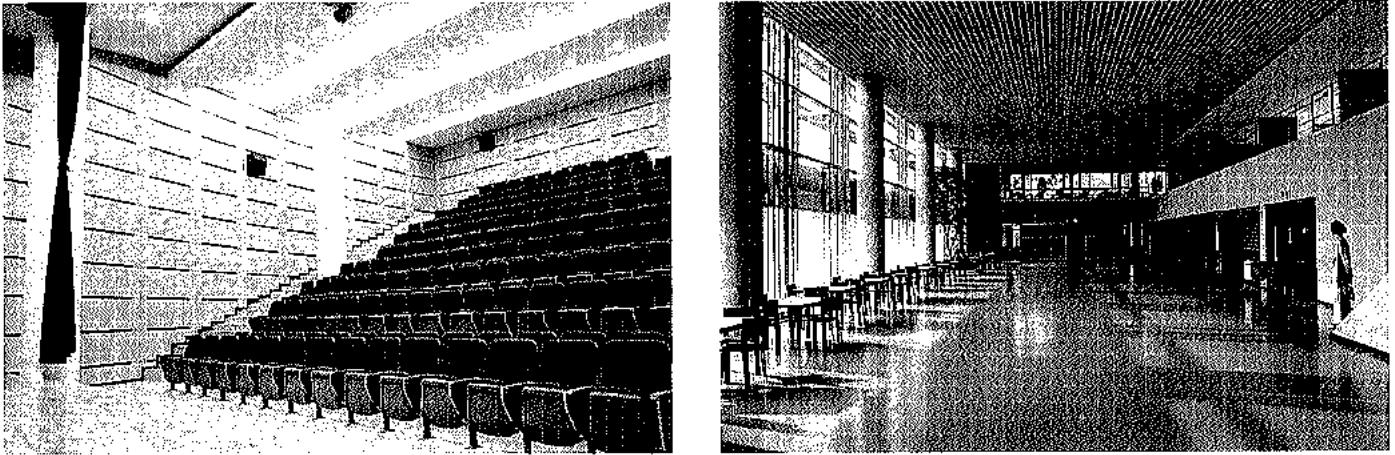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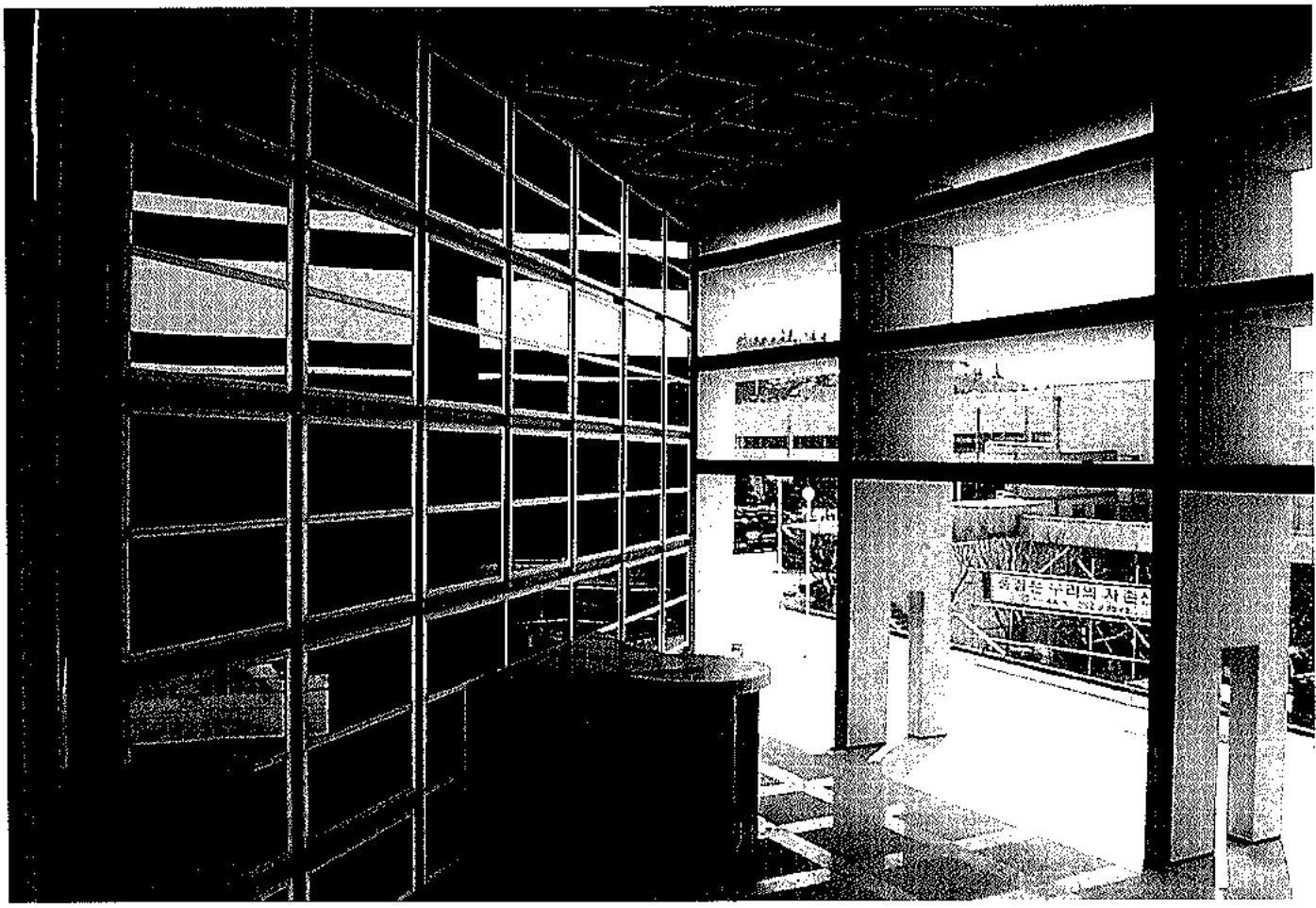
모형도

주차대수 / 299대(※ 공장전체 주차대수)
조경면적 / 31,929.60m²(※ 공장전체 조경면적)
설계담당 / 이민아, 류두목, 유석연
건축주 / (주)신도리코 대표이사 우석형
시공자 / (주)두산건설
공사비 / 60억원(약 255만원/평)
설계기간 / 1994. 3~1994. 10
공사기간 / 1994. 12. 17~1996. 6. 10
구조설계 / 서울구조
설비 / (주) 한일 MEC
전기 / (주)문유현 전기설계사무소
조경 / 세안조경
조명 / KDA
인테리어 / KDA



교육장

식당



피로티 1

신도리코 아산공장 지역은 80년대초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그이후 1987년에 수립한 마스타프랜에 의거하여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거듭하여 서울 성수동의 본사지역과 적정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도리코의 제품생산을 주기능으로 하고 그에 부수되는 사무기능, 사원연수기능, 숙소기능, 복지기능 등을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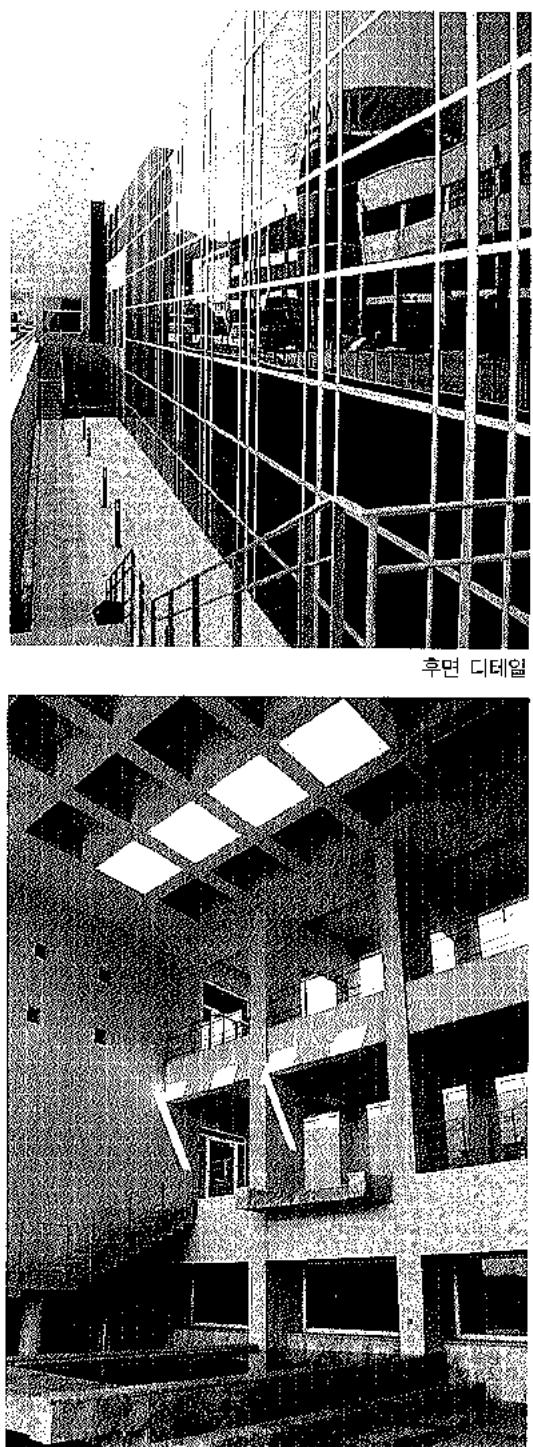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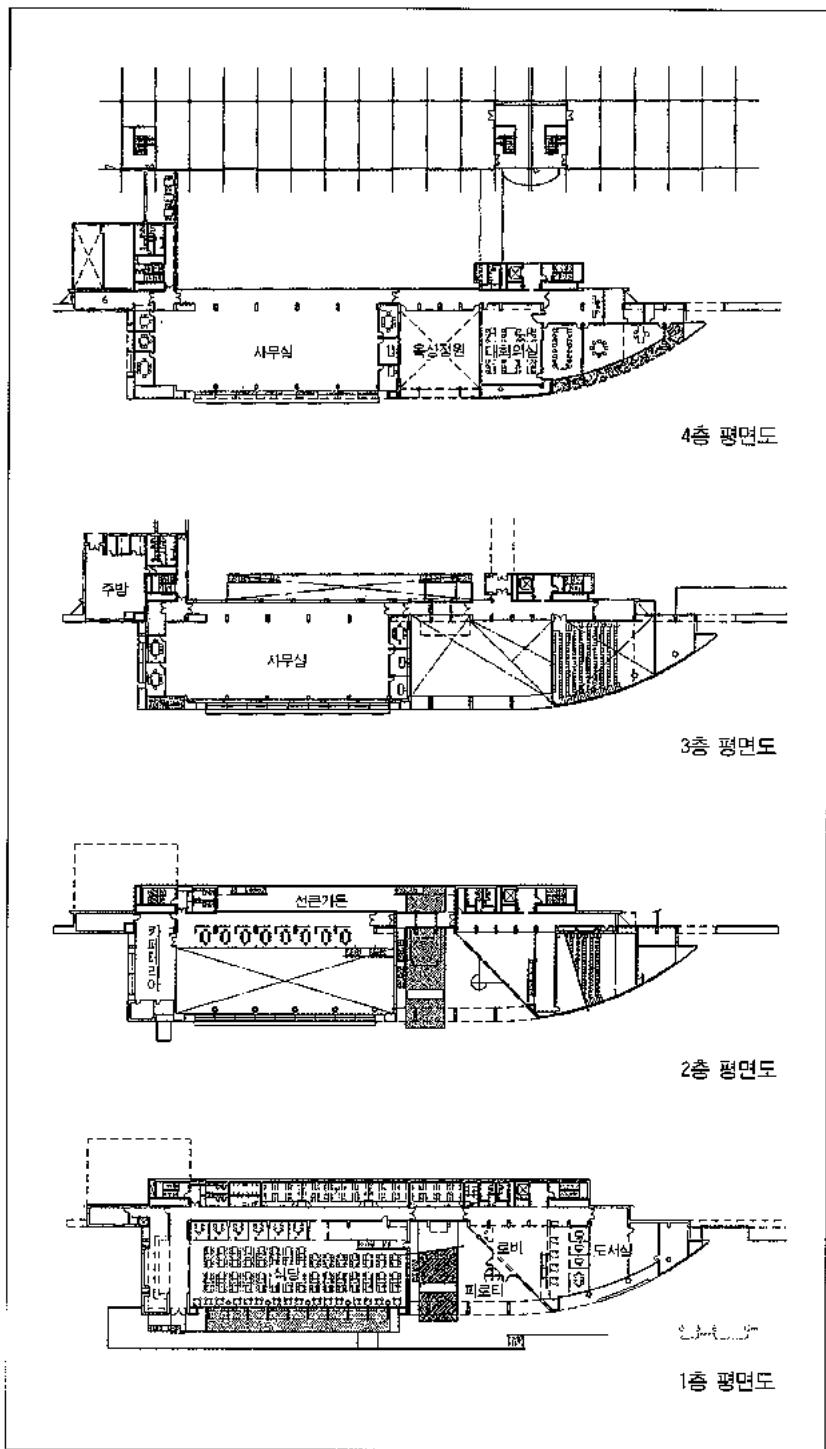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도리코 주생산품인 OA 기기의 수요증폭과 사세의 획기적 도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스타프랜이 재수립되었고 이번에 준공한 본관은 이 마스타프랜의 단계별 성장 체계에 따라 계획, 건설된 것이다.

일반적 관례에 따라 이 건물이 '본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는 되었지만 정작 이건물은 공장지역의 생산과 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고있다. 즉, 대식당을 포함하는 사원복지기능, 일반사무기능, 각종행사, 홍보 및 레크레이션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극장, 필요시에만 개방되는 최고 임원실과 VIP 회의실 등 사용시간대에 있어서나, 공간의 크기 및 활동 패턴에 있어 서로 극히 다른 다양한 조건을 가지는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다.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요구조건을 가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단일 건물에 담는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주어진 대지조건 역시 그리 쉽지 않다.

이곳 아산공장 부지는 생산공장 단지로서의 지형상 조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비교적 급경사의 낮은 구릉과 계곡을 절토하거나 성토하여 건축대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건축 대지들은 서로 10m 내외의 심한 높이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급한 법면과 용벽이 구축되었고 이러한 각각의 대지는 급경사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관이 들어설 땅 역시 좁고 긴 땅이며 기존의 S-공장과는 7.5m 진입도로와는 평균+6m의 높이 차이를 가지는 어려운 땅이다. 이러한 지형상의 별난 조건과 지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 일여년이 넘게 괴롭



하기도 했고 즐거움을 주기도 했다.

땅의 지형상의 악조건은 이미 땅자체가 3차원의 건축공간이란 점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이고 다양한 공간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2차적 배열이 아닌 3차원적 배분을 유도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몇가지 중요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우선 S-공장동과의 사이공간을 자극히 의도적인 좁고 긴 미당으로 만드는 일이다.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 새건물을 끼워 넣어야 할 경우 그 사이에 어차피 생기는 공간을 의미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이럴때 항상 나는 미켈

란젤로가 로마의 캄뻬들리오 광장을 만든 블라운 건축술을 교과서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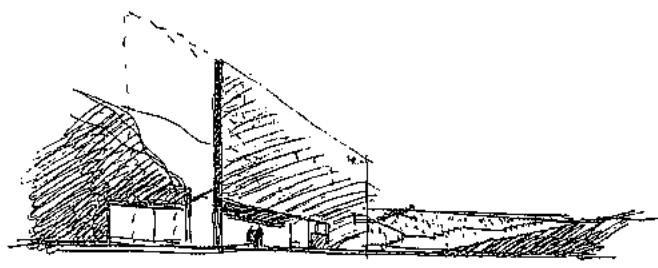
세밀하게 치수를 조절하여(WLH = 16×96×16m) 공간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이 긴장감은 남측 성태산정으로 향하여 열려 있도록 한다. 이 마당은 일상 중에서 문득문득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번째, 약 10m높이차가 있는 두개의 그라운드 레벨(G, L)을 가진 땅에 식당, 극장 등을 두개층이상 볼륨을 가지고도록 하여 이곳에 3차원적으로 배분하고 그곳을 해집고 다니는 동선망을 구축하여 동선과 공간의 유기적 체계를 극대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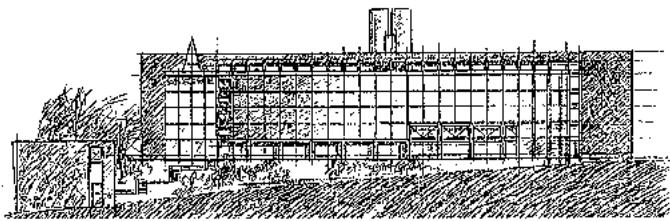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은 크게 비워낸 중간부에서 극명하

게 드러내 보인다. 이 건물의 종단면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이곳에 서면 누구나 이 건물 공간의 조직을 쉽게 감지하고 즐기게 될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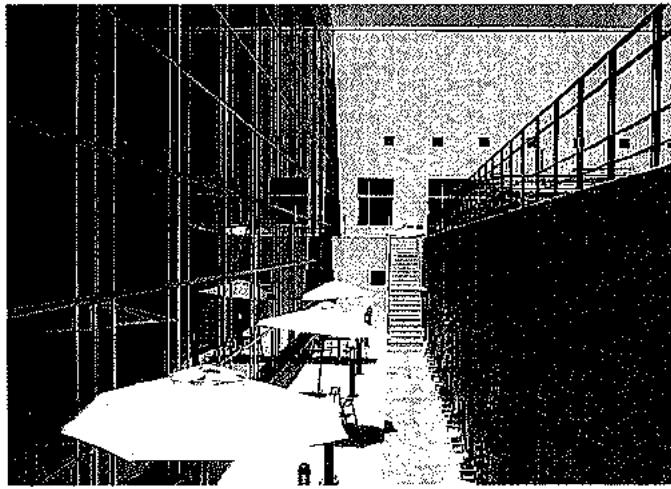
세번째, 이러한 공간의 화려함을 더욱 건축적으로 만들기 위해 재료와 색깔 등은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만든다. 모든 표면은 공간의 배경이 되도록하여 그속의 생활이 오히려 전경이 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을 또다시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이 단순함은 서측 태양빛을 받게 되는 옥내외의 공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지하도록 도울 것이다.〈민현식〉



진입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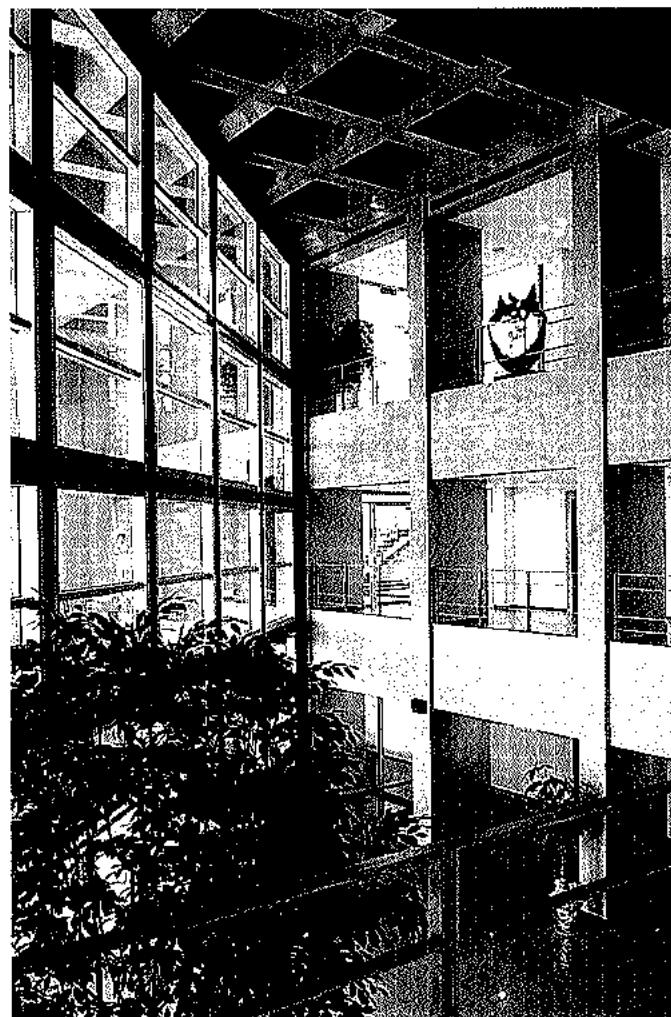
본부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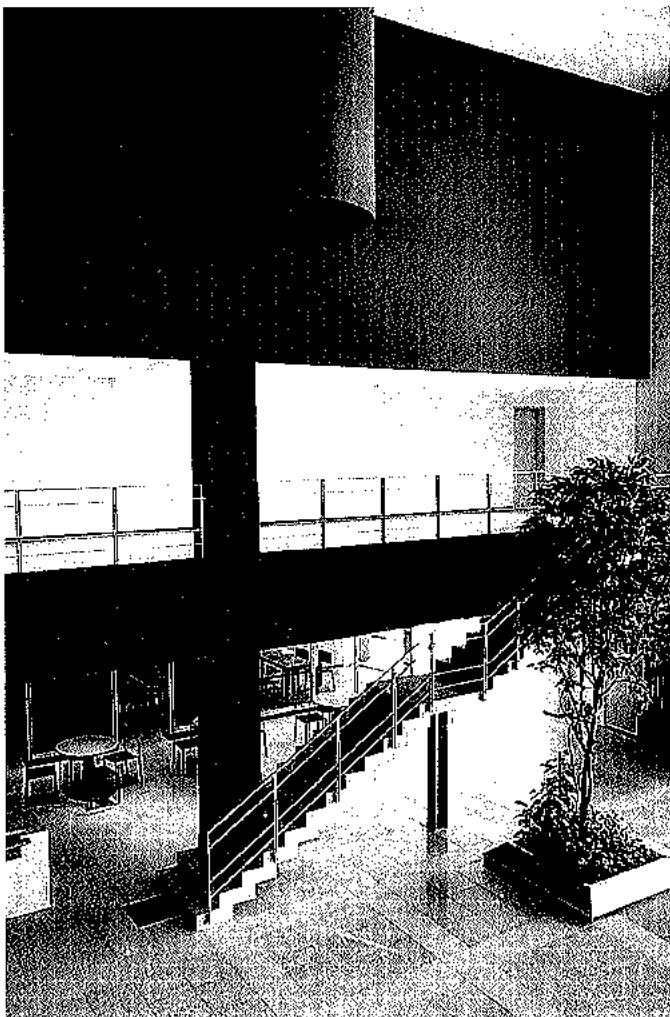
선큰기둔



측면



로비 1



로비 2

신도리코아산공장 본관을 설계한 건축가 민현식과의 대담

대담자 : 고성룡(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장 소 : 종합건축사무소 이로재(민현식건축연구소)

일 시 : 1996. 10. 23. 1630



대담광경(좌 : 고성룡, 우 : 민현식)

결과로서의 건축테마

고성룡 최근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을 완성하셨습니다. 건물에 대한 비평이 따로 마련되므로 이번 작품과 민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건축에 대해 폭넓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간 선생님의 작품속에는 늘 "마당(중정)", 벽, 도로, "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에서는 이러한 건축테마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민현식 이전 작품 중 신도리코 기숙사에서는 벽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국립 국악중고등학교에서는 마당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은 생각하는 방법이 뒤집어졌다고 해야할 지 순서가 틀렸다고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벽, 마당, 길 등 건축의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혹은 자신이 정의한 건축적 요소들을 이번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의 경우처럼 오히려 대지의 독특한 조건에 따라 벽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보면 건축의 현상학적 성질을 연구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립 국악학교의 경우는 대지의 특성보다는 우리 국악연주를 배우는 학교의 프로그램 때문에 따른 결과로 마당이 고려되었습니다. 종묘 재래악이나 전통음악이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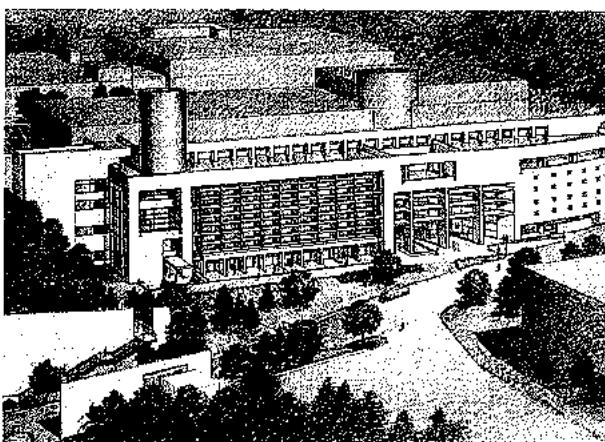
보다는 실외에서 많이 연주됩니다. 바로 이런점 때문에 육외연주를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마당과 외국 마당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설계에 도입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중성적 공간이라던지 비움의 미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를 매 프로젝트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이나 사이트의 특성을 근거로하여 테마나 컨셉을 설정하고 풀어갑니다. 때문에 어떤이들이 당신이 건축적 테마로 갖고 있는 어떤 개념 - 벽, 길, 마당-이 현재 작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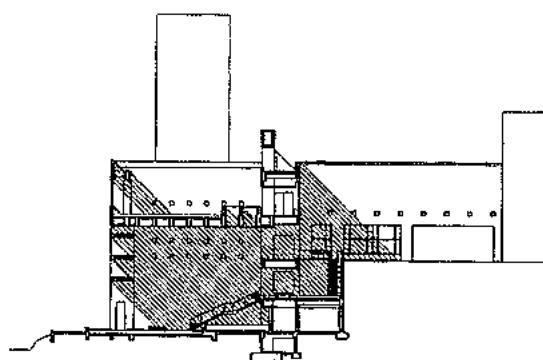
잃어버린 정신적인 것을 일깨우는 좁고 긴마당

고성룡 이번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에서의 마당은 외견상으로는 좁고 길어 긴장감마저 줍니다. 마당깊은 집이나 국악학교에서 보여주신 중성적 공간이며 동시에 비어 있음을 알리는 이전의 마당과는 달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현식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마다의 생각이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마당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을 설계해 나가면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



투시도



종단면도

다. 예를 들자면 성수대교를 비롯해 끊임없이 계속되는 붕괴 사고들, 지난 90년대에 일어난 세계의 여러 사건들과 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현대문명의 딜레마들, 특히 황금만능주의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등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번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의 좁고 긴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폭이 좁고 깊이가 깊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좀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러나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는 그리고 열려 있는 방향이 가능하면 절대자연이면 더욱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예는 대단히 많습니다. 칸의 소크 인스티튜트 같은 공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 가장 큰 딜레마, 즉 너무 돈이나 물질을 우선하다보니 상실하였던 정신적인 것으로 좀 더 향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좁고 긴 마당에서 긴장하고 다시 절대자연, 근본적인 자연으로 열려 짐을 통해 문득 자기자신을 느껴보는 것 같은 정신적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당이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넓고 평평한 곳에는 공장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본관 대지는 공장이 들어서고 남은 짜틀리 땅이나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을 써야 했습니다. 따라서 공장 앞의 경사가 심한 곳에 땅을 깎아, 기존 마당을 사이에 두고 공장에 덧붙여 내어야 했으며 이 때 생겨나는 공간에 관심이 쏠렸던 것입니다. 거창한 예를 들면 깜빡깜빡리오 광장의 경우처럼 미켈란젤로가 기존의 구조내에 새로운 건물을 덧붙여 옥외공간을 형성하고 엘리베이션을 조정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창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과 경사진 기존 지형에 맞추어서 적당한 너비를 만들고 거기에 알맞게 높이를 조정하여 마당공간의 크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커지거나 좁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따라서 이 마당의 성격은 국악 학교의 중정이라기보다는 마당깊은 집이나 신도리코 새 기숙사에서 보이는 또는 국립박물관 현상설계안의 중정이나 의정부 교회의 마당 성격에 더욱 가까울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성격의 마당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몇 개가 완성되고 나면 묶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좁고 긴 마당을 통해 의도된 팽팽한 긴장감을 느낌과 동시에 한쪽으로는 절대 자연이나 근본적 자연으로 열려짐을 통해 문득 자기자신을 느껴보는, 일종의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기능으로서의 벽, 공간인식좌표로서의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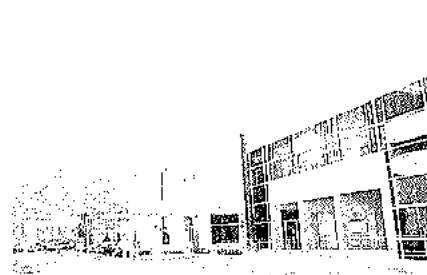
고성률 두 번째로 민선생님의 작품에서는 “벽”이 역시 주요테마이며, 대개 벽이 중첩되어 쓰여져 일면이나 매스의 형상을 결정짓는 여러층의 케 (layer)로 나타나는데, 이번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에서의 벽은 어떠합니까?

민현식 크게 보면 이런 종류의 생각 즉, 벽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 사이 틈을 파고 들어가면서 레이어가 놓인 공간을 통해 여러 공간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제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신도리코 기숙사에서는 무장식의 빈 벽을 세워서 그것이 현란하게 변하는 논 바닥의 변화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는 방아쇠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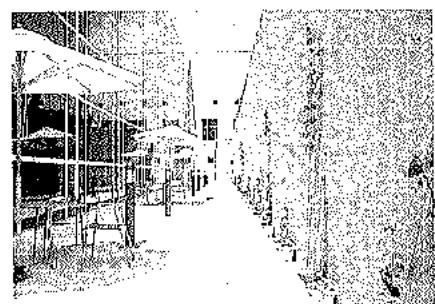
그러나 이번 본관에서는 그와는 다릅니다. 보통 집이라면 두 개의 진벽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 벽들 사이에다 큰 벽을 다시 끼워 넣은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폭 1미터 200에 길이 100미터가 훨씬 넘는 큰 벽을 세워 놓고 앞뒤 공간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앞의 공간은 모두 사무실 같은 기능실이 있고, 뒤에 붙여져있는 것은 복도처럼 동선에 해당하는 실들입니다. 그 사이에 큰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능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털리티 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벽 안으로 설비가 지나가고 그래서 두껍습니다. 오피스쪽에서는 그 벽 안에 복도와 사무공간을 연결하는 부속실이나, 소위 기능실이 제대로 역할하게하는 보조공간인 창고나, 캐비넷이나 가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공장사이의 마당 1



공장사이의 마당 2



선근가든

그러니 여기 세운 가운데벽은 신도리코 기술사의 벽과는 달리 상당히 가능적입니다. 그런데 기능적이면서 기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내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이 벽을 보게 되는데, 이 벽이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하고 경사지에 걸쳐 있어 생기는 수직방향의 혼란을 없애는 층개념을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외부공간에서는 물리적으로는 경사진 대지의 옹벽 역할도 하며 질서를 나누는 가름벽이기도 합니다.

건물정면의 입체화된 그리드

고성룡 건물 파사드에 자주 등장하는 그리드가 이전 작품들에 비해 이번 본관에서는 여러 층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쓰여졌는데, 건축 파사드에서 그리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민현식 보통 건물을 설계할 때 그리드를 씁니다. 입면에서 수직그리드는 그 건물의 스페이스 모듈을, 수평 그리드는 기능과 관계됩니다. 저는 설계작업 처음은 그리드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건물기능이 오피스이므로 모듈을 정하고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수평, 수직 그리드가 꼭 기능에 따르는 것만은 아니고, 그 비례는 전체 건물의 불륨에 의해 영향받기도 합니다. 본관의 경우는 층고 약 4.5미터를 1.5미터씩 잘라 순전히 기능에 의해 그리드를 만들고 여러 입면을 그려 보았습니다.

한편 입면에서 그리드가 깊어져 두터워 보이는데 이는 가운데 벽이 두꺼워진 것처럼 외피가 두꺼워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텁다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두터워지면 빛에 의해 그림자가 강해집니다. 두터운 그리드가 개인적인 선호일지 모르겠는데 입체적인 그리드를 만든 것은 정면이 서향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쪽 햇빛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즈 솔레이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입체그리드를 채널로 만들고 그 사이를 본래는 알미늄 유공판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 싼 그레이팅으로 마감하는 바람에 실제 효과는 줄어들었습니다. 벽체의 재료는 본

래의 의도를 살렸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장식재로서의 효과만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쪽 햇빛의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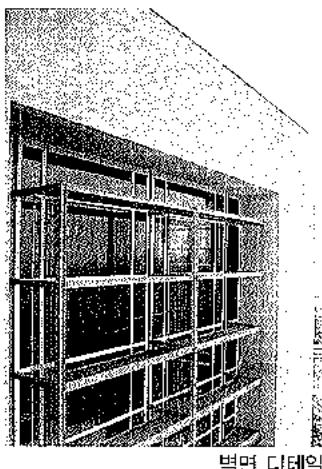
고성룡 여러 겹의 벽 사이나 둘러싸인 마당으로 도입되는 빛의 이야기를 하실 때 늘 서쪽에서 떨어지는 햇빛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 있으신데, 이 황혼 빛에 대해 특별한 정서가 있고 이를 건축적 요소로서 표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현식 햇빛은 그냥 이야기하자면 시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사진찍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요. 일상에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변화를 사람들이 감지하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이 집에 빛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공간은 뭔지 모른다”고 한 루이스 칸의 말이나, 제가 자주 쓰는 “매일매일 다른 종류의 햇빛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다른 공간이다”라는 말에서 햇빛에 대한 저의 관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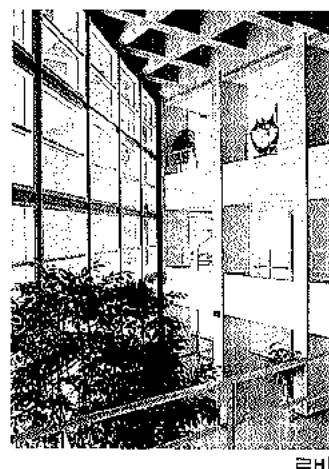
그런데 왜 황혼인가? 아침 햇빛의 파란 느낌보다는 붉은 색이 설명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쟁반쥐빼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본 석양의 이야기 - 술풀엔 황혼을 보는데 어떤 때는 마흔 네번을 보았다는 그 이야기 - 가 좋기도 합니다. 서쪽 햇빛은 가끔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일출보다 일몰이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밝혀주는 아침의 푸른 빛보다는 약간씩 감춰지는 붉은 저녁의 햇빛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지도 모릅니다.

피막이 아닌 성채로서의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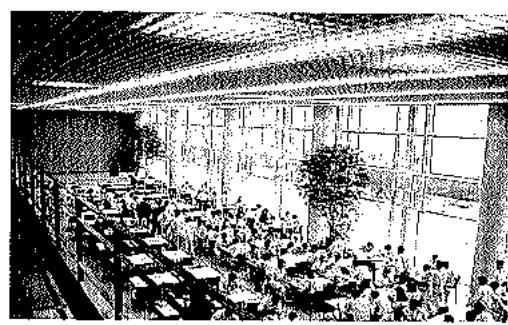
고성룡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의 평면에서 보이는 분할이 그대로 기능상으로나 형태상으로 입면에도 연장된다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절제하는 입면의 미학에서 되는 등 근대건축의 어법을 충실히 따르며, 근대건축의 순수성을 추구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신도리코 아산공



벽면 디테일



로비



식당

장 본관도 이러한 맥락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민현식 입면을 보는 경향을 이야기해야 할지 건물의 외부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지... 제가 처음 시저 펠리가 설계한 교보빌딩을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은 좋았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건축의 외피라 할까 스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건축이 내부와 외부를 막아주는 멤브레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2세대나 3세대 건축가들과는 달리 미스 반 데 로헤 같은 초기 근대건축의 건축가들은 건축을 멤브레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보다는 성채(캐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는 공간을 불어서 만드는 것과 구축해서 만든다는 생각의 차이일 겁니다.

어찌보면 서쪽이기 때문에 정면이 두터워진 점도 있지만 본관 정면이 멤브레인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대건축의 설계나 순수성을 추구함은 별개의 문제이고, 외부공간에서 정면으로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성채의 기분이 들면 좋겠다 또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입면을 만들었습니다. 순수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초기 근대건축가들이 입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관 배면은 멤브레인이면 좋겠다고 느껴져, 좁고 긴마당쪽은 평평한 유리의 커튼월을 적용하고 가능하면 새시도 같은 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지와 기능을 연결하는 삼차원적 공간구성

고성률 절제된 합리적 표현으로 공간보다는 입면이 오히려 강조되거나, 외부공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신 이전의 작업들에 비해, 이번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내부공간의 구성이 눈에 띕니다. 내부 공간에서 2개층이상의 공간 티움이 여러 곳에서 반복된다거나 투명한 격자창을 중첩하여 내외부공간의 상호작용을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의 공간구성은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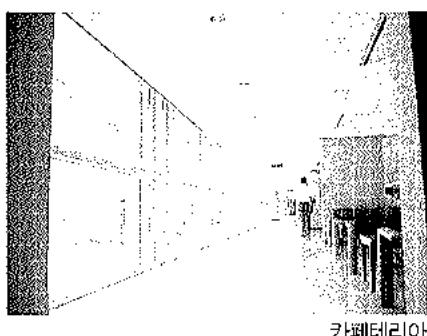
민현식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공간의 구성도 주어진 대지 조건과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신도리코 아산공장은 경사지를 절토 성토하여서 대지화하였기 때문에 레벨의 차이가 심하고, 공장이 아닌 이번 프로젝트와 같은 본관이라지만 지원시설인 경우는 소위 못 생긴 땅이나 자투리 땅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지가 이미 건축적이며 공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건축가의 흥미를 충분히 끌게 됩니다. 앞뒤의 레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건물을 앞뒤로 출입하게 되면 층의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므로 본관의 모든 층에서 두 개의 그라운드 레벨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구성한 결과로 얻어진 공간의 다양성입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 기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수용의 결과로 다양하게 공간이 구성되었습니다. 본관에는 극장, 식당 등이 있습니다. 사원복지에 대한 회사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식당의 경우만 하더라도 식사외에 다양한 휴게행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큰 스페이스가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층고를 더블 하이트로 만들어 다양한 방향과 레벨에서 접근하여 다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극장도 원래 전학 오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용, 데모용 공간이었으므로 관객 동선을 고려하여 슬로프를 주어 무대는 아래층에, 객석은 위층으로 연결시켜 놓아 자연스레 모든 공간들이 3차원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능의 해결이 아래레벨과 위레벨의 10미터의 높이차를 극복하는 편리한 도구가 되었고, 또한 공간 안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풍부한 공간을 체험케 합니다.

본래 대지가 지닌 3차원적 특성과, 필요기능의 실들을 평면적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3차원적으로 늘어놓아 잘 엮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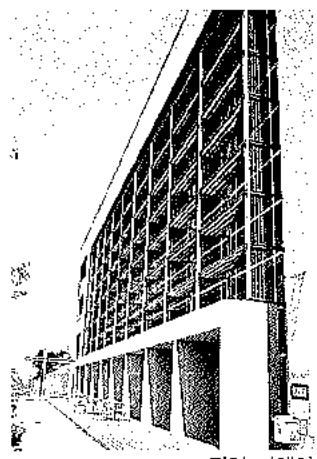
입구 훌이나 물이 있는 공간들도 개념적으로는 동일 공간인데 대지의 성격 때문에 3차원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뒤의 마당도 건물 안에서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 조작을 하다보니 3차원적 질서로 들어온 것입니다. 본래의 사이트가 가지는 공간적 특성과 프로그램상의 스페이스를 3차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



파로티



전면 디테일

차분한 재질감과 색채로 이루는 배경으로서의 건축공간

고성룡 석재 뾰칠의 재질감이라던가 건물 내외부 마감에서 보이는 차분한 색의 조합은 합리적 건축의 단순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에서 작업하신 마감재의 표정이나 색채감은 무엇을 위한 배려이었습니까?

민현식 본관 건물에서 사용한 색은 극장이나 회의실의 나무 등 몇가지를 제외하면 2가지입니다. 새시와 철골부재도 그렇고 석재 뾰칠의 회백색이나 면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 약간 짙은 회색 정도이고 그 외는 거의 색이 없습니다. 이는 정오 이후에나 빛이 드는 서향한 경면에 대한 색의 역할을 고려한 것입니다. 황혼의 색은 흰색이어야 더욱 강조되니까요.

둘째로 건축공간은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은 포그라운드(foreground)가 되고 건축은 백그라운드(background)가 되다면 좋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강하면 포그라운드는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악 연주마당의 경우 백그라운드의 색조가 강하면 연주자의 옷이나 현란한 국악기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도리코 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보는 사람이나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 띄도록 색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는 일부러 강한 색으로 골랐습니다. 사이마당의 벽도 하얗고 샤시도 하얗게하여 강한 색을 사용을 피했습니다. 질감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석재 뾰칠의 텍스처는 좋지 않습니다. 뭉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건물단면이 한번에 보여지는 의미있는 엔트ランス 공간

고성룡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특히 역점을 두어 설계하신 부분은 어디입니까?

민현식 이 집에서 특별히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엔트ランス입니다. 정면 입구의 두 개의 삼각형 공간입니다. 두 부분이 유리벽 하나로 나뉘어져 있지만 천장의 그리드 분할의 질서가 연속되어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실은 같

은 공간인데 유리벽 하나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공상의 실수로 유리 색이 질어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불만입니다. 투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이 공간은 나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 뒤의 높이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내부의 기능을 크게 둘로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간을 이루는 재료는 싸지만 공간만은 화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룡 입구 훌 옆의 수공간과 직선계단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민현식 원래 대지에는 그 곳에 공장으로 향하는 좁고 가파른 계단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지름길이어서 할 수 없이 이용했던 통행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길로 오르내리는데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즐겁게 오갈 수 있도록 물을 도입하기도 하고 혹은 편하게 계단을 만들기도 하고 불을 건너서 걱정 올라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동선을 제공해 보았습니다.

실은 이 공간과 앞서 말한 엔트ランス 공간을 통해 집의 단면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건물 단면 모델을 만들듯이, 특히 양측의 그라운드 레벨과 만나는 단면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재미도 있고, 공간도 자연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되고 말입니다. 집의 단면을 보면 재미있잖아요.(하하..)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이곳으로 통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보여지며 느껴질 수 있도록 저는 오래 고심하면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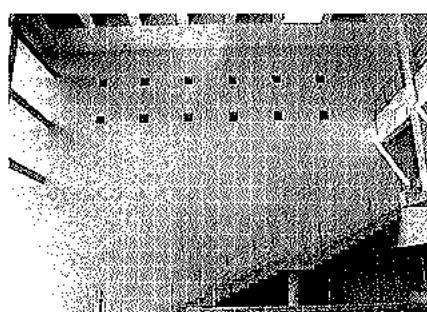
반쪽만 이해된 우리의 근대건축

고성룡 이제는 민선생님의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두루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이는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건축이 수용이 없었다고들하는데, 우리 근대건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민현식 그동안 우리나라가 처해있던 상황 때문에 우리



전면 캐노피



피로티



피로티

는 근대건축을 반쪽밖에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차단돼 기껏해야 서방사회의 근대건축만 알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건축의 기본을 이루었던 되었던 러시아 구성주의와 같은 좌파의 건축을 알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에야 물밀 듯이 들어오기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근대화는 서구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살아보세'라는 경제성장이 우선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의 새마을운동도 보릿고개의 탈피였지. 이성적 사회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교조주의에 한국건축도 희생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선배 건축가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 흐름이 건축을 무조건 많이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적 면적이 부족했으므로 모양이나 이론 따위는 필요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건축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입면 디자인 밖에 없었고, 모든 현상설계가 투시도로 판가름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전된 것이라고는 기능주의에 치우친 국제주의의 한 스타일을 갖는 건축이 우리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근대정신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넣은 근대건축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대건축을 넣은 이전의 건축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 근대건축이나 르 코르뷔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건축과 건축가들에 대한 생각들

고성룡 민선생은 일본의 <갤러리 마(間)>에서 발간한 "세계의 건축가 581인- 동시대를 횡단하는 세계의 건축" (Gallery Ma편집, 三宅里一 감수, TOTO출판, 1995)에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수록되었는데, 그렇다면 선생이 보시는 현대건축과 이 시대 건축가들의 작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식 대개의 건축가들은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사조나 건축가들의 분류하기 좋아하는 일본사람이나 쟁크스같이 이상하게 분류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갤러리 마의 책도 별로 탐탁치는 않습니다.

현대사회 문명의 변화중 가장 획기적으로 변한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건축과도 굉장히 밀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화상회의, 전자 메일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도래하면서 건축, 도시의 본질이 달라지게 되며, 도시나 건축을 정의하는 기준의 전통적인 관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 수단만 있으면 전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담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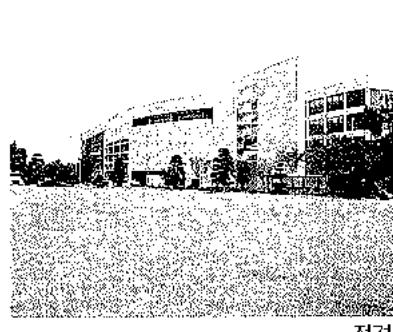
저는 이런 생각을 공유한 건축가들에 호기심을 느낍니다. 이런 건축가들은 도시, 건축에 대한 생각이 색다릅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알맞는 건축을 생각하는 건축가를 만날 때 동시대의 건축가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렘 콜하스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같은 이유로 알도 로시는 처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었을 때 건축이 가지는 전통적인 근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 본연의 어떤 본질은 그대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최후로 남는 건축의 근거나 뿐리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랜드 스케이프라는 개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경의 개념보다는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으로부터 건축을 출발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로리언 벤겔이나 피터 솔터 같은 사람들이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인 존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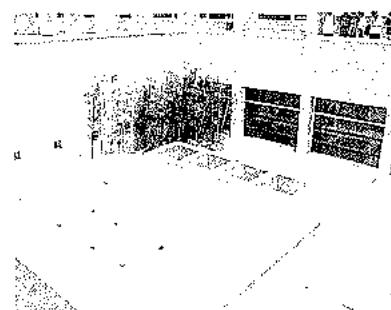
건축의 본질적 인용으로서의 전통건축

고성룡 건축은 모름지기 작가의 의지는 물론 시대성과 건축이 성립되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민선생님은 근대건축이 가지는 일의성의 보완으로서 우리 전통건축의 의미를 재발견해내고 계신데, 전통건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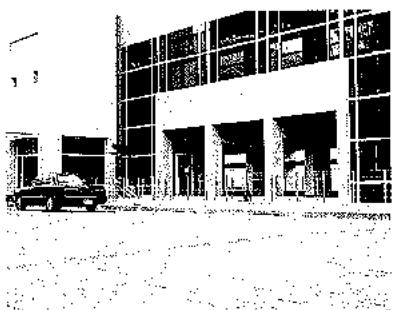
민현식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지요. 건축이란 무엇인



전경



복상정원



후면 디테일

가? 건축은 삶의 조직을 건축의 조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생활이나 삶이 달라지면 건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양은 서양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이기 때문에 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양건축과 동양건축도 이런 점에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삶이 달라지면 철학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지면 건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저 땅에 세워지는 것과는 달리져야 합니다. 얼마나 무엇이 다른가는 여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하지만 지구촌의 개념으로 볼 때 얼굴색이 조금 다르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생각이 같으면 서로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서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건축은 이 전의 건축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건축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하는 그런 종류의 콤플렉스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신도리코 본관의 현상학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스톤 핸지나 산 마르코 광장을, 해인사를 언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소의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통건축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은 어디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통건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나 조금은 국수주의자이니까요.

너무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자본주의 말기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좀 생각도 해보면서 살자는 입장에서, 제시한 “좁고 긴 마당, 레벨차이를 달리하고, 자연을 향해 열린 공간”의 샘플을 여러가지에서 찾아보는 중에 굉장히 좋은, 그 부분의 교과서가 될만한 것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건축이더라는 판단에서 병산서원 같은 전통건축을 드는 것입니다. 리차드 룽의 그림을 이야기할 때나 추사의 글씨체, 샤크 매티의 조각 등을 이야기할 때 같은 뜻에서 선택적입니다. 이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서양이기 때문에’라는 생각보다는 말입니다. 건축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면 불교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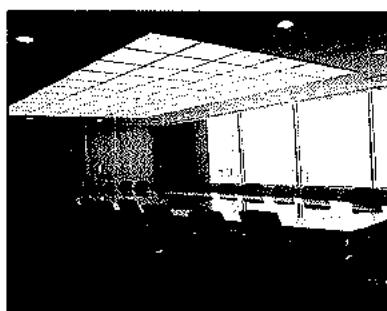
젊은 건축인에게 바라는 소명의식

고성룡 끝으로, 1991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들 젊은 건축학도들에 대한 인상이나 바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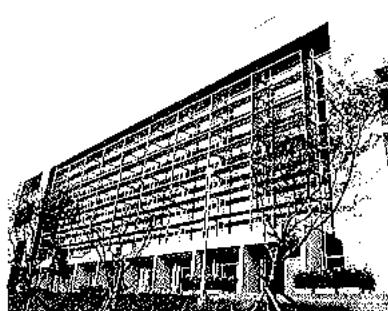
민현식 예술가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면 창조성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해서 늘 과거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늘 저 자신의 이야기만 할려고 합니다. 저의 관점만을 이야기합니다. 건축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사람이라는 확신 -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세대차 때문에 생긴 것인가 하고 반성을 하지만 아직도 그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던지간에 확신을 학생들에게 강요합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철저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법관 의사 목사 종교가도 유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본질의 문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자신을 의심해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수업 중 늘 설계과정중 트집을 잡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정관념이 아닌가 하고 많은 반성을 합니다.

다시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 설계로 돌아와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건축주는 매우 이해심이 많아 건축가의 생각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평계를 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오로지 건축가인 저에게 있습니다. 좋은 건축주와 하나님을 이룬 프로젝트였다고 생각 됩니다.

고성룡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에서 주어진 제반조건과 이의 해결속에서 진지한 건축공간을 일궈내며 한국의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민현식 선생의 모습을 발견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실



전경



공장 전경

벽과 마당의 건축, 그 또다른 시도

전봉희 /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Jeon Bong-Hee

나는 아직 나이 오십의 무기움을 알지 못한다. 때로 천재적 조숙함을 가진 몇몇 작가들의 예외가 없지는 않으나, 상상만으로 세월의 버거움을 지레짐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날 문득 옆자리를 바꿔버리는 동료의 뒷모습이 떠오르고, 20세기의 찬란한 세계가 우갖 오욕 속으로 저물어버릴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은 물론 민현식의 건축 모두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너더욱이 그의 인생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치열함을 유일한 보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어제의 작품과 내일의 작품이 물역사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는 1946년 경남 산청산이다. 건축을 제대로 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시설장교로 간 1970년 이후의 일로 보이고, 이후 공간을 거쳐 경력의 대부분을 원도시건축에서 보내다 독립하여 사무실을 가진 것은 불과 4년 남짓이 될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에게는, 이 4년이라는 기간이 세간의 평을 얻는데 부족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국립 국악중고등학교(1988/92-설계연도/준공연도, 이하 같음), (주)신도리코 기숙사(1991/93), 분당주택전람회 단독/공동주택(1993/?), 그리고 이제 선보이는 (주)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1994/96) 등이 이 중 량감있는 신인의 프로필이다. 그리고 그것은 건축가에게 족하다.

일년전 어느 봄날 아주 우연하게 그의 고향길에 동행할 기회를 가졌다. 몸도 마음도 축축 늘어지는 전형적인 늦 봄의 오후였지만, 사연기지고 떠난 고향을 되짚어가는 길을 함께 하는 일은 몰래하는 소꿉장난과 같은 설레임도 있었다. 지리산의 동쪽, 남강의 상류인 경호강이 덕유산에서 시작하여 멀리 진주를 향하여 내어달리는 강변 마을 생초면 대포(大浦)리가 건축가의 택지리이다. 바닷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운이 발달했을 만한 곳도 아닌데 큰 포구라는 이름을 가진 연유를 그는 이렇게 들려주었다. 먼 옛날 귀향길에 오른 선조와 그를 호송하던 형리가 서울이라 남해 천리길을 미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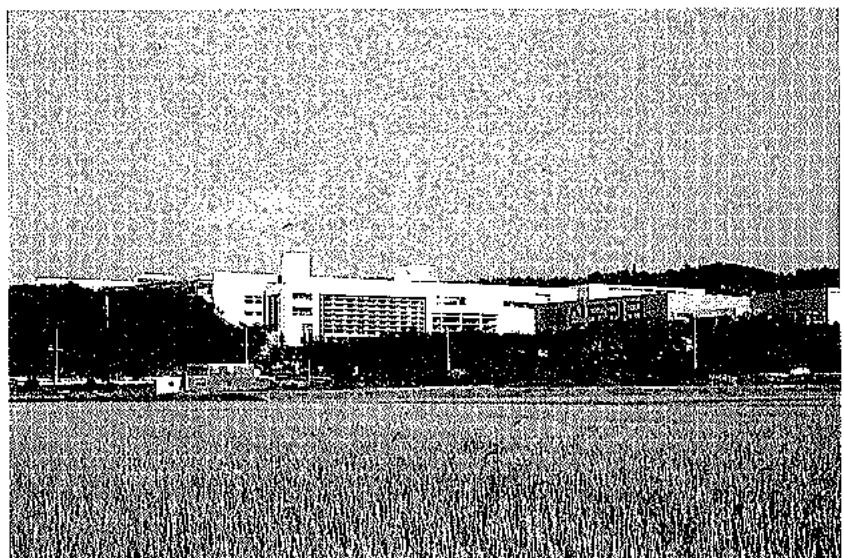
가지 못하고 머물러 앉아, 그냥 이름만 대포리라.

굳이 건축가의 고향 이야기를 들추는 것은 그곳이 그의 건축과 무언가 닮아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경호강은 과연 경상도의 강답게 양 쪽으로 해발 일천미터를 넘나드는 높은 산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흘러내려간다. 거칠 것 없이 달리던 강줄기가 급하게 격이면서 만들어내는 조그만 충적지에 마을은 자리한다. 집 앞을 막아선 산, 입향의 비밀을 간직한 시선은 마을 옆의 조그만 문전옥답에 머물다 기어코는 멀리 강을 쫓는다. 건축가의 화두가 되어버린 '마당깊은 집'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벽과 비어 있음(그에게 비어있음은 언제나 달한 공간의 비어있음이지 열린 공간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과 좁게 열린 하늘과 그곳을 지나는 바람, 조각난 햇볕…

그의 건축에서 형태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벽의 건축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4개의 작품에서 모두 벽은 주요한 건축적 구성요소로 등장한다. 그에게 벽은 고향의 능선이 가지는 수평적인 선의 재현으로 보인다. 여기서 벽은 첨첩한 산의 능선이 그러하듯 삶을 보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삶을 탈출하는 구실을 제공한다. '산 너머 남촌'은 대부분의 산골출신들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외부로의 동경이요 그리움이다. 닫혀있는 현실은 보다 열린 세상으로의 열망을 강화시켜줄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안다. 마구 달음박질 쳐보아도 성이 풀리지 않는 이들에게, 산을 넘어가는 구름떼나 어느날 갑자기 출현하는 제비들의 지저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흘러가는 강줄기는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그것은 화려한 도시의 불꽃이 될 수도 있고, 무지개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고장일 수도 있다. 미지는 꿈의 동의어가 아닌가.

그의 벽은 이런 식이다. 그 벽은 현실을 한정하는 벽이고, 미지의 세계를 꿈꾸게 하는 벽이다. 너 만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을 구분하는 벽이기도 하고 이롭다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벽이기도 하다.

지금 소개되는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의 경우 두 개의 주요한 벽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하나는 전면의 외피를 이루며 휘어져 사라져가는 벽이고, 다른 하나는 이 건



전경

물의 등뼈를 구성하며 보다 육중하게 막아 선 벽이다. 전면의 벽이 각종의 개방으로 확장되어 있다. 여기서 벽은 대지 전면의 들판과 후면의 산기슭을 경계짓고, 공장과 농도가 뒤섞인 어수선한 도시 변두리의 풍경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이상으로 두꺼워진 중심벽은 개발의 힘이 공룡처럼 국토를 헤집고 나니는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의 몸짓으로 보인다.

벽에 대한 집착은 기둥의 처리에서도 나타난다. 당연히 기둥이어야 할 자리는 벽의 파편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 벽의 파편들은 커다란 개구부를 내고 남은 창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벽의 형상을 온전하게 보전한다. 신도리코 본관에서 기둥은 전면벽의 개구부 뒷 편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기둥에 대하여 벽은 점에 대하여 선이, 그리고 선에 대하여 면이 가지는 것과 같은 차원적 우월성을 갖는다. 기둥이 독립적일 때 그것은 지점을 의미하고 수직성을 나타내고, 기둥이 줄지어 섰을 때 그것은 방향을 의미하고 연속을 나타낸다. 그러나 벽은 하나만으로 이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무엇보다 벽은, 기둥이 가지는 수직적 구축으로서의 오만함을 내비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건축 구법에 있어서도 기둥은 바닥을 밑에서 지지하고 벽은 바닥을 옆에서 지탱한다. 또 기둥의 단면은 원형을 근거하고, 벽의 단면은 사각형을 근거한다. 상부 벽을 구성하는 아치의 밑부분을 원주로 지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결국 르네상스기에 가서야 풀리는 문제였다. 벽은 벽 나름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그는 아직 많은 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원주와 상부의 슬라브 면과의 결합부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즉, 벽기둥과 보의 외곽선을 기둥쪽으로 강조함으로써 기둥과 벽면의 만남을 해결했다. 신도리코 기숙사에서는 기둥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다 쉽게 완전한 벽의 건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신 마당이 빠져있다.(앞으로 신관이 증축된다면 분명 마당이 생겨날 것이다) 그의 마당이 벽에 의한 에워싸으로 온전하게 구축되는 것은 분당주택전람회의 출품작에서부터이다.

그리고 신도리코 본관에서는 마당과 벽에 다시 무언가가 덧보태여져 있다. 그 무언가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벽의 건축을 추구하는데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기둥을 벽으로 위장함으로써 해결하였다. 필로티 기둥의 하부와 중앙브리지의 받침벽 하부를 교묘하게 편심을 두어 잘라냄으로써 그것들이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벽을 절개하여 얻어진 것임을 강변한다. 벽의 순수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각종의 계단을 벽면으로부터 분리시킨 셈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면에서 건물 중간의 공허부 상부에 있는 개구부로 언뜻 비치는 원주와 이것에 연결된 두 방향의 보는 건물 전체의 질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잘못 튀어나온 말실수로 보인다.

공간구성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추구는 그의 작품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점이 많은 후배들에게 그가 가장 서울대 출신답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된다. 신도리코 본관의 경우 다른 작품들에서와는 다르게, 삼각형으로 잘라진 진입공간과 만곡된 벽면으로 인해 다소 복잡해진 외관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공간은 여전히 완벽한 정도의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다.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한 두 개의 벽 사이의 온전한 공간에 주요기능을 담은 실들이 배치되고, 중심벽 뒤로 동선과 부속기능을 위한 실들이 켜를 이루며 달라붙어 있다. 또한 그 중심벽은 내부공간에서도 필요이상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반복됨으로써, 계획의 출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길이 방향으로는, 두 벽이 평행하게 진행되는 좌측 부분에는 이 건물의 주 기능인 식당과 사무실이 각각 2개층씩을 점유하고 있고, 전면 벽이 곡면으로 휘어나가기 직전까지의 중간부분에 3층까지 뚫려있는 공허부와 4층의 옥상정원이 있다. 더욱이 이 공허부에 위치하는 진입 공간은 그가 다른 작품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선과 삼각형이 사용되어 큰 변화를 보인다.

말하자면 신도리코 본관에 와서 덧보태어진 그 무언가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전면 벽이 중심 벽으로 휘어들어가 부정형을 이루는 우측 부분에는, 로비라운지와 소규모 도서실, 2, 3층을 차지하는 극장과 최상층의 중역실 및 회의실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 실들의 3차원적인 형태는 극히 의도적으로 조절되어있다. 우선 공간의 운동에너지의 양에 따라 볼륨이 결정된다. 그래서 사무실이 1개층의 높이를 가지는데 반하여 식당과 극장은 2개층, 로비의 내외부는 3개층의 천장높이를 갖는다. 또 앉아서 생활하는 사무실과 식당이 직사각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는데 비하여 서서 어슬렁거리는 로비 내외부는 삼각형, 그리고 회의실, 극장 등의 중간적 성격의 실들은 한 면이 원호로 구성된 사다리꼴의 평면형을 갖는다.



식당

이와 같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마치 입체퍼즐을 보는 것과 같다. 각기 스스로의 공간적 요구사항들이 충족된 이후, 부분들은 그 어느 하나도 빼뜨릴 수 없는 전체의 구성요소가 된다. '일어날 모든 행위들의 합리적 분석과 통합공간의 경제적 배분, 그리고 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체계에 대한 의도 공간의 배열' (空間誌 9204)은 건축가의 작업에 일단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의도 공간은 기존의 S-공장과의 사이에 만들어내는 '지극히 의도적인 좁고 긴' 마당과 '근사하게 만들어진' 중간의 공허부이다. 즉, 기존의 공장과 건축대지 사이에 있는 7.5m의 단차를 각각 건물의 정/후면 출입층으로 삼아 비교적 빠른 경사를 건물내부에서 흡수하였으며, 그 사이의 동선 및 시선 상의 흐름을 위하여 건물의 중간부에 공허부를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주택이나 학교와 같은 집합적 건물과 달리 마당을 만들기 곤란한 오피스건물에서 그는 예의 마당을 기존건물과의 사이 공간에서 만들어 내었다.

설계의 다음 작업은 '설정된 각각 내·외 공간의 3차원적 크기·형태 및 비례, 거기에 쏟아지는 햇빛, 거기를 통하여 지나갈 바람, 그리고 마감재료의 질감과 색채' (空間誌 9204)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란한 두 개의 벽 사이에 있는 주요공간은 '세밀하게 치수를 조절한' 뒷마당과 같은 폭과 층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이나 사무실에 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오는 사람 모두에게 뒷마당은 단지 하늘이 터져있는 또 하나의 내부공간이 된다. 후면의 출입구를 통한 방문자가 식당에서 무언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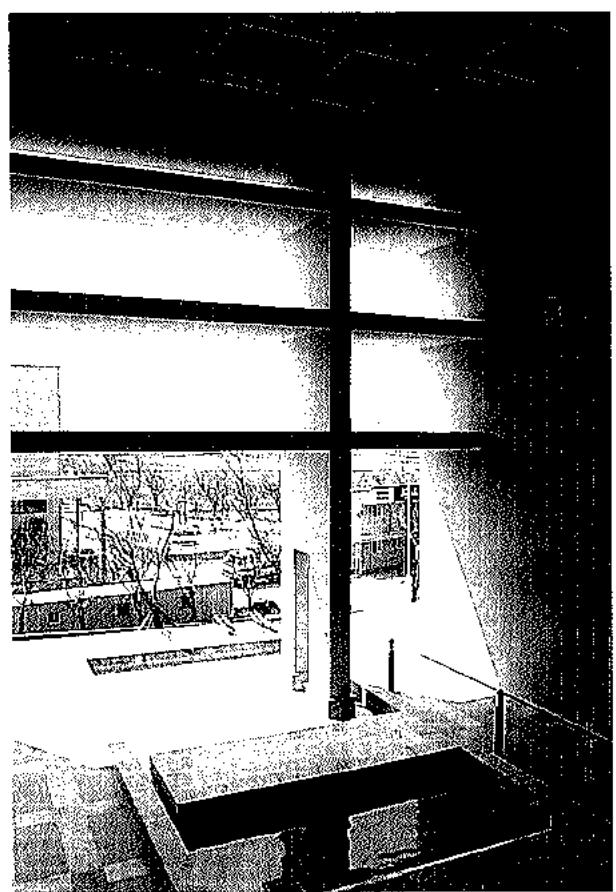
이런 식의 대칭적인 내/외부 공간의 사용은 진입공간에서 극대화된다. 중간 공허부에서 폭포 등으로 이루어진 물의 공간을 제외하면, 거의 정사각형을 이루는 진입공간은 그 대각선상을 가로지르는 유리벽에 의하여 한 쌍의 삼각형의 내/외부 공간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이 삼각형은, 외부에서는 미러글래스에 비친 반영으로, 내부에서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투영으로 온전한 사각형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조작은 조그맣게 돌출된 방풍실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한 쌍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사각형 안에서 유리벽은 내외부 공간이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을 겨우 버티고 있는 삼투암 막과 같이 앓아져 있다.

건축가가 가장 공을 들인 곳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건축주로써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두고두고 건축가들 사이에 말이 많을 것이 분명한 곳이 중간 공허부의 왼쪽에 자리한 폭포와 연못의 공간이다. 진입부와는 경계없이 이어지는 공간이지만, 전후면의 기둥 간격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건물 후면이 바로 지면과 만나는 다른 부분과는 달리, 선큰정원으로 후면을 지면에서 띄어버림으로써 이부분의 개방성을 극대화 된다. 그가 의도한 '바람'은 여기에 있다. 또한 4층에 설치된 고급사무원을 위한 옥상 휴식공간이 이 공허부의 천장을 형성하며, 복도와

만나는 안쪽을 가로로 조금 뚫어 천창을 만들었다. 역시 그가 말하는 '조절된 햇빛'을 위한 장치이다. 전면의 폭이 깊고 대격자로 잘려진 그리드와 후면의, 보다 규칙적이고 소격자로 나뉘어진 그리드는, 이 공허부가 도시적 스케일과 인간적 스케일을 연결하는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정면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건물 몸체전부를 날려버린 깊은 어둠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긴 배스를 정리하는 시작적 초점이 되고, 후면의 깊은 뒷마당에서는 그리드 사이로 언뜻 언뜻 푸른 들판들이 내려다 보이는 숨통 역할을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이 공간은 전통공간의 루하 진입 공간과도 같아 보인다. 가파른 산 속을 걷다 순간 마주치는 정면을 막아서는 당당한 루, 그리고 그 하부를 지나면서 발걸음마다 달라지는 안쪽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루하 진입의 극적인 공간 전개방식이라면, 이 공허부는 사뭇 다르다. 공허부를 올라가 마주 대하는 뒷마당은 말그대로 뒷마당이지 속세와 인연을 끊은 선계도 아니요. 이 공장의 중심공간으로 이해되기도 부족하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뒷마당의 개수공사가 끝나면 느낌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 동선이나, 방문자의 진입 동선을 고려할 때, 건축가가 의도하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 공간이 옹변으로 요구하고 있는, 폭포 옆의 계단을 올라 선큰정원의 계단을 이용하여 뒷마당으로 오르는 통로는 그다지 이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공허부는 다만 원거리에서의 시선을 의식한 형태적 분절과 근거리에서의 시선을 위한 공간적 활용소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정당할 것



피로티



것이다.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은 몇가지 점에서 민현식의 건축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벽의 사용에 있어 보다 능란한 기법을 보여준다. 여기서 처음으로 유리벽이 막과 같이 사용되었고, 크게 털어낸 개구부에 금속차양을 설치한 반투명적 벽을 만들어내었다. 이제까지 즐겨 사용해오던 콘크리트에 의한 다소 육중한 벽에 대하여 보다 가벼운 두 종류의 벽을 시도하였고,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이 새로운 벽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건축가는 이전의 작품에서 벽면, 필로티, 주간을 가득 메우는 창 등으로 표현하였던 얇음의 의미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좁고 길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의 전형적인 마당 외에 확성기의 단면과 같이 빵빵하게 퍼져나가는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낸 점이다. 이것이 향후 그의 건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하여 나갈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발달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건축적 공간의 다양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특기할 만하다. 세 번째는 학교, 기숙사, 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건축에서도 벽과 마당이라는 그의 도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준 점이다.

한 때, 그의 벽과 마당은 그 지나친 엄숙성과 소규모적인 분위 때문에, 주택가 같은 장기지속적 일상 건축에서만 가능하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제 그는 새로운 벽과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냄으로써, 벽과 마당의 건축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한편 건축가는 이 건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숙제를 떠안은 것으로도 보인다. 중간 공허부에서 보이는 생기 있는 공간적 활력소를 그의 엄숙주의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뒷마당의 경계를 이루는 미러글래스와 같은 매끈한 벽면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결국은, 이제 산청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혀버린 것으로 보이는 건축가는 과연 어디에 고향을 만들 것인지, 설레임을 가지고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다. 그러나 작은 베이가 세 개나 사용된 이 공간의 대부분은 다소 어정쩡한 폭포를 위하여 할애되어 있고, 그나마 당시 폭포의 물살을 틀어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예측 못했을까. 즉, 폭포는 세 베이, 3층의 보와 기둥이 만들어내는 9개의 격자 속으로 매몰됨으로써, 의도하였던 수직적 흐름도 시각적 초점도 그리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장소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들판을 내다보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공간은 아니다. 백화점 입구의 거대한 샹델리아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현식의 건축에서 아직 과도함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식당이 갖는 완벽한 입방체의 규격과 진입공간이 주는 안팎의 팽팽한 긴장감이 일시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다. 그도 이제는 산청을 떠났는가? 오히려 그의 '마당깊은 집'은 2층으로 올라가 마주대하는 작은 선큰된 정원에서 발견된다. 하얀 돌이 깔린 이좁고 긴 정원은 3층 레벨의 뒷마당으로 나가는 옥외계단과, 2층의 카페테리아 등과 연결된 옥외 휴식공간의 기능을 갖는다. 아직 화분 속에 담겨있는 남쟁이덩굴은 이제 곧 무성하게 자라 지상과의 경계를 이루는 벽면을 뒤덮을 것이고, 그리하여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고, 고단한 직장생활의 틈틈히 즐게 놓린 하늘만큼의 희망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장소가 될

WooLee

회원작품

대전 SAY 백화점

Taejeon SAY Department Store

김자호+이광만+김태집 / (주)긴삼종합건축사무소

Designed by Kim Ja-Ho, Lee Kwang-Man & Kim Tae-Jip



전경(야경)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6번지 외 4필지

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 3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16,100.5m²

연면적 / 59,295.19m²

건축면적 / 5,508.42m²

조경면적 / 3,343m²

건폐율 / 34.21%

용적률 / 197.98%

규모 / 지하 5층, 지상 8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THK 12 G.R.C 패널+THK 120 드라이월

준공 / 1996. 8.

건축주 / 신우산업개발(주)

시공자 / 신우산업개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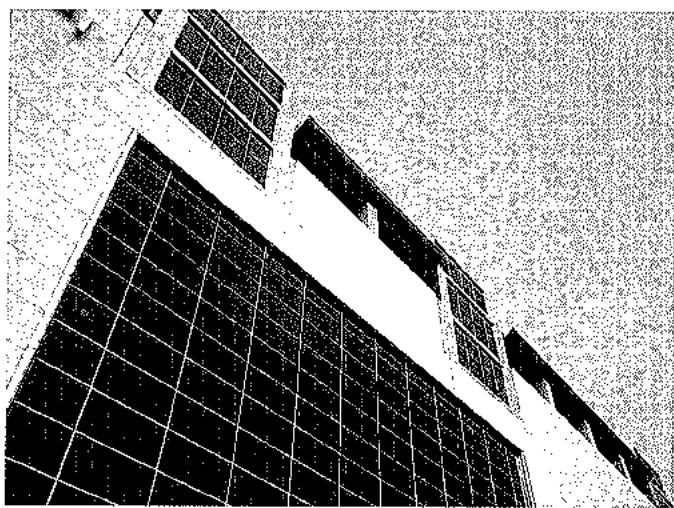
설계담당 / KTJ, 이홍구, 김홍선, 정은자, 김대명, 윤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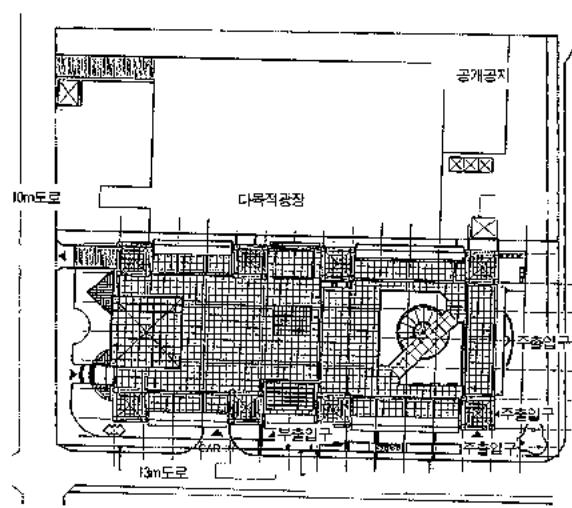
초기안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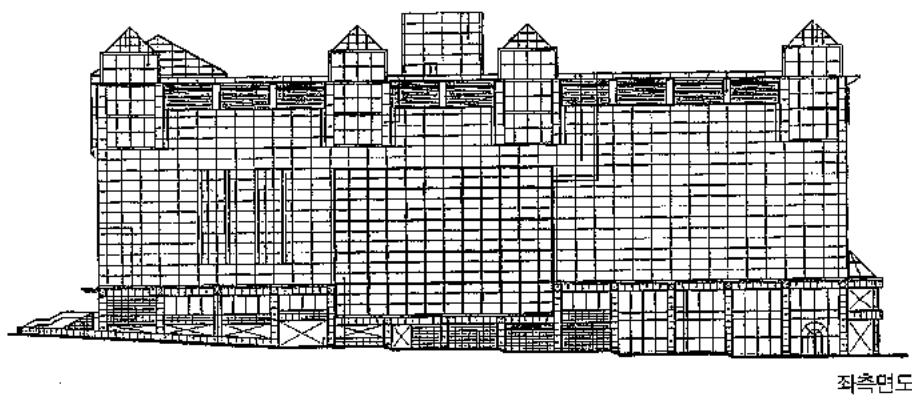
2층 여성의류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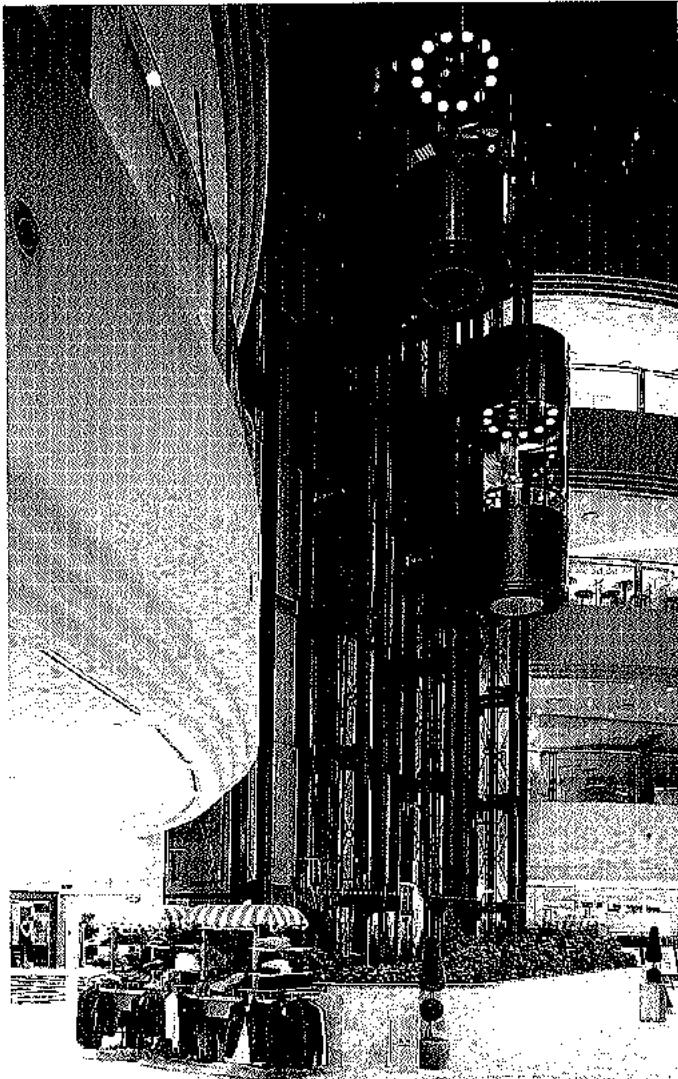
글리스 커튼월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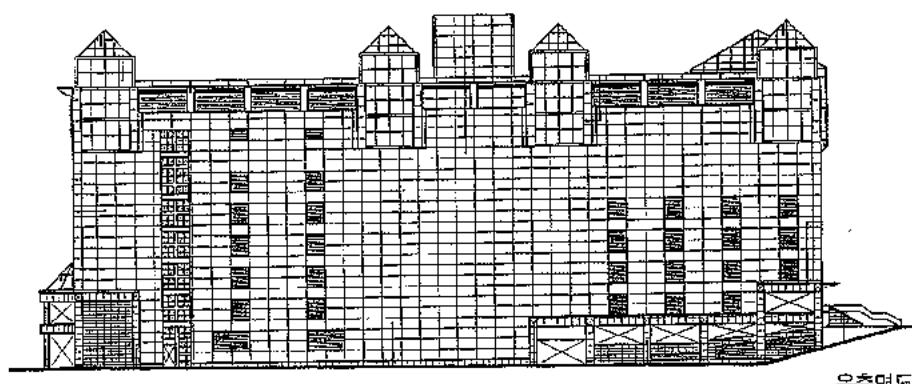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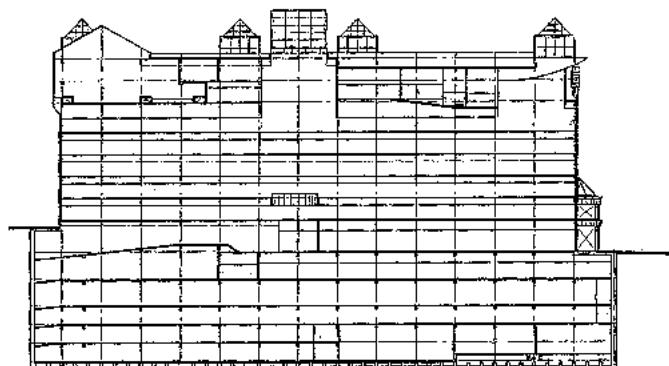
누드 엘리베이트



부출입구 에스컬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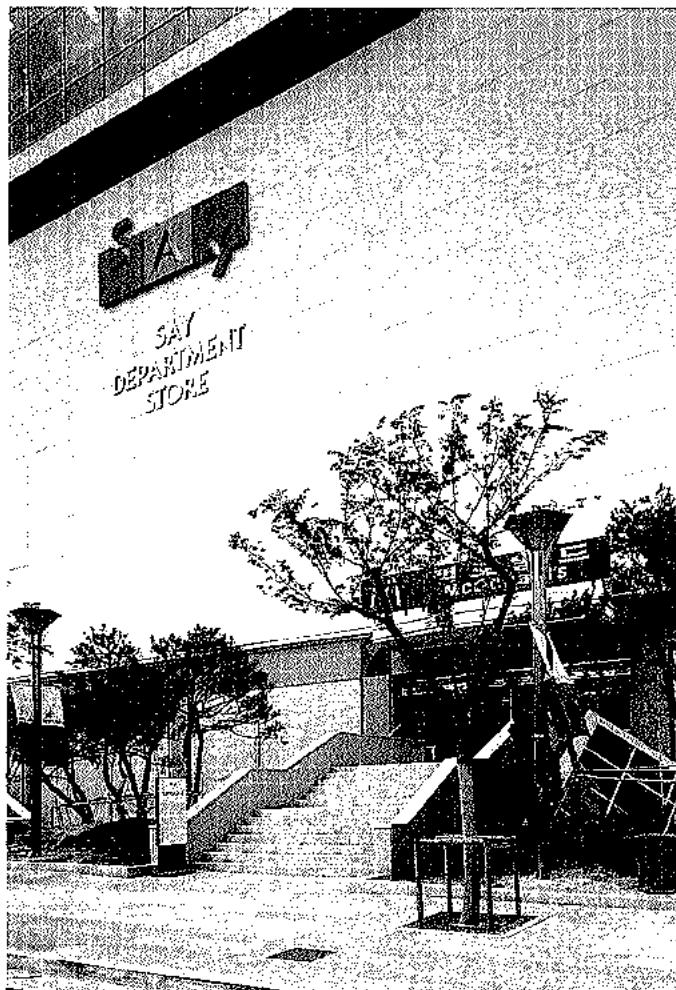
우측면도



횡단면도



2층 라운드 계단



후면 부출입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SAY 백화점은 93년 지명현상설계를 거쳐 당선된 작품으로써 대전시내의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 중심이 되며 계획부지의 주변은 소규모 아파트군이 위치하고 35m 도로와 10m 도로에 접한 모서리 대지이다.

35m 도로의 원거리 시각에서도 보여지는 SAY 백화점의 상징적 요소를 담당하는 장식탑(Glass Tower)은 이간시 조명으로 인한 특별 전시효과를 연출하여 야경을 더욱 둘보이게 하며 건물의 리듬을 살려준다.

건물의 정면에는 원형의 캐노피를 설치하여 정면성을 강조하였으며 10m 도로에 면한 측면은

건물의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사에 대응하는 보행자 몰(Mall)을 형성하고 중앙부를 커튼월(Curtain Wall)로 처리하여 내·외부의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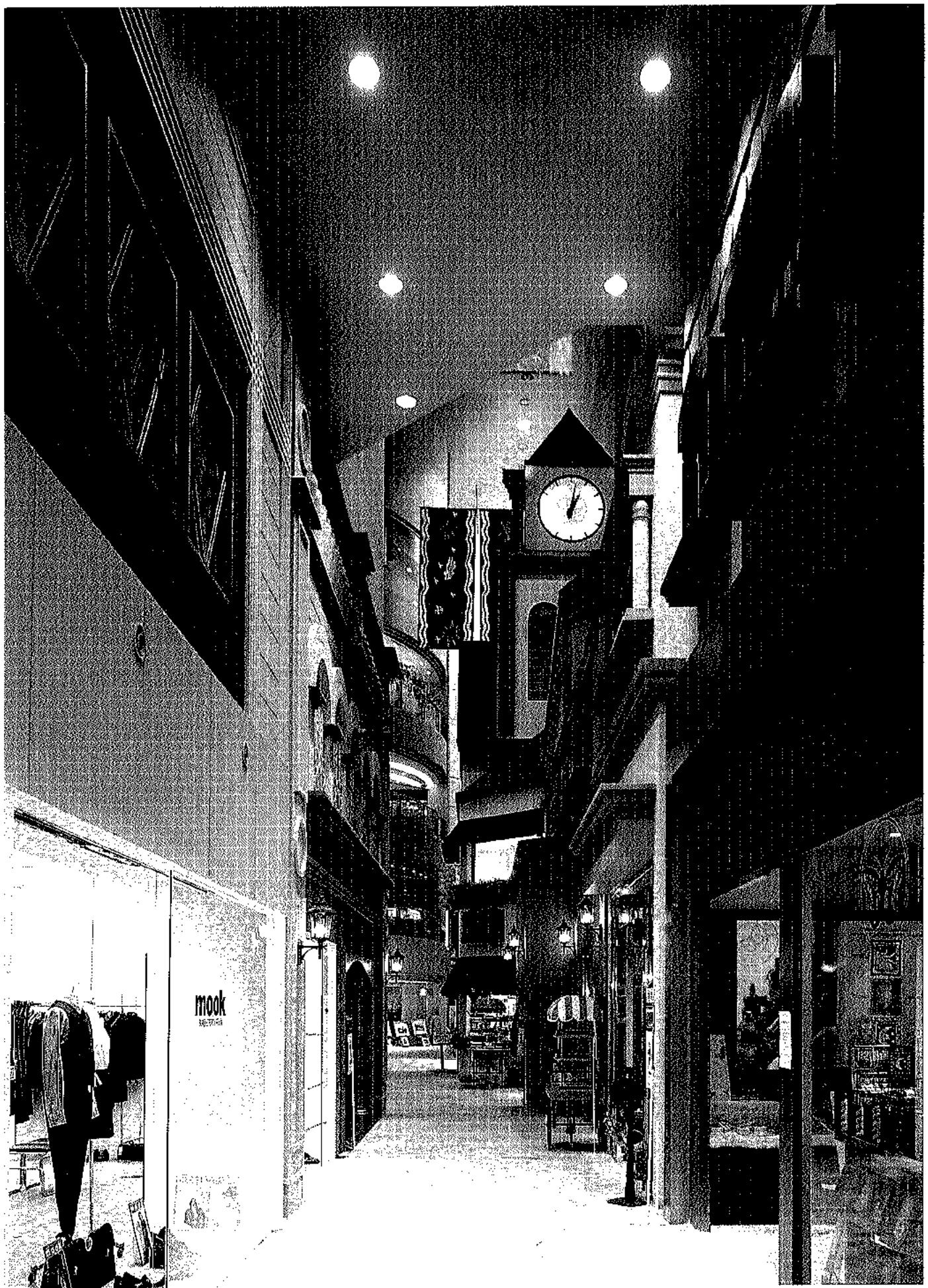
정면이 협소하므로 예상되는 주출입구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에 계획된 Street Market으로의 진입을 분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최초의 Wave 형(形) 에스컬레이터를 Street Market 진입부에 설치하여 동선을 용이하게 하였다.

Street Market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트리움(Atrium) 내부에는 원형누드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Street Market의 조형성을 감상함과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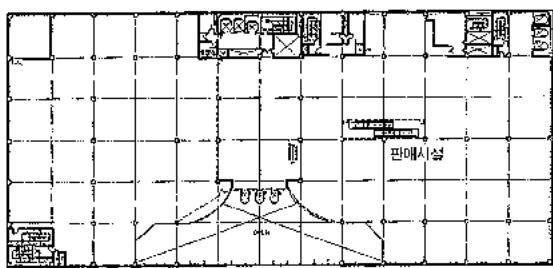
커튼월(Curtain Wall)의 투명성으로 외부로의 시각효과를 연출한 것은 SAY 백화점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일반 철골보로는 진동 등의 해결이 어려운 장스판 구조를 프리플렉스(Preflex)라는 특수보를 사용하여 해결하므로써 무주의 매장공간을 확보하였다. (기둥간격 : 16.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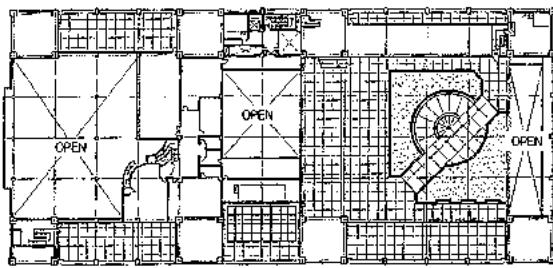
SAY 백화점은 건물의 전면에 공개공지를 두어 조경과 더불어 휴식공간으로 처리하여 백화점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을 위한 만남의 장소, 휴식처를 제공하는 등 대전의 상징적 요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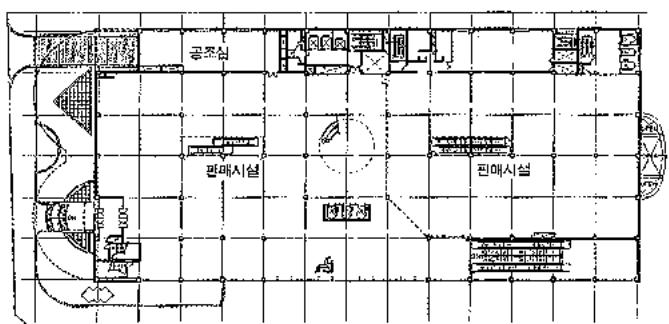
2층 스트리트 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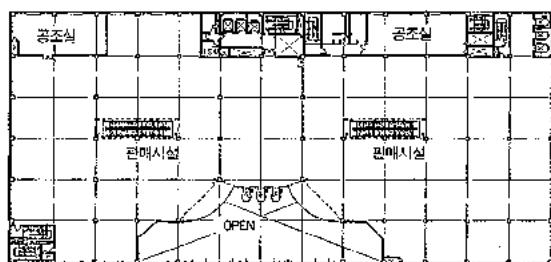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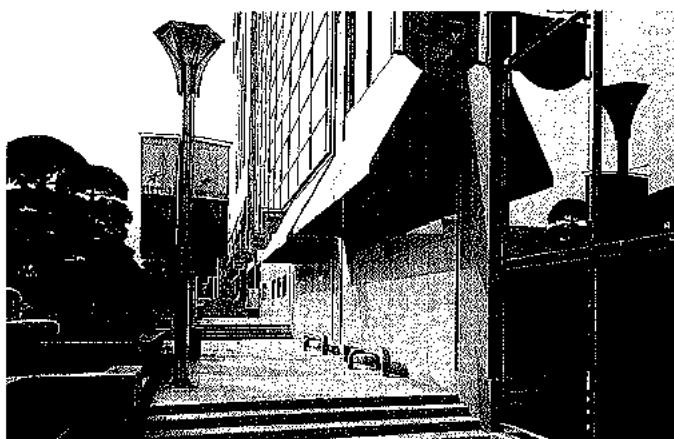
8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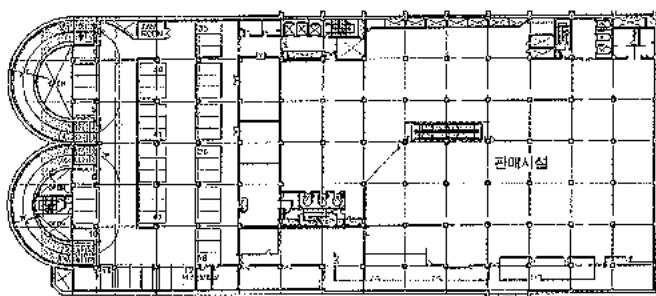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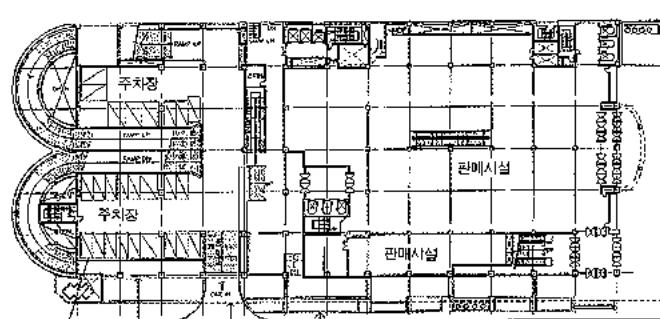
저층부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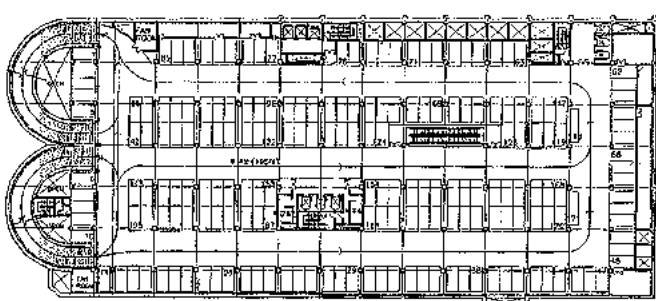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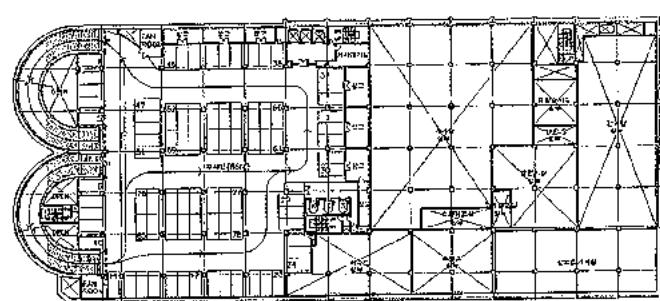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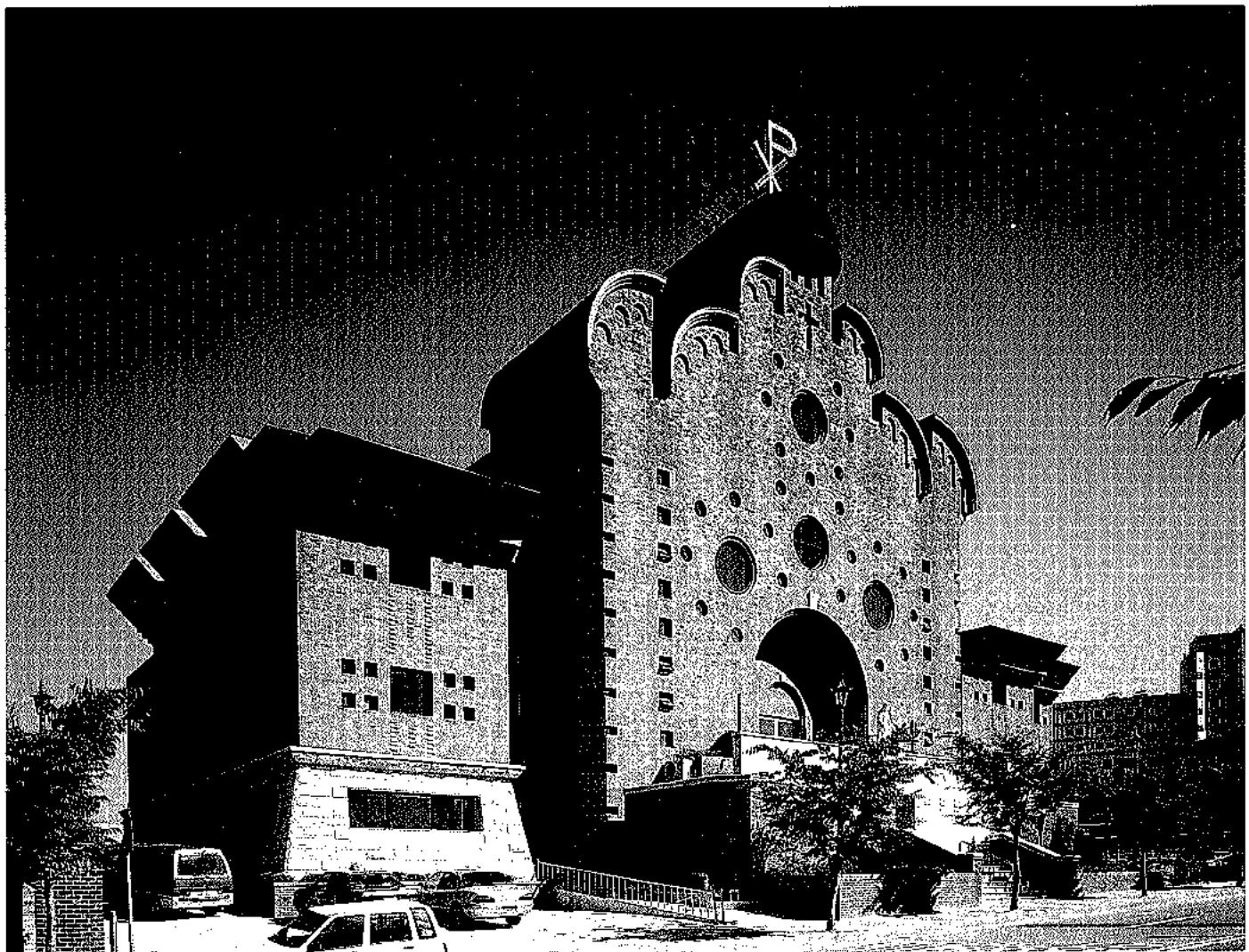


지하4층 평면도

청주사직1동 성당

Sajik Catholic Church

조구현 /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Cho Gu-Hyun



전경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사직1동 749번지

대지면적 / 2,599㎡(786.19평)

건축면적 / 1,280.70㎡

연면적 / 4,070.92㎡

간폐율 / 49.28%

용적률 / 128.56%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 15.69m

층고 / 3.96m

주요용도 / 종교시설

외부마감 / 적벽돌(아스팔트신글자봉) +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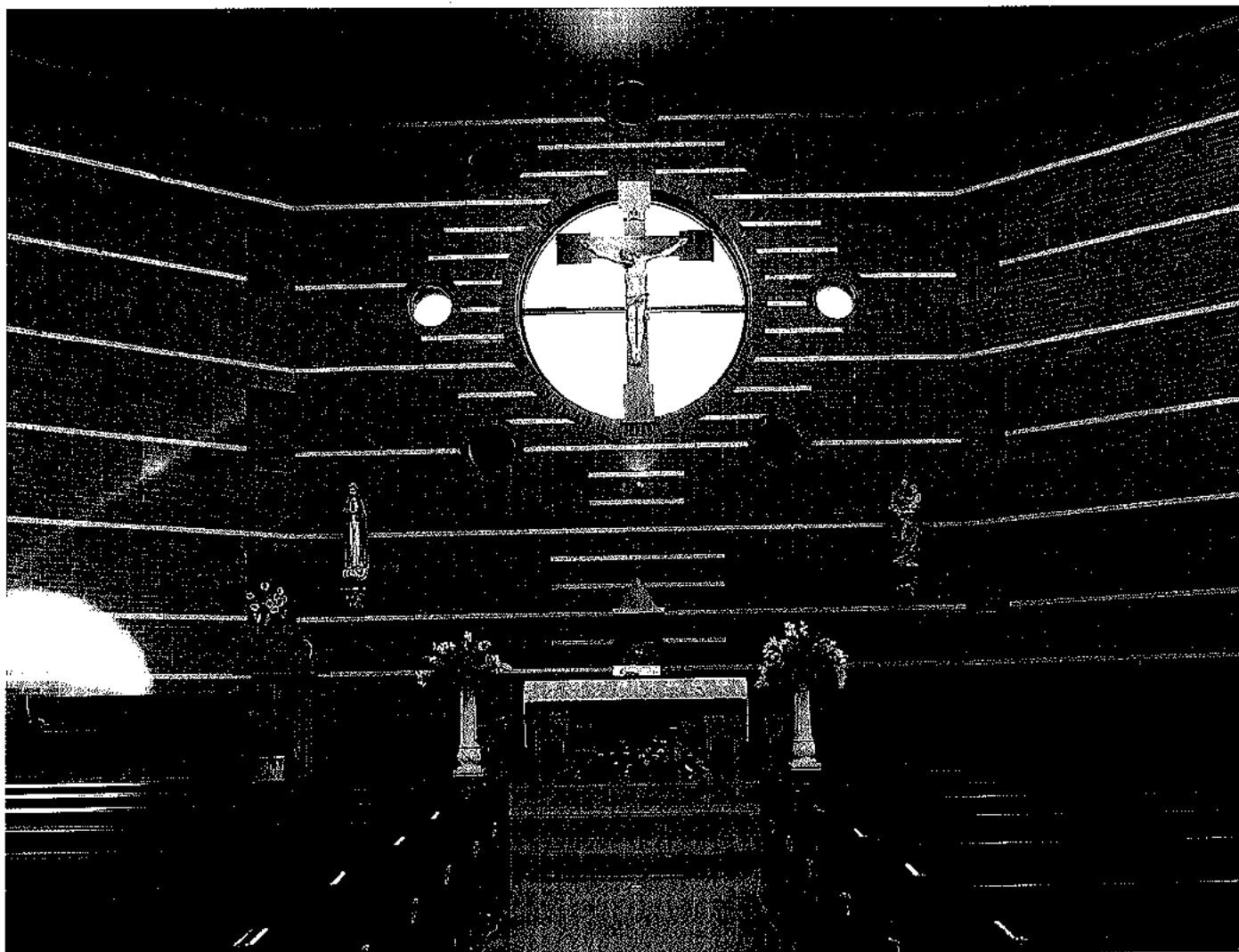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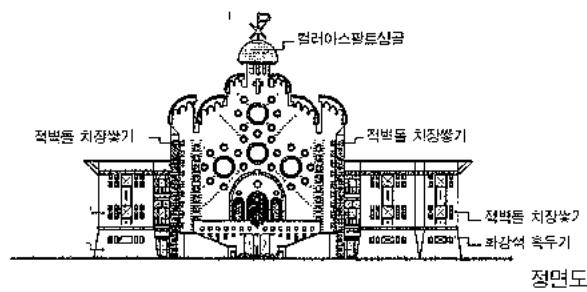
내부마감 / 바닥 - 화강석 + 테라조판

벽 - 적벽돌 +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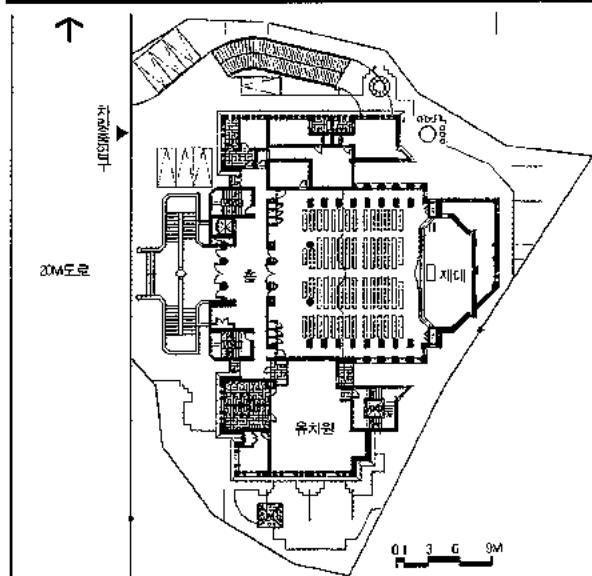
천장 - AL 패널 + TEX류



내부 측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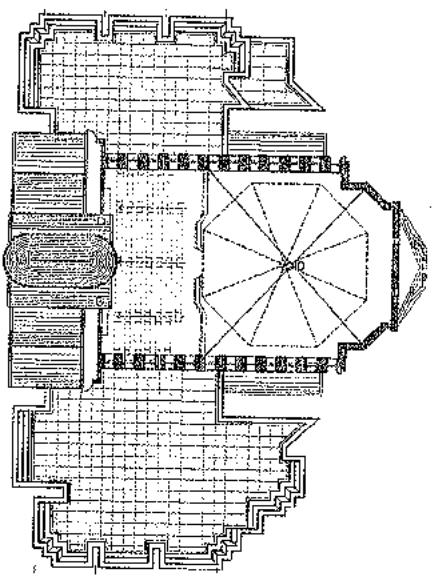


제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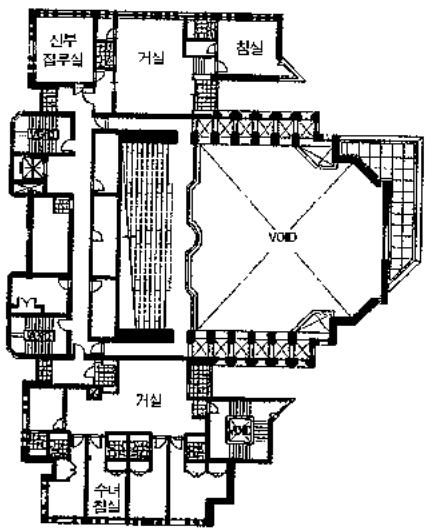


배치도 및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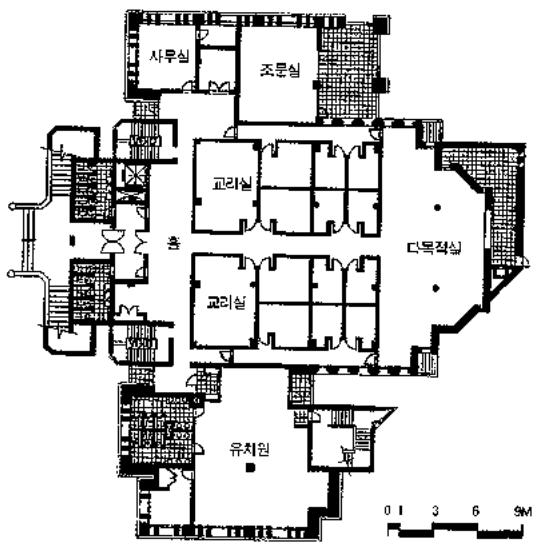
주차대수 / 24대
 조경면적 / 426.19m²
 설계기간 / 92년 12월 ~ 93년 2월
 공사기간 / 93년 5월 ~ 96년 7월
 구조계산 / 신세기건축
 기계설비 / 혁인설비
 전기설비 / 혁인 이엔씨
 건축주 / (재)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시공 / (주) 삼정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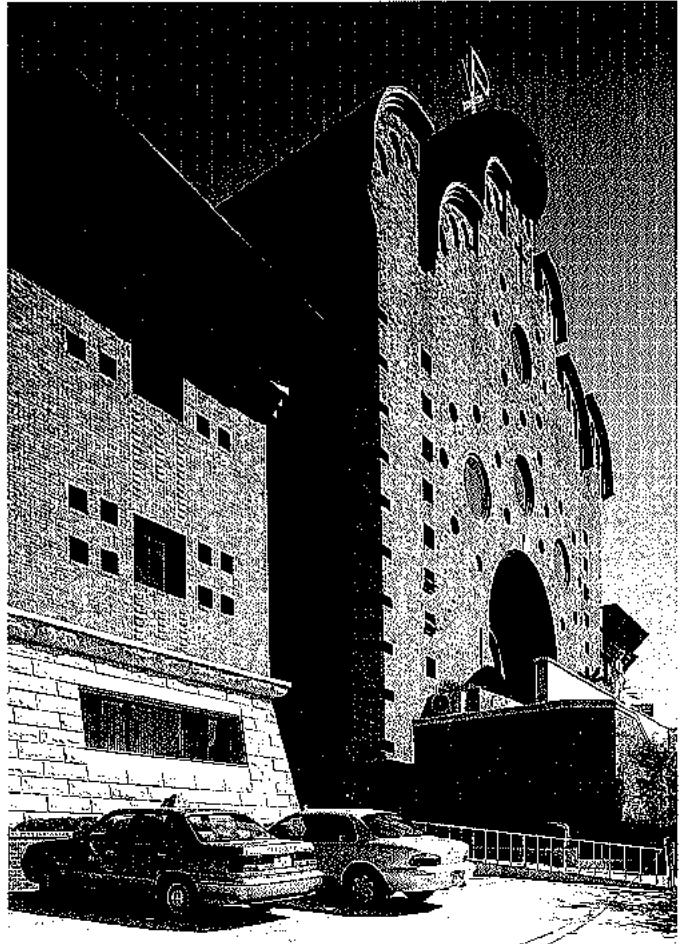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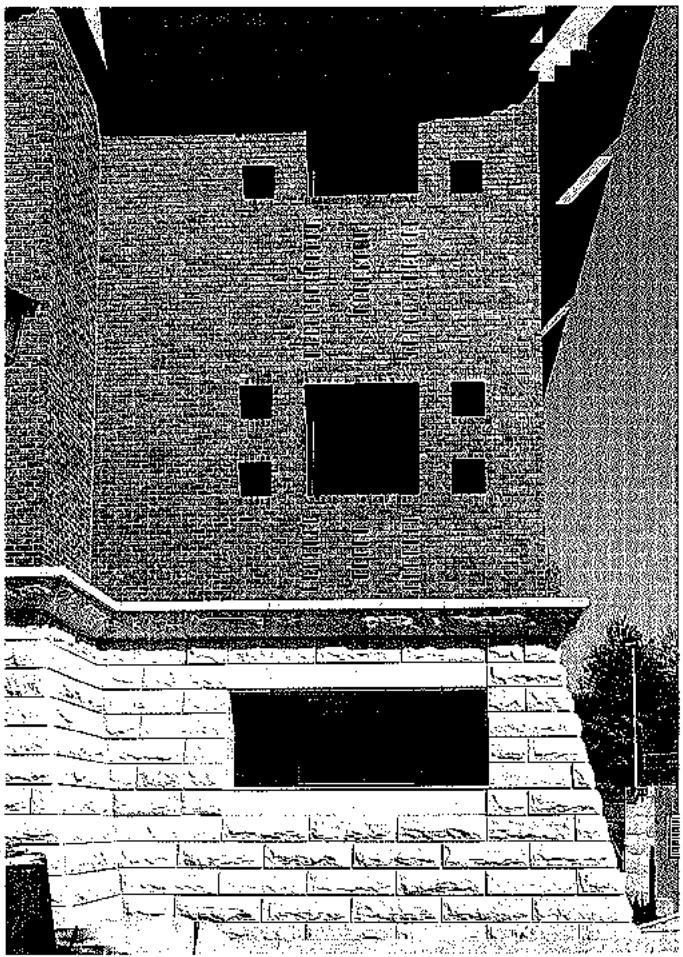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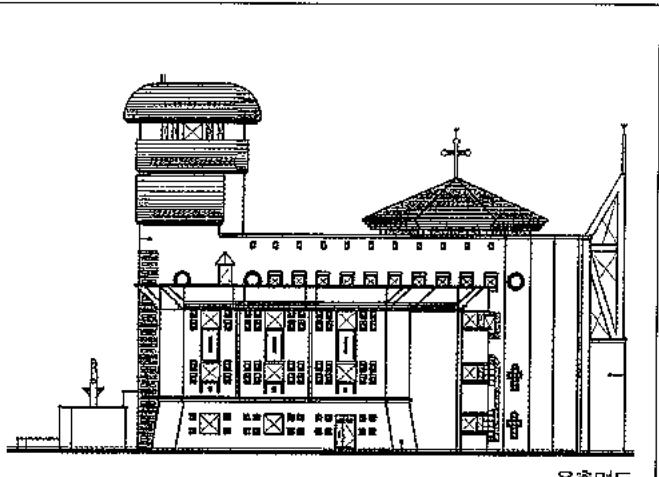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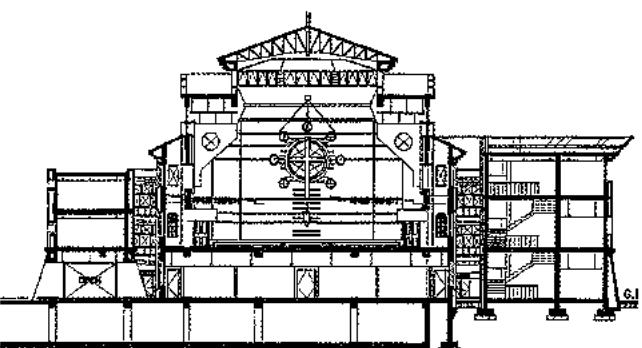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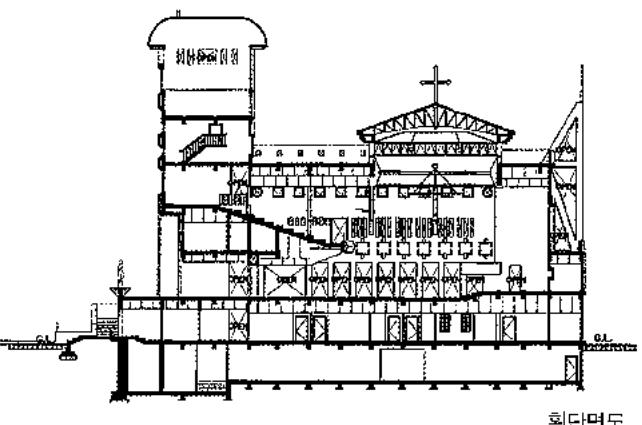
남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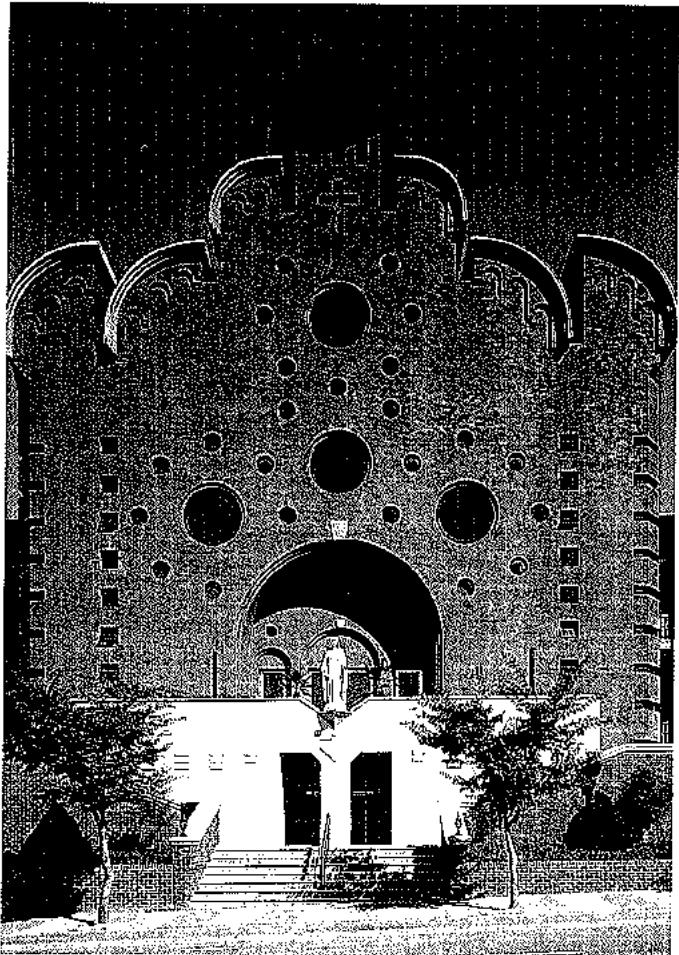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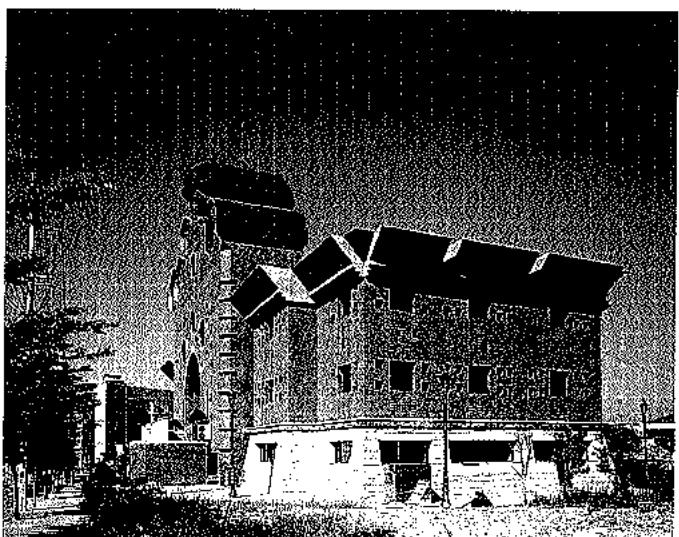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정면



남서측 전경

충북 청주시 시직1동에 위치한 사직1동 성당은 청주예술의 전당과 마주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성당의 지반보다 높고 넓은 주차공간이 있어서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다.

또한 배경이 되는 우암산의 능선이 나이막하게 위치하고 있어 적어도 건축가로서는 욕심을 낼만한 위치이면서 건물 자체로는 정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성당의 건축주인 사제는 건물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 몇가지만을 제

시하고는 건축가에게 전부 일임한 상태여서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다.

기능배치에서는 중앙성당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1층에는 교리실, 2층에는 성당과 성가대석 및 유아실이 밭코니 부분에 배치된 형태이다.

또한 성당의 북측에 해당되는 좌측에는 성당사무실과 사제관 및 영안실을 배치하였고, 남측에 해당되는 우측에는 수녀원과 유치원이 배치되어 있다.

외관에서는 중앙성당부분은 기급적 수평적 요소를 피하여 배경을 이루고 있는 우암산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여러개의 1/4원의 지붕들과 모서리를 접는다든가 각각의 창을 피하여 원형의 창들이 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좌측과 우측의 사제관과 수녀원은 성당동과는 전혀 다른 건축어휘를 구사하였다.

즉, 지붕은 역삼각형 형태를 창은 정사각형등을 배치하여 성당의 Image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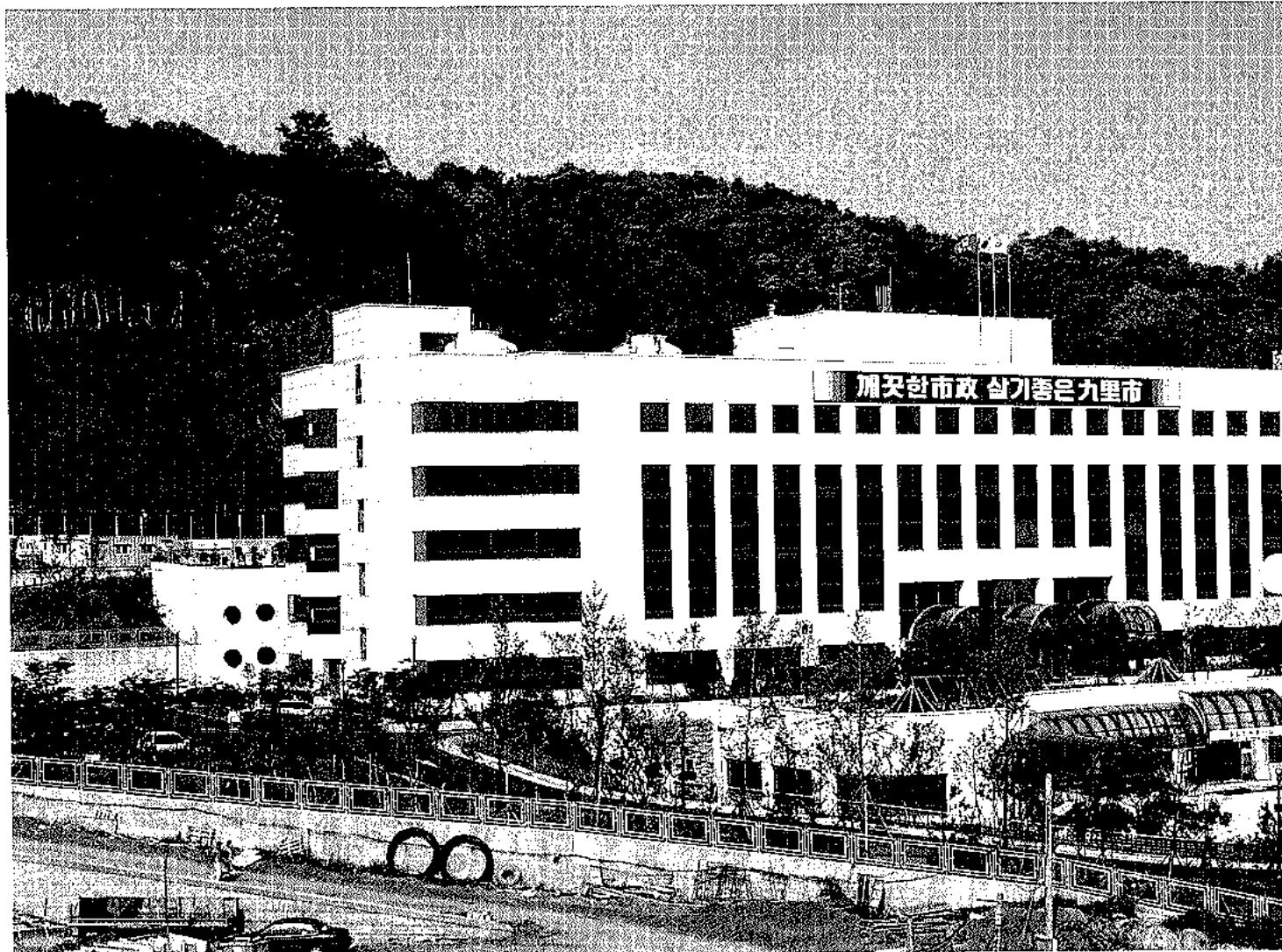
Walter.

희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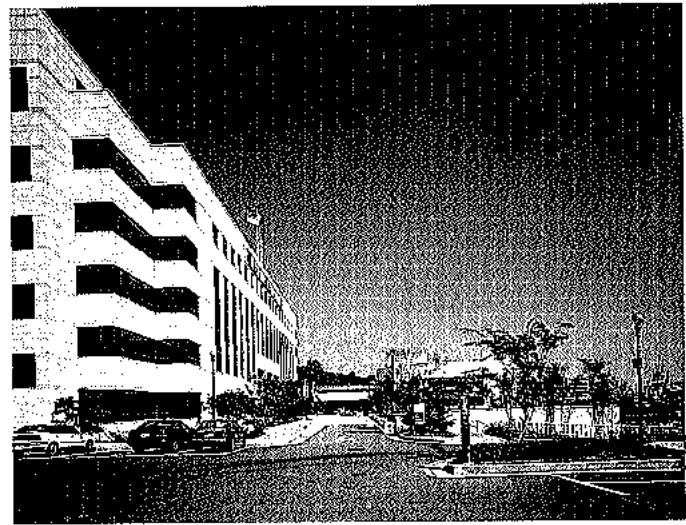
구리시청사

Kuri City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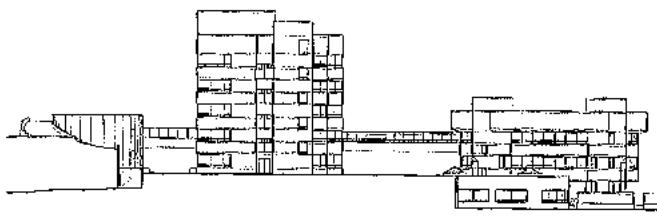
우시용 / 건축사사무소 시공
Designed by Uh Shi-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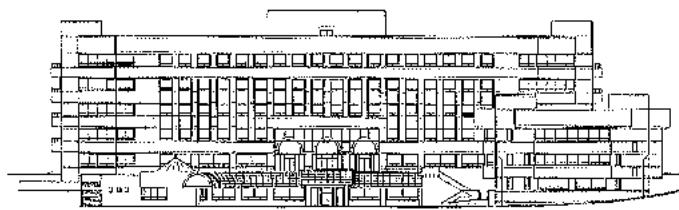
시민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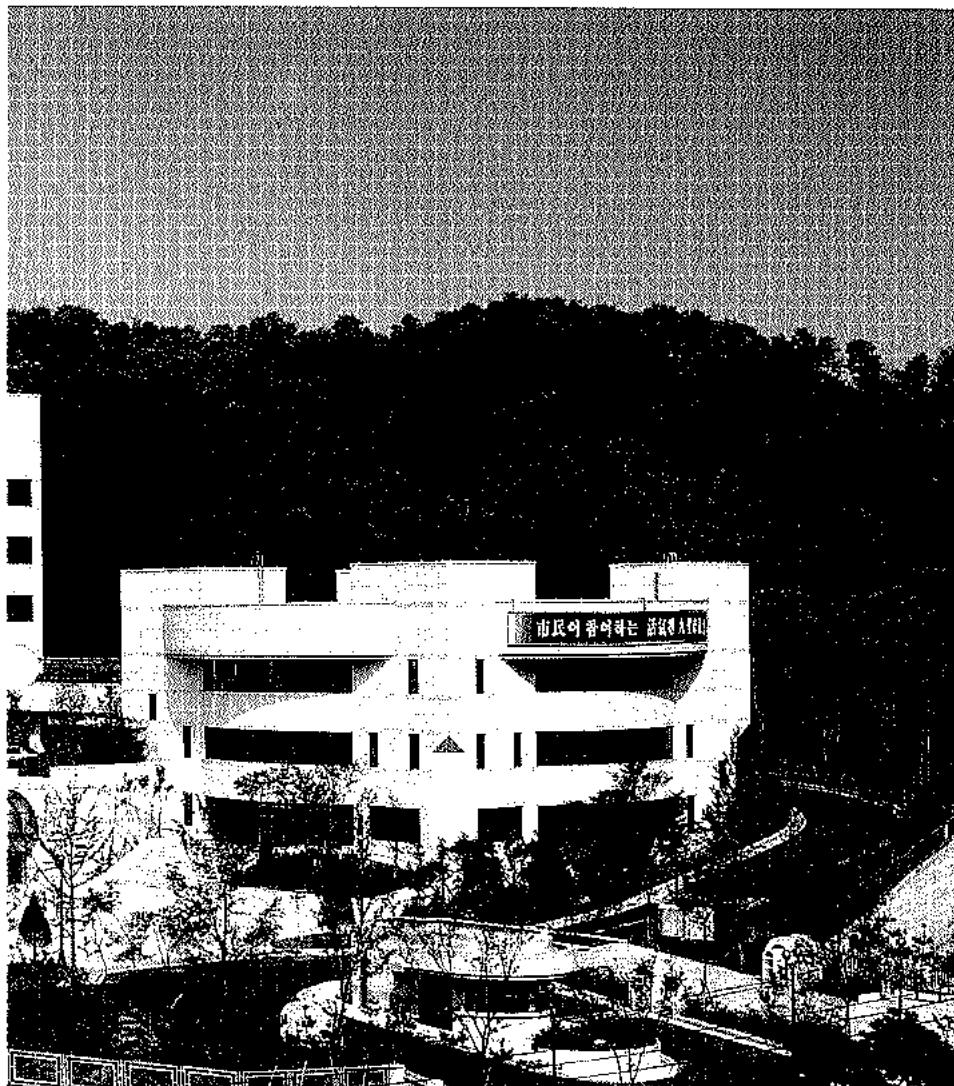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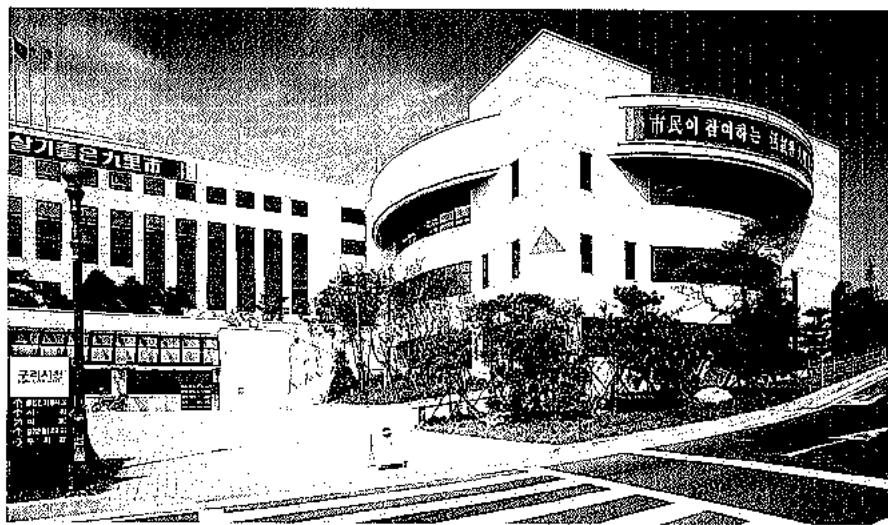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동측입면도



전경



의회동 전경

대지위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 94-2

대지면적 / 21,617㎡

건축면적 / 4,122.74㎡(1,247.12평)

연면적 / 19,401.09㎡(5,888.80평)

건폐율 / 19.06%

용적률 / 63.19%

조경면적 / 8,794.57㎡(2,660.35평)

건축규모 / 시청사 - 지하 1층, 지상 5층

시의회 -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장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외장재료 / 외벽 - 화강석 베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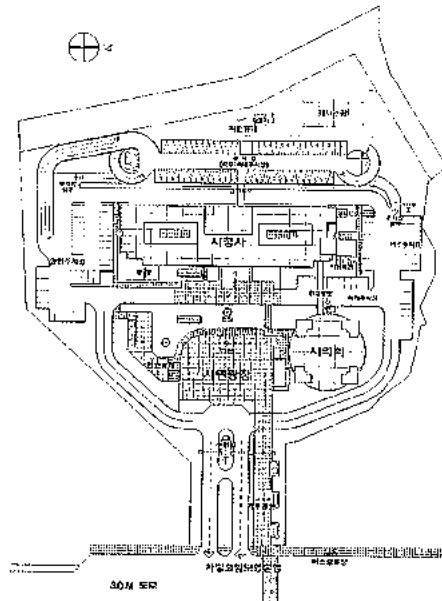
창호 - 컬러 알미늄세시, 저반사복층유리

최고높이 / 22.42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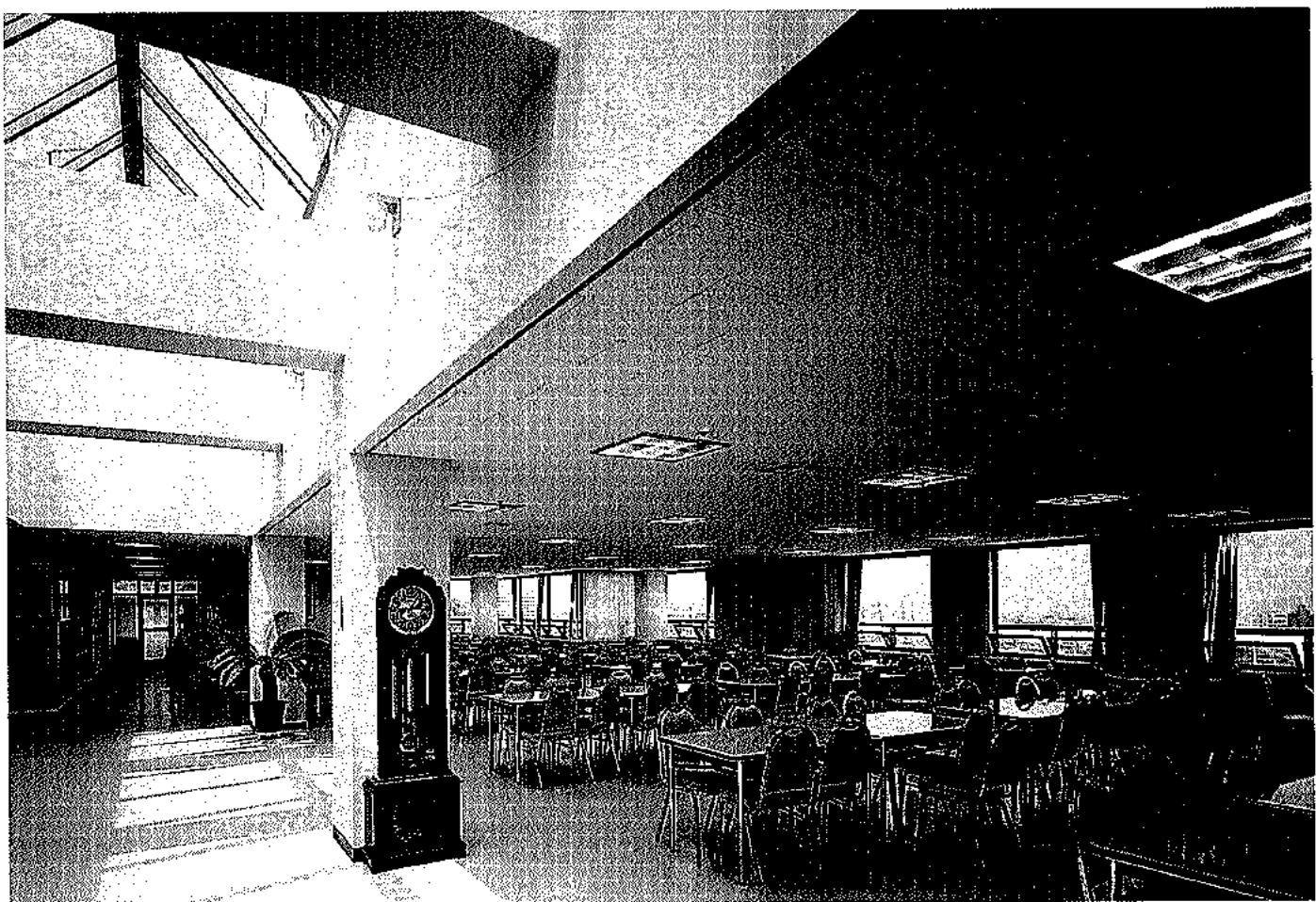
주차대수 / 297대(옥내 : 163대, 옥외 : 134대)

부대시설 / 수유실, 시민광장, 휴게소, 테니스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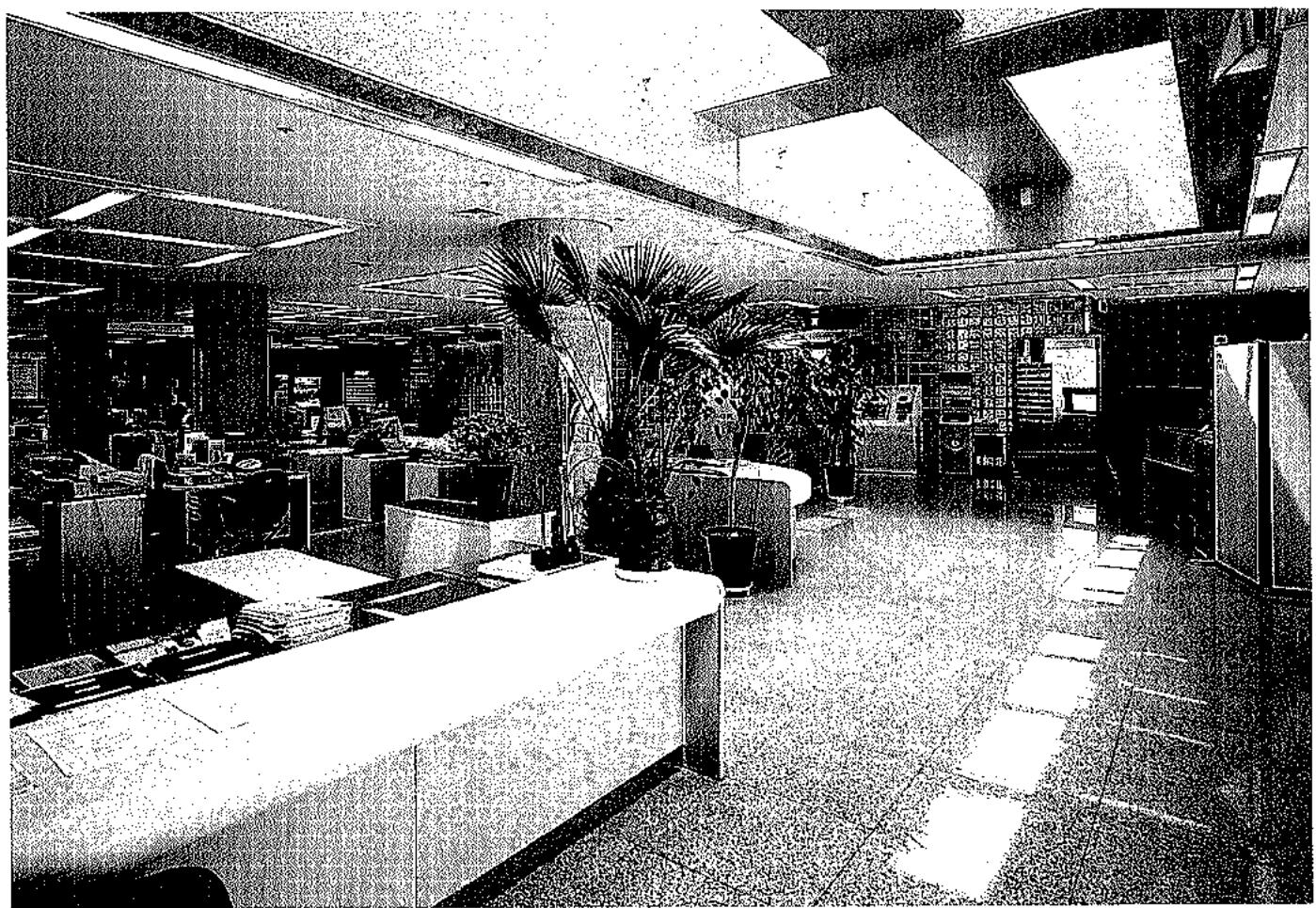
사진 / 정정웅(내부), 박영체(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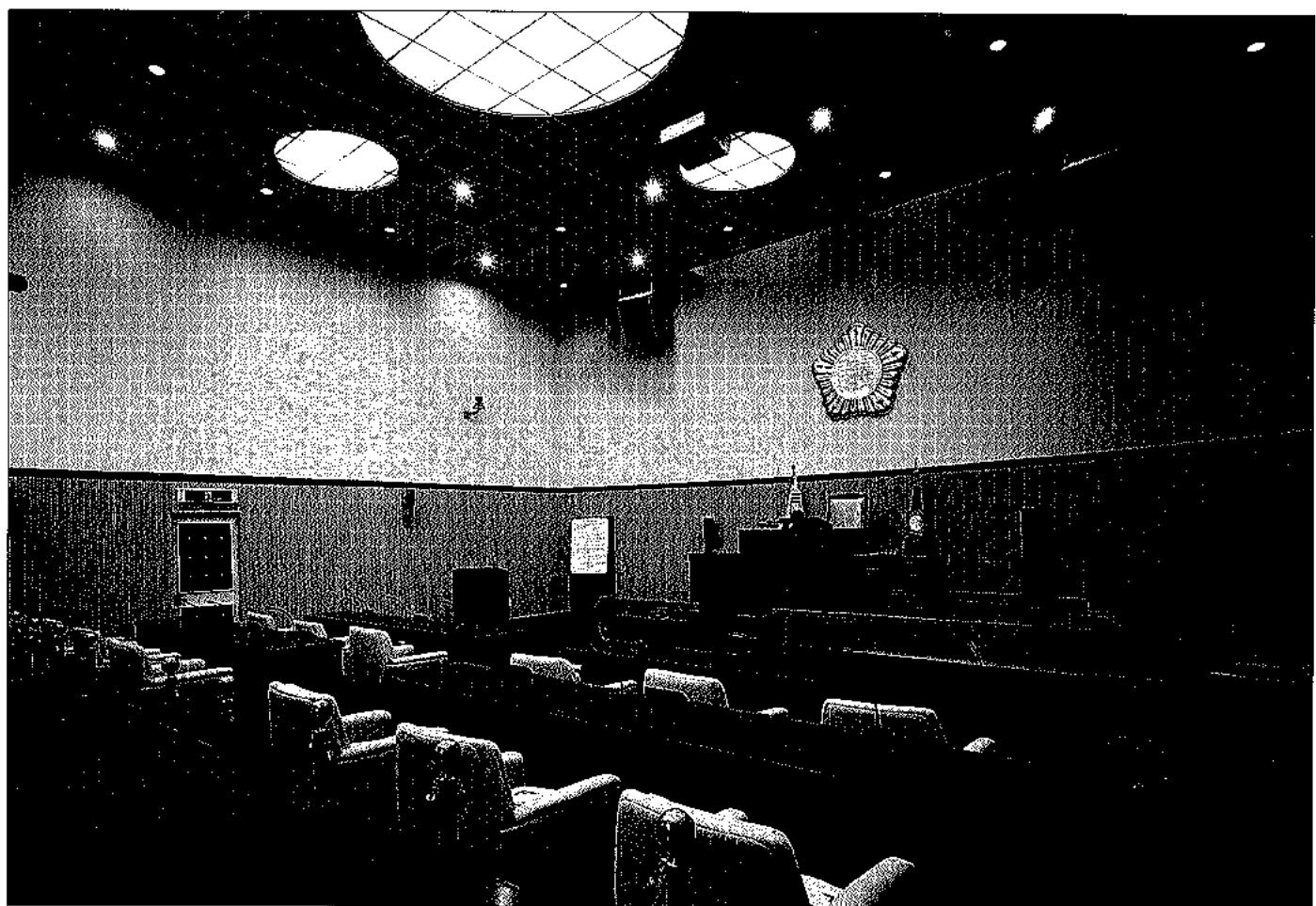
배치도



5층 직원식당



1층 민원실



의회동 회의장



1층 민원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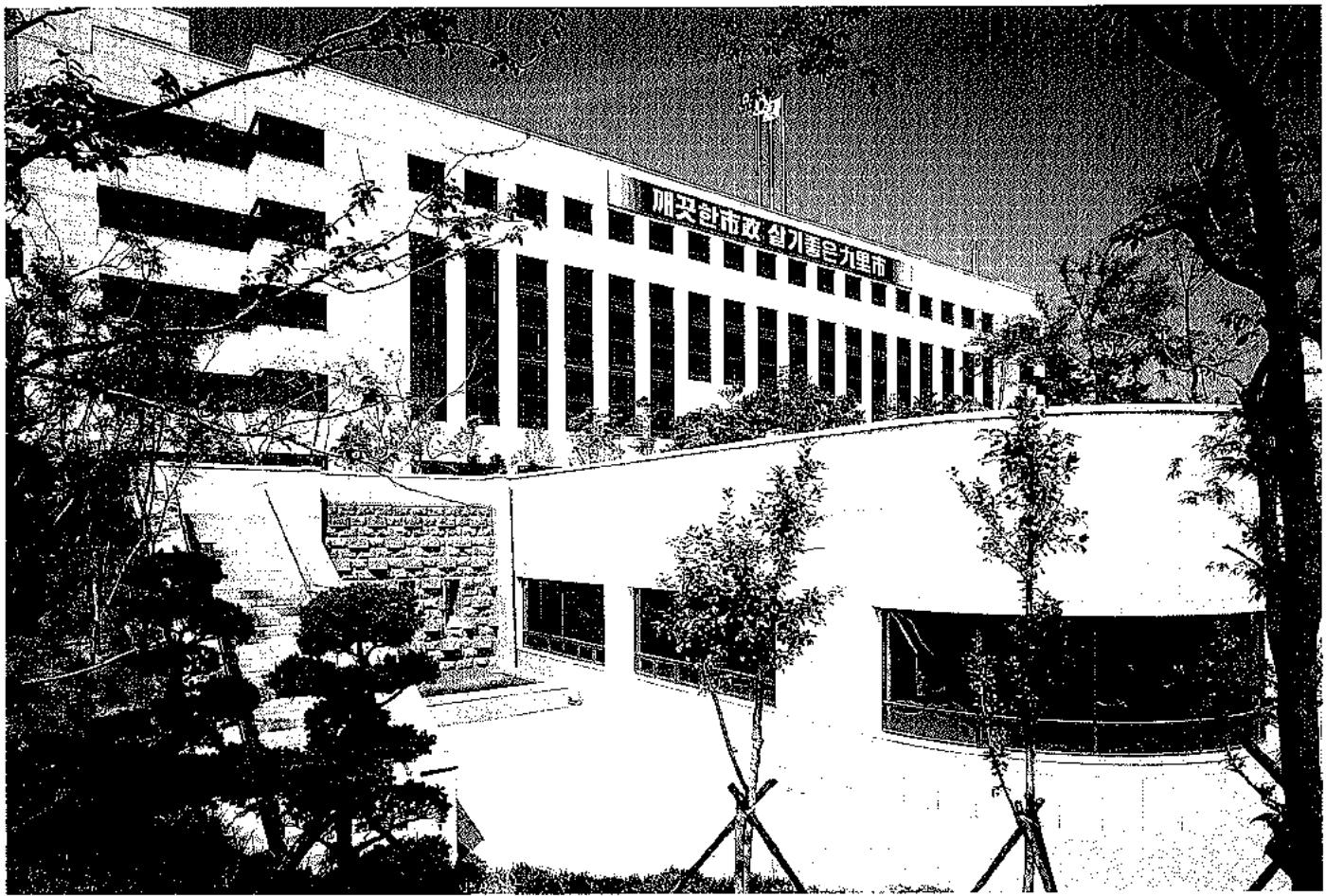
구리시는 서울 도심에서 동쪽으로 14km 지점에 위치하며 아차산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서울시, 동쪽으로는 남양주, 남쪽으로는 한강이 위치하며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며 서울 도심에서 가장 근거리의 자치시로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녹지로 구성된 전원 도시이다. 현 시청은 교문 사거리에서 워커힐 방향에 위치하며 수도권의 수급 분담 정책에 의한 위성도시로 급속한 발달을 보이고 있다.

시청사는 사무기기의 자동화와 지방 자치제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민원 공간 및 사무 공간의 계획으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시민이

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지세에 순응하는 점진적인 시설 배치는 한국 전통적인 경사지 배치로서 시각적인 개방감, 상승감 등을 주며 상호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며 자연 지형의 스크린 형성으로 자연과의 조화미를 강조한다. 시민의 시청사 이용은 전면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진입이 구분된 시민 휴게 공간인 가로 공원을 걸어 올라가면 시민 광장에 다다른다. 크기가 30m×40m정도인 시민 광장은 구리 시청사의 핵으로 이 광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시의회동, 정면 지하에 민원실 및 대강당이 위치하여 정면 외부에 유리로 덮인 아케이드가 있어 시민 광장의 한계를 저워주고 있다. 시의회가 우측에 위치한 이유는 북쪽으로 향과 조

원만케 한다. 전망이 좋은 시청사 5층에는 복지 기능인 식당, 매점, 도서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두고 지붕의 옥상 정원과 연결되어 시민과 공무원의 휴게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타 시청의 경우 복지 기능을 지하층에 두는 예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음식 냄새가 전 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시청사 지하층은 최소한의 면적(cpx실, 창고, 기계 전기실)을 제외한 실기능을 지상에 배치함으로서 채광 및 환기, 조망상을 높였다. 진입로로부터 분리된 차량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의 민원 주차장과 시청사 후면의 직원용 등의 장기 주차가 가능한 주차 건물로 구분되어 주차가 되며



동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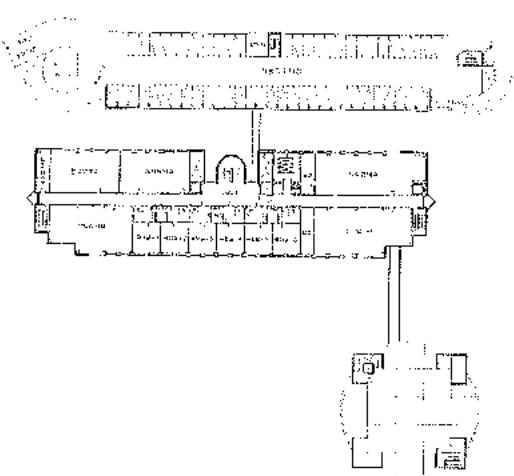
주인이 되는 문민시대의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질 각종 시설물과 공간의 계획으로 보다 친근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로서 계획되어져야 한다.

시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동측에는 주거지역, 서측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대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경사지로서 전망이 좋다. 대지가 경사지인 것과 도로에서의 전면성을 고려할 때 대지의 향이 동향인 것은 시민의 접근에 대한 고려와 소음의 차단, 일조 조건을 고려한 공간 분할 계획이 요구되어진다. 대지의 주어진 조건과 시민의 이용을 고려하여 도로에서의 진입공간, 시민공간, 업무공간, 주차공간 등의 순으로 경사지를 적절히 Level화시켜 단계적인 배치로 대지 전체를 건축화

망이 좋고 특히 시민 광장에 시의회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 광장은 각종 야외 집회나 행사에 쓰일 수 있고 시의회 앞의 계단은 무대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민원실과 대강당은 시민 광장과 전시홀에 의하여 연결되며 전시홀을 통하여 시청사 1층과 연결된다. 2면이 지하에 묻힌 민원실은 자연 흔기 및 채광 등을 고려 천창과 선 큰기둥에 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강당을 시민 광장에 인접시킴으로서 대규모 인원이 일정시간에 이동함으로서 발생되는 타 동선과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다. 시민 광장에서 연결되는 시의회는 1층에 사무공간, 2, 3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3층에서 브리지로 시청사 2층과 연결되어 시민의 이용과 시청사에서의 연결이

이 주차 건물과 시청사 2층이 브리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 브리지를 통하여 시청사내로부터 주차 건물 후면의 직원용 테니스장, 휴게 장소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시청사 건물의 수직 중축 시 주차 건물도 수직 중축으로 부족한 주차 대수의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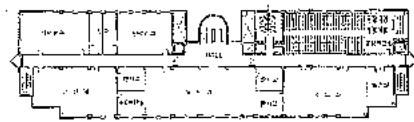
30m 주진입도로에서 도시축에 맞추어 정면성을 갖도록 하며 시청사, 민원동, 의회동 등이 경사진 대지에 단순미와 겸손한 이미지의 구현으로 천근한 시민적인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는 시청사는 좌우 대칭으로 수직과 수평선이 조화된 외장 계획으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브리지를 통하여 시청사내로부터 주차건물 후면의 직원용 테니스장, 휴게장소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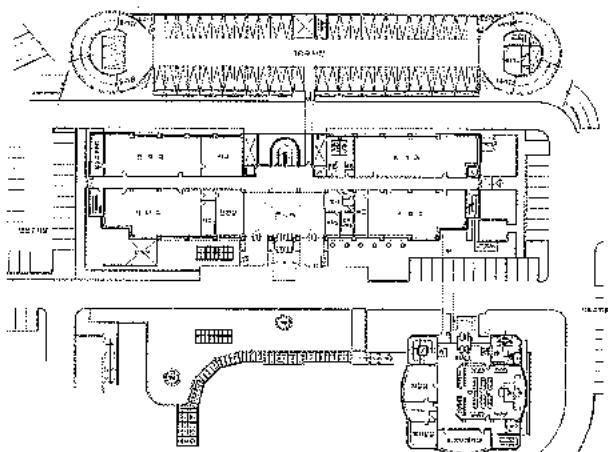
3층, 의회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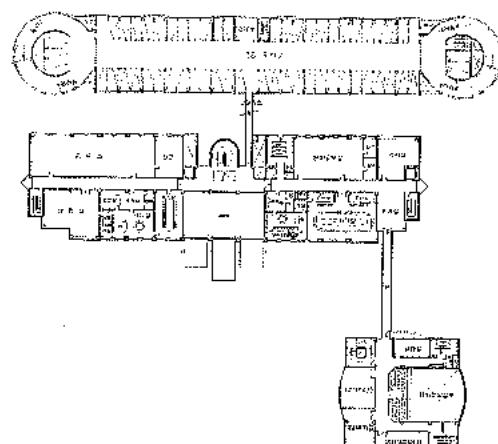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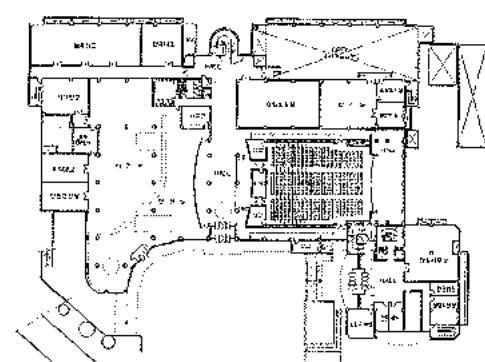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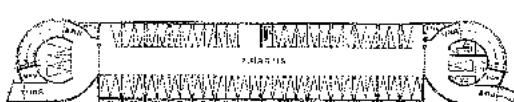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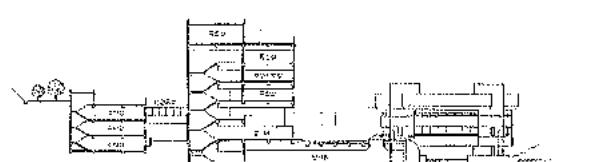
1층, 의회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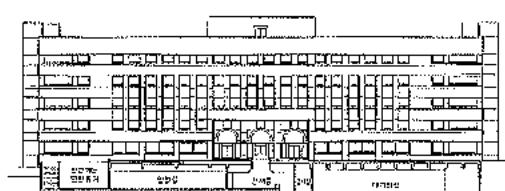
2층, 의회 3층 평면도



지하층, 의회 1층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Wooltex

화원작품

대한교원공제회 광주회관

The Korea Teacher's Mutual Fund

김인석 / (주) 일건 마이에스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In-Seok



전경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15의 3필지

대지면적 / 7,287㎡

건축면적 / 3,198.45㎡

연면적 / 28,209.41㎡

건폐율 / 43.48%

용적률 / 250.02%

규모 / 지하3층, 지상 1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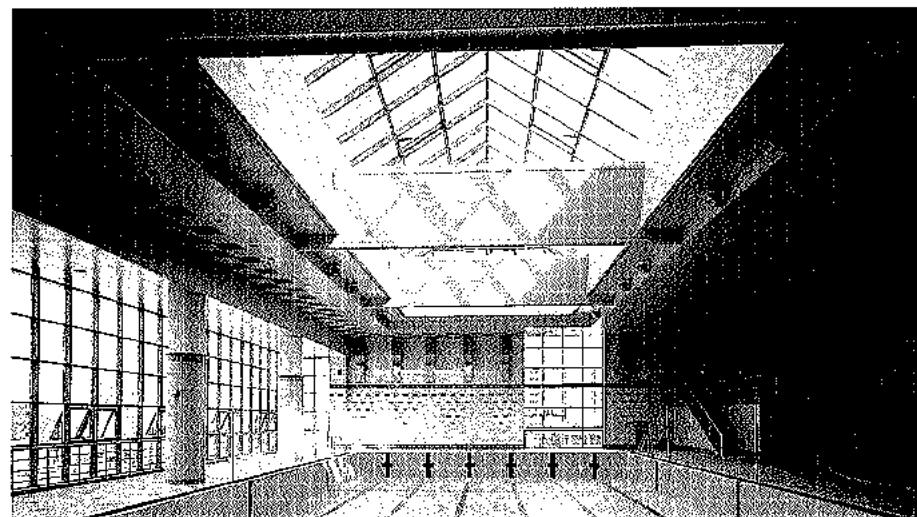
외부마감 / 회강색비너구이 간식 볼임 및 컬러 복층유리

건축설계 / 흥명덕, 고흥각, 김남곤, 장혜순, 김동수, 김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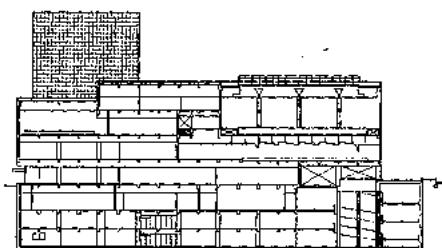
구조설계 / 벤구조연구소

설비설계 / 보우밸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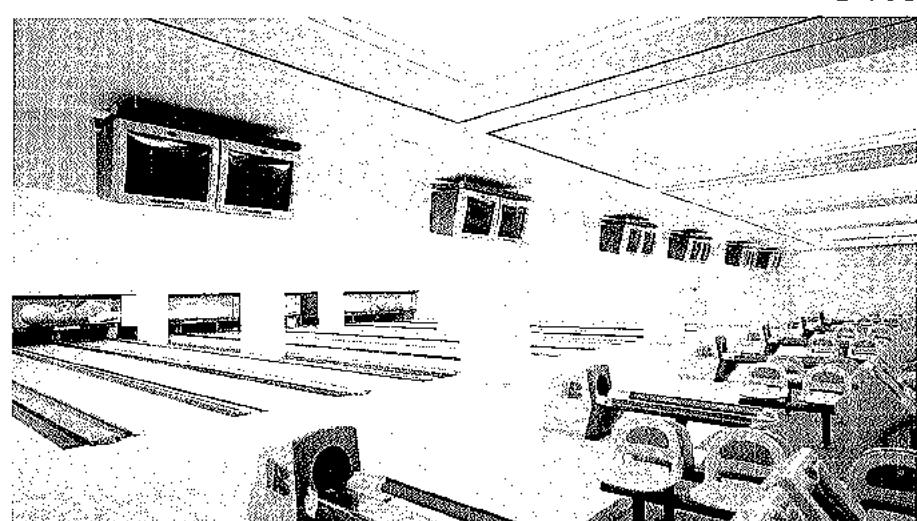
전기설계 / (주)새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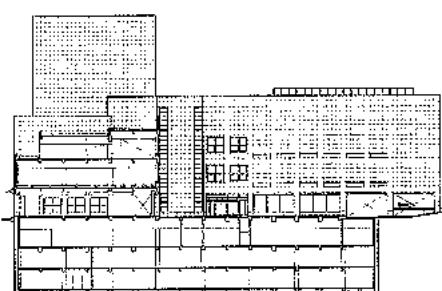
3층 수영장



종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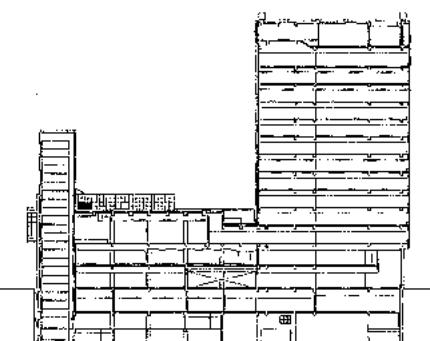
2층 볼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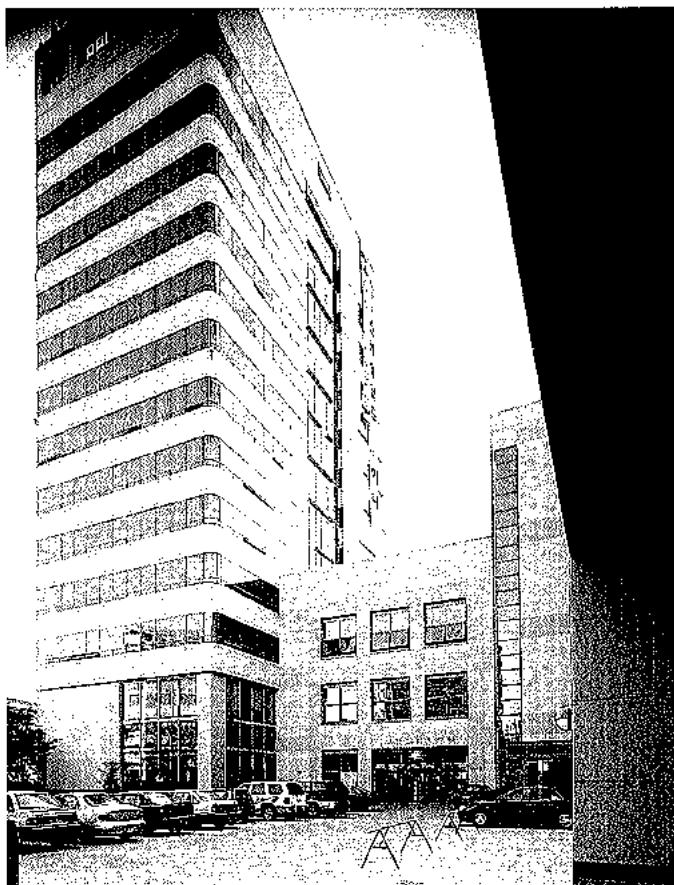
종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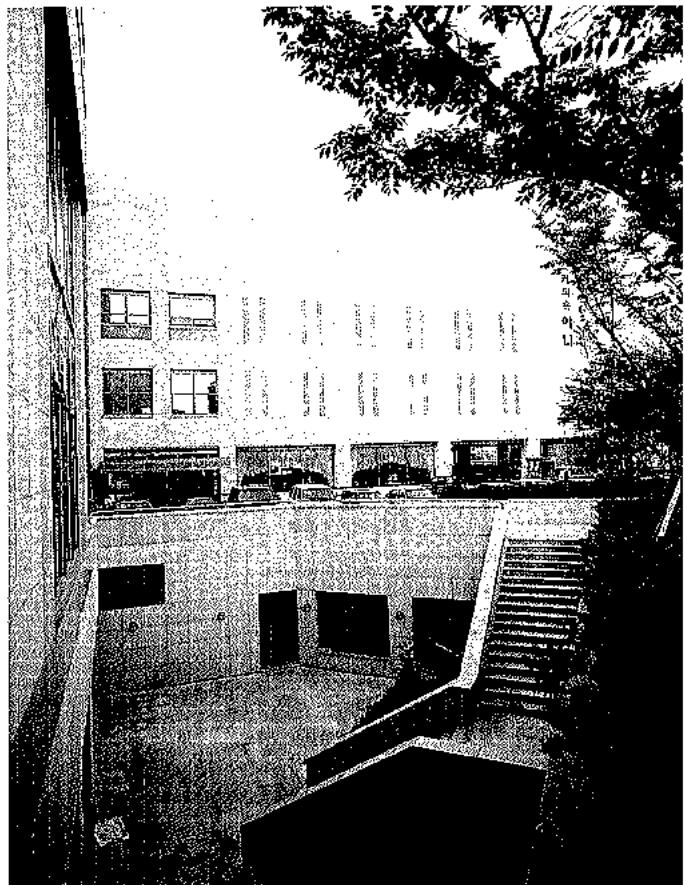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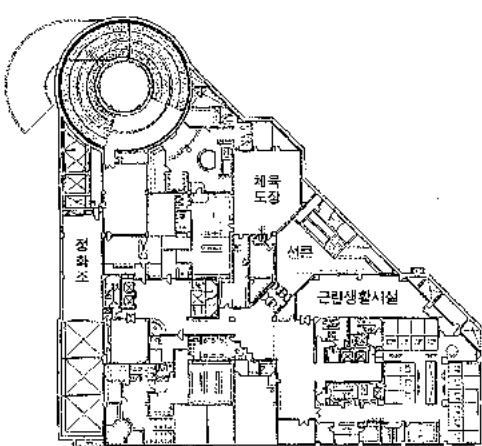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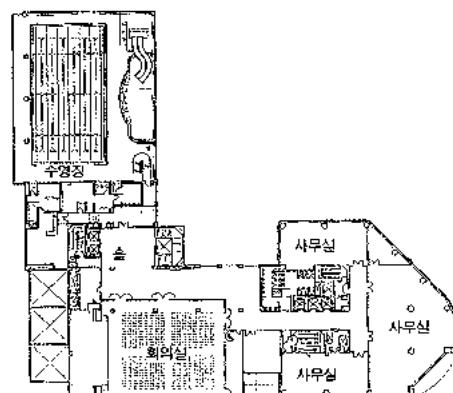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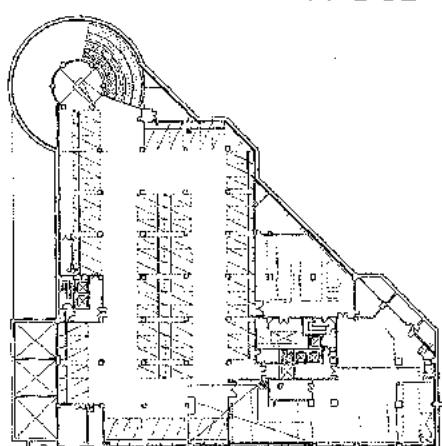
선큰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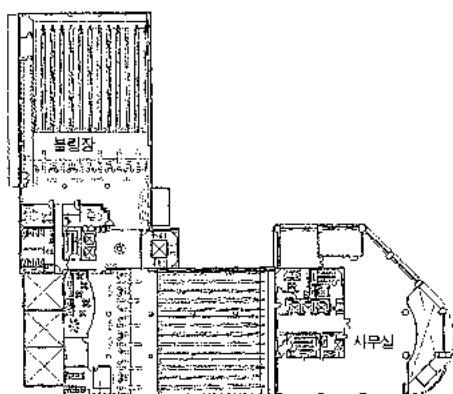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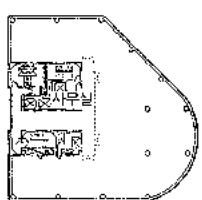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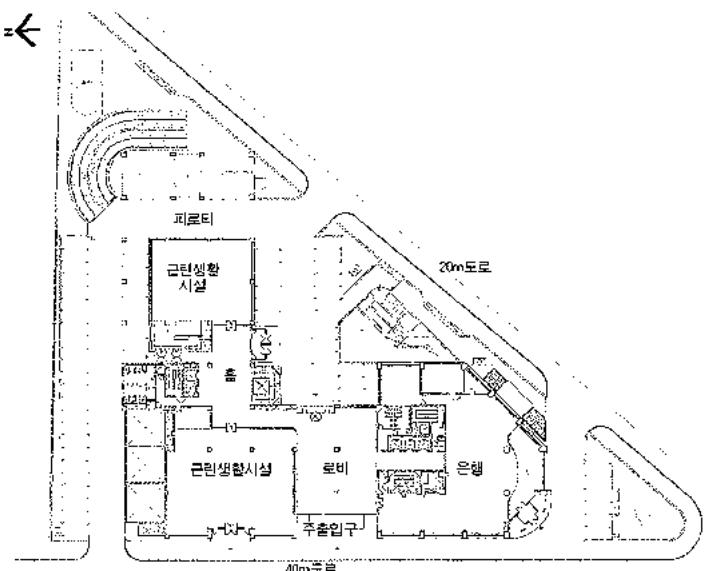
북서측 전경



14층 평면도



6~12층 평면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이 건물은 대한교원공제회의 지방화 사업의 하나로 전남과 광주지역 회원들의 복지시설 증대를 위하여 계획되었다.

부지조건

계회부지는 광주시의 신개발지역으로 40m와 20m 도로가 Y자형으로 형성되는 삼각형 부지로서 도로 로터리를 면하여 시각적으로도 전망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배치계획

이 건물은 3개의 기능군(업무, 판매, 스포츠)으로 구성된 건물을 삼각형 부지에 L자형으로 배치하여 도로의 교차부분에 고층부(업무 및 금융)를 두어 Landmark가 되도록 하였고 대지후면 부분에는 저층부(스포츠)를 배치하였고, 삼각형 대지의 양모서리 부분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중앙부분에는 Sunken Garden을 두었다.

대지내의 차량과 보행자 동선은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원활한 출입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용차선로를 확보하여 교통체증 등 장애 요소를 제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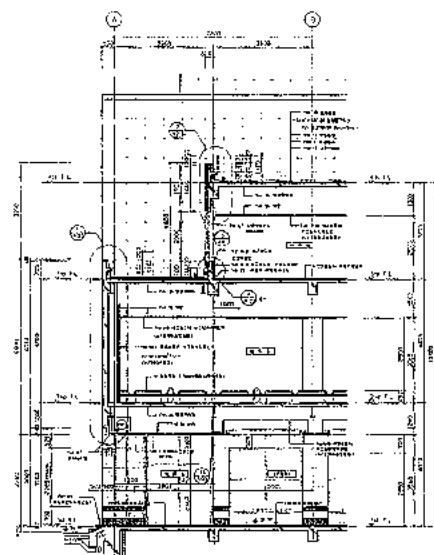
평면계획

건물의 3개 기능에 따라 3개의 Block으로 계획되었으며, 금융과 업무 Block을 말굽형 코아 평면으로 고층으로 계획되었고, 판매와 접회 Block을 40m 도로변에 저층으로, 스포츠 Block은 건물후면에 저층으로 연속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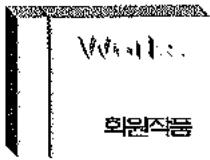
건물의 구조 Module은 7.8m×7.8m를 기준으로 하여 큰 Span이 요구되는 스포츠 공간을 7.8m×3의 단위로 하였다.

입면계획

Landmark가 되는 고층부는 수평띠를 강조하는 곡면형의 경쾌한 커튼월로 계획하였으며, 건물의 기단부가 되는 저층부는 격자문양을 강조하는 화강석버너구이 벽면구성으로 하여 안정감과 중량감을 주었다.



외벽단면상세도



회원작품

고향산천

Go Heang San Chon

최윤호 / (주)원 건축사 사무소
Designed by Choi Yoon-Ho

대지위치 / 전남 순천시 상시면 출산리 116번지 외 3필지

지역 · 지구 / 도시계획 외지역 준농립지역

주용도 / 균린 생활시설(일반음식점), 주거시설

대지면적 / 3,383.0m²

건축면적 / 398.57m²

건폐율 / 23.17%

연면적 / 599.063m²

용적률 / 34.82%

최고높이 / 13.0m

규모 / 지상4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및 조적조, 철골조

설비 / Fan Heater, 개별 난방 방식

외부마감 / 외벽 : 자연석 쌓기, 헨드코트 마감, 적산목 마감

지붕 : 컬러 앤스풀트 상글 이기

내부마감 / 천장 : 1.6t 철판 의 실내인테리어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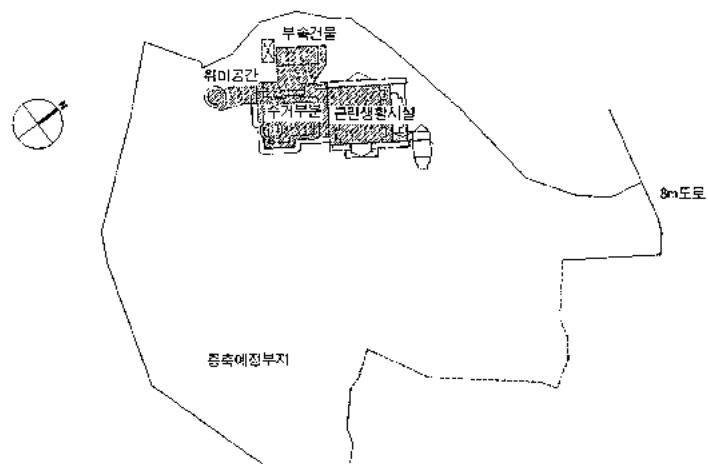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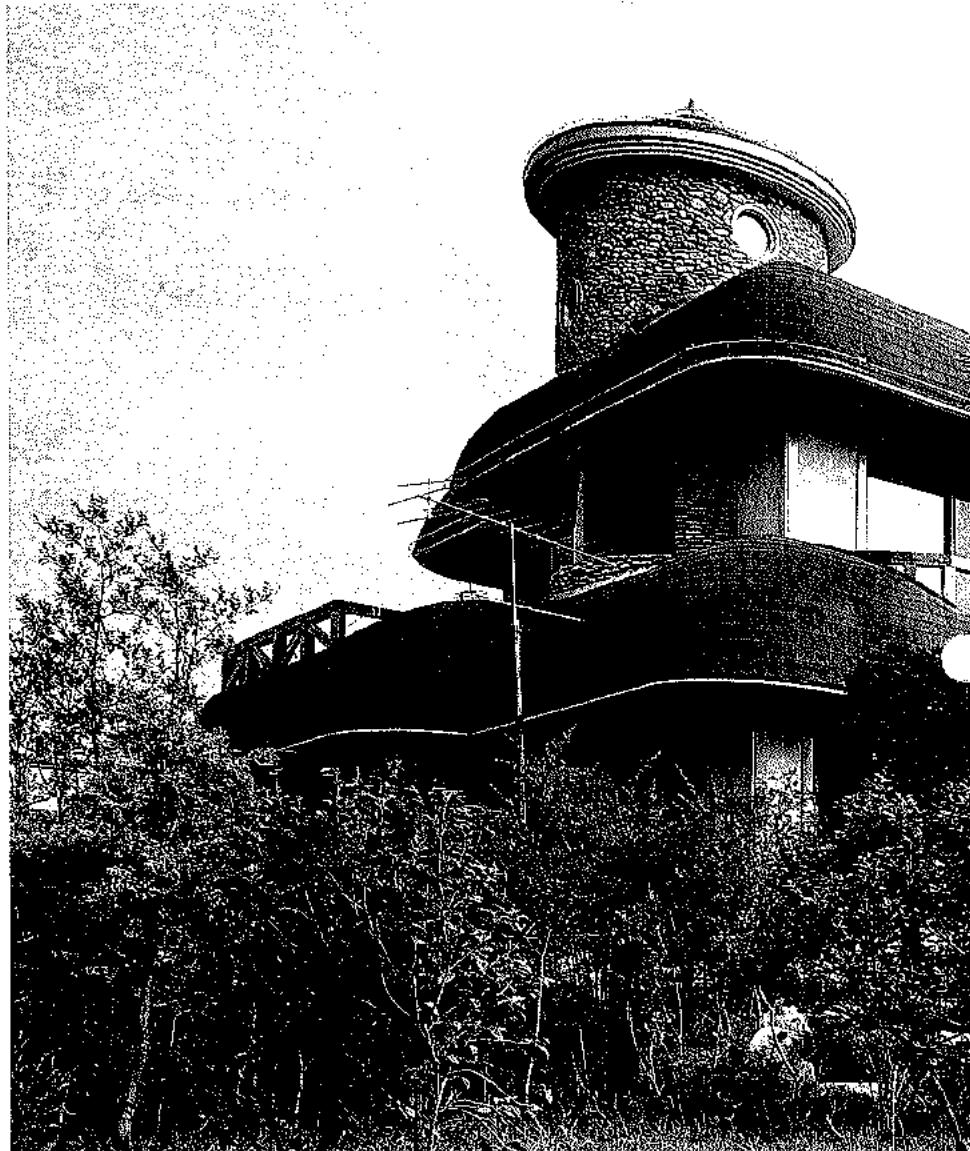
내벽 : 목재 결포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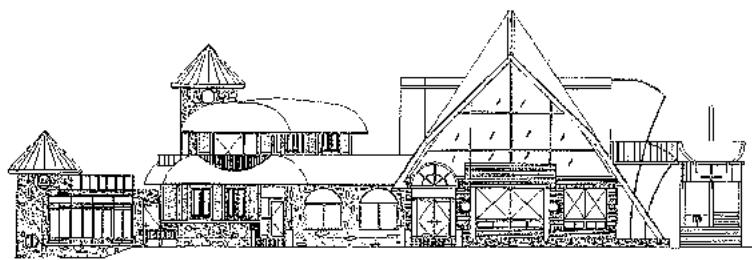
건축주 / 원정희

설계담당 / 정길성, 김현경, 황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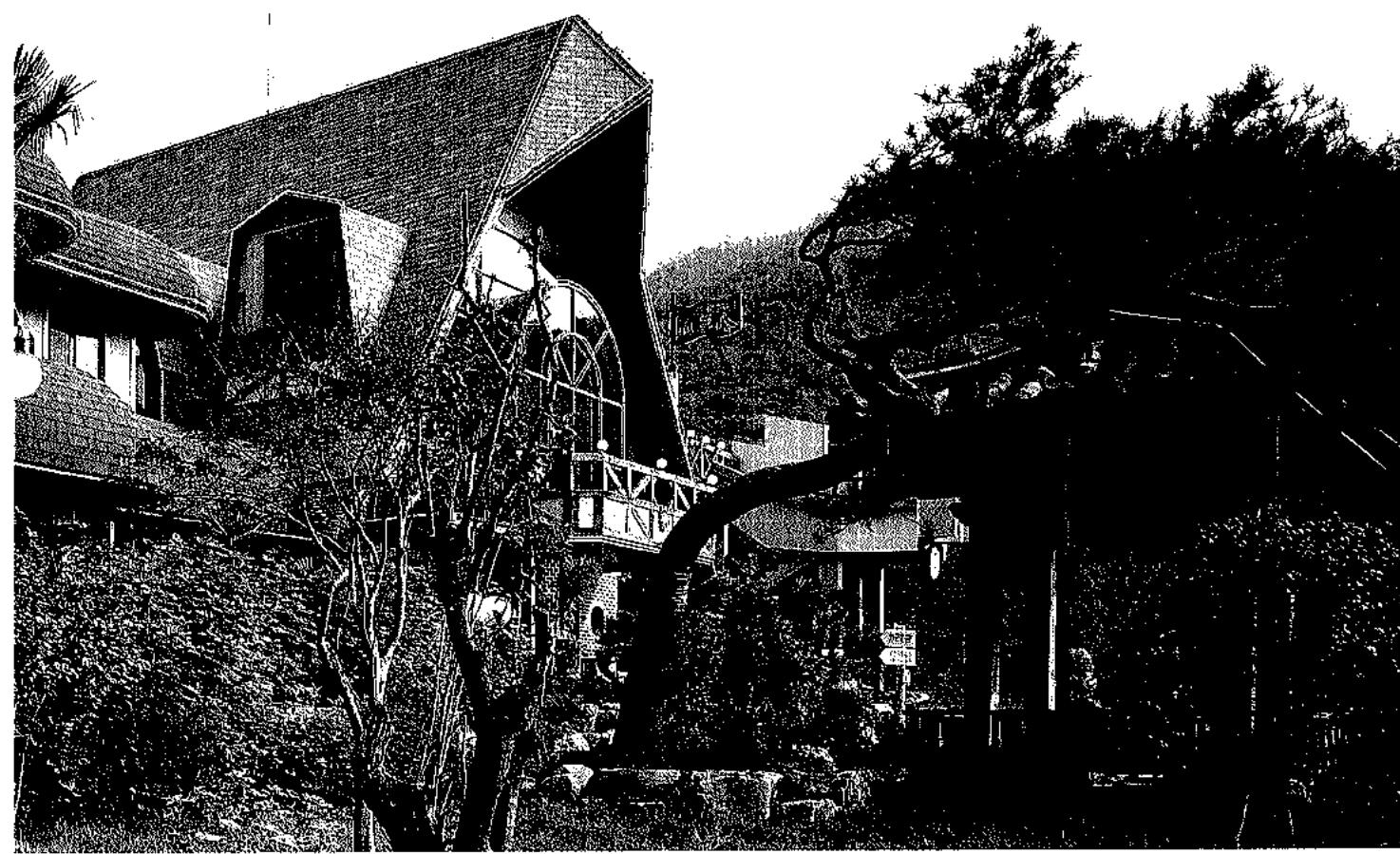
감리담당 / 정길성

시공 / (주)원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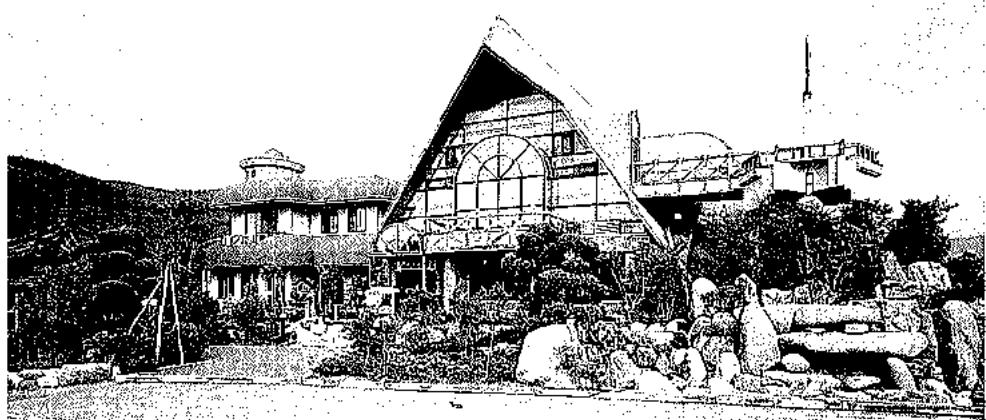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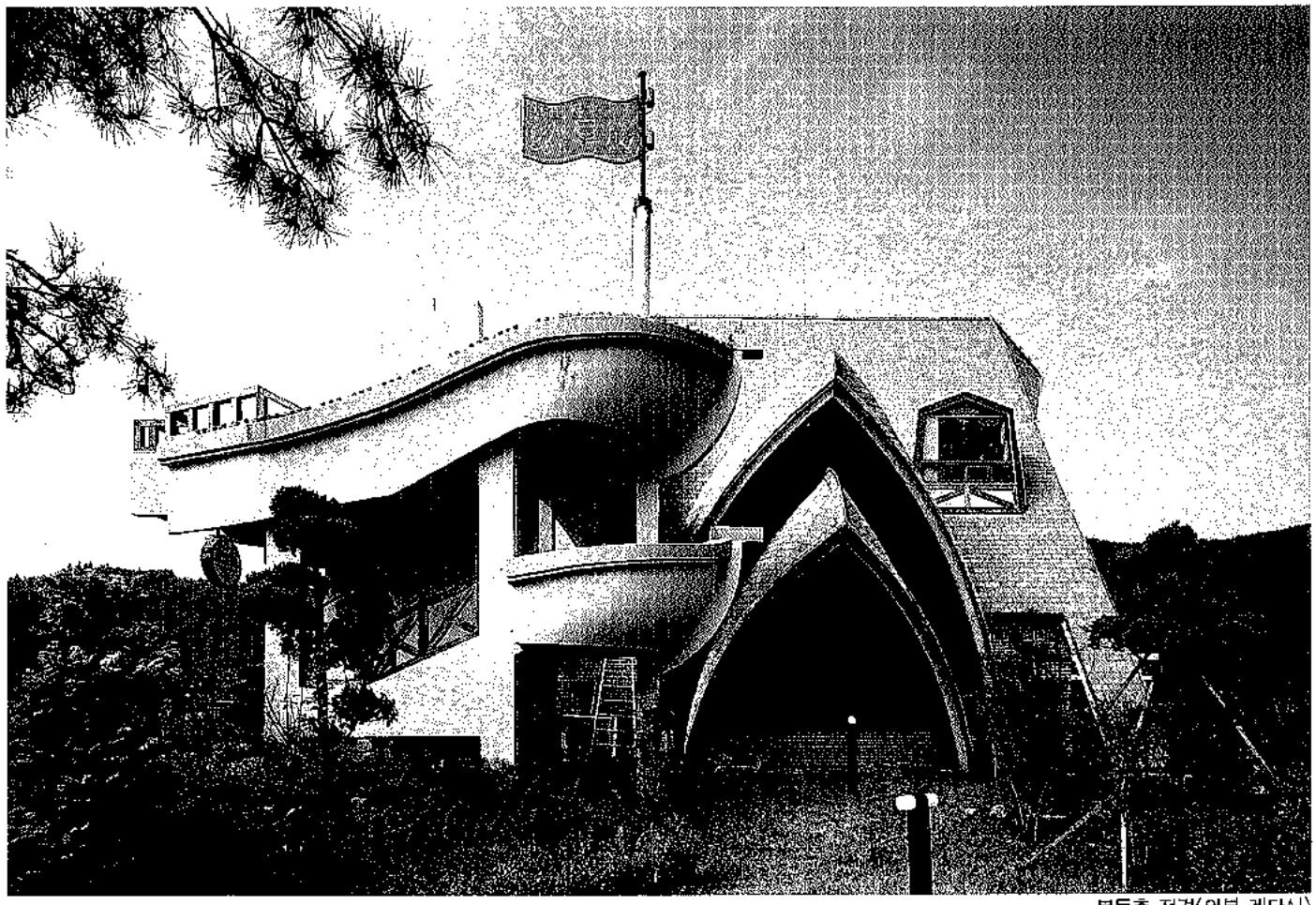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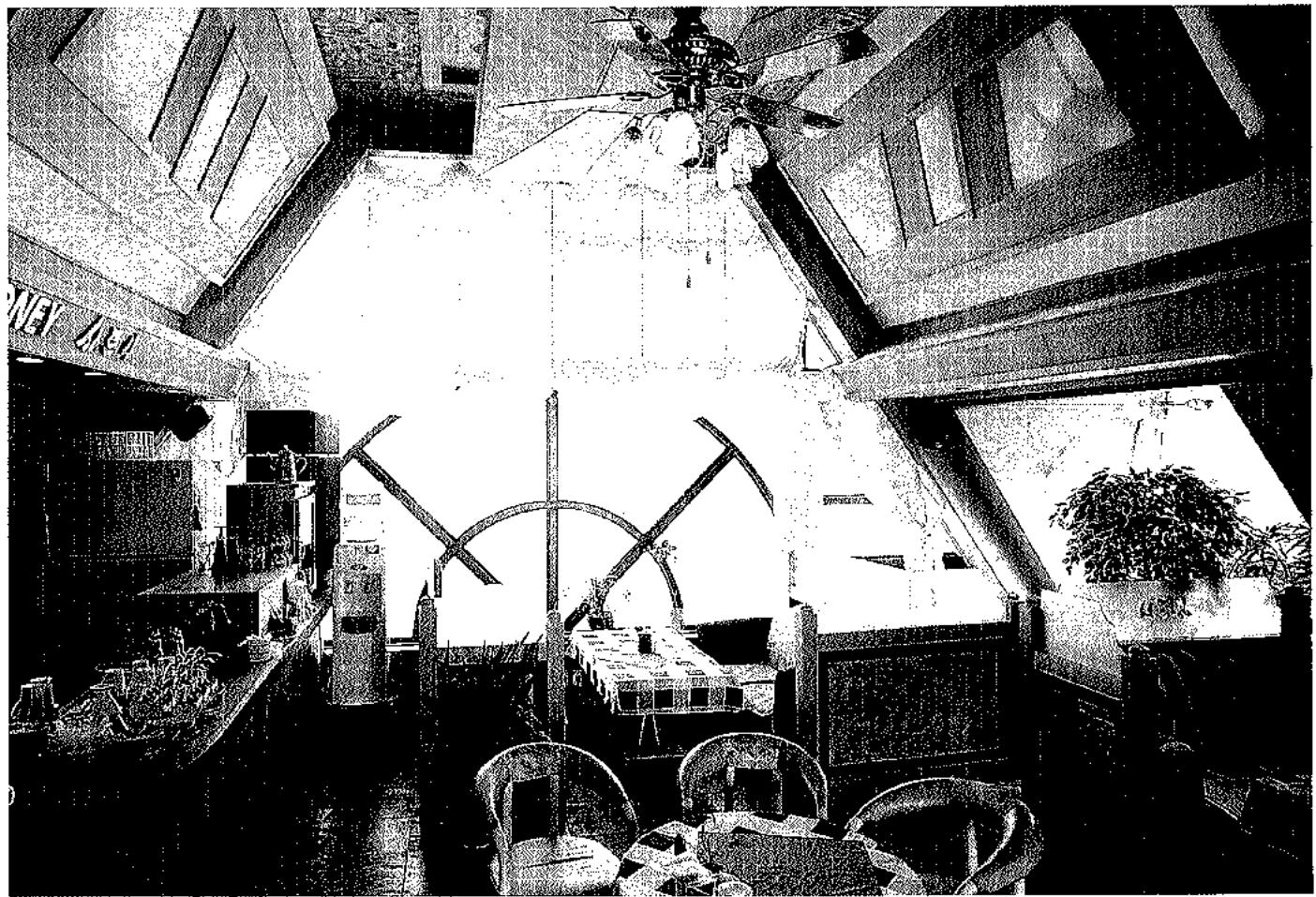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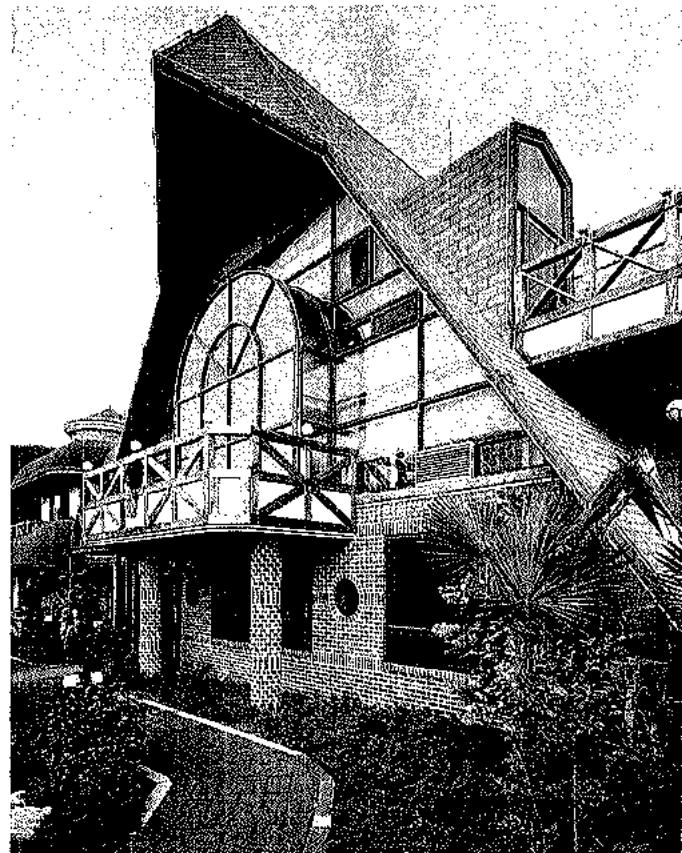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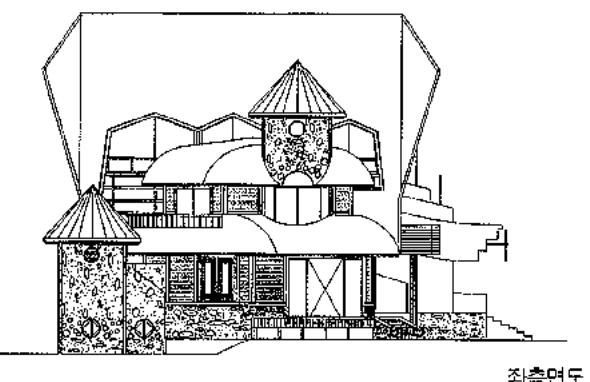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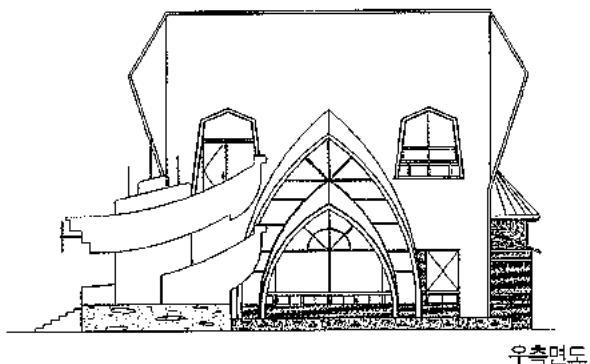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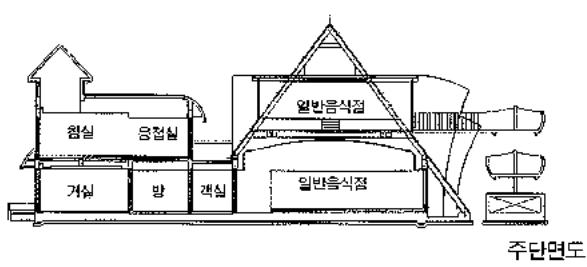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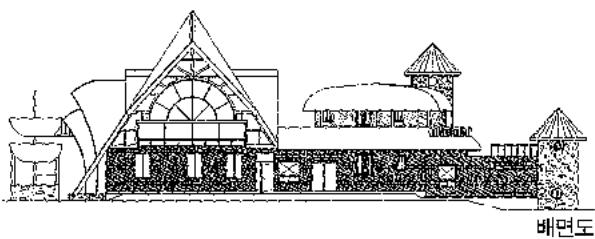
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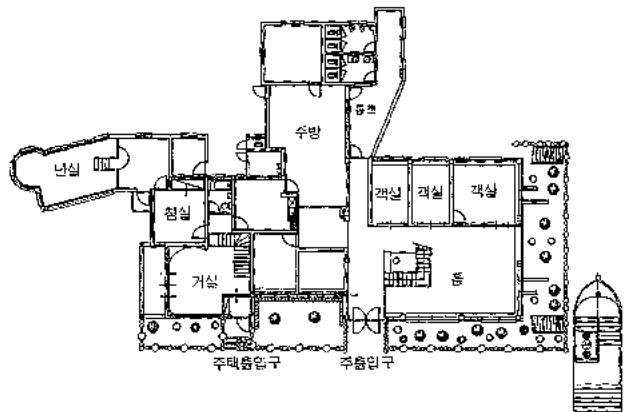


북동측 전경(외부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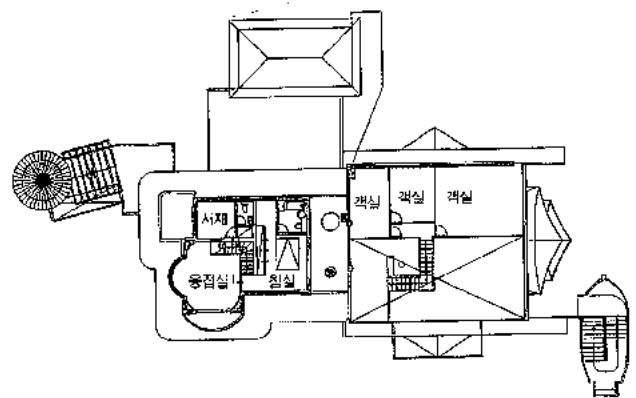


4층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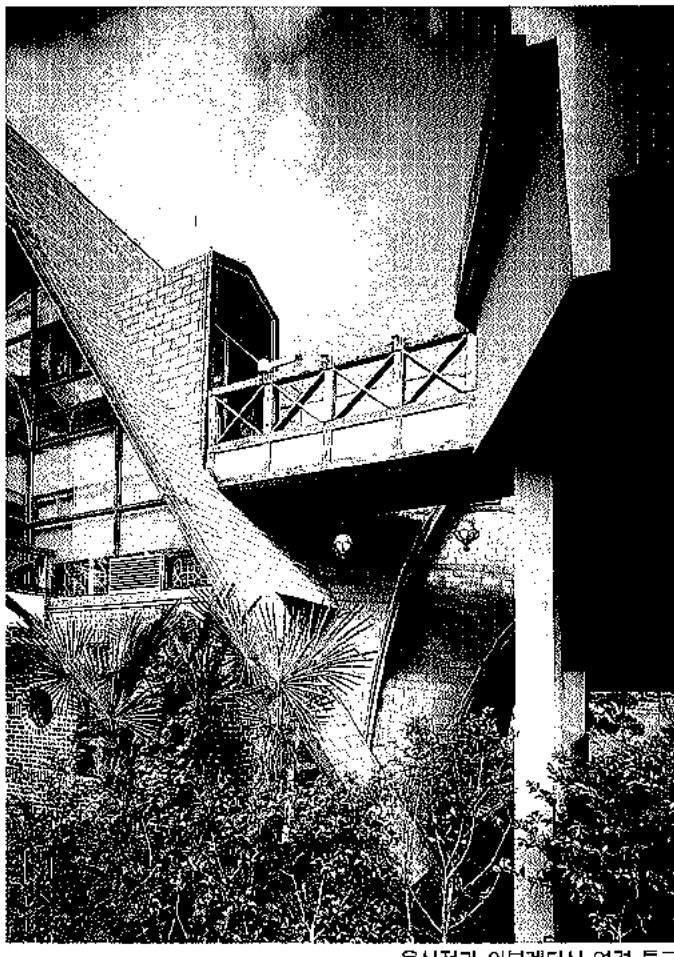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음식점과 외부계단실 연결 통로



주거동 측면

배치 및 평면

오늘날의 건축물은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공간속에 디자인과 도시의 발전영향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며 건축물이 탄생하고 있다.

건축물이 우리에게 느끼는 도시환경의 디자인과 느낌은 무엇일까.

인간은 누구나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속에서 살아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 인근에 오염이 안된 물이 흐르고 산이 에워싸여져 있다면 대지의 위치로는 적합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건축물의 배치는 순천시내에서 송용차로 10분거리의 위치에 있으며 대지의 정면을 동남향으로 양쪽에 산이 감싸고 있으며 상사댐의 하구인 이

사천이 대지에 접하고 있다.

대지의 출입구는 동북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주차장의 동선과 주출입구 동선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대지의 동남향으로 장래확장에 대비한 동선 계획을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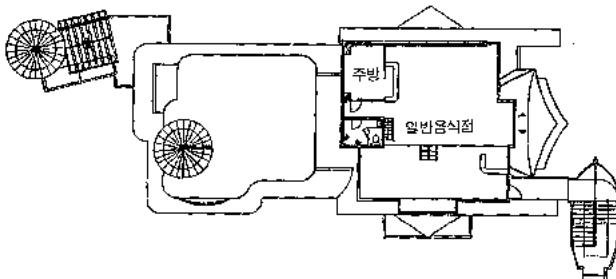
또한, 3~4층 커피숍을 야외에서 3층까지 높이를 전혀 느낄 수 없도록 주차장에서 슬럼프처리하여 자연스럽게 동선을 높여 실제 이용자는 2층 올라가는 느낌을 주도록 동선 계획을 하였고, 건물은 주거동 공간+상업용공간+상업 부대시설공간+종업원공간으로 크게 분리되어 있다. 건물의 남쪽 1~2층은 주거용 시설 및 취미실을 만들어 주거시설과 상업공간을 완전분리하여 주거의 독립성을

유지코자 하였으며 주거용은 부부공간+순님접대 공간+노인공간+서재 취미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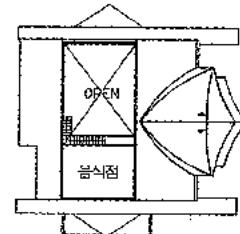
상업용 시설은 주차장을 주축으로 하여 1, 2층은 식당 3, 4층은 커피숍의 용도로 되어있고 건물의 후면으로는 상업용 보조시설 및 종업원 공간을 두어 종업원 동선과 시설이용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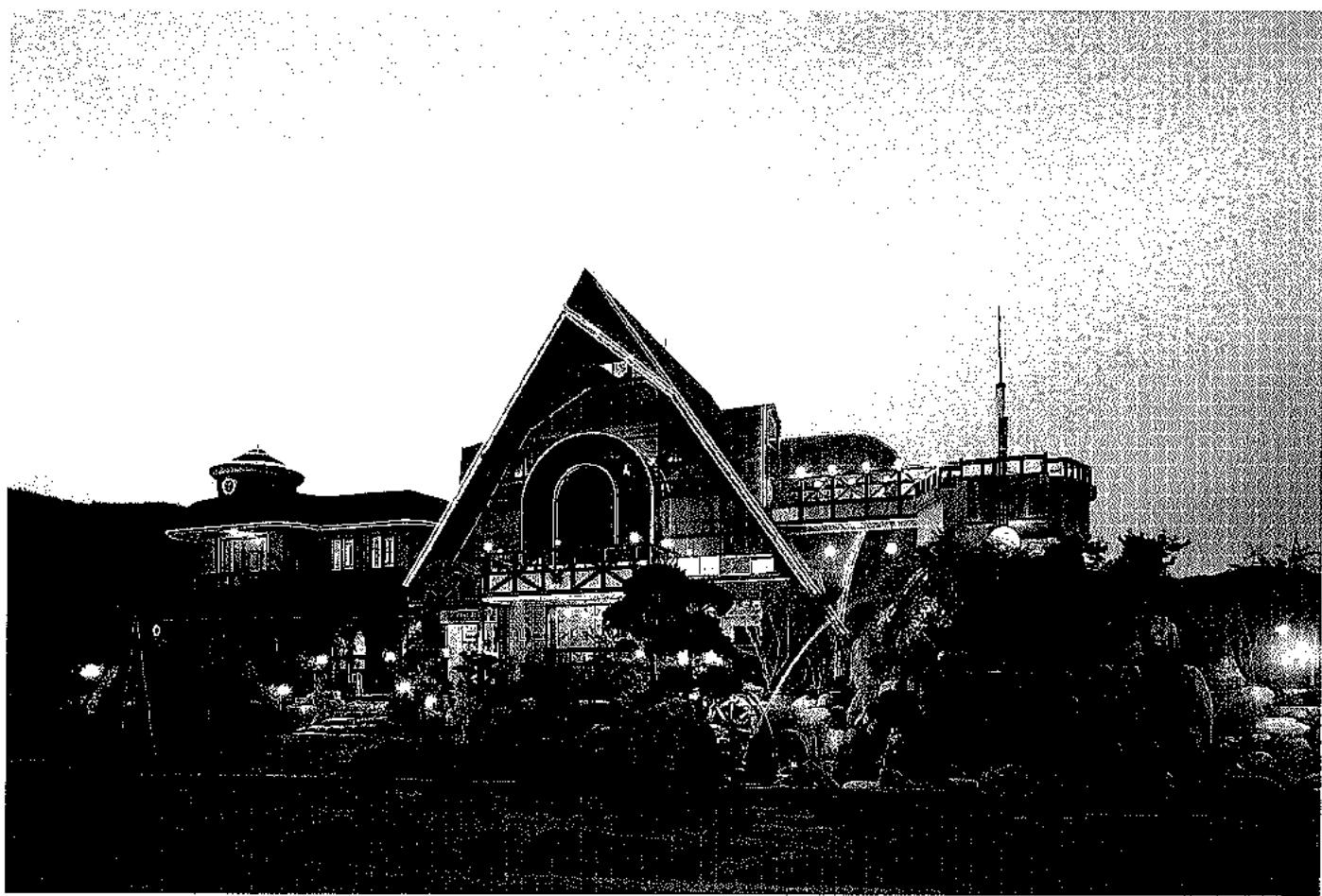
자연환경에 가까운 건축물을 설계해야만 자연도 살리고 건축물도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이 되므로 많은 시간을 디자인과 스케치 구상에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야경

시간을 보내야 했다.

1.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물
2. 미래에도 실증이 나지 않는 건축물
3. 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조화된 건축물
4. 장래학장을 고려한 배치 계획

따라서 이 건축물의 입면은 2가지 형태를 조화시켜 현재와 미래에도 실증나지 않고 힘이 있으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주거용 부분은 우리의 전통 지붕 양식인 초가집의 형태를 연상케 하였고 생동감 있는 미래를 연상코자 궁전같은 타원형의 원지붕을 설계에 반영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난설의 더운 열기를 굴뚝 현상의 원리를 통하여 자연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2층의 응접실도 같은 방법을 이용 개방감이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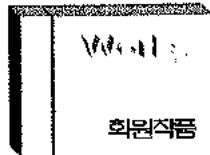
상가용 부분은 시원하면서도 힘찬 느낌을 받고 안정감이 있도록 박공부분의 형태를 갖추면서 야외의 시원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페어그拉斯의 전면개방을 유도하였고, 단조로운 감을 없애고자 유리창 하나하나에도 박공의 형태를 취하면서 나무재료로 실내외를 미감하였다.

계단은 야외의 자연을 그대로 적용코자 물과 배를 연상하고 배의 형태를 착안하여 야외의 시원한 개방감을 유도 설계하였으며 주차 출입구(북쪽)는 움집의 형태를 연출하여 인간이 태어나 처음 움막집 생활을 하던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로에서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 평수는 소규모인데 비해 외부적으로는 웅장하고 넓은 평수의 이미지를 구상하여 상업용 시설로서의 이미지를 구축도록 하였고 양쪽에 산이 검은 녹색의 색체가 짙은 점을 감안 회색의 싱글 제품을 사용 외부적으로 밝은 색깔의 건축물이 되도록 강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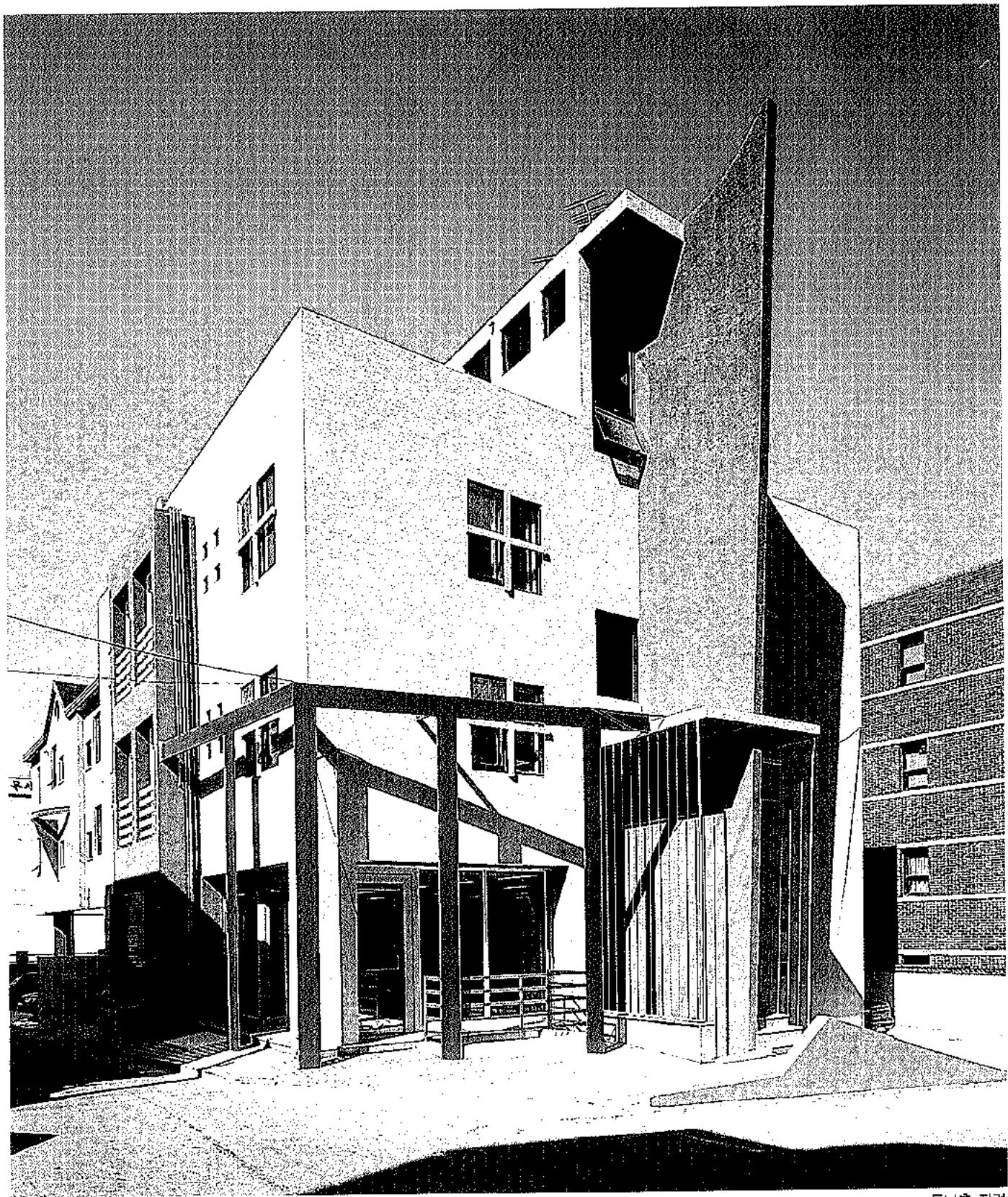
이 건축물은 개인의 건축물 이전에 도시의 공간 속에 시민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는 휴게공간으로서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건축물로서 지역의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기를 바란다.〈글 최윤호〉



신사동 542-8

Shinsa-dong 542-8

김희곤 / 흥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K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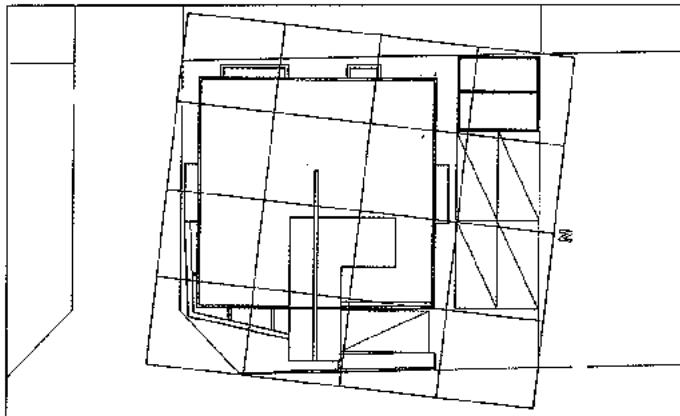


동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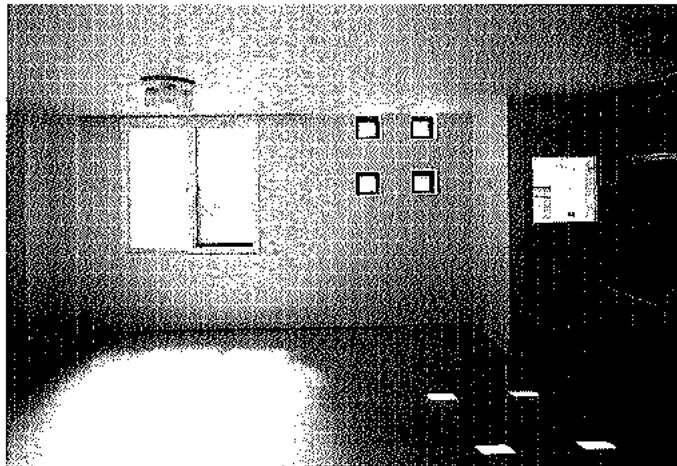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2-8
지역 · 지구 / 일원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339.00m²
건축면적 / 176.47m²
연면적 / 642.13m²
건폐율 / 52.06%
용적률 / 141.98%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 대기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 드라이버트
설계담당 / 김윤관, 원윤정, 정재춘
설계기간 / 95.5~96.3
공사기간 / 96.4~9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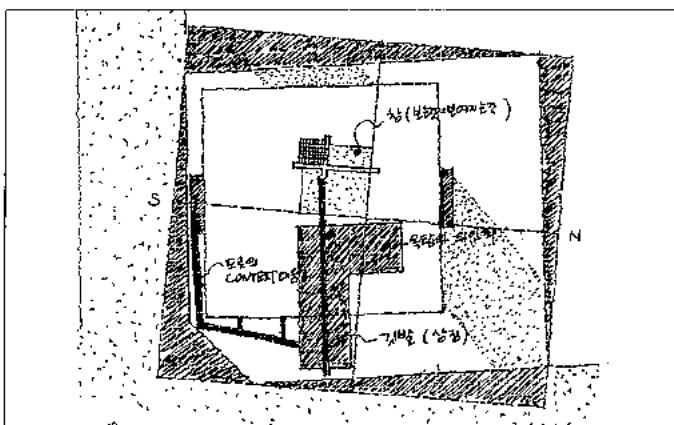
철물담당 / 손광현
건축주 / 이순혁
시공자 / (주)우영건설 손승한
현장소장 / 김주민
사진 / 박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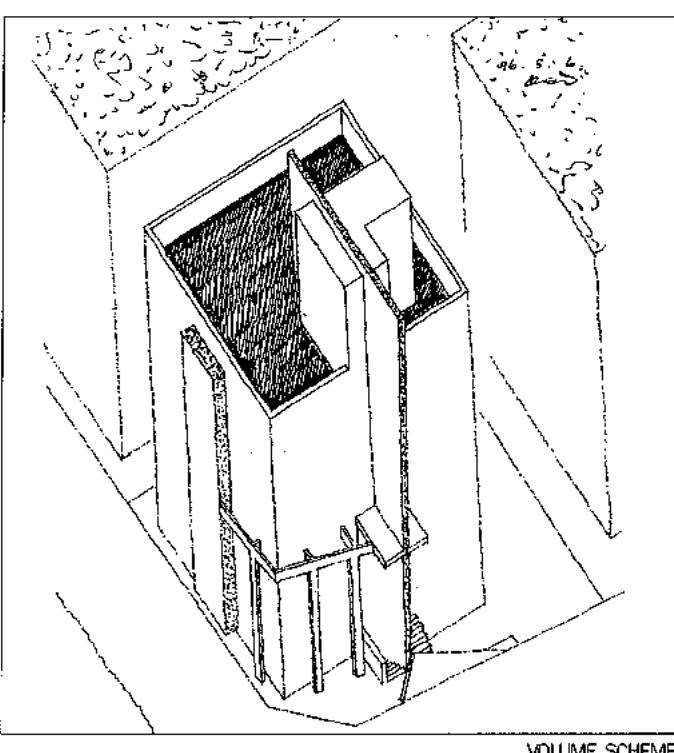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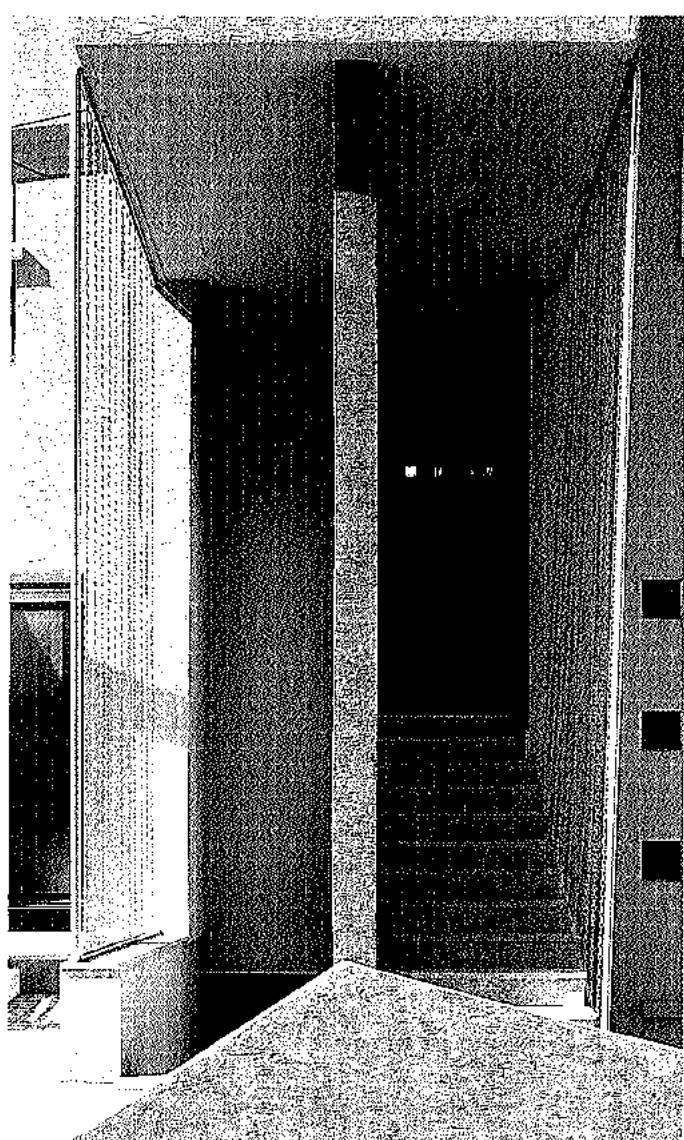
2층 방(원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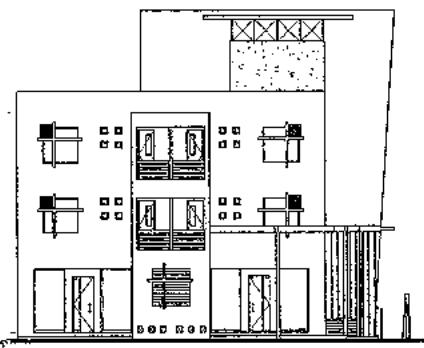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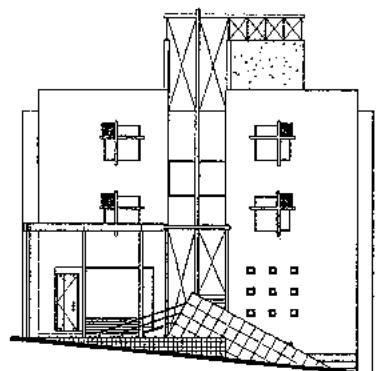
VOLUME SC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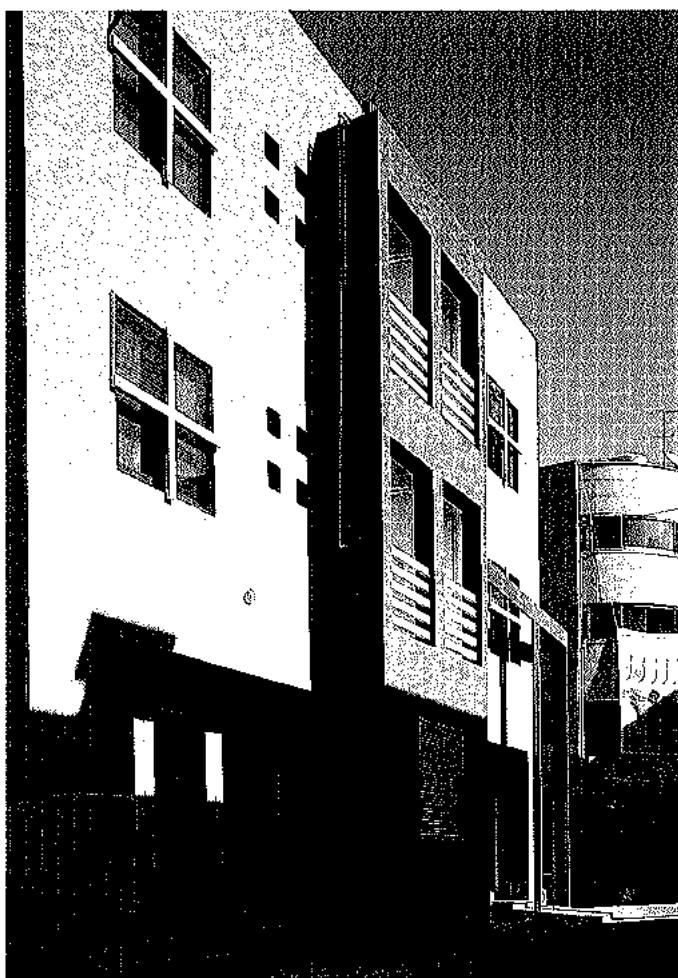
개방된 계단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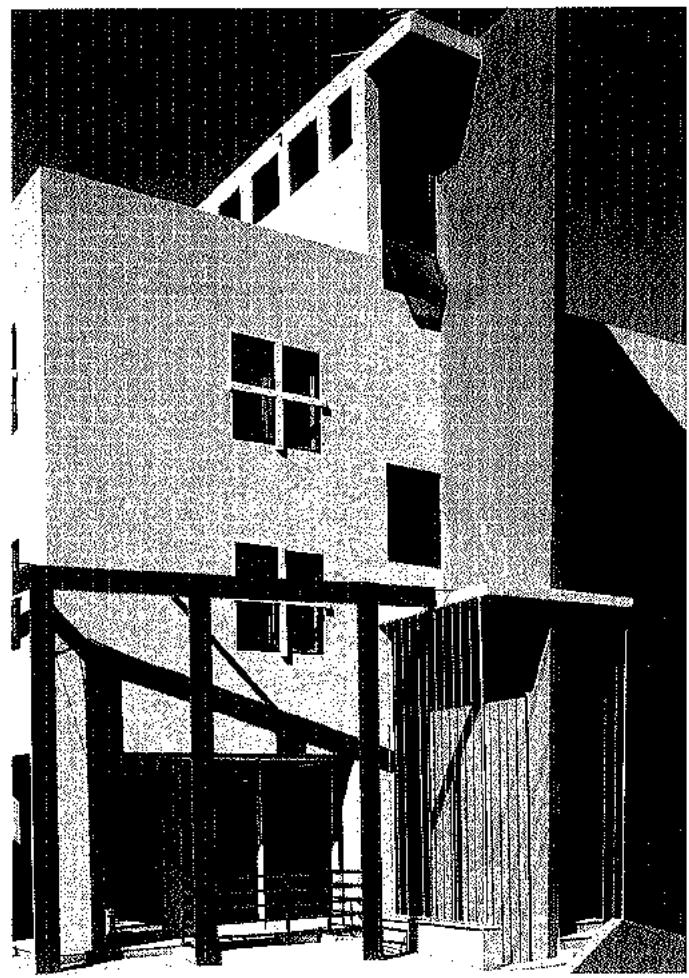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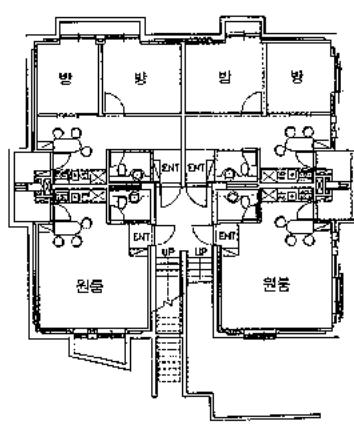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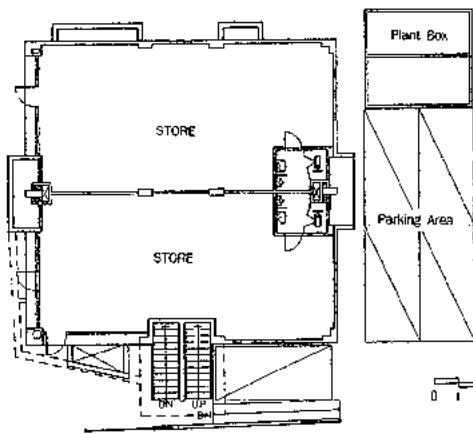
남측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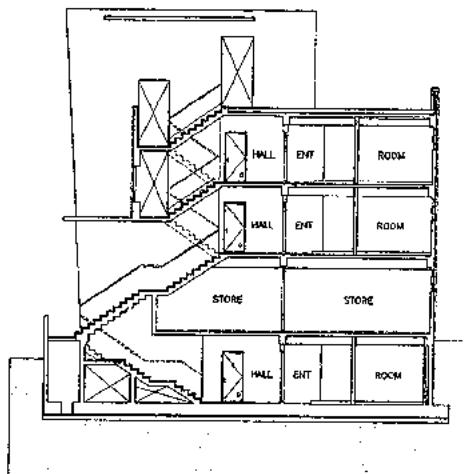
동측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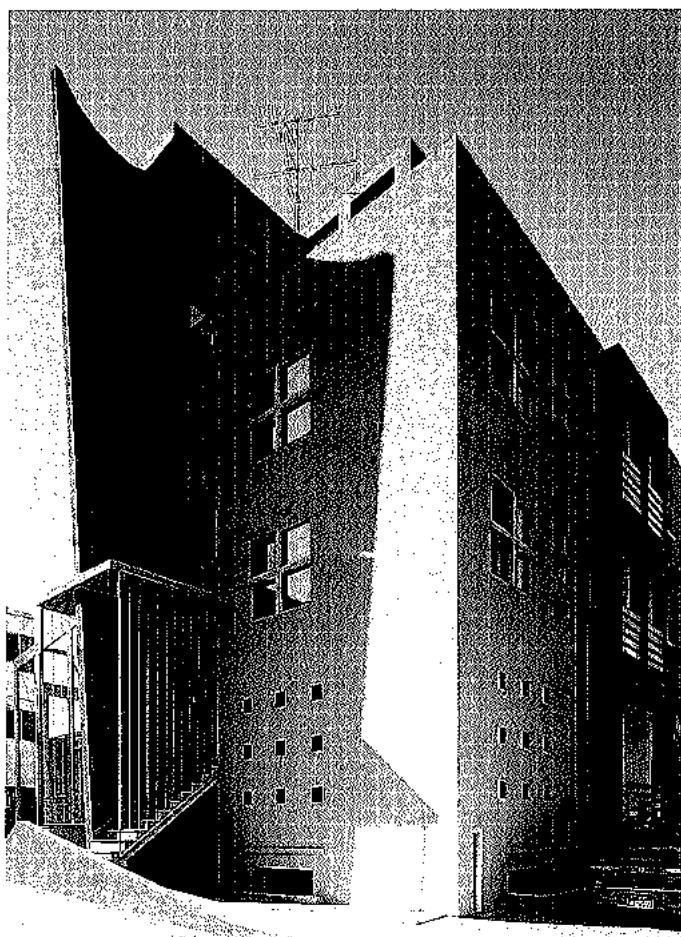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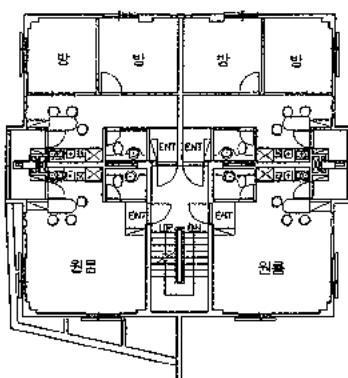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동북측 전경



2, 3층 평면도

퍼포먼스가 있는 집

시작

- 도시를 메우고 있는 소규모 건물은 훌륭하고 기념비적인 건축이라기 보다는 문맥을 형성하고 도시를 성장시키는 일상적인 소규모 프로그램들이다.
- 도시 경관은 몇몇의 대기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익명의 많은 성실한 건축가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도시의 흐름을 생각하고 작은 의미를 소중히 생각할 때, 비로소 도시의 바탕은 건강해진다고 본다.
- 신사동 패션 및 카페거리와 이어지는 이면도로의 모퉁이에 자리 잡은 경사지의 신축대지는 거품경제시에는 상당한 수직상승을 꿈꾼적이 있으나 지금은 투자대비 환수비율에 의해 겸손하게 상가 및 원룸주택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꺼리만들기

- 도시의 연속성과 개방적인 대응을 고려하여 1층은 상가로 계획하고 나머지층은 주택의 프라이버시한 공간으로 최대의 임대비를 고려했다.
- 모퉁이 대지의 장점과 코너의 인자성을 형태적 요소로 발전시켰다.
 - 모퉁이에 도시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가벽설치
 - 인자성이 강한 불안전한 벽면 설치
- 원룸의 사용자에게 집에 대한 아이덴티티 제공
 - 창문의 기능 확대 및 전통창의 현대적 메타포 사용
 - 창은 보여짐과 보는 2가지 시각을 형태화 시도
- 진입에 대한 도시적 탈피
 - 출입구의 개방과 진입접근에 대한 변화 제공
 - 체인의 선형설치 - 현대인의 속박에서 해방
 - 연속된 계단 — 해방감 부여
- 맘스의 단순화
 - 가능한 분리를 형태화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발코니 및 계단의 의도된 공간형태화)
- 색채의 적극적 사용
 - 부차적인 형태요소의 부각으로 도시의 회색빛에 신선한 독신자 의 자유스러움과 전체적 재미를 유도
- 기능에 의한 건물입면 분절탈피
- 상점과 주택의 일관된 패사드 유도 - 도시의 연속된 막

현실

- 제한된 시공비 여건에서 퍼포먼스 요소는 시공화 과정에서 늘상 시공자의 인내를 불모로 탄생한다.
- 이해하기 힘든 건축언어를 실현하는 과정도 독선이 아닌 대화와 설득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현재의 모습이 실현과정을 담고 있다.

마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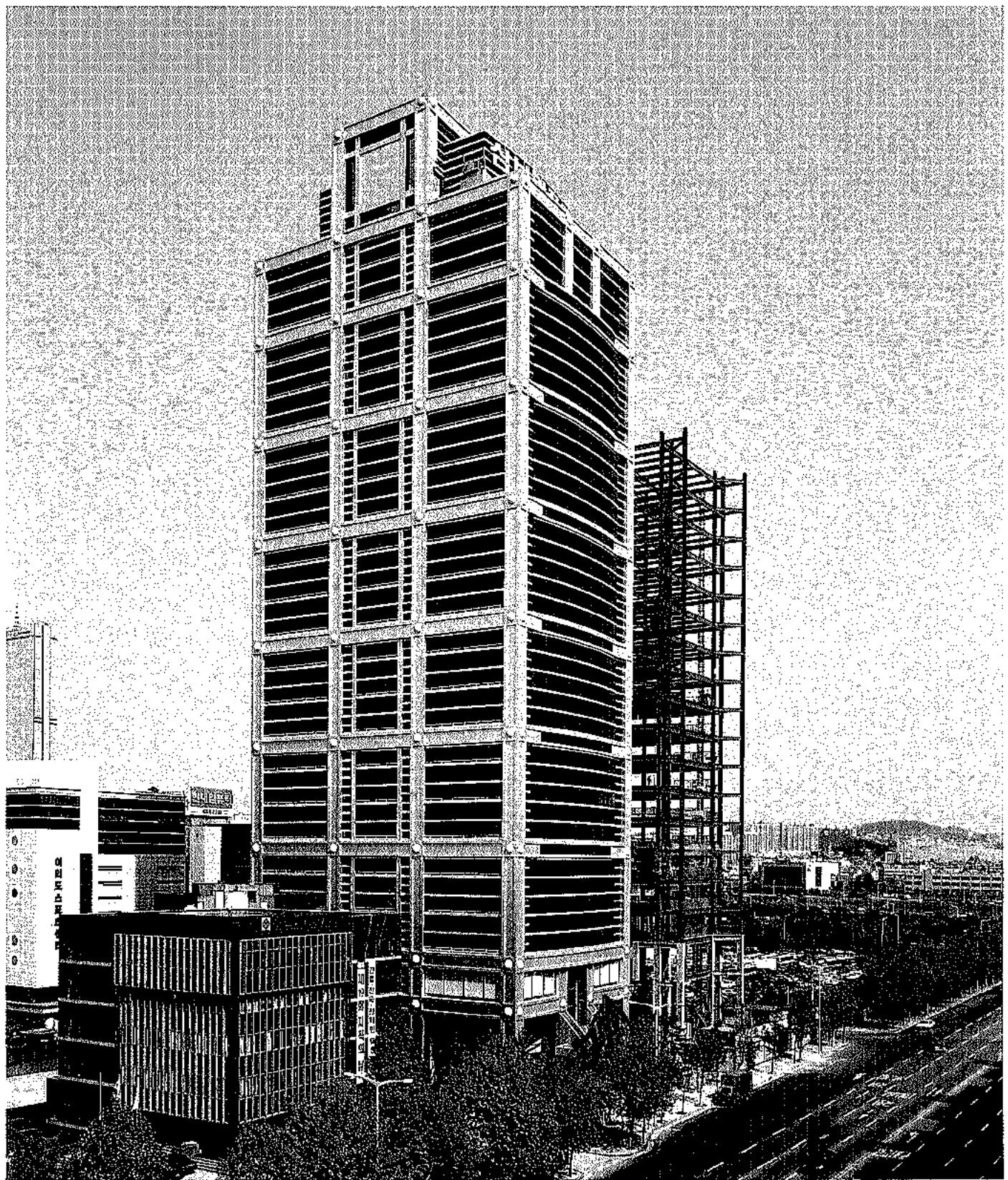
오늘도 숙제하고 논다는 즐거운 기분으로 건축되는 전과정에 충실하며 그 과정에 건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담배연기처럼 사라지는 생각과 고민의 끝에도 건축이 존재하고 있다.
침묵 공간의 작은 미소와 의미가 지나가는 도시인의 마음에 간직되는 건강한 꿈을 주길 바란다.

삼보컴퓨터사옥

Sambo Computer Head Office

(주) 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전경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1종민지구, 주거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2,557㎡
건축면적 / 1,022.11㎡
연면적 / 39,112.39㎡
건폐율 / 39.97%
용적률 / 87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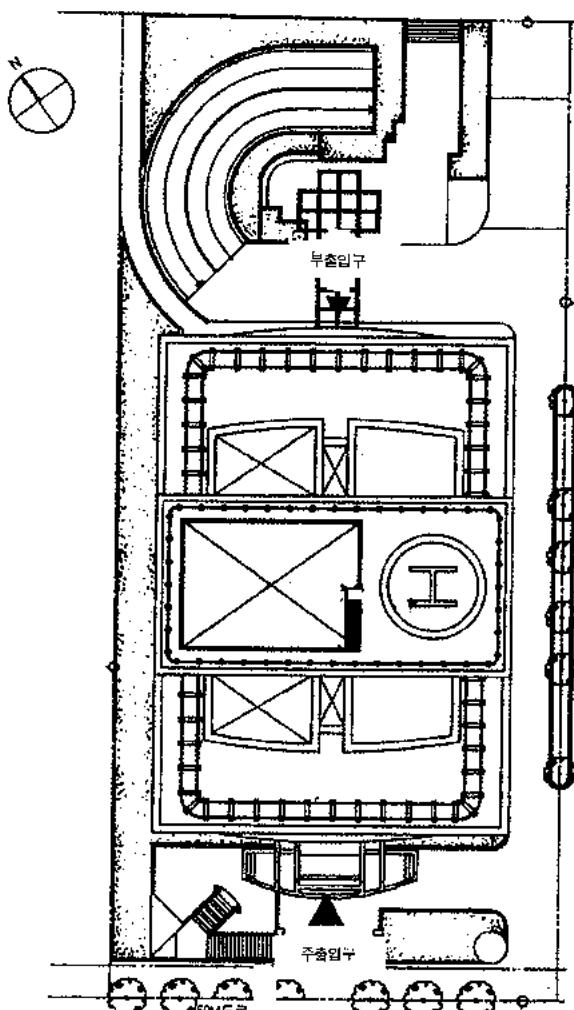
규모 / 지하8층, 지상25층
주요용도 / 업무시설
외부마감 / THK4.0 알루미늄 복합재널
내부마감 / THK36 화강석 물갈기, THK6 코리안
주차대수 / 250대
건축주 / 삼보컴퓨터(주)
시공자 / LG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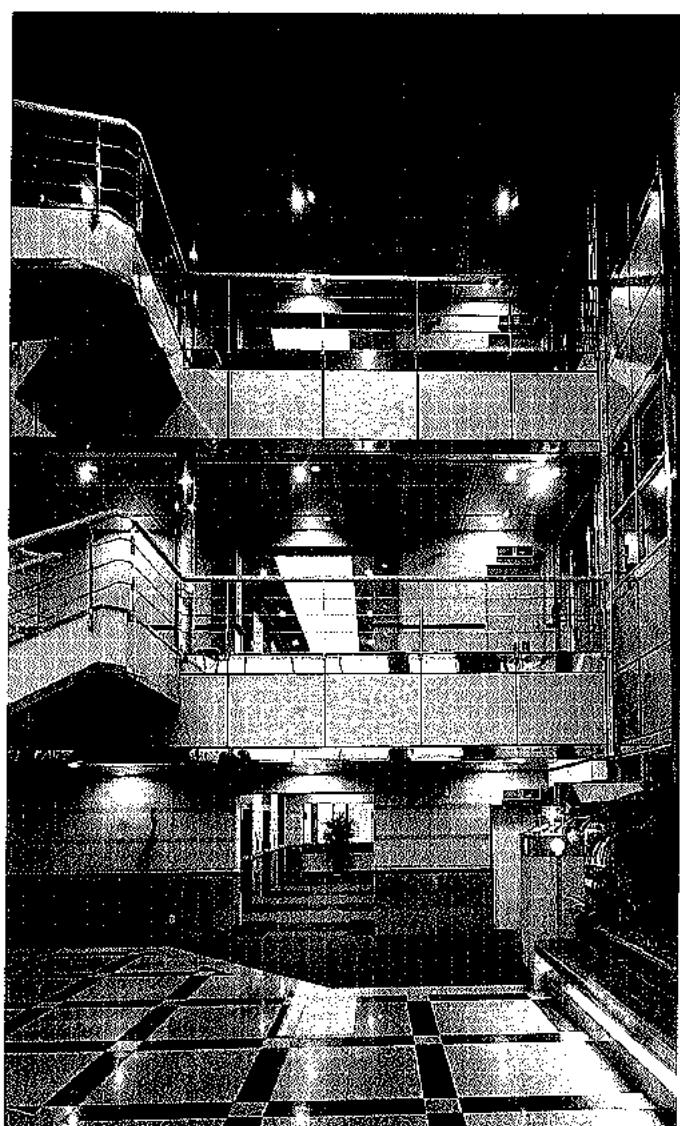
임원실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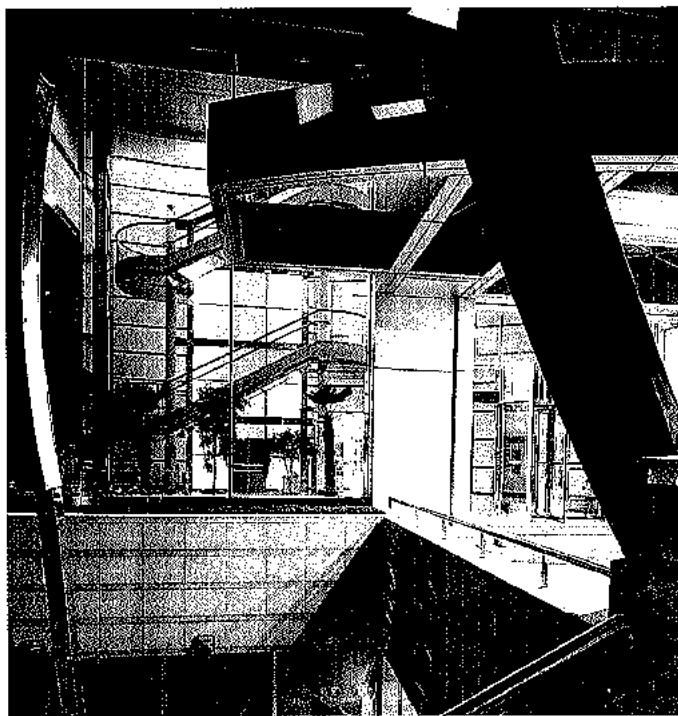
휴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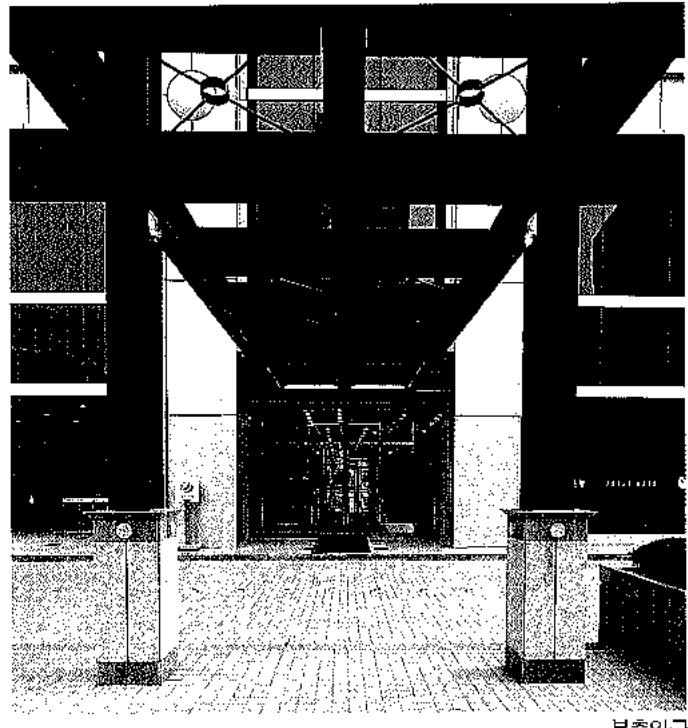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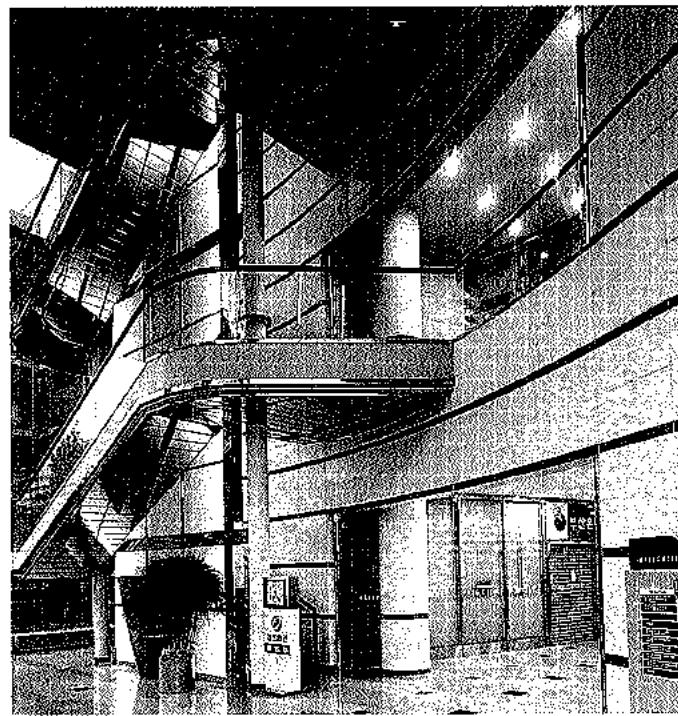
엘리베이터 출 쪽을 바라본 스카이로비



1층로비



부출입구



1층로비



주출입구

외관계획

입면 계획에 있어 재료는 컴퓨터 생산회사라는 성격에 걸맞게 세련되면서도 하이테크한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알루미늄 복합페널과 유리 커튼월을 사용하였다. 대지의 특성때문에 건물이 세장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세장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체의 매스를 3개층 단위로 분절하여 표현되도록 계획하였다. 이렇게 3개층 단위의 금속의 프레임으로 짜여진 외관계획은 세장함에 대한 느낌을 감소시켜 주면서도 격자에서 느낄 수 있는 강인함과 더불어 개성있는 입면을 창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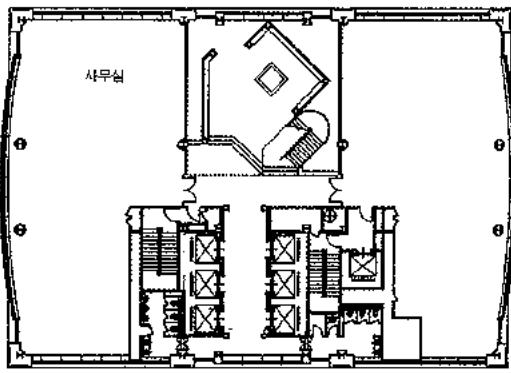
고 있다.

또한 커튼월의 수직적 성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전후면의 곡면 커튼월이 설치되는 부분에서는 3개층마다 설치되는 프레임에도 유리를 설치하여 커튼월의 연속성이 강조되도록 계획하였다. 대지의 위치가 건물이 매우 잘 인식되는 곳이라는 점 때문에 건물이 주간에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개성을 갖도록 하기위해서 건물전체를 커다란 쌔인보드로 정의하고 야간에 멀리서도 삼보컴퓨터 건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외부 프레임의 모서리에 등기구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삼보의 개성을 마음껏 나타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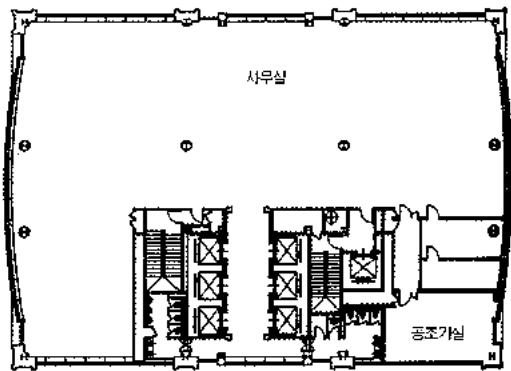
로비계획

계획당시 법규에는 시선제한의 완화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40%이하로 낮추어야만 하였다. 그 결과 평면상의 제약으로 진입의 깊이를 갖는 로비를 계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로비계획에 있어 문제점은 평면상의 한계로 인해 로비의 깊이를 깊게할 수 없어 진입의 시퀀스를 갖는 깊은 공간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는 진입에 직각방향으로 변화를 보이는 로비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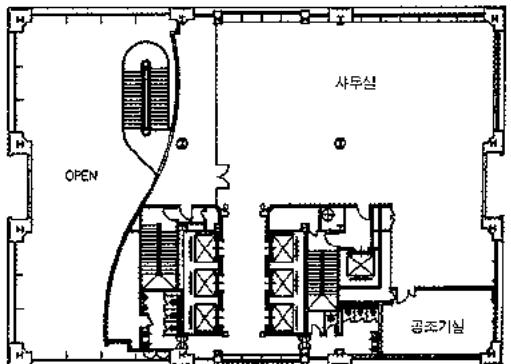
계획상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무실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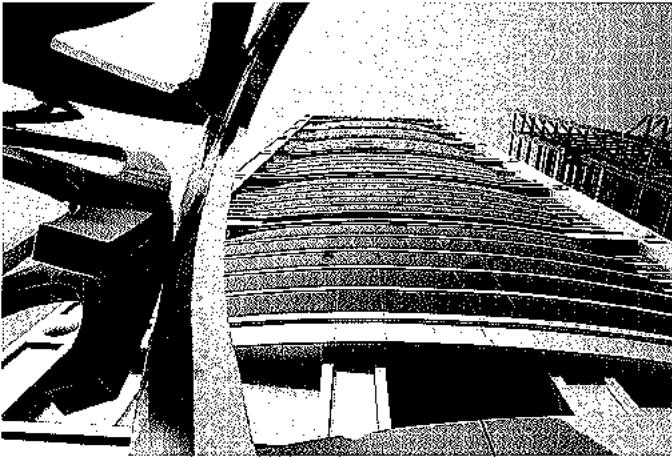
1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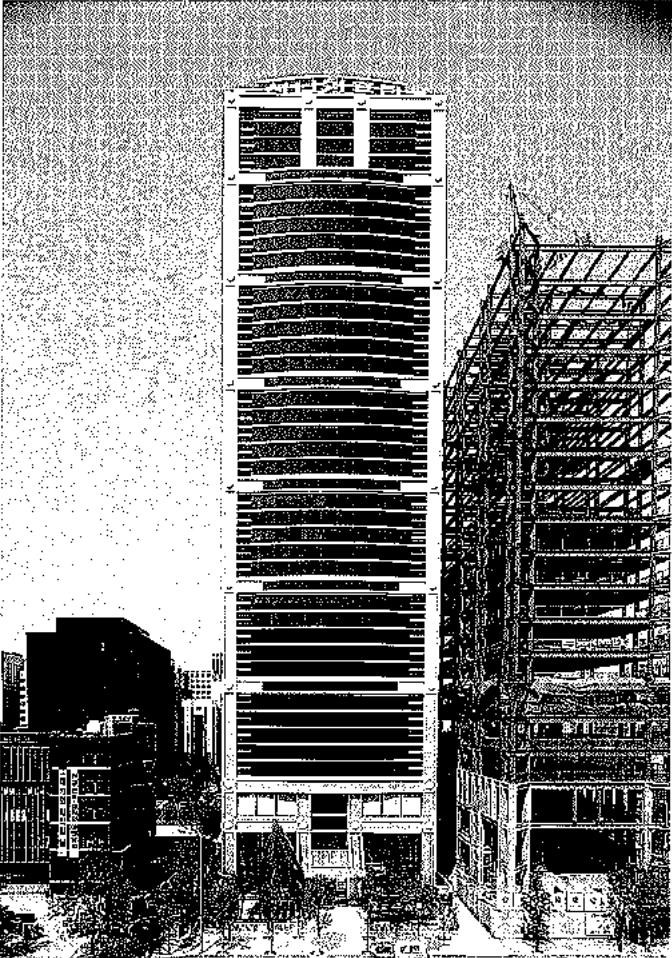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조형물에서 올려다 본 모습



정면

분과 평면적 제한이 있는 코아부분을 구분하여 평면상의 깊이를 달리하였다. 그러한 깊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평면적인 단순함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여 외관에서 느낄 수 있는 금속성의 차가움을 완화시키도록 계획하였다. 아쉬운점은 현재 안내 키운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상부 벽면에 멀티 스크린을 설치하여 홍보화면을 방영토록 계획되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그로 인하여 로비의 벽면은 무덤덤한 백색면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로비가 외부에서도 아주 잘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 선전의 효과는 클 것이라 생각되었고 특히 이간에는 더욱 그 효과가 좋을 것이

라고 생각되어 초기 계획부터 멀티스크린을 전제로 하여 로비계획을 하였기에 그 아쉬움이 더욱 크다.

스카이 로비계획

스카이 로비계획에 있어 주안점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시각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스카이 로비를 건물내에 있는 작은 소공원으로 계획하였다. 실내이지만 공원으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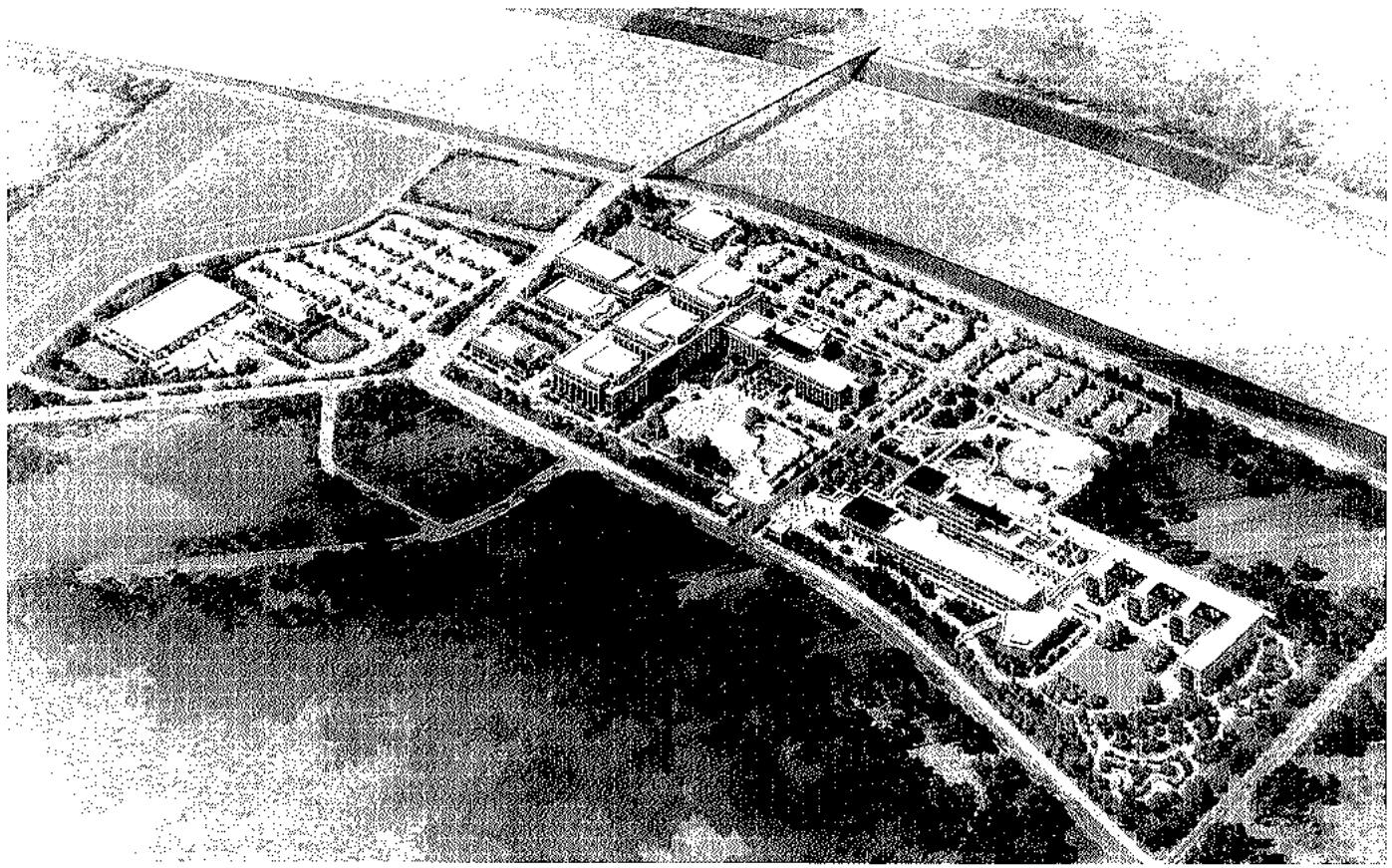
여 반외부 공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러한 계획의 원칙에 의거 벽체의 재료를 외벽의 재료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연장하여 사용하였고, 소공원으로의 가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벽의 재료에서 오는 차가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과 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휴게공간으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3개층이 오픈된 공간에 각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중심으로 휴식공간과 복도공간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휴식공간과 복도공간은 단지를 두어 그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국립환경연구원 및 교육원 청사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노형래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Ro Heung-Rae



조감도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수도권 빠리지 제2공구내)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 교육, 연구시설

대지면적 / 160,977㎡

건축면적 / 18,385.81㎡

건폐율 / 11.42%

연면적 / 52,422.07㎡

용적률 / 27.35%

주차대수 / 45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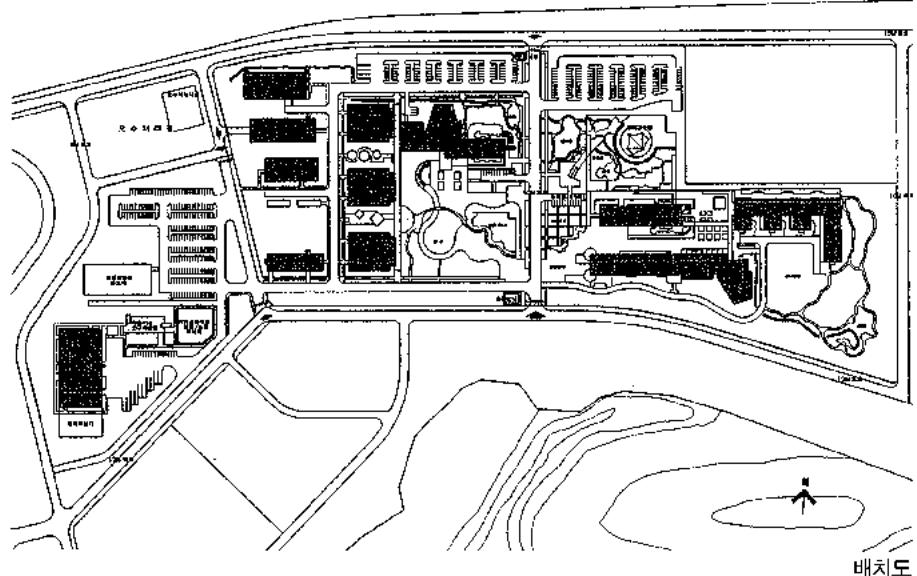
조경면적 / 73,014.03㎡(48.31%)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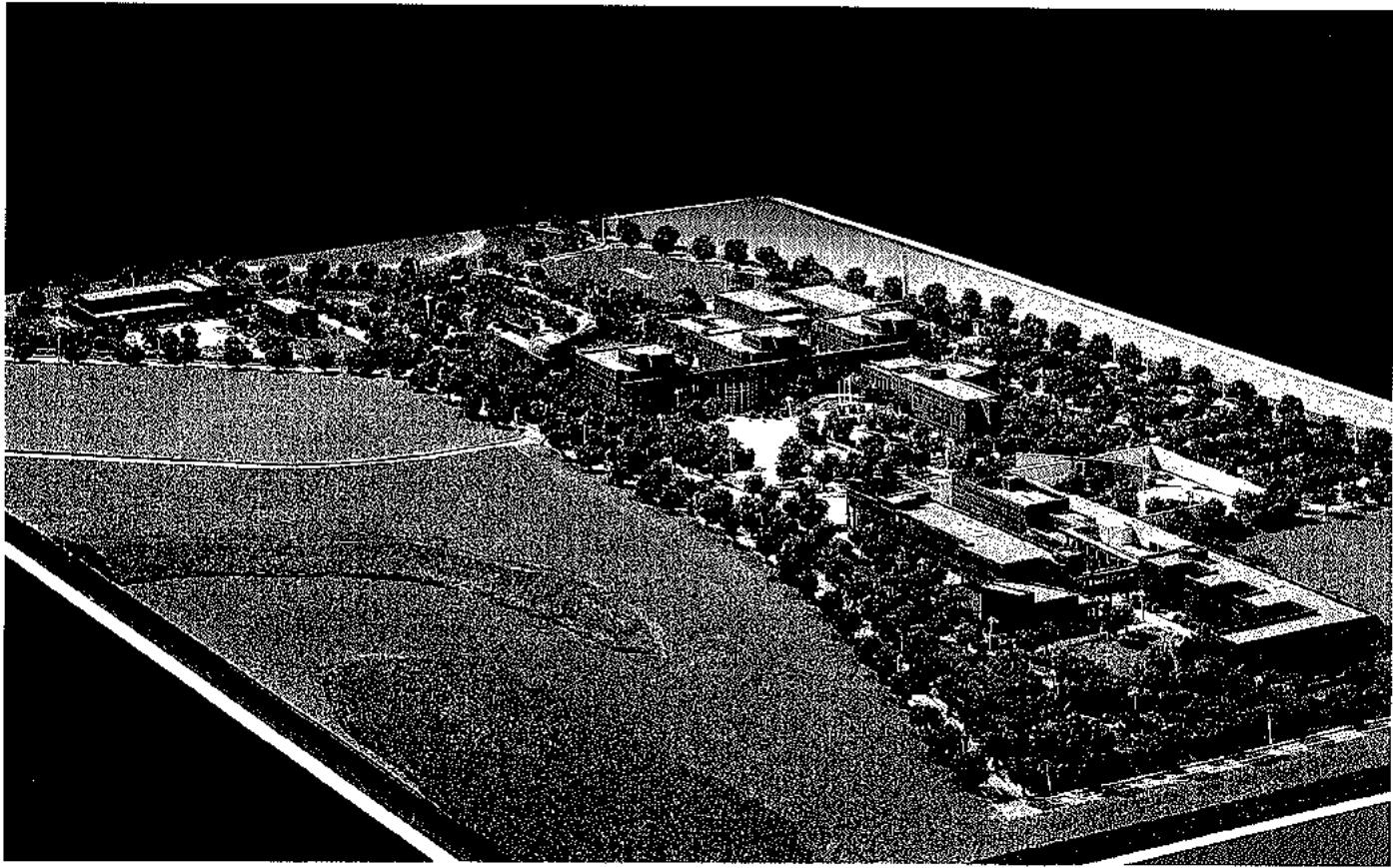
구조방식 / RC/SRC조

주요외장재 / 점토벽돌

건축주 / 환경부



배치도



모형도

이 계획은 2000년대를 향한 보다 현실적인 국내외 환경문제의 진보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첨단환경 분야의 연구소, 문화복지시설을 고루 갖춘 국제수준의 종합환경 연구단지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지는 굽곡이 적은 평坦 지형으로 정지되어 있고 구배가 적으며 부지 남측에 원형지가 있어 Buffer Green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서해로부터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경인 운항이 계획되어 있다. 배치는 주 진입을 남측으로 계획, 부진입은 북측으로 계획하였으며 Visual Sequence는 동, 북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입지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함을 전제로 상호연결이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Block Plan을 Zoning 하였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인위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용 오수 및 잡배수의 중수처리 후 옥외 수공간으로 활용하여 환경성을 강조하였고 조경식재는 순수 국내서식수종으로 반영하였다. 전체지지의 주 진입에는 광장(Open Space)을 입지시켜 대외적인 상징적 Image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공무원 교육의 장인 교육시설지역은 행정·후생동을 중심으로 유기적 배치를 하

며 수공간, 아생조류원, 암식원 및 야외교육장으로 자연의 이상적 환경공간을 창출하고 습지 및 잔디로 아생의 자연공간을 형성하였다.

차량동선은 진입도로로부터 순환도로를 이용 각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주진입은 정문과 서비스 동선을 위한 후문으로 구분하였다. 보행자 동선은 각시설로의 보행로는 단순, 명확하며 상징공간 환경공간에 계획된 보행로는 다소 다양하게 조경과 긴밀한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평면계획은 연구원의 경우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장비의 스펙 등을 파악하여 사용하는 모든 유틸리티 공급 및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반면, 기능적 공간이 가지기 쉬운 인간의 내면적 기능을 간파하는 우를 피하기 위하여 내부 분위기를 최대한 안락하게 유도하는 공간계획을 하였다.

또한, 외장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연구원 및 교육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점토벽돌을 사용, 환경에 거스르지 않는 건축물로 계획하였다. Mass계획은 연구원의 경우 기능에 따른 형태 결정으로 변형 가능성이 적었으나 Spine 등을 이용 기능을 적절히 수용하고 정적인

기운데 동적인 선을 형성하였으며 연구원 행정·후생동 및 교육원에서는 Mass의 적절한 분절과 접합으로 단아한 가운데 동적인 형태를 의도 하였고 가벽 및 야외 교육장(마구조)을 계획하고 연결통로의 적절한 사용으로 변화있고 명료한 Mass로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은 재실인 1인당 적정 Space 및 실사용 System, 설비 System을 고려하여 Module(6.6m × 6.6m)을 결정하였고 중복도 형식을 체택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기능상 휴게 및 헬스시설 등을 지하에 배치하였고 식당 및 강당의 많은 동선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원 행정, 후생동 등에는 선큰가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주변에 조성된 수공간을 적극적으로 인입하여 식당 및 휴게·헬스 시설 등에서 자연을 적극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입·단면 계획은 매스의 중첩과 분리로 입면에 입체적 명암을 주고 정리된 이미지를 표현하며 정면성 및 Spine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고 개구부 모듈 및 매스감을 부지 전의 흐름에 맞추어 연구원과 교육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물결속에 놓여 있다.

20세기초에 시작된 산업화사회는 지나간 역사동안에 달라진 것보다 몇백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기계와 전기의 발명은 마을과 도시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까지도 흔들었다. 선진국에 비하여 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우리 나라도 60년대 이후 교통시설과 통신시설을 크게 늘리면서 도시의 구조를 재구성하기 시작하였고, 가전제품과 영화와 같은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 고속도로가 전국을 일일권으로 만들면서 지역과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고 전화와 텔레비전의 보급은 나라 안팎소식을 거의 리얼타임으로 안방까지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

더구나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컴퓨터와 팩시밀리의 눈부신 발달

로 사무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정보통신도 최근 눈에 띄게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정보화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실감나게 느껴지는 시대다. 가상현실시스템이나 인터넷에 관련된 신문기사나 광고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앞서가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보혁명

컴퓨터와 통신이 만들어내는 정보혁명은 생활양식 뿐 아니라 근무환경과 기업경영 영역을 크게 바꾸어놓고 있다.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조정하며 점검하는 일에서부터 여러가지 회의와 결제업무는 물론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회사도 나타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무실 안만은 아니어서 현장이나 외부에서도의 업무도 이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네트워크로 온라인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근증인 직원들은 이제 말 그대로 작고 얇아진 '노트북' 컴퓨터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컴퓨터를 잘 모르거나 기피하는 중역이나 사장들도 이제는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결재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직원들과 일을 해 나가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일이 이제는 일상적인 일로 여겨질 만큼 기업의 업무환경이 바뀌고 있다. 말 그대로 '종이를 쓰지 않는 사무실'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와 경쟁력 강화라는 잇점에 더하여 이제 폐적성도 업무환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 되고 있다.

재택근무와 멀티미디어

뿐만 아니라 온라인시스템은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대폭 줄이고 신

설계실의 컴퓨터

A Computer in Design Room

조성룡 / 조성룡도시건축

by Cho Seong-Ryong

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게 되었다. 글을 쓰는 작가나 학자들은 물론이고 변호사나 건축가처럼 전문적인 자유업 종사자들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일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여러가지 사무기기가 전산화되고 통신수단에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주거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모니터를 통하여 마치 실물처럼 정교한 입체사진과 제품설명을 보고 들으며 홈쇼핑을 즐기는 일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임금과 출금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홈뱅킹도 아직은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다지 신기한 일도 아니다. 문자 위주의 단순 정보처리에 머물던 것이 컴퓨터통신과 방송기술이 융합하여 컴퓨터에 관련된 특별한 기술이나 사전지식이 없이도 여러가지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화형 멀티미디어시스템이 등장하면서이다. 이제 TV를 켜거나 전화를 걸듯이 컴퓨터를 통하여 손쉽게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혁명은 개인의 일정관리와 같은 아주 간단한 영역에서부터 국경의 개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이곳 저곳에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 일정관리라 하여도 예전처럼 수첩에 스케줄을 메모하고 전화번호나 주소를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주 단위와 월 단위의 일정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 일정 프로그램은 전화번호와 주소, 개인의 간단한 신상까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전화도 걸어주고 팩스도 보내준다.

신문스크랩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이제 지난 시대의 일이 되어 버렸다.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정보만 제공하는 '맞춤전자신문'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만 지정하면 여러 신문의 기사를 검색하여 골라주는 서비스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캐드는 만능제도기인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설계사무실에서도 설계업무에 캐드시스템을 쓰기 시작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와 디자인'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며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써오던 제도판대신에 키보드와 모니터가 새로운 설계도구로 등장하고 연필이나 샤프대신 프린터와 프로터가 설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한지도 이제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캐드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요즘은 거의 모든 사무실에 보급되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이 시스템을 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이다. 혼히 '현상설계'라고 부르는 '설계경기'에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 구상에서 출발하여 제안설계를 마쳐야 하고 옛날처럼 마무리도면과 제판인쇄과정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계경기에서 이 시스템으로 작업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거기에다가 3차원 모델링과 프리젠테이션작업까지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잘 디자인된 계획서를 만들어 활용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다.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입체적인 형태의 검토작업이나 재료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내부환경의 변화를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검증해보는 작업에도 컴퓨터시스템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캐드시스템을 단지 만능제도기쯤으로 생각하여 본래 컴퓨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기능이나 계산기능을 함께 활용하지 않으면서 정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건축작업은 단지 설계사무소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으로 연결되어 수없이 많은 물자와 사람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서 다른 분야와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그 수단이 되는 캐드시스템의 데이터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도구로서 마지막히 사무실과 현장 양쪽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설계작업에 컴퓨터로 작도만 하는 초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여러가지 업무(관리, 정보정리, 통신 등)의 효율과 정보공유의 폭을 넓히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기획서 작성, 설계 프리젠테이션, 설계도와 데이터 작성, 공사시방서를 비롯한 공사계약도서 작성에 일관된 체계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창조적 작업을 돋는 컴퓨터

컴퓨터를 조작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다시 사용하기에 편리한 데이터로 만드는 일이나, 일일이 사람 손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적인 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일은 20세기 말에 이루어 낸 놀랄만한 사건임에 틀림없으며 앞으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될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어쩌면 이 새로운 시스템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줄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반대로 사람의 사고능력마저 지배하여 우리를 쓸모 없게 만드는 괴물이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이다. 컴퓨터는 인간을 돋는 도구이지 구세주가 아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은 우리의 일상

적이며 반복되는 잡다한 일을 대신 맡아서 손쉽게 해결함으로서 우리가 더욱 창조적이며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도와줄 때이다.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라는 사람을 빼 버리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건축사무실에서 컴퓨터 활용하기

지난 10년간 캐드시스템으로 설계작업을 해 오고 있지만 어느 설계사무소의 소장처럼 필자도 컴퓨터에 관해서는 거의 무지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실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하기를 멎겨렸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작업에 그것을 쓴다는 자체가 거북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1년여 전부터 작은 노트북을 쓰게되면서 놀랄만한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또 하나의 쓸모있는 작업도구로 여길만큼 컴퓨터와 가까워졌다. 물론 50이 넘은 나이에 배운다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어렵게 쓰여진 컴퓨터책도 여러권 찾아보면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 것은 개인 정보관리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정보입력방법과 검색요령을 익혀나갔다. 설계작업외에도 글을 많이 써야 하는 까닭으로 워드프로세스작업하며 뒤늦게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다.

지난 연말 건축사협회일로 정보센터구축연구 때문에 서울의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계사무실의 전산화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어느 전문집단에 비하여 고급 컴퓨터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실시설계작업과 '한글'을 써서 문서작성을 하는 일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결과였다. 그렇게 된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대부분의 소장급 매니저들이 거의 컴퓨터에 깡통이거나 관심이 없는 데다가 젊은 스텝들에 의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안에서 쓰는 사무실이 대부분이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제도판 위에서 손으로 작성하던 일을 캐드가 대신하고 비서가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하던 일이 워드(프로세서)로 바뀐 정도의 설정이었다.

그러나 컴퓨터는 단지 손으로 하던 작업을 대신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고 다시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전산도구이다. 가끔해야 설계도면의 사분의 일 정도크기의 모니터 상에서 필요한 설계데이터를 검색, 분석하고, 구상스케치뿐만 아니라 그림과 사진, 텍스트정보를 한 화면에서 편집하고 그대로 출력하여 프리젠테이션하는 일에서부터 슬라이드를 만들어 설계설명용 자료를 제작하는 일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수행한 많은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리해놓으면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검색하고 활용하는 일도 매우 간단한 일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들은 이제 노트만한 랩탑컴퓨터와 소형녹음기, 디지털카메라를 써서 현장보고와 문제점을 사무실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 출장을 떠난 소장들이 현지에서 모뎀으로 연결하여 사무실의 설계도와 문서, 자료들을 찾고 업무 지시 할 정도의 시스템은 이미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지난 일년간 어렵게나마 노트북 컴퓨터를 쓰면서 생각한 사무실의 전산화작업 가능성을 프로그램의 기능별(캐드제외)로 요약한 것으로 컴퓨터활용에 아주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데이터베이스

인명부 - 우편, 팩스

Facility Management - 가구/집기/스텝 인사/창고목록

건축주에 관련된 자료

직원 신상명세서

도서관리목록

슬라이드/비디오 등 영상자료 관리목록

2. 문서작성

서식

팩스송신문

모뎀으로 공문 송·수신

회의록 작성 즉시배부

강의테스트의 수정-인쇄-수정-인쇄…

문서인식/번역 프로그램 OCR

공사용도서(시방서/계산서/지침서)

3. 탁상출판(DTP=desktop publishing)

사무실 소개 브로슈어, 뉴스레터

설계설명 프리젠테이션

잡지/자널 제출용 자료제작

4. 스프레드시트

설계비견적서

공사비산정서

일람표

타임쉬트-실행비산정

일반 회계업무 - 프로젝트별 수입, 지출, 임대, 장비감가상각

5. 프로젝트 트래킹

프로젝트스케줄관리

6. 개인정보관리(PIM=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시간약속/개인, 그룹

To Do List - 사람/프로젝트별

메모장

개인정보목록

우리가 해외공사에서 크레임이 발생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는 시방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도면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관행은 어려운 시방서를 해독하기 보다는 간편한 도면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경우 시방서가 도면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는 재시공이나 공사비의 지불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는 설계자와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기술자가 공동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제공한 설계자에게는 문책이 없고 이를 감지하지 못한 시공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선진국의 관행이다.

어쨌든 시방서가 도면마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설계자나 시공자는 절대 잊어서는 안되지만 상충된 시방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시공자에게만 지우는 규정은 개방된 건설시장에서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시방서를 전축의 해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이는 또 시방서의

제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현장의 기술자를 전쟁터의 병사와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전장의 병사는 소총과 탄약이 기본화기 이듯이 현장의 기술자에게는 도면과 시방서가 기본화기이다.

소총만 있고 탄약이 없는 병사나 도면만 있고 시방서가 없는 현장기사, 이는 敗戰과 부실의 처음이요 끝이다.

시방서가 없거나 있어도 부실했던 우리의 현장은 세도적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밖에 없었다.

아제 우리도 부실을 추방하고 품질을 도출할 수 있는 시방서, 세계시장에서도 손색이 없는 품질과 자존심이 함께하는 시방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길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길이고 고통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하고 훌륭한 시방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완벽한 시방서는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공정한 계약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만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양질의 제품을 만들고 국제수준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개발과 보완 수정작업이 있어야 한다.

시방서의 구성부터 알아보자.

엄밀히 말해서 시방서의 구성은 해당공사의 특성이나 기능에 적합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효과적인 구성의 공통분모가 오늘날 거의 모든 시방서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규정(총칙)과 기술규정이며, 기술규정은 다시 특별규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일반규정은 계약이 핵심

설계자와 시방서(2)

Architect & Specifications

이중호 / 자유기고가, FED 품질관리 담당
by Lee Chung-Ho

이고 전 규정(Division, Requirement)을 규제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의 우리 시방서는 일반규정이 거의없는 상태인데 이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미국의 CSI의 서식은 기계와 전기, 가구, 운반장비 등 16개의 장(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건축 반 2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성이나 기능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구성의 단위가 적당히 중간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단위는 혼돈과 복잡으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각개의 장(Division)은 Section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시방서의 가장 요체이며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Section은 Part로 구성되고 크게 나누어 자재나 장비의 품질을 제한하고 시공의 방법을 규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다 세분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참조문헌이나 공통사항, 주자재와 부자재(Accessories), 주자재 시공과 부자재 시공 그리고 품질관리와 시험(Test)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참조규정이나 문현은 우리의 경우 K.S정도이지만 선진국의 그것은 굉장히 많이서 시방서로 이해하는데 많은 고통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세분된 전문규정이 품질향상의 모체가 되고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Division이나 Section의 구성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계약이나 품질의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시방서의 구성순서를 시공순서와 같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본공사 시작전에 기반정리를 하고 그 후에 흙조, 마감의 순으로 공사가 진행되듯 시방서도 이같은 공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마치 “착공과 준공”을 “준공과 착공”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맥락으로 볼때 단지내의 각종 시설공사는 본공사의 선행공종이며 공사의 시작과 끝이다.

우리가 미국의 시방서를 참조한다면 바로 단지의 조성, 진입로의 개설, 각종 배관, 지하구조물, 포장, 조경 등을 규제하는 소위 “Site Work”的 Division을 들 수 있다.

요즈음 아파트단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관이나 구조물의 하자, 조경이나 편의시설의 높은 관심은 이러한 장의 구성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변천이다.

시방서에서 구분되는 가장 큰 공종이 “Division”(장)이고 장을 구성하는 단위가 “Section”이라고 이미 기술했지만 미국의 단위순서는 “Part”,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로 계속된다.

이러한 단위(Unit)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쪽(Page)의

구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페이지의 구성 역시 어떤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면 더욱 편리하다.

예를들어 책을 묶는 쪽(Binding Edge)은 왼쪽이고 Section의 시작은 오른쪽 페이지(Right Hand)에서 시작해야 된다.

또 시방서의 본문(Text)에서 어떤 단위의 시작은 페이지 맨 아래줄에서 시작하거나 본문의 끝줄이 다음 페이지의 첫줄에서 끝나는 문장의 구성은 피해야 된다.

전자를 고아(Orphan)라고 부르며 후자를 미망인(Widow)이라고 부른다.

이야기를 바꿔보자.

시방서의 작성순서는 공사의 순서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대부분의 시방서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방서의 기술규정은 단지내 시설공사(Site Work)가 서두에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시방서는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지내 시설공사에는 하수도 배관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호에서 하수도의 실명제에 대해서 그 허구성을 기술한 바 있지만, 그 허실을 알아보자.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하수도 뿐만 아니라 상수도, 가스관, 송유관, 난방, 동력, 통신, 산업폐기물 등 서로 다양하다.

이러한 각종 배관은 지금까지 무수한 사고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하수관의 누수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실명제가 보도된 바 있다.

하수도공사에 실명제를 적용하면 하수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하늘이 감탄할 정도이다.

생활하수(Sewer Line)는 크게 정화시설, 배관(Pipe), 그리고 벤홀(Manhole)로 구별된다. 옥내에서 정화시설 까지는 누수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관과 벤홀에 대한 문제점만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첫째, 배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파이프와 연결체의 종류와 품질
- 파이프의 설치방법과 순서
- 기존 파이프에 연결하는 방법
- 기존 배관의 확인방법
- 배관의 적당한 구배와 유속
- 배관을 지지하는 자재와 전압
- 파이프하부에 살포하는 모래의 두께
- 굴토지반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
- 굴토면의 안전
- 뒷채움 흙의 종류와 전압 및 시험
- 자재의 현장보관 및 취급방법

- 강제배수의 배관방법
- 둘째, 멘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자.
- 멘홀의 적당한 간격
- 멘홀을 설치해야 할 위치
- 유속이 빠를때(구배가 클때) 파이프와 멘홀의 연결 방법
- 멘홀과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 시험의 종류와 방법 복합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 공사후의 준공도 작성과 관리방법
- 배관의 영구적인 표시방법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하수관의 누수를 방지하는 방법이지 실명제가 누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참고로 하수관의 설치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4B라 한다.

1. 굴토시 안전(Bracing)
2. 파이프의 지지(Bedding)
3. 파이프의 연결(Bell hole)
4. 뒷채움 흙(Back fill)

하수관의 흐름은 원칙적으로 중력(Gravity)에 의한 자연배수이지만 현장의 여건상 강제배수(Force main)를 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배관의 연결, 고정, 시험방법이 자연배수상태의 그것과 상이하다.

멘홀은 배수관의 검사와 관리를 위해서 설치되며 멘홀과 멘홀사이의 배관은 절대 직선이어야 하고 배관의 지지 역시 절대로 집중하중을 받으면 안된다.

하수관의 누수시험은 제품의 종류, 연결의 수(Joint), 그리고 파이프의 지름에 따라서 누수의 허용치가 결정된다.

하수관의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준공도를 작성해서 다음의 공사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현장에서 땅파는 직업을 할 때마다 지하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막대한 안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사고의 주범은 바로 준공도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을 지뢰밭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스관의 폭발이 아니라 가스를 비롯한 여타 배관들이 어디에 묻혀있고 얼마나 깊이 묻혀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준공도는 설계도와 관계없이 실지로 시공된 사항을 정확히 원도를 수정해서 작성하면 되고 이런 일은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간단한 작업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하수도법이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시방서에 적용하면 된다. 우리의 공사시방서에는 대부분 준공도의 작성을 지시하고 있지만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설계도에 버금가는 준공도의 작성은 우리 시방서에 명확히 규정해서 적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발생되는 지하

배관의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서울에서 하수관을 관통하는 상수관이나 가스관이 상당히 많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배관방법이 무지의 소치라면 세계 최하위의 문명국이고 적당주의의 발로라면 세계 최하위의 무양심국가이다. 하수관을 관통하는 여타 파이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하수관의 트렌치(Trench)에 상수관을 매설해서는 안되고 상수관과 하수관이 교차할때 하수관을 상수관의 위쪽에 배관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상세한 배관방법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누수를 막는 방법이지 실명제는 결코 아니다.

다시 시방서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시방서는 누가 만드는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발주자가 만든다”는 대답이다. 시방서의 다른 표현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자재나 시공의 방법을 지시하는 계약서이다. 이는 도면도 마찬가지이다. 도면과 시방서는 설계자가 작성하지만 이는 발주자나 건축주를 대리해서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계약상에는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설계자 혼자만으로 시방서의 작성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전문분야 기술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재와 시공의 결합이다. 즉 자재나 장비의 제조업자와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들의 참여없는 시방서는 의미가 없다.

그 밖에도 일반규정에서 계약당사자만의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가,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우리 말이나 문학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시방서의 문제점은 실로 해아리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 중의 하나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와 전문시공업자의 참여없이 시방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시방서는 탁상공론이나 이론이 아니다.

지난날 우리가 중동에서 경험한 시방서가 얼마나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참으로 홀륭한 시방서이지만 그렇게되기까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품질을 보증하는 각종 전문기술의 활용이며 이 전문기술은 거의가 자재의 제조업자나 전문기술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둘째는 시방서가 이론이 아닌 현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셋째는 끊임없이 개발, 보완, 수정작업을 계속했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시방서 본문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의 작성은 특별하기보다는 상식적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복잡하고 중복되서도 안된다.

특히 잘못되거나, 애매하거나, 빼진것이 있으면 안되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쉽고 간단한 길이 얼마든지 있는 데 어렵고 복잡한 길을 택한 우리시방서가 기술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소치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시방서가 가급적 피해야 할 문구가 있다.

즉 논문이나 산출근거, 학설이나 이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방서의 구성이나 내용은 표준시방서나 공사시방서가 큰 차이는 없지만 공사시방서는 해당 공사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상세한 제한이므로 품질시공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품질시공과 분쟁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방서의 각 단위가 건설의 정보나 자료에 근접하는 수단이라면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구성은 본문(Test)이다. 본문의 구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정은 강제규정(Mandatory)이다. 그래서 서술적인 “~이다” 혹은 “~으로 한다”는 구술이 아니고 “~해야한다(Shall)” 혹은 “~해서는 안된다”나 “~할 수 없다(Shall not)”는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음은 허용규정(May)이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의 기포제(AE)는 외부에 면한 콘크리트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Shall) 내부의 콘크리트는 기포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May)”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허용규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법이다.

어느 규정이나 예외규정(Exceptional)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시공자는 계약공기를 지연했을때 상응하는지 체상금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전쟁이나 전염병, 항만봉쇄, 파업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예외규정이다.

예외규정과 비슷한 배타적 규정(Exclusive)을 알아보자.

예외규정은 전술한 바처럼 몇가지의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배타적 규정은 특정한 것(Only)에만 국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보자.

“레미콘에 가수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동서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수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때 미국의 정부규정은 “레미콘 제조회사의 서면지시가 있을때만 가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민간 건설회사에 많이 사용되는 FIDIC의 계약서식에는 “Engineer의

허기가 있을때는 가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특정한 한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계약서식에서 Engineer는 발주자를 칭하며 우리의 감독이나 감리에 해당되는 말이다.

선진국의 시방서는 시공자의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보다 많은 재량을 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선택규정(Optional)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자.

골프장이나 아파트단지에 잔디를 조성할 때 그 방법을 시공자의 선택규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잔디는 때(Sod)를 심는 방법과 씨앗(Seed)을 뿌리는 방법이 있다. 이때 시방서에 어느 한가지 방법이 지정되었을 때는 물론 계약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냥 잔디(Turf)를 조성하라는 계약조건이라면 “때”와 “씨앗”的 방법중 시공자는 임으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 밖에도 시방서에 시공자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 구성에 다른 몇가지 규정이 있지만 심도있는 사항이어서 여기서는 생략한다.

본문적성시 범할 수 있는 오류나 분쟁의 소지를 두가지만 소개한다.

첫째, 시방서는 품질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에는 절대적이지만 꼭 상호나 상표가 필요할 때에는 품질도 규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둘째, 시방서가 잘못 작성되었을 때는 물론 작성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애매하게 작성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그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즉, 애매한 작성이 분쟁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에 책임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이 국제화의 규정이다.

이제 우리 시방서의 문제점과 시정할 점, 시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미있는 자료 한가지를 소개한다.

작년에 필자는 협업에 종사하는 건축기사 약 300명에게 시방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새로 제정해서 발간한 표준시방서를 구입한 사람이 4%미만이고 대부분(81%)의 건축기사는 새로운 시방서가 발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전쟁터의 군인이 탄약없는 소총으로 전쟁을 한다면 이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유와 책임은 시방서를 활용하지 않은 건축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없는 시방서를 만든 사람과 제도와 관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소개한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국내대학을 평가 발표한 바 있

다. 그 중에서 건축과를 평가한 “한국건축교육의 문제”의 몇군데를 소개한다.

“건축교육이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과 거리가 먼 꿈만 꾸게 했을 뿐 균형잡힌 건축기술인을 길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도 교육이 실무와 연결되지 않아 주어진 일을 해내지 못한채 짤짤매기 십상이다” “설계 따로 구조 따로 시공 따로식의 현장성의 결여” “원로교수들에 의해 대학교육중 가장 낙후된 분야로 남아있다” “건축 교수들의 뼈아픈 자성” 등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으로

첫째, 균형잡힌 교육,

둘째, 현장성이 녹아있는 교육

셋째,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들을 제시하고 있다.

참으로 공감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해결방법을 몰라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필자는 여기서 한가지 결과를 도출하는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시방서의 전통성, 실명제의 기반성 그리고 교육의 허구성이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사시방서의 작성이나 사용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공사당사자 즉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서류로서의 역할이다.

계약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구태여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시방서가 계약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문제가 너무 많다.

우리시방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의 불평등이다. 다시말해서 일방적인 계약이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는 휴지화되고 공사는 빌주자 멋대로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빌주자라 함은 정부나 정부기관을 뜻한다.

두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시방서에 “시공자는 담당원의…”라는 구절이 자주 나온다. 이는 계약의 시공자는 당사자이고 빌주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자를 뜻하는 내용으로 계약에는 있을 수 없는 불균형이다. 이같은 문장은 마땅히 “시공자는 빌주자~”로 바꿔어야 한다.

다음은 일반규정이나 기술규정 공히 감독의 멋대로 한다는 규정이 대부분이다.

계약은 쌍방의 합의인데 일방의 의사대로 한다면 그런 계약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같은 계약내용은 국제시장에서도 물론 있을 수 없지만 이런 식의 계약이 존속된다면 우리건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규정이 우리시방서에 아직도 존재하는가?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이요 군국주의의 잔해라

고 필자는 확신한다.

일제말기가 우리나라의 태동기이고 우리의 제도나 기술의 도입이 초기 일본으로부터 이루어진 시방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약자에게 수탈과 만행을 아끼지 않았던 군국주의의 만행은 힘있는 정부가 힘없는 건설업자의 상전으로 군림하면서 발주자 위주의 전통과 관행으로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래서 계약마저 대리자를 보내서 시공자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했고 감독은 무소불의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관행이 우리건설에 끼친 피해와 악영향 그리고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나 규정, 관행의 척결을 위해서 아픔을 같이해야 한다.

이 아픔의 첫걸음이 시방서이며 이러한 잘못된 제도나 규정, 관행의 시정과 국제화는 시방서의 제정과 활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동서양의 감독을 비교한 글이 있다. 동양의 감독은 시공자와 수직적이고 서양의 감독은 수평적이다. 즉 동양에서는 감독이 시공자의 상전이라는 뜻이다.

이제 발주자와 시공자는 계약에 의한 평등한 관계이지 위아래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위아래가 있다면 그것은 많이 아는 자, 업무에 충실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의 건설법에도 시공자와 빌주자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방서의 균형있는 개정은 하자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시대적인 감각이나 현장적응에 부응했다면 우리의 건설은 보다 신뢰받을 수 있고 건물이나 교량이 붕괴되는 국제적인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건설의 부실이 그 뿌리가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너무나 지당한 의견이다.

지금도 일제말기 향수어린 신사참배의 노래를 부르는 교육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제는 편히 쉬는 길이 보운 하는 길이다.

실명제 같은 기반성의 제도보다는 경륜있는 실무자가 실질적이고 현장성있는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시방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 군국주의의 잔해가 도도히 흐르는 빌주자와 시공자의 불평등한 제도이며 그 관행의 제도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월권이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화 시대의 수십년 전의 훌려간 노래를 부르는 교육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교육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건설은 확실히 망한다.

우리시방서의 두번째 문제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계약 쌍방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1. 강 윤과 건축

1.1. 건축수업

1920년 渡日하여 近江八幡市의 Vories건축사무소에 들어간 강윤에게는 建築에 대한 예비지식이 전혀 없었다. Vories건축사무소의 구성원은 미국대학 건축학부를 마친 자를 주축으로 日本의 專門學校 建築科卒業生, 그리고 中學 5年제을 마친자를 받아들여 建築初步부터 수련시켜 거의 평생 함께 일하는 체제였다. 기타 중국인, 러시아인 등도 있었고 강윤이 入所할 때 人員은 24명이었다. 그 당시 Vories건축사무소는 이미 東京, 大阪, 福岡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輕井澤는 일본 유수의 별장지이다. Vories사무소에서는 매년 6, 7, 8월의 3개월간은 輕井澤에 夏季건축사무소를 개설하고 직원 모두를 이곳으로 옮겼다.

1937년에 발간된 Vories건축설계사무소작품집'의 사무소원의 명단을 보면 44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인 두 사람을 포함하여 외국인은 10명이 있었다. 이들 한국인을 제외한 8명의 외국인들은 모두가 미국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3~5년의 계약으로 귀국하는 예가 대부분이었다.

사무소의 구성원은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다. 매일 아침 예배로 사무소의 일과가 시작되었으며, 일반사원은 和服(Epron을 걸쳤다) 혹은 학생복을 입었으며, 간부는 양복착용을 하였다. Vories자신이 기본설계를 주로 하였으며, 미국인의 작품일지라도 매우 엄격하게 작품을 평하고 퇴작동기가 일쑤였다 한다. 사무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대학건축교육을 받은 기성건축가를 초청하여 자체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 Vories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에서 기존의 건축가를 초청하여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사원중 대부분의 일본인은 近江八幡市 상업학교 출신으로 非건축인들이었다. 이들 비건축인에 대하여는 자체교육을 시켰는데 주로 제도연습을 요구하였다. 신입사원에게는 Greek Order 등을 烏口로 잉크시켰으며, 경력이 약5~6년 정도 지나지 않으면 현장에 내보내지 않았을 만큼 엄격하였다 한다.

대부분의 조선내의 작품에 대해서는 설계도만 넘기고, 그 지역의 건축주가 알아서 시공과정을 책임지는 식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이화여전의 경우(1935년)는 강윤이 직접 서울출장소장으로 파견되었다.

年	月	日	名
大	正	一	第一
英	三	一	沈
根	信	二	建
根	信	三	築
根	信	四	都
根	信	五	計
根	信	六	算
根	信	七	法
根	信	八	規
根	信	九	則
根	信	十	則
根	信	十一	則
根	信	十二	則
根	信	十三	則
根	信	十四	則
根	信	十五	則
根	信	十六	則
根	信	十七	則
根	信	十八	則
根	信	十九	則
根	信	二十	則
根	信	二十一	則
根	信	二十二	則
根	信	二十三	則
根	信	二十四	則
根	信	二十五	則
根	信	二十六	則
根	信	二十七	則
根	信	二十八	則
根	信	二十九	則
根	信	三十	則
根	信	三十一	則
根	信	三十二	則
根	信	三十三	則
根	信	三十四	則
根	信	三十五	則
根	信	三十六	則
根	信	三十七	則
根	信	三十八	則
根	信	三十九	則
根	信	四十	則
根	信	四十一	則
根	信	四十二	則
根	信	四十三	則
根	信	四十四	則
根	信	四十五	則
根	信	四十六	則
根	信	四十七	則
根	信	四十八	則
根	信	四十九	則
根	信	五十	則
根	信	五十一	則
根	信	五十二	則
根	信	五十三	則
根	信	五十四	則
根	信	五十五	則
根	信	五十六	則
根	信	五十七	則
根	信	五十八	則
根	信	五十九	則
根	信	六十	則
根	信	六十一	則
根	信	六十二	則
根	信	六十三	則
根	信	六十四	則
根	信	六十五	則
根	信	六十六	則
根	信	六十七	則
根	信	六十八	則
根	信	六十九	則
根	信	七十	則
根	信	七十一	則
根	信	七十二	則
根	信	七十三	則
根	信	七十四	則
根	信	七十五	則
根	信	七十六	則
根	信	七十七	則
根	信	七十八	則
根	信	七十九	則
根	信	八十	則
根	信	八十一	則
根	信	八十二	則
根	信	八十三	則
根	信	八十四	則
根	信	八十五	則
根	信	八十六	則
根	信	八十七	則
根	信	八十八	則
根	信	八十九	則
根	信	九十	則
根	信	九十一	則
根	信	九十二	則
根	信	九十三	則
根	信	九十四	則
根	信	九十五	則
根	信	九十六	則
根	信	九十七	則
根	信	九十八	則
根	信	九十九	則
根	信	一百	則

그림1. Vories건축사무소의 강윤의 사적부

그림2. Vorles 거축사무소 주요소원 인맥 리스트



그림3. Vories건축설계사무소원(1937년)
기운데줄 중앙이 Vories이며 아래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강유

學院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육의 설계모형은 지금도 Vories 記念館에 保存되어 있다.

1.2 일본에서의 생활

강윤이 1920년부터 Vories사무소 원이 되어 해방이 되기까지 近江八幡市에서 오랜 일본생활을 하였다. 1928년 6월 2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일본에서 세아들을 놓고 키운 近江八幡市에는 지금도 강윤 가족이 생활하였던 옛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의 부인은 목사의 딸로서 전형적인 조선여성이면서 일본 식민지 지배를 강하게 의식한 知的인 여성 이었다. 부인은 항상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 생활태도가 시종 조선의 것을 고집하였으니 일인들의 시선이 온당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Vories의 수제자(近江八幡市 상업학교 졸업)였으며 합평회사 설립 당시 함께 투자하였던 吉田悅藏(近江八幡市 상업학교 졸업, 1890~1942)의 아들인 吉田希夫

목사는 1917생으로 현재 Vorles가 거주하였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강윤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생존자 중 한 사람이다. 필자에게 전한 아래의 서한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그의 항일정신을 엿볼 수 있다.

『강윤씨 가족을 때때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윤씨는 저를 몹시 사랑해 주셨습니다. 김선생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란서혁명을 잘 읽어 보십시오. 그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 분의 말씀대로 그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윤씨



그림4. Vories건축설계사무소 모습(1930년)



그림5. 강윤이 사용하였던 당시의 주택(近江八幡市)



그림6. 강윤의 결혼사진(1928년)

는 진정한 애국자였기 때문에 항상 동포를 생각하며 울분에 차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편치 못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늘 孤高한 정신에 의연한 자세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부인도 항상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두분의 일본생활은 남다른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가끔 저의 집에 들러 주셨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셔서 건축일을 하셔도 近江八幡市에 계셨던 일들을 그다지 입에 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무실에서 휴식시간에는 배구같은 운동을 하다가 일인이 조선인 云云하면서 인격적으로 멀시하는 경우가 있으면 매우 맹렬하게 그에게 달라붙어 싸운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頭部상처에 대하여 이 상처는 일본현병에 의한 것이었음을 평소에 주장하였다 한다.

1.3 건축설계도면에 나타난 항일 의지

이미 철거된 종로 태화관 강당의 목조트리스에는 강윤이 그려넣은 태극무늬가 선명하다. 그런데 태화관 설계 원도는 소실되고 한장 남아있는 의사상세도와 이화여전 예배당 의사상세도에서만 태극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태화관은 한때 일본경찰서로 이용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태극마크가 문제시 되었으나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에 없애지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Greece의 Parthenon신전은 B.C.435년 도시국가 아테네시가 15년 역사의 市費의 6배를 들여 이루어 졌으며 이 신전내부에 높이 서있는 여신상의 오른손에 쥐어진 원형방패에는 많은 신상의 부조로 채워져 있다. 그 속에는 조각가 Phiadis와 또 한사람의 모습을 새겨 넣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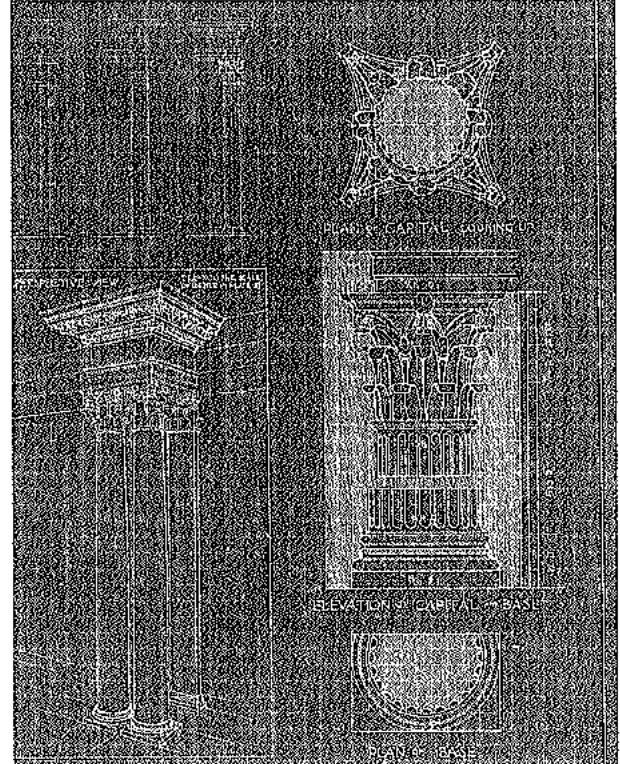


그림8. 건축수업 당시 제도 연습으로 사용되었던 Greek Corinthian Order

것이 후에 발각되어 신을 모독하였다는 죄명으로 Phiadis는 처형되었다.

강윤은 그 공포의 시대에 더욱이 일본땅에서 어떤 심정으로 태화관 설계도면에 태극무늬를 그려 넣었으며 그 건축의 준공을 지켜 보았을까. 그 시기는 많은 독립의사들이 속속 변절하는 때이기도 하였다.

2. Vories에 대하여

2.1 출생에서 일본에 도착하기까지

William Merrell Vories는 1880년 10월 28일 미국 캔사스주 Leavenworth에서 아버지 John Vories와 어머니 Juria Jugenia Merrell의 장남으로 어머니의 祖父인 William Merrell家에서 태어났다. Vories家는 16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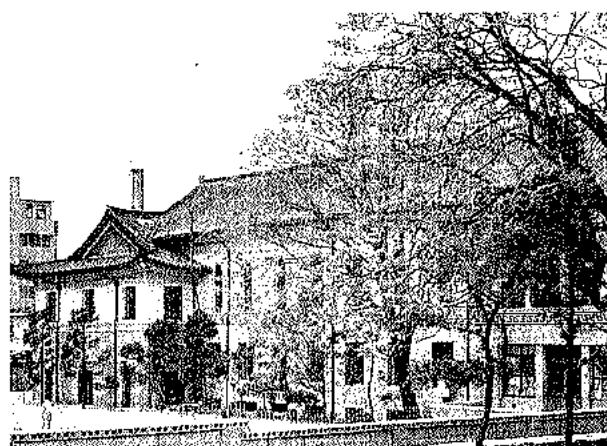


그림7. 태화관 전경



그림9. 태화관 내부 (목조트리스의 태극무늬가 선명하다)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信教徒로서, 祖父인 Henry Monfort Vories는 미조리주 최고재판소 판사였다.

1887년 Vories家族은 아리조나주의 Flagstaff로 이사하는데 그 이유는 윌리엄이 2세때 심각한 결핵이 걸린 적이 있어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10년후인 1896에는 콜로라도주의 Denver로 옮긴다. 15세가 되는 Vories은 1896년 9월 East Denver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졸업한다.

Vories는 고등학교 졸업후 건축가가 되려고 M.I.T. 건축학과에 서류를 보내는데 대학으로부터 당장 입학하여도 좋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반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으로 편입하여도 좋다는 전갈을 받는다. 윌리엄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콜롬비아 대학을 선택하게 된다.

1900년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하여, 1904년 6월에 철학사의 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한다. 그후 1930년 6월 콜롬비아 대학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L.L.D.)의 칭호를 수여 받는다.

콜롬비아대학 시절 YMCA활동을 통하여 건축가에서 종교인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이 때 그는 해외전도활동을 결심하게 된다. 그가 건축가 지망을 포기하고 선교사를 천직으로 결심하게 된 것은 대학 3년경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리즈는 전문의 성직자가 아닌 교사이며 농부이며 세속적인 직업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였다.

또한 해외전도활동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동기는 1902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캐나다 Toront의 Massey 강당에서 열린 제4회 S.V.M.(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해외전도학생봉사단)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그곳에서 선교사인 J.R.Mott와 F.Howard Taylor의 강연을 듣고 감동하여 S.V.M. 단원에 지원한다. 때문에 건축가가 되기 위하여 M.I.T.공과대학으로 轉校하려는 개인적인 계획을 바꾸어 해외전도의 길을 택하게 된다. 콜롬비아대학을 졸업하고 YMCA에서 6개월간 근무한 후 日本 滋賀縣立商業學校의 영어교사 발령에 응하게 된다.

2.2 일본에서의 선교 및 건축활동

1905년 1월2일 Denver를 출발하여 1905년 1월 29일 横浜에 도착한 Vories는 같은해 2월 4일 近江八幡市의 상업학교의 英語教員으로 취임 해 2년간의 교원생활 후 1907년 3월 31일자로 해직된다. 해직이유는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기독교 교화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한다. 近江八幡市는 당시 인구 약7,200명으로 雲霧湖곁에 위치한 역사깊은 도시이다. 일반적으로 近江商人으로 유명하지만 예전부터 眞宗本願白派의 불교도가 많으며 외래종교 문화에 대하여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 Vories가 단독으로 건축사무소를 연 것은 1909년 봄으로 京都YMCA초대명예주사인 S. Phelps의 추천을 얻어, George De Lalande가 설계한 京都YMCA會館 건축공사의 현장감리를 맡게된 때부터 였다. 처음

에는 사원이 村田辛一郎 혼자였으나, 곧 吉田悅藏이 참가한다. 이 두사람 모두는 近江八幡市의 상업학교 출신으로 Vories의 제자이다.

2.3 Vories合名회사와 近江미손의 설립

1910년 11월에는 미국인 건축가 Lester Grover Chapin, Fred Rowe Thorne을 데려와 동년 12월 13일에 吉田悅藏과 공동투자로 Vories合名회사를 설립한다. 설립발기인은 Vories, Chapin, 吉田悅藏 3명이었으며, 사원은 보리즈의 7명이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활동과 함께 Vories는 八幡YMCA에서 보다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1911년 6월 그의 선교사업의 중심역할이라 할 수 있는 近江미손(近江 기독교전도단)을 설립하였다.

Vories의 건축사무소 활동은 近江미손의 기독교 전도 사업의 하나인 셈이다. 한편 1919년 6월 3일 Vories는 일본인 一柳末滿喜子와 결혼을 한다. 近江미손의 산업부에 해당되는 Vories합명회사는 건축설계 감리업을 주로 하였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제 건재, 잡화의 수입판매도 함께 하였다. 그후 1920년 12월에는 상품수입 판매부분을 업무로 하는 近江세일즈 주식회사와 건축부문의 Vories건축사무소로 분리·독립하게 된다. 近江세일즈 주식회사의 품종가운데 하나인 멘소레담은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는 유명상품이기도 하였다.

1912년 여름(6월~8월, 3개월간)부터는 輕井澤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한편 1934년 2월 2일에는 近江세일즈주식회사, Vories건축사무소, 近江미손본부, 近江요양원 등으로 불리웠던 선교부분과 실업부문의 통합을 위해 近江미손을 近江兄弟社로 개칭한다.

2.4 2차대전 이후의 Vories

세계2차대전이 시작되는 1941년에는 재일미국인들은 귀국 아니면 귀화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기였다. Vories는 1941년 1월 24일 歸化를 결정하고 '一柳米來留'라고 개명하였다. 米來留의 이름은 '미국인이 來朝하여 뼈를 묻는다'의 의미라 전해진다. 그후 전쟁의 국박함과 함께 1944년 9월 Vories건축사무소는 1908년에 설립되어 36년간의 건축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일본패전이후 1946년에는 近江兄弟社의 건축부가 재개되며, 1957년 Vories는 시력이 쇠약해져 요양생활에 들어간다. 1961년에는 近江兄弟社 건축부에서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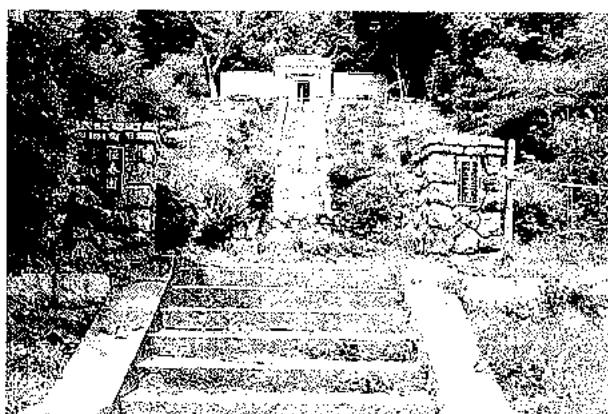


그림10. 恒春園

一粒社Vories건축사무소가 독립하여 大阪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그후 東京과 福岡에 支所를 두어 近江兄弟社 시대부터 해 왔던 미손관계의 건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 1964년에 5월 7일 84세의 나이로 近江八幡市에서 사망한다.

일본 中央公論 1965년 5월호의 논설에 2차대전 패전 직후 연합군 점령군사령관 맥아더와 만난 Vories의 미공개 일지를 풀이한 평론가 上坂冬子는 『천황을 지킨 미국인』의 마무리 부분을 다음과 같은 글로 맺고 있다. “近江八幡市 근교의 산중턱에 Vories사무소의 恒春園(남풀당)이 있다. 거기에는 Vories내외가 일본인 사원들과 똑 같은 크기의 상자속에 잠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Vories건축사무소는 Vories 제자의 제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5 Vories의 건축작품

Vories의 건축작품은 스케치를 포함하여 총1,484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본외 작품으로 193점이 있으며 이

표1. Vories건축사무소 작품유형

건축작품	SK.	Job.	계
近江Mission	12	55	67
YMCA & YWCA	10	43	53
교회	36	102	138
학교 유치원	105	267	372
병원	15	26	41
공공시설	20	56	76
상업시설	39	69	108
주택	92	291	383
輕井澤	12	41	53
해외작품	52	141	193
계	392	1091	1484

주) sk. : 스케치, Job. : 실시설계

표2. 조선에서의 작품분류표(1914~1942)

건축작품	SK.	Job.	계
Y. M. C. A		10(6)	10(6)
Church & Mission	6(7)	13(7)	19(14)
School	14(9)	31(21)	45(30)
Hospital	4	9(2)	13(2)
Residence	15(3)	40(10)	55(13)
Store & Company		3(2)	3(2)
계	39(19)	106(48)	145(67)

주) Job. : 실시설계, sk. : 스케치, ()안의 수치는 입수도면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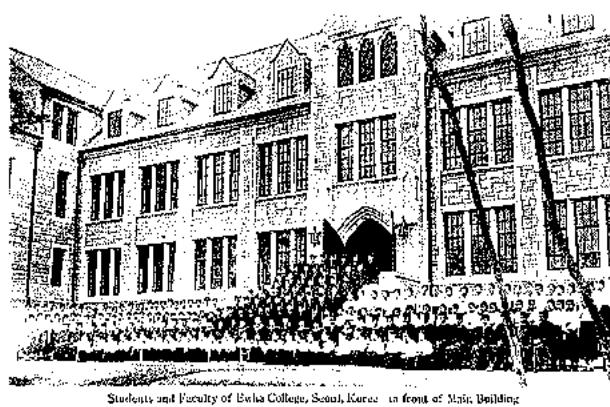


그림 11. 이화여대 본관(19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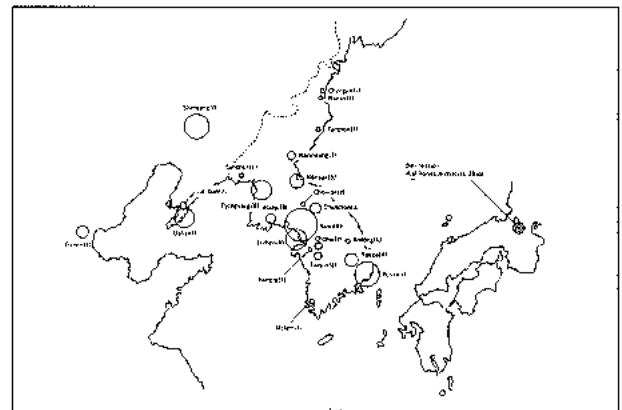


그림12. 조선반도의 Vories 작품 분포도, ()안은 작품수

중 145건은 한국에 작품을 두고 있다. 나머지는 중국에 37건, 대만에 8건, 스리랑카에 1건, 호노루에 1건이 있다.

선교사로서 Vories의 작품활동은 기독교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와 미손계 학교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택의 작품수도 많으나 선교사의 주택과 학교부속의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6 조선에서 있었던 Vories의 작품활동

Vories의 조선출장은 1908년, 1916년, 1919년, 1920년, 1927년, 1933년, 1935년으로 총7회에 이른다. 1920년 출장 때는 서울 공주 해주 평양 인천 춘천 등에서 13건의 설계의뢰를 받았다. 여기서 Vories의 조선출장년도를 재조명해 보자. 1919년은 3·1독립만세사건의 해이다. 연이어 1920년에도 조선출장을 하였다. Vories는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수 있다. 그가 방문한 지역은 각기 그 지역에서의 독립만세의 거점지였다.

특히 Vories는 그와 친교를 가진 공주영명학교장 Frank, E. C. William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공주 영명학교의 설계를 의뢰받는다. Frank, E. C. William의 한국이름은 禹利岩(1883-1962)이며, 미국 콜로라도주 Fortcollins에서 출생, 1905년 Denver대학을 졸업하고 1906년 해외선교지원자 학생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으로 방한한 선교사이다.

이때 동교의 3·1독립운동 주동자인 한 사람인 강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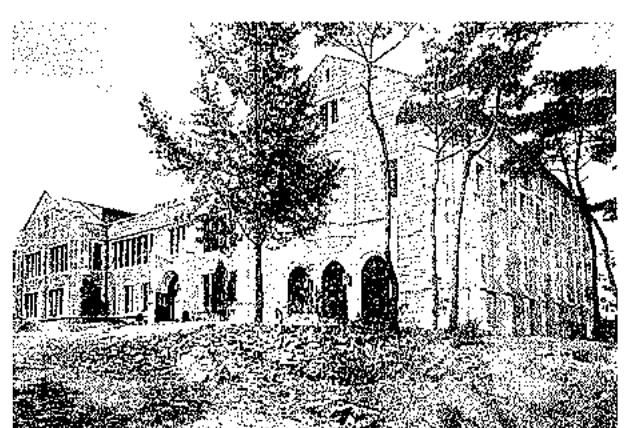


그림13. 이화여대 음악당(1935년)

표3. Vories의 현존도면 작품리스트(한국)

日本大阪藝術大學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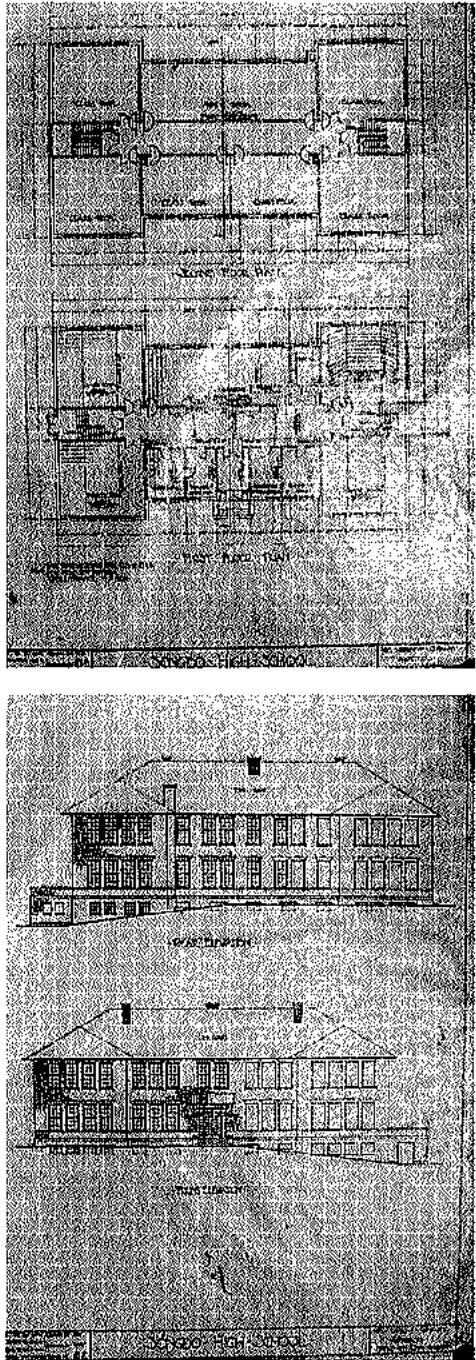


그림14. 송도고등학교 설계도(Job. 3252, 1920.4 개성)

만나게 되며, 또 한 사람의 조선청년인 임덕수도 이런 경위로 서울지역에서 Vories와 만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Vories는 조선의 기독교계 학교 중 반수가 넘는 학교의 건축계획에 참여하였다.

조선에서의 Vories의 대표작품으로는 세브란스병원, 이화여전, 서울YMCA, 羅南敎會, 釜山鎮敎會, 平陽光成中학교, 함흥永生중학교, 宜川중학교, 大邱啓星학교, 개성송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Vories의 건축작품 총 1,484 점 가운데 현존하는 원도는 日本大阪藝術大學에 약 800 여점이 수장되어 있으며, 이를 필자가 분리·정리한 바 조선에서 계획한 작품은 67점 420면이 있었다.

	작 품 명	도면번호	작성년도	장소
A1	Institution Church for Pyeng Tang	Job. #1255	1920.4	평양
A2	Sunday School Building for Methodist Church	Job. #1276	1927.5	서울
A3	Fusan Presbyterian Church	Job. #1294-B	1932.2	부산
A4	The Haju Sanatorium Chapel	Sk-177	1932.6	해주
A5	Andong Presbyterian Church	Job. #1297	1933.8	안동
A6	Seishin Methodist Church and Pastor's House	Job. #1307	1934.5	청진
A7	Korean Methodist Church	Sk-A-117	1935.12	원산
A8	Central Church	SK-A-131	1936.2	개성
A9	Korean Methodist Church	Job. #1311	1936.3	원산
A10	Church of Methodist Mission	Job. #1313	1936.5	철원
A11	Banan Church	SK-A-123	1936.8	라납
A12	Presbyterian Church	SK-A-124	1937.2	서울
A13	Fusanchin Church	SK-A-130	1937.2	부산진
A14	Choryang Church	SK-A-132	1937.2	초량
B1	Girl's School	Job. #3228	1916.9	서울
B2	Pierson Memorial Bible School Dormitory	Job. #7212	1917.5	서울
B3	Boy's School Building	Job. #3243	1919.5	공주
B4	Boy's School Building	Job. #3244	1919.6	해주
B5	Dormitory for Methodist Episcopal Mission	Job. #7222	1919.10	평양
B6	Paget Administration Building	Job. #3253	1920.3	서울
B7	Typical Six room School	Job. #3254	1920.3	
B8	High School	Job. #3257	1920.3	평양
B9	High School	Job. #3252	1920.4	개성
B10	Paget School Auditorium Building	Job. #3260	1920.5	서울
B11	Il Sin Girl's Primary School	SK-366	1930.3	부산진
B12	Keisung Academy Recitation Building	Job. #3295	1931.2	대구
B13	Building for Taikyu Girl's School	SK-278	1931.10	대구
B14	Taikyu Bible Institute	SK-279	1931.10	대구
B15	Dormitory	SK-747	1931.10	대구
B16	Yung saeng Primary Girl's School	SK-	1931.12	합동
B17	Yung Saeng Boy's High Common School	Job. #3303	1931.12	합동
B18	Girl's Higher Common School	Job. #3300	1932.2	합동
B19	Hosei Joshi Gakko	Job. #3324	1935.8	천천
B20	Kindergarten and Remodelling of Miss Starkley Dorm	SK-356	1937.2	서울
B21	Gymnasium for Chosen Christian College	SK-770	1937.3	서울
B22	Dining hall for C.C.C.	SK-A-335-2	1937.5	서울
B23	Shingakko for Dr. J.Z. Moore	Job. #3347	1940.5	해주
B24	Additional building for Hamheung Boy's School	SK-280		함흥
C1	New Office and Lobby Plan	Job. #4320	1914.1	서울
C2	Residence for Y.M.C.A. Secretary	Job. #8588	1917.7	서울
C3	Residence for Y.M.C.A. Secretary	Job. #8589	1917.8	서울
C4	Isolation Cottage for Holmes Norton Hospital	Job. #4104	1919.6	해주
C5	Keijo Y.M.C.A.	Job. #4328	1919.10	서울
C6	Residence for DR. Stites	Job. #8621	1920.2	서울
C7	Model Residence for Methodist Mission	Job. #8618	1920.3	
C8	Christian Hospital	Job. #4105	1920.7	춘천
C9	Gymnasium for Japanese Y.M.C.A.	Job. #4333	1921.9	서울
C10	Men's Evangelistic Center	Job. #4335	1922.9	개성
C11	residence for Mr. Iwase	Job. #8697	1925.8	부산
C12	Residence for Y.M.C.A. Secretary	Job. #8712	1927.6	서울
C13	Proposed Cottage for Mr. W. Ono	Job. #8770	1930.10	부산
C14	Residence for Miss Roger	SK-B-819	1931.3	
C15	Residence for Mr. Gerdine	Job. #8826	1935.8	서울
C16	Faculty Residence for Ewha College	SK-B-870	1936.6	서울
C17	Settlement Building for Dr. Song	SK-771	1937.4	부산
C18	Paton Memorial Hospital	Job. #4126	1937.12	신수
C19	Building for Young Men's Activities	Job. #5253	1938.8	대구
C20	Korea Y.M.C.A. Building	Job. #4307		서울
C21	Residence for Yakiyama	Job. #8695		부산
C22	Residence for Dr. H.B. Newell	Job. #8701		서울
C23	Teahwakwan(의자티에일)		1938.9	서울
D1	Main Building	Job. #3306	1932.12-34.4	
D2	Music Building	Job. #3307	1933.3-34.3	
D3	Dormitory Building	Job. #7252	1934.5-34.8	
D4	Kindergarten	Job. #3123	1935.5-35.7	
D5	School Building	Job. #306.3307	1932.8-34.2	

주) A : Church B:School C:Y.M.C.A.,Hospital,Residence D:Ewha College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신설경기장설계경기의 최종결과가 지난 8월 9일 발표되었다.

이번 설계경기는 금정권, 강서권, 기장권 등 권역별 대상자로 나누어 견립함으로써 30억 아시아인의 축제의 장 뿐 아니라, 향후 사회체육시설로서의 활용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번 설계경기에는 부산과 서울에서 총 23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금정권(싸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실내체육관) 10개작품, 강서권(하키경기장, 실내체육관, 조정·카누경기장) 6개작품, 기장권(양궁경기장, 실내체육관) 7개작품 등이다.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는 전민현위원장(부산광역시부시장)을 비롯하여 서외택(부산대), 강홍빈(서울시립대), 유길준(동아대), 김진균(서울대)교수와 박성길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장, 한병우 부산광역시 건축기획장, 권중현 부산광역시 체육회사사, 하형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이성철 부산시주택국장, 홍완식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등 총 11명이 참여하였다.

당선작에게는 설계권(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이 부여되며, 우수작은 상금 5백만 원, 각작에게는 상금 3백만원이 각각 수여되었다.

각 권역별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2002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Asian Game Stadium, 2002

금정권

금정 제1경기장 설계경기에 응모한 총 10개 작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작품이 환경 아시아대회라는 슬로건에 조화되는 우수한 내용이었다.

특히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일신건축(정태복)

의 경우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요소를 도입하였으며, 경기후 지역 주민의 문화 체육공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건축의 형태에서도 단순, 명쾌한 공간구성으로 경제성과 단순미의 실현에 성공한 비교적 세련된 계획(안)이라는 데 심사위원 일동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강서권

강서경기장의 경우 총 6개 작품의 응모작중 설계경기규정을 위반한 1개작품을 제외하고 심사가 진행되었다.

강서경기장의 입지는 김해 대저평야지대로서 동쪽에는 구포·양산간 고속국도가 고가도로로 지나가고 있으며, 북쪽에는 국도 14호선이 지나고 있는 위치와 조정경기장은 서낙동강의 강동교의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경우 경기장 주접근로의 위치와 내부동선처리, 그리고 각 실의 접근이 양호하며 특히 조정경기장의 경우 입지의 불리한 면을 인공섬으로 조성하여 관람객과 선수에게 안정성있는 환경을 제공한 탁월한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여 심사위원 일동은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기장권

(수상작 현황)

구 분	권역별	업체 및 대표자
당선작(3)	금정권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정태복)
	금정권	(주)세진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박재평)
	강서권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엄웅)
	강서권	(주)대우엔지니어링 (남정현)
우수작(3)	기장권	(주)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 (김신재)
	금정권	(주)세진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박재평)
	강서권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엄웅)
	기장권	(주)대우엔지니어링 (남정현)
각작(6)	기장권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정태복)
	금정권	(주)중원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유우식)
	금정권	(주)신공간설계감리건축사사무소 (이두희)
	강서권	(주)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 (김신재)
	기장권	(주)남산종합건축사사무소 (신상억)
	기장권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오심훈)
	기장권	(주)남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철홍)
	기장권	(주)서일종합건축사사무소 (황석규, 문용규, 김정관, 정효선, 신경철)

금정권 / 당선작

일신설계(정태복)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일원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대지면적 / 289,807m²(87,666평)

건축면적 / 36,679m²(11,095평)

연면적 / 51,257m²(15,505평)

건폐율 / 12.7%

용적률 / 11.2%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주요용도 / 경기종·아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

장, 실내체육관

경기후경련장, 테니스연습장,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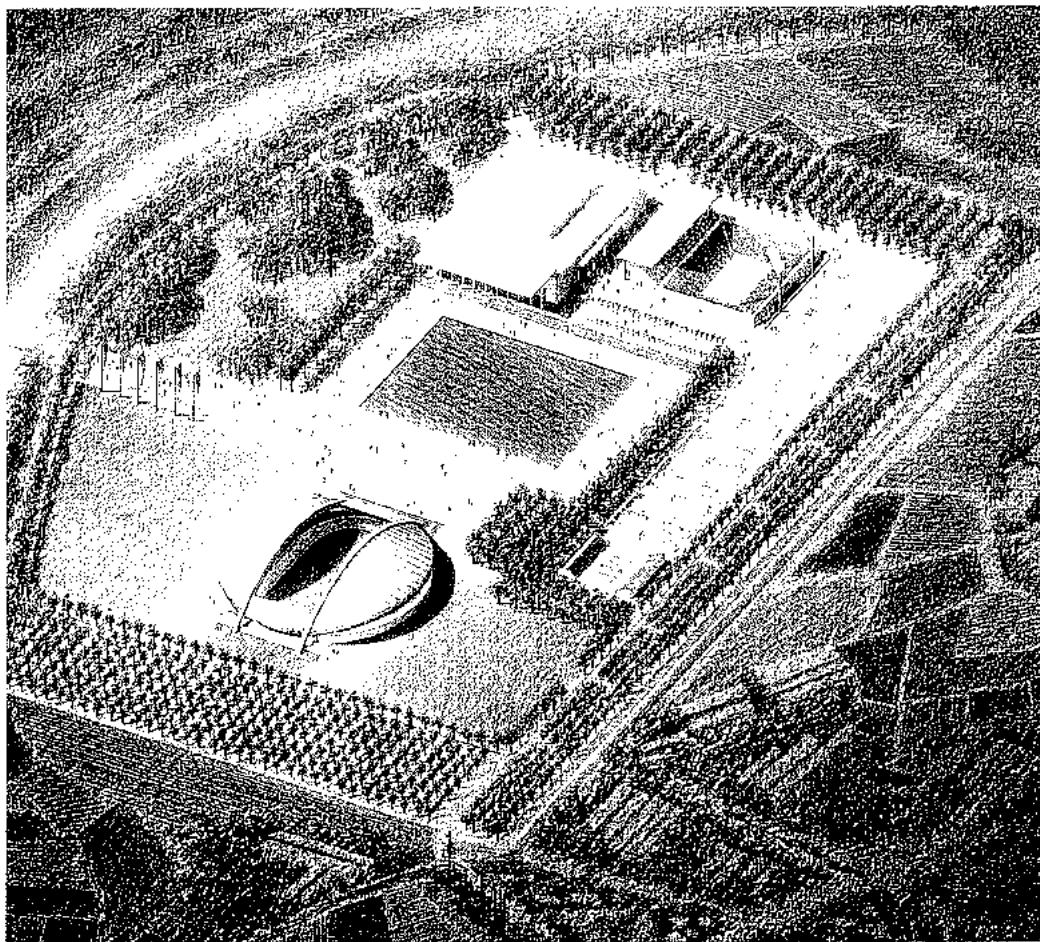
역 대규모집회 및 각종 행

사장, 기족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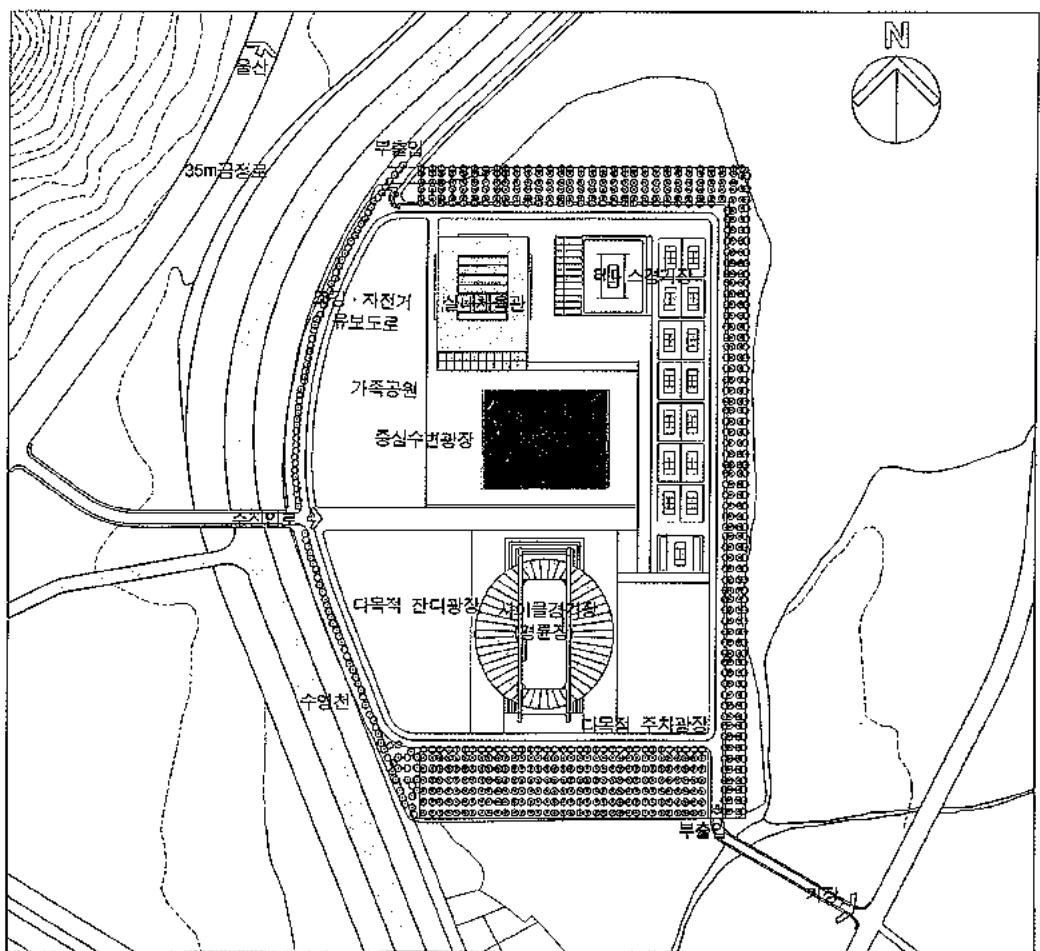
규모 / 사이클경기장 - 지하 1층, 지상 2층

실내체육관 - 지하 1층, 지상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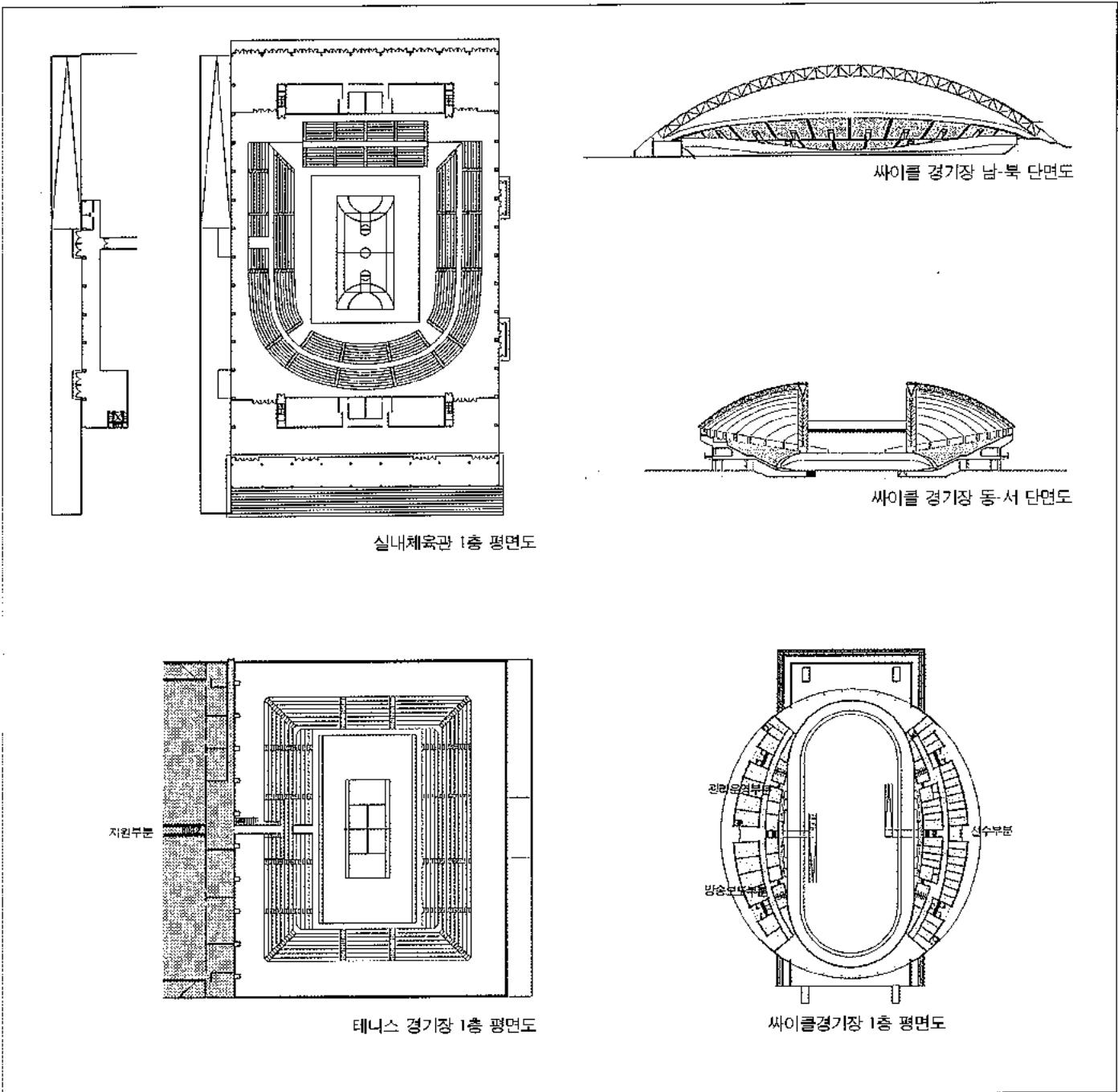
테니스경기장 - 지하 1층, 지상 3층



조감도



배치도



배치계획

- 영역성 확보 : 주변과 구분된 울창한 숲(주차공원)으로 영역성과 인지성 강조
 - 대규모대지의 명쾌한 동선계획과 배치계획으로 기능별 공간분할
 - 전통적 배치개념 도입 : 배산 임수의 대지내 중앙광장과 대형연못을 두어 시설의 방향성과 인지성 확보
 - 향후의 다양한 활용(경륜, 집회 등)을 고려한 벨로드룸의 독립적 배치와 주변에 넓은 여유공지

확보

싸이클 경기장

- 평면 및 단면계획
- 듬형 지붕형태 : 경관과 조화되는 부드러운 Sky-Line 개념비적인 형태로 시각적 흡인력을 가짐
 - 타원형 관람석 : 관람이 양호한 쪽을 많이 배치
 - 넓고 자연스러운 진입 Deck
 - 구조계획
 - 개폐형(가변형) 지붕 : 경제성, 단계별 시공
 - 스틸아치로 구성, 재료는 섬유 막 패널

- 오픈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완전한 실내공간 제공

실내 체육관

- Flexible한 무대설치 : 공연 및 다목적 행사를 위한 구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
- 단순·간결한 박스형태 :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성 고려
- 자연채광·환기의 천창설치 : 에너지 절약 방안 모색
- 대형 캐노피가 중심수변공간을 향하여 돌출
- 그늘을 제공하여 옥외공연장

의 기능

- 진입시 건물의 웅장함을 표현

테니스 경기장

- 평면 및 단면계획
- 관람이 양호한 부분의 좌석을 많이 배치
- 코트와 선수전용부분(라운지·락카) 수평연결
- 관중석과 VIP전용 리운지의 수평연결
- 구조계획
- 테니스단지의 장축 배열 : 주차장에서 진입이 편리

금정권 / 우수작

세진설계(박재평)
서울건축(엄 읍)
대우(엔) (남정현)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일원
대지면적 / 314,051㎡(95,000평)

건축규모

시설	층수	건축면적(㎡)
사이클경기장	지하1, 지상2	22,728(6,375평)
테니스경기장	지상2	5,365(1,623평)
실내체육관	지하1, 지상3	10,760(3,255평)
편의시설	지상	1,500(454평)
계		40,353(12,207평)

- 테니스 서브코트 : 제1서브코트 1면(1,056㎡)

및 서브코트 14면

건폐율 · 용적률 / 12.85% · 19.63%

외부마감

· 사이클 경기장 : 외벽 - 노출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

인트

자봉 - 스텐레스 박판, 투명 강화플라스틱

· 실내체육관 : 외벽 - 알미늄복합재널+복층유리

자봉 - 스텐레스 박판

· 테니스 경기장 : 노출콘크리트위 수성페인트, 알미늄복합재널, 화강석

주차대수 / 3,119대

배치개념

●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동서축(분리죽) 구축

- 실내체육관과 테니스 경기장을 사이클 경기장과 시각적 · 기능적으로 분리

- 동서축을 중심으로 균형있는 시설배치로 축의 상징성 부여

● 보행광장을 중심으로 남북축(연결축) 설정

- 사이클 경기장을 기점으로 남측으로 시각축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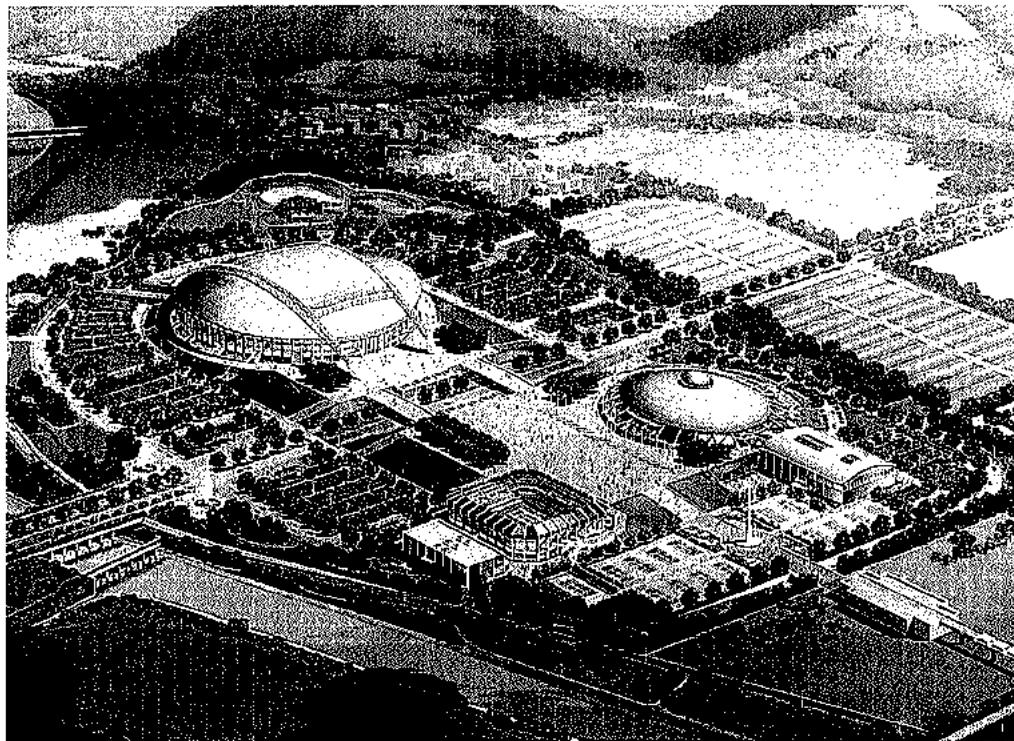
- 축을 중심으로 동서축의 정형적인 대칭을 지향하고 역동적 균형을 이루도록 함

- 남북축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상호연계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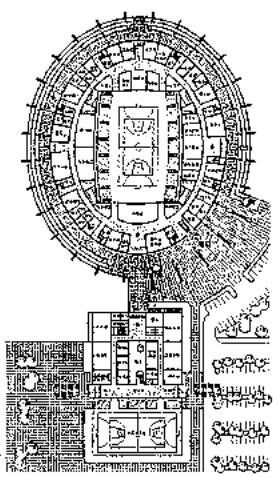
● 관련시설의 긴밀한 연계

- 사회체육센터와 테니스 경기장, 실내체육관이 보행권에서 연계 활동이 용이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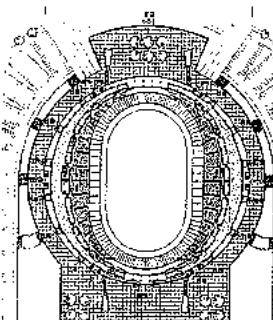
- 주차공간을 각 경기장별로 근접시켜 별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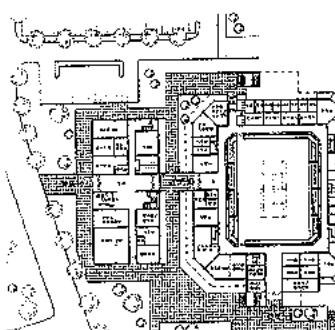
조감도



실내체육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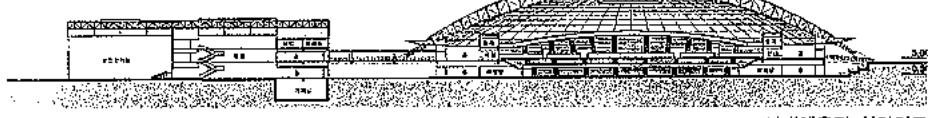
사이클경기장 2층 평면도



테니스장 1층 평면도



사이클 경기장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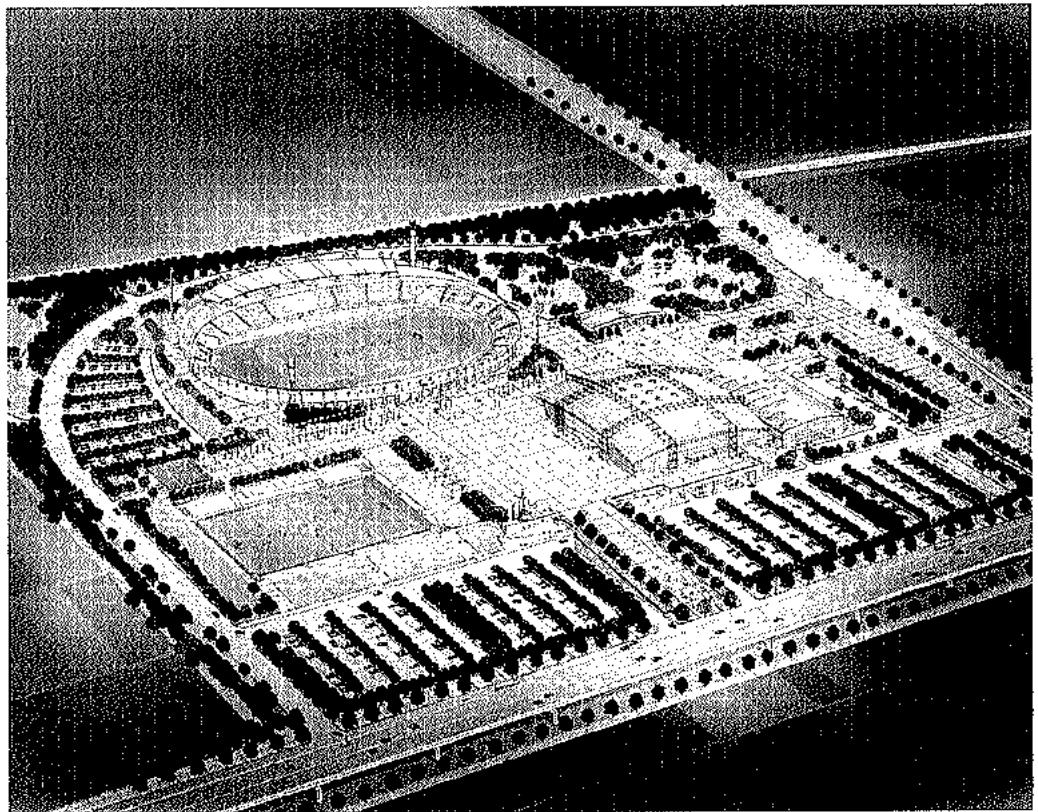
실내체육관 횡단면도

강서구 / 당선작

세진설계(박재평)
서울건축업(웅)
대우(엔) (남정현)

전체개요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대
대지면적 / 188,430m²(57,000평)
연면적 / 36,094m²(10,918평)
건축면적 / 24,324m²(7,358평)
건폐율 / 12.9%
용적률 / 19.16%
주차대수 / 1,200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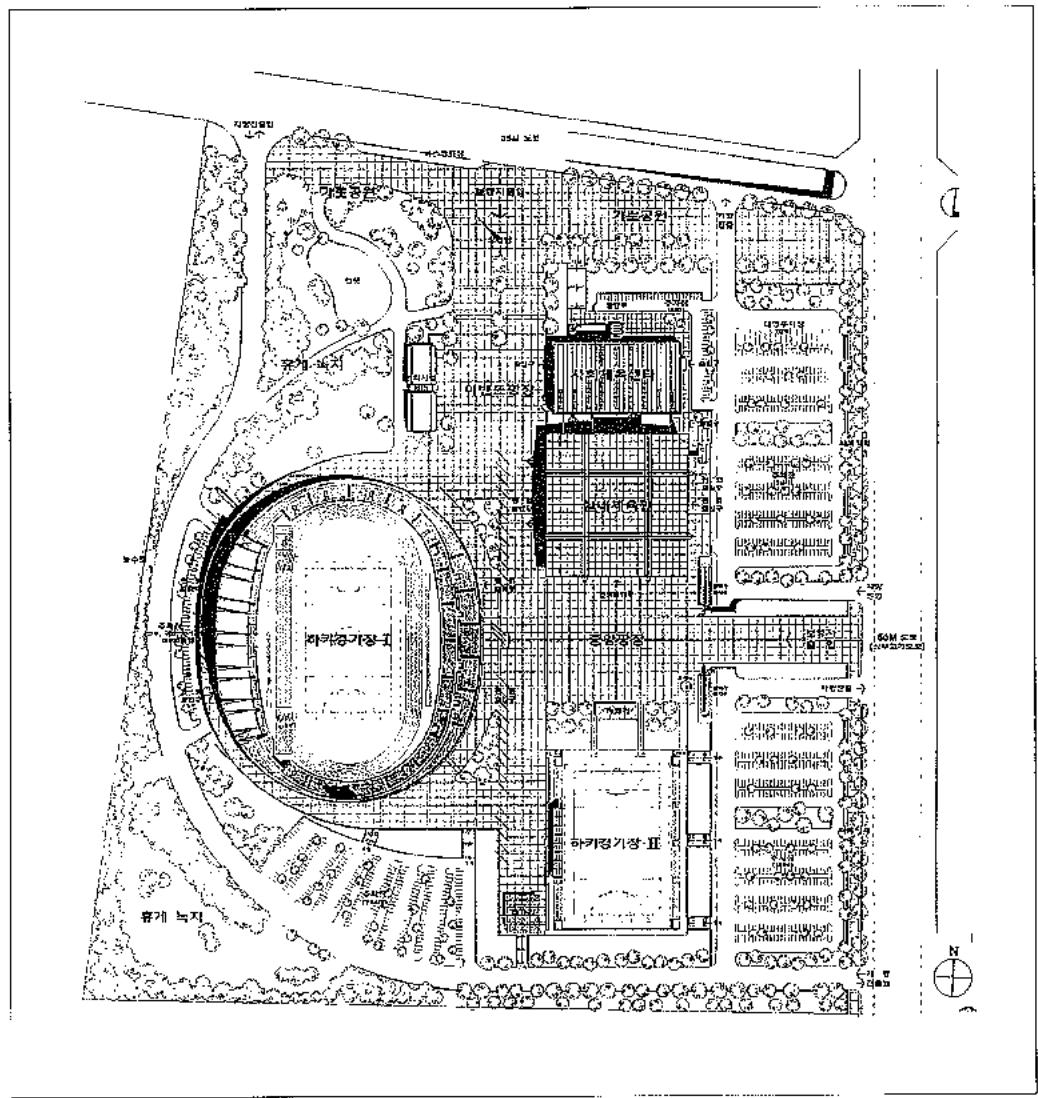
세부개요

하키경기장 I
연면적 / 12,470m²(3,772평)
건축면적 / 10,911m²(3,301평)
층수 / 지상 3층
수용인원 / 25,000명
외부마감 /
외벽 - 노출콘크리트워 수성페인트
지붕 - 테프론-코트 레인포스 웨브리(Teflon-coated Reinforced Fab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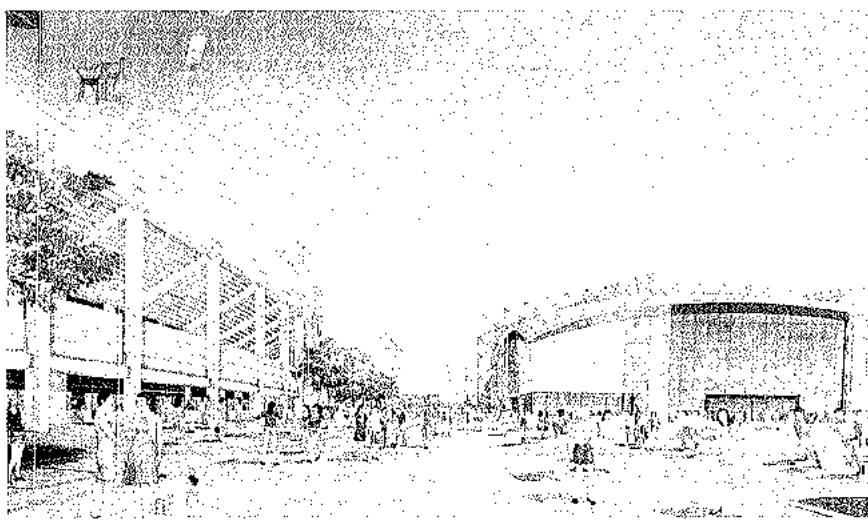
하키경기장 II
면적 / 8,700m²(2,118평)
수용인원 : 1,500명

실내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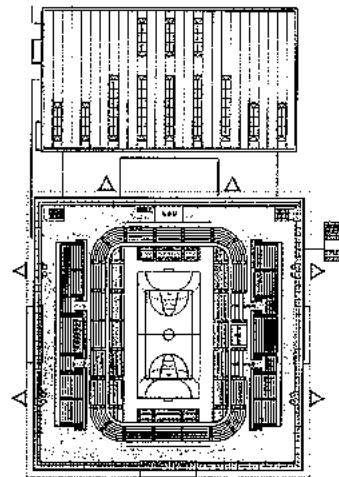
연면적 / 20,244m²(6,118평)
건축면적 / 11,713m²(3,543평)
층수 / 지상 3층
수용인원 / 5,200명
외부마감 /
외벽 - 알마늄복합판넬, 복층유리
지붕 - 철골트러스워 스테레오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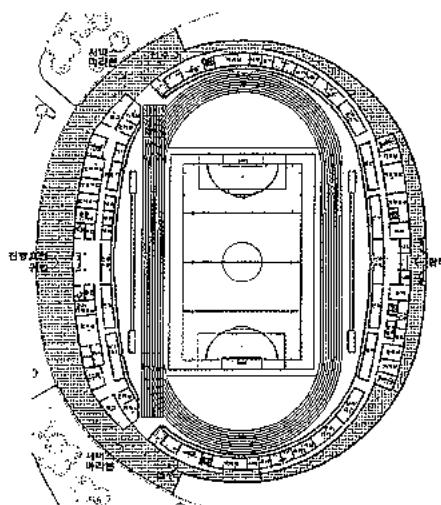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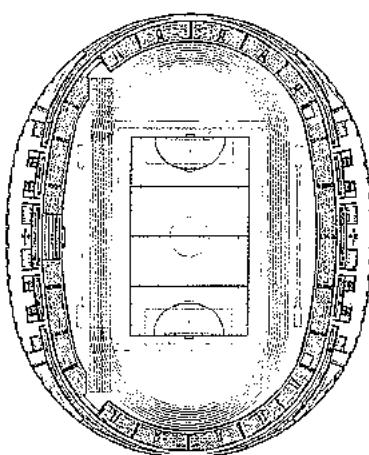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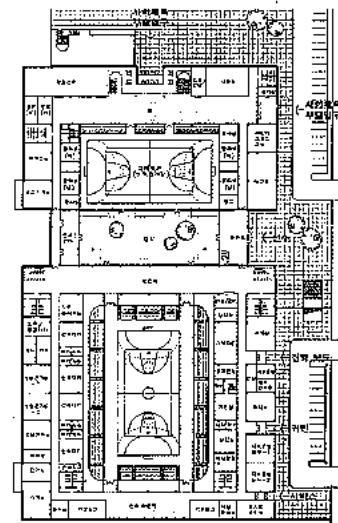
실내체육관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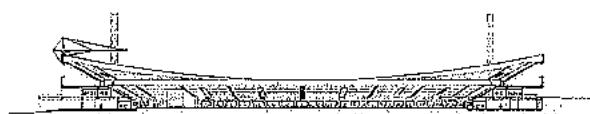
하키경기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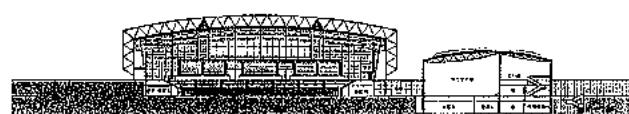
하키경기장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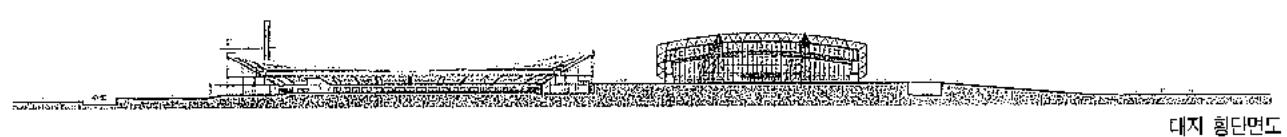
실내체육관 1층 평면도



하키경기장 종단면도



실내체육관 횡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강서권 / 우수작

일신설계(정태복)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 58,473평(193,300m²)

건축면적 / 8,242.8평(27,249m²)

연면적 / 9,609평(31,766m²)

건폐율 / 14.1%

용적률 / 10.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조립식 구조

주요용도 / 경기중·하키경기장, 실내체육관

경기후-축구장, 육상(트랙경기),

지역 대규모잡회 및 각종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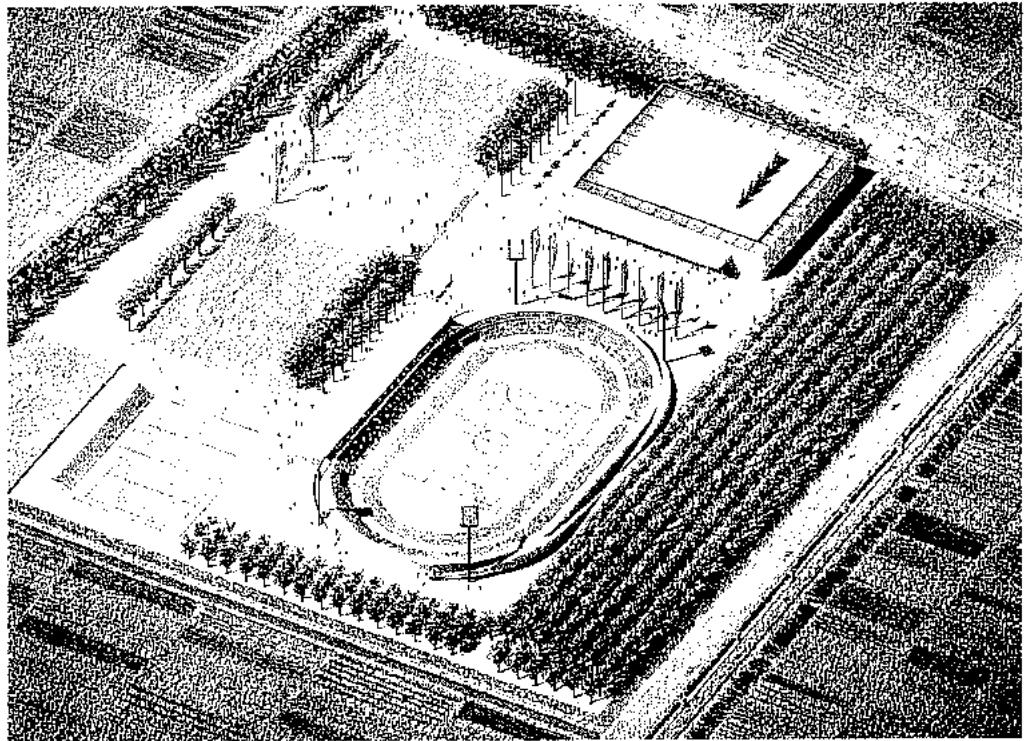
조경면적 / 19,662.8평(65,022.5m²)

수용인원 / 하키경기장 1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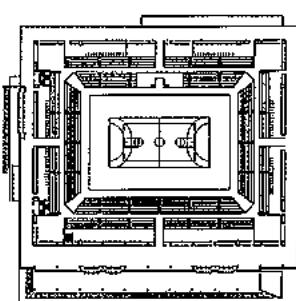
실내체육관 4,000명

보조경기장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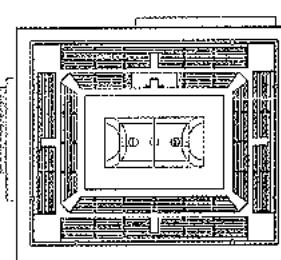
주차대수 / 1,0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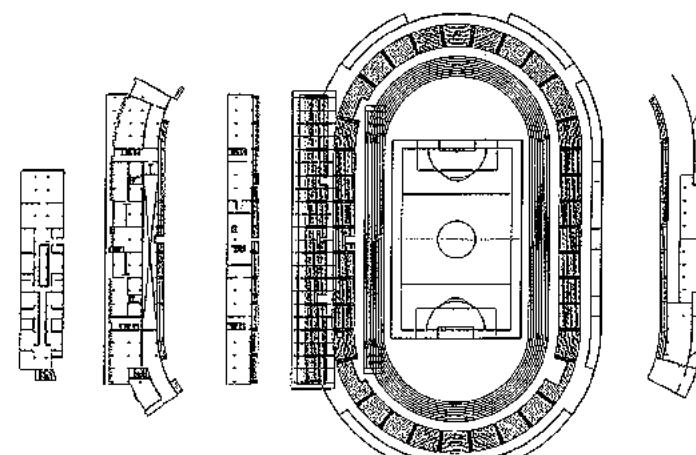
조감도



실내체육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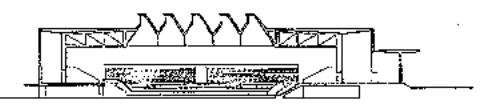
실내체육관 2층 평면도



하키경기장 3층 평면도



하키경기장 단면도



실내체육관 횡단면도

기장권 / 당선작

서강건축(김신재)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천리 일원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 139,148m²(42,092평)

계획대지면적 / 83,344m²(25,211평)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 양궁장(주경기장) : 871.7m²
(263.5평)

기념관 : 506.0m²(153평)

실내체육관 : 9,049.7m²(2,737평)

연면적 / 양궁장(주경기장) : 1,638.1m²
(495.5평)

기념관 : 884.6m²(267.5평)

실내체육관 : 16,942.3m²(5,125.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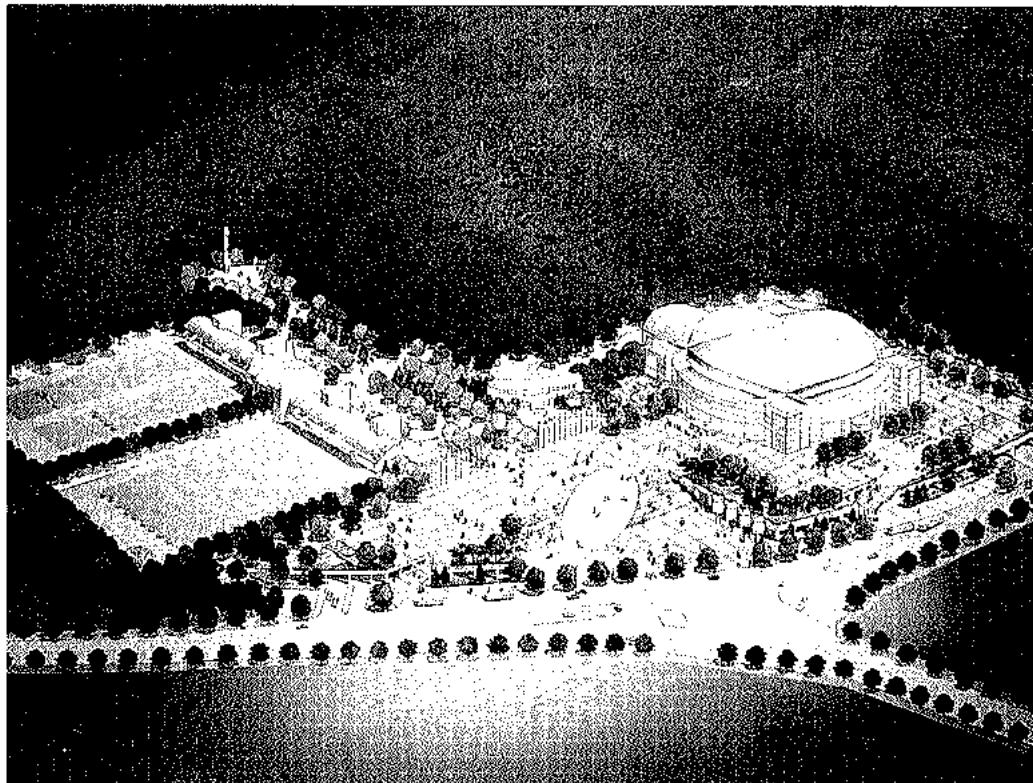
건폐율 / 7.4%

용적률 /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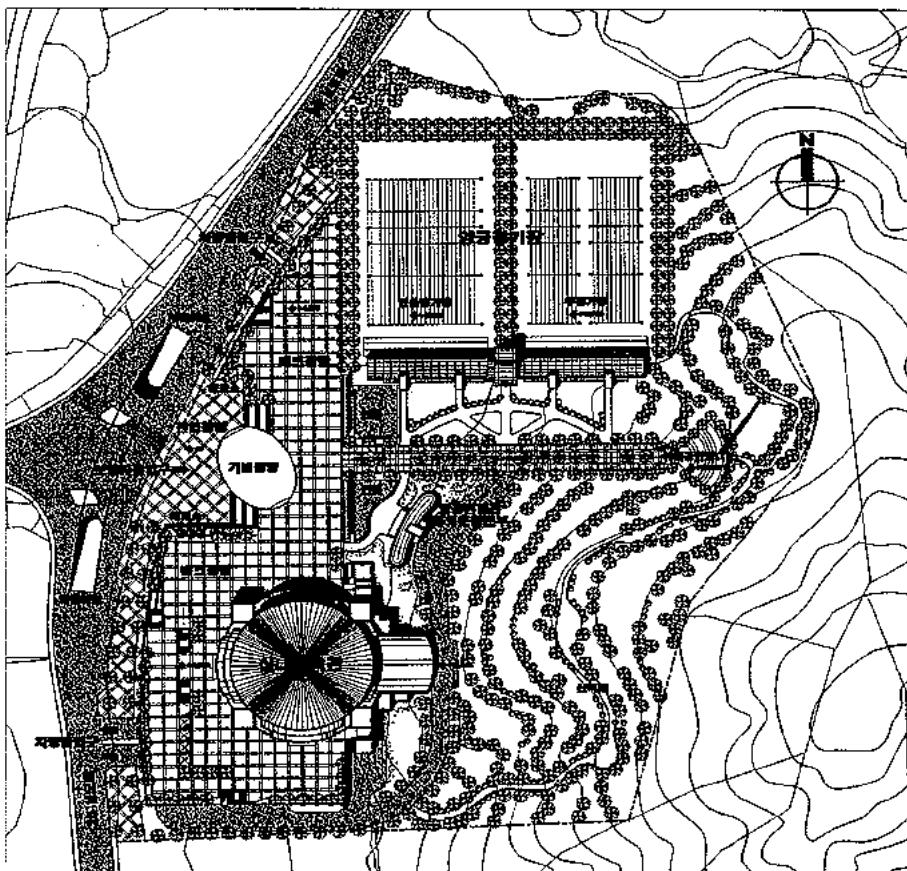
주차대수 / 약 500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철골트리스구조 메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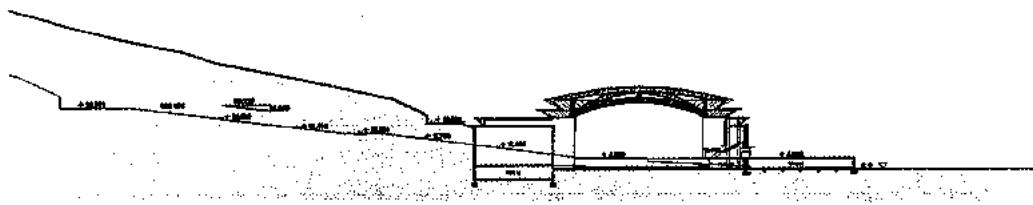
외부마감 / 회강식 벼너구이, 알루미늄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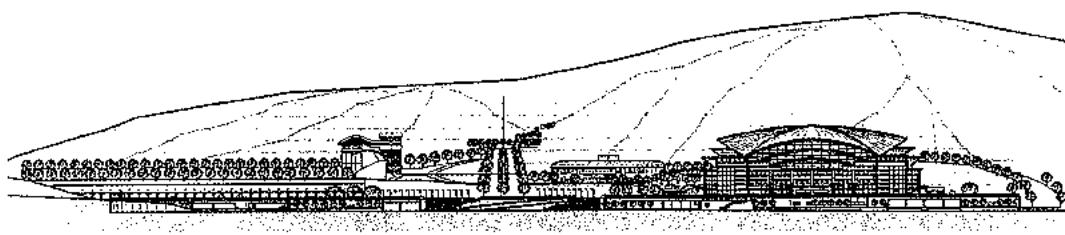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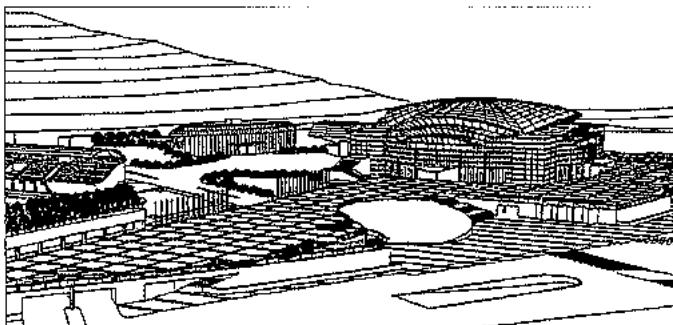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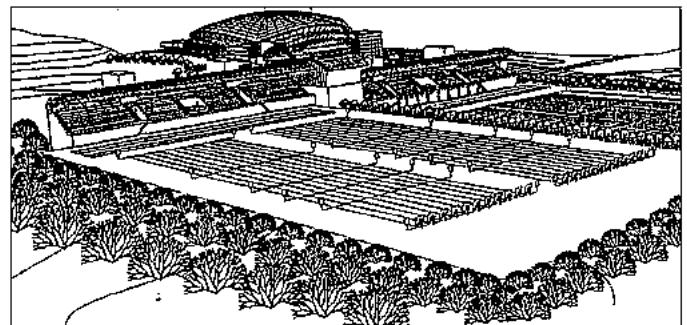
대지 종단면도
건축사 9611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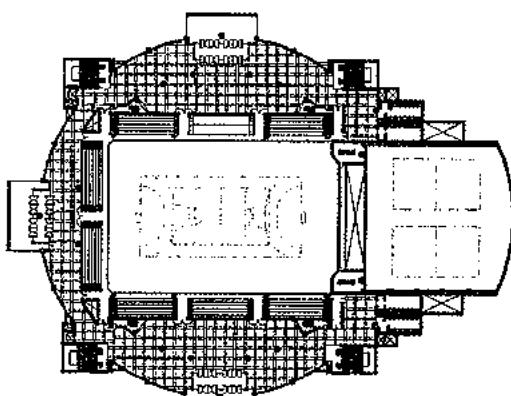
대지 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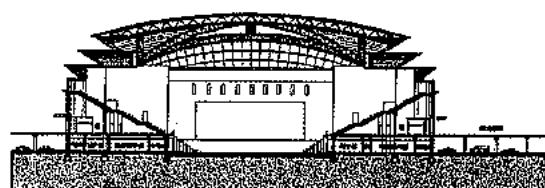
투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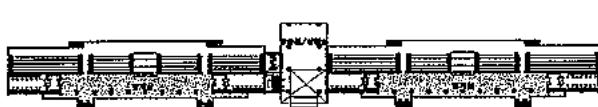
투시도 2



실내체육관 1층 평면도



실내체육관 종단면도



양궁경기장 1층 평면도



양궁경기장 배면도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 대지고저차를 활용하여 보차 공간을 분리
- 공간의 위계 및 특성부여
- 대형 광장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

차량 및 보행동선

- 수직분리
- 보행자 및 차량동선 분리
-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평면계획

- 징매자 동선을 고려
- 수평분리
- 기능 및 용도별 동선분리 : 경기자, 관람자, 대회운영요원별
- 운동장별 분리 : 동선교차 및 흐름 고려

외부공간구성계획

- 전통적 배치기법도입 : 점층적 배치
- 정적 및 동적 공간의 조화 배치
- 진입축의 변화로 다양한 시야 제공

평면계획

기능 용도별 평면구성

- 관람객, 경기자, 운영요원 및 보도동선에 따라 구성
- 상호 기능별 유기적 시설 근접 배치

공간의 위계

- 진입공간(대기공간), 본공간으로 계층적 진입이 원활한 동선유도
- 충분한 휴식공간 및 부대시설
- 로비 및 대기공간확보

동선의 단축과 기능적 배치

- 수직동선과 수평동선의 분산으로 진출입 고려
- 동선의 입체적 구성으로 공간의 역동적 배치
- 기변성 및 융통성 고려
- 실내체육관 : 집회 및 콘서트 각 종문화시설로 활용 가능한 평면 구성
- 양궁장 : 경기후 일반시민 활용 시민 체육시설로 공개

기장권 / 우수작

중원건축(유우식)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천리일원
대지면적 / 145,750.0m²(44,069.37평)

건축면적 / 12,582.26m²(3,806.13평)

연면적 / 22,224.36m²(6,723.05평)

- 실내체육관 / 14,972.82m²(4,529.27평)

- 보조경기장 / 2,398.14m²(725.43평)

- 양궁경기장 / 2,742.0m²(829.45평)

- 지하주차장 / 2,112.0m²(638.88평)

건폐율 / 8.63%

용적률 / 15.25%

규모

- 실내체육관 / 지상3층

수용인원 - 고정석 : 4,030석

가변석 : 2,000석 가능

- 양궁경기장 / 지상2층

수용인원 - 2,620석

남자경기장 : 8레인×90m - 표적 16개

여자경기장 : 8레인×70m - 표적 16개

연습장 : 10레인×90m - 표적 20개

구조 / Cable Stayed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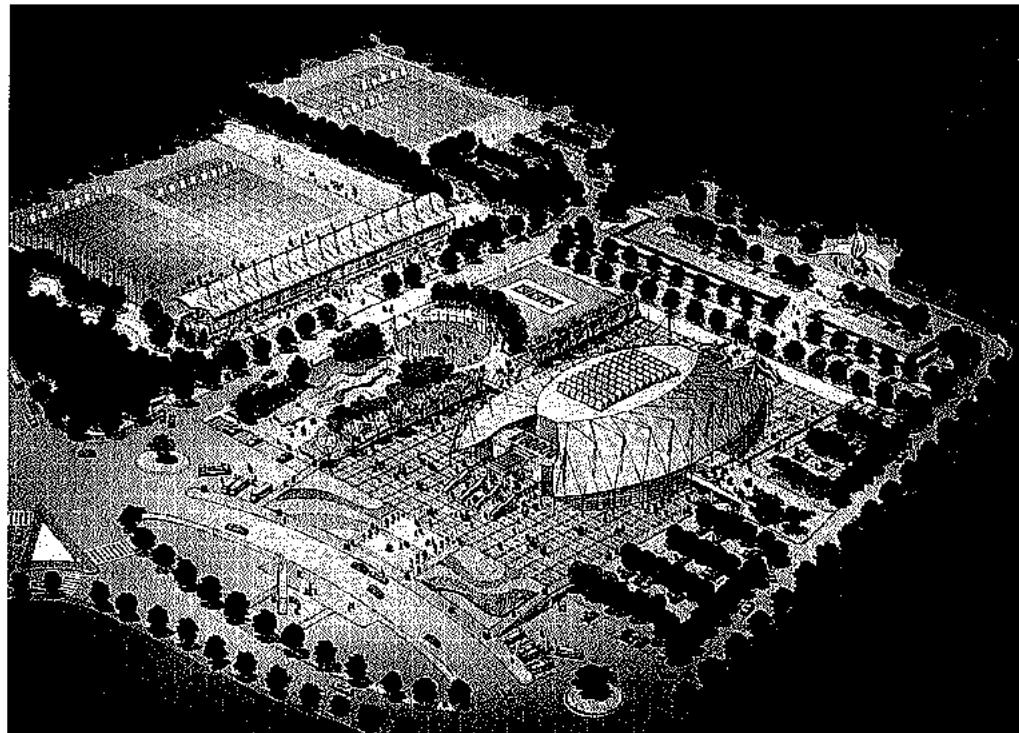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 / 외벽 - 회장석+복층유리

지붕 - 스텐레이스스틸시트+FRP체광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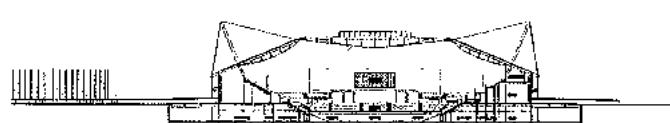
주차대수 / 1,0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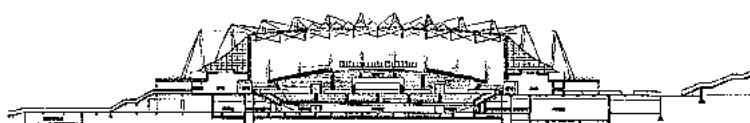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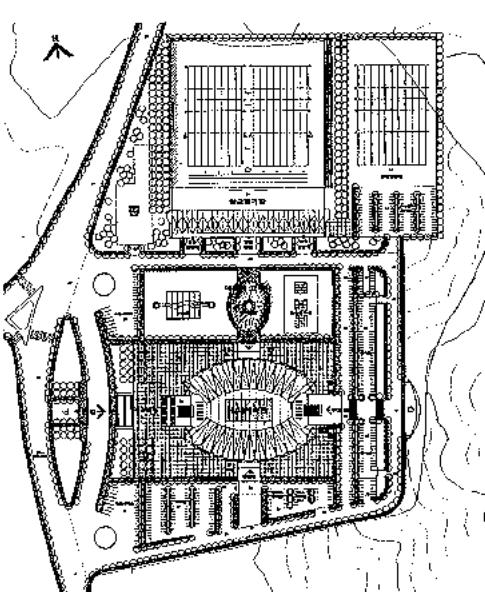
양궁경기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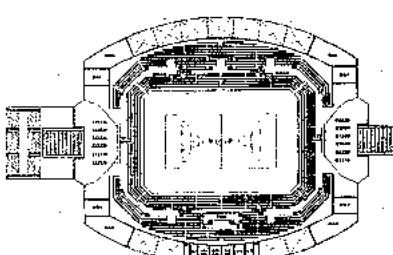
실내체육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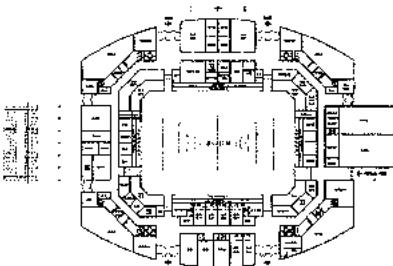
실내체육관 종단면도



배지도



실내체육관 3층 평면도



실내체육관 1층평면도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 생활체육의 장과 연계되는 입구광장, 테마광장 등의 확보

- 양궁연습장을 높은 곳에, 주경기장을 낮은 곳에 배치하여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배려

- 양궁경기장 특성상 소음차단 및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녹지

Buffer Zone 형성

- 충분한 주차확보와 함께 주차장의 Zoning(선수, 관광객별)화로 편의성 고려

- 전면도로에서 부지내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정체공간 형성

축의설정

- 실내체육관은 동서축, 양궁경기장은 남북축을 형성(기장 이상적 배치)

- 양궁경기장은 경기장 후면에서 접근하여 햇빛에 의해 방해되지 않도록 사대방향을 북향으로 배치

영혼을 간직한 도시 변화하는 세계에서 건축가의 역할

1996년 9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자카르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첫날에는 일본 건축가 구로가와, 인도네시아 반등대 교수 Danisworo 및 부동산 개발사업가 치푸트라 등 3명의 강연이 있은 후 토론회가 있었다.

이틀째에는 말레이시아의 Yeang, 싱가폴의 Tay Kheng Soon, 미국의 Peter Pran 및 인도네시아의 짚은 건축가 2명의 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진행을 총괄 종합하는 요약문의 발표가 있었다.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1)

A Report on the ACA-7

이정근 / 본협회 국제위원장
by Lee Jeong-Keun

구로가와는 서양이 주도한 근대 이후 건축사조의 흐름을 일변한 뒤 자신이 대안을 내놓았다. 이성주의에 기반을 둔 인간의 절대우월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는 인간이성의 구성체계인 기계적 세계관을 넣는다. 여기서는 단순성, 정확성, 순수성, 기능, 추상, 명료성 등이 미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등장한다. 세계가 반대되는 두 성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는 상반되는 존재의 공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메타볼리즘에서 공생(Symbiosis)의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 메타볼리즘이 생명체의 개체적인 삶의 현상이라면 공생은 상이한 개체간의 공동적인 삶의 구현방식을 사고의 중심으로 한다.

기계적 세계관은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였고 오늘날 정보화사회의 그것은 생명중심의 세계관이다. 생명은 의미의 다양성을 창조하며 이 질성이 바로 생명존재의 증거이다.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이 이질성이 다. 기계중심주의에서 생명중심주의로의 전환은 이성중심주의에서 상이한 문화의 공생과 생태학적 관점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공생의 철학이 이원론과 다른 것은 서로다른 개체의 성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두 상반되는 요소들 사이에 한시적인 중간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건축작업을 통해서 메타볼리즘, 변화(metamorphosis) 및 공생이라는 세가지 주요개념을 근거로해서 생명의 시대를 반영하는 건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그가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그의 작품과 그의 건축철학론이 과연 어떻게 만나는지 명료하지는 않다.

두번째 연사인 치푸트라는 논리적인 논의의 전개보다는 주택 및 도시 개발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건축가 및 건축학도들을 위해 털어 놓았다. 그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증가하는 인구와 노후 가구대체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매년 1백만호 이상의 새 주택의 건립이 요구되며 현재는 년간 10~15만 가구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개발에 있어 시장, 개념, 대지, 허가, 재정 등 5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등대학 도시설계학과의 대니스 워로우 교수는 우리가 처한 오늘은 1세기전의 산업혁명이 아닌 변환의 혁명을 거치고 있다고 보았다. 성장을 포용하고 변환과정속의 변환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에

일치하는 발전 도구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날 첫 연사인 켄양은 팽창하는 아시아 도시에서 우후죽순처럼 치솟고 있는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설계 이론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고층빌딩은 고밀도 개발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그 특징에 있어 하나의 도시와 같다 것이다. 그래서 고층건물의 디자인을 검토하기 위해 고층건물의 지도화수법(mapping)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층건물의 디자인 요소로서 장소성과 국지기후가 콘텍스트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고층건물이 유형화될 때 이를 '생체기후적인 고층건물'이라 칭할 수 있다. 이 개념 아래서는 수동적인 저 에너지 소비형 건물을 지향하게 된다. 이 유형에서는 고층빌딩이라도 사용자들이 외부환경과 상호교섭하게 한다.

둘째날 두번째 강의 순서는 싱가폴의 테이 케순이다. 그는 아시아의 상황을 시장경제하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중류 계층군에 초점을 맞춘다. 중류계층의 취향이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신중류 전문가 집단, 결정권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구매력에 탐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무리 고귀한 전통과 풍토건축도 상업화된 물질주의에 입각해서 Kitsch화 하고 있다. Kitsch는 아무 신념이 없으며 단지 시장성과 신분을 위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방종적인 추구에 불과하다.

역사의 변증법이 보여주는 네가지 경향이 있다. 즉, 현서양의 물질주의의 몰락, 아시아의 물질주의의 대두, 서양의 비물질주의의 대두 및 아시아의 오랜 정신적 자산의 배경이다. 이 네 경향이 함께 어울린다면 이 세계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다. 도시와 시골은 하나의 연속된 환경으로 다루어야 하며 건축을 밀도있게 계획하여 황폐화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탄산까스 배출의 극소화, 토질의 보존, 생물 다양성의 보호는 저에너지 건물추구, 재생 및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깊이 연관된다. 그는 종합적인 공간기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의 구조는 하우징과 도시 시설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축과 산품의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정능력과 전문직의 개입을 통합하는 것이다. 일/연구/디자인/금융/시공/관리 통합체계는 중요하다. 이에 가장 근접한 모델을 바우하우스에서 찾는다. 이 새로운 아시아 녹색바우하우스 운동은 아시아의 환경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 및 건축학교, 정부투자 조성기구, 환경그룹, 금융가, 제조업자, 건축 및 디자인 전문가들이 집중된 연구 및 실행을 통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학습/실무/정책/결정/생산의 종합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날 오후 첫번째 강연순서는 미국의 피터 프란이다. 그는 미스의 제자중의 한사람으로 자기회사가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 실행한 프로젝트를 슬라

이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근래에는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하여 일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의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상에도 공동 참여하고 있다. 그의 강의는 대회의 주제를 깊이 의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단순한 작품소개에만 그쳐서 청중으로부터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이번 아카시아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한 인도네시아의 젊은 건축가 두명은 합동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의 문제점, 인도네시아의 고유성과 현대작품을 어떻게 함께 공존하게 할 수 있는가 등 그들 나름의 견해와 활동 및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젊은 건축가들을 토론에 참여시킨 것은 참신한 기획으로 여겨진다.

질문시간과 토론시간에 연사들은 자신의 관점을 한번 정리하고 요약할 기회를 가졌다. 구로가와는 건축에 있어 주구조와 장비공간의 구분과 장비공간의 주기적인 대체 가능성을 중시하며 이는 생태적인 건축의 적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건축의 역사를 영구적일 수 없는 건축의 연속적인 변화과정으로 보았다.

치프트라는 주거단지나 도시개발에서 창의성과 뚜렷한 개념의 설정을 강조하였다. 공공기관이나 전문가 등이 시장기능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력은 시장기능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구로가와는 정보사회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균질화 되어가고 있는만큼 개성과 차별성은 더욱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내부지향적인 문화는 소멸하기 마련이며 서로 다른 문화간에 교류를 통해 자기혁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이 케순은 과다하게 팽창한 중류계층의 물질적 소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 산업은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 시장기능의 진로에만 내맡겨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으며 대학의 연구기능, 정치계의 목적의식, 자본의 적절한 배분 등이 적절히 결합하면 시장기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피터 프란의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맥루한이 30년 전에 이미 설파한 '메디아가 곧 메세지이다'라는 명제가 다시 생각난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형상의 건물들이 건축주들의 마음을 사기위해 제작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욕구충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히 구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구매력과 시장기능이 치열하게 작동하는 장에서 건축가는 전문가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체계와 의지를 담아내는 영혼을 간직한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겠는가. 깨어있어야 하고 서로 이해를 합치고 나눌 때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건축가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다.

A+U

10월호에서는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거점으로 22명의 멤버가 활약중인 WEST8.

추상작품을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데코이(Decoi), 세네갈 태생의 건축가 나딤 카람(Nadim Karam), 네덜란드의 건축가 솔드 스터즈, 영국의 팀 맥팔렌 등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 프랑스 국립도서관(1988~1997)
- 설계경기단계의 작품해설—도미니크 페로: 건물이 아닌 장소로서, 파리의 광장으로서, 프랑스의 도서관으로서, 상징적인 장소로서, 마법의 장소로서, 도시적 장소로서, 독서를 위한 장소로서, 확장 가능한 장소로서의 도서관. 1989.6

인터뷰—오딜 필리온(Odile Fillion)과 도미니크 페로가 1994년 12월 9일 파리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WEST8

Eastern Scheldt 방파제 주변의 환경계획 : (네덜란드 절랜드(Jeeland)/ 1991~1992) : 모래 저장소를 평평하게 고르고 넓은 평원으로 만들어서 백색·흑색의 조개껍질을 기하학적 모양으로 깔아 인공성을 강조했다.

VSB사옥의 정원과 공룡다리(네덜란드 유토트레히트(Utrecht)/1994~1995) : 현대적인 큰 빌딩과 자연공원을 조화시키는 역할의 정원과 곡선을 그리며 정원위에 걸려 있는 공룡모양의 다리. 다리 난간의 한쪽은 목제 벤치로 되어 있다.

Schouwburg 광장(네덜란드 로테르담/1995) : 물리적인 한계에 있는 거리 풍경과 그 안의 무대와 같은 광장의 대조.

Schiphol 공항 환경계획(네덜란드 암스테르담/1992~1996) : 주변에 자작나무와 꽃을 심고, 양봉상을 놓아 두여 벌들이 꿀을 구하려 오도록 한다.

암스테르담 동(東)항구 개발계획. 보르네오/스포伦 부르크(네덜란드 암스테르담/1995~1996) : 저층주택이 늘어선 가운데 3개의 커다란 블리울 조각풍으로 배치했다.

논문—한스 반 다이크(Hans Van Dijk)/ 개척된 공간

■데코이(DECOI)

Ledoux의 그림자(프랑스 그루노불/1993) :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이라는 변화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오브제이다.



이더(Ether)/아이(I)(스위스 제네바 1995) : 춤추는 다섯 사람의 손동작을 복잡한 공간연속의 모양으로 배치했다.

Schlaf Apnia(1996.9. / 완성예정) : 반복되는 확장과 압축, 횡경막의 움직임 등 인간의 폐를 추상작품화 한 것이다.

■나딤 카람(Nadim Karam)

The Carrier(레바논 베이루트/1995) : 특정 부지와 도시를 위해 이야기를 만들고, 기기에 따라 도시에 설치기술을 행하는 퍼포먼스 건축이다.

■솔드 스터즈(Sjoerd Soeters)

솔드 스터즈 건축사무소별관/아파트(네덜란드 암스테르담/1991~1994) : 네덜란드 고전양식의 아파트에 별관을 세웠다.

Kerkstraat의 솔드 스터즈 전축사무소(네덜란드 암스테르담/1986~1990) : 예나멜로 마무리된 골진 알루미늄판의 외벽과 윗부분에 배내기 장식을 한 보기 드문 정면 외관이다.

Omval의 사회문화센터(네덜란드 디멘/1989~1991) : 건물의 사회적 목적을 나타내는 다크 블루의 판넬로 정면 외관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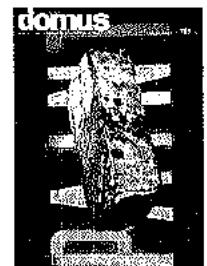
Mexx 사무실(독일 코르센브로이히/1988~1989)

서커스 Zandvoort(네덜란드 잔드포르트/1986~1990) : 조형적 건축의 놀이시설.

■논문(한스 아벨링스) : 융통성 있는 대답(Flexible Response).

■연재—유리 구조체(덤 맥팔렌) : 유리의 수평면에 있어서의 구조적 사용에서 수직면의 하중을 받는 패널로 전개되어 온 유리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서 생겨난 형태에 대해 말한다.

■ Domus



9월호에서는 과학정보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도시 생활양식의 변화를 맞이하여 건축과 정보기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외 Giuseppe Terragni의 밀라노 전시회 소식, 최신 가상현실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 그리고 끝으로 시카고, 일리노이즈 등지의 주요 건축물을 설계한 루이스 살리반 등이 다루어졌다.

■사실 및 기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전반이 변화하고 이것은 후기 산업사회와 다른 축면들과 함께 도시 거주자들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건축과 정보에 대해 이번호에서 알

본지에서는 해외 건축문화의 흐름을 조망해보고, 독자재현의 해외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이번호부터 A+U, DOMUS,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Process, 건축문화,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등 대표적인 해외건축작자들의 내용을 요약, 소개 한다.

지면 관계상 건축물의 사진 등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고 그 달의 Issue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이울러 「Architectural Record」와 「Architecture」는 편집마감일 까지 책자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소개하지 못하고, 다음호에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 주>

이볼 것이다.

■ 행사—Giuseppe Terragni의 밀라노 전시회

이탈리아 30년대 건축의 거장 Terragni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전시회가 밀라노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의 30년대 대표적 작품인 Novocomun 건물과 Casa del Fasico house의 모형과 자료 등을 비롯해 그의 수많은 스케치와 건물사진, 그리고 그의 자화상을 비롯해 그가 그린 그림 몇점이 전시되었다.

■ 기획—정보와 건축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 Utrecht(유트레흐트)대학 교직원 건물 : 네덜란드 전후 포스트 모던주의 건축 사인 Mecahoo에서 사공한 이 건물은 학생 5000명 교직원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건물을 4개 구역으로 나누는 3개의 작은 실내정원과 간이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복도의 넓은 공간이 특색이다.

• 란트센트랄 은행 본부, 라이프치히 : 이 건물은 외양은 결코 눈에 띄지 않으나 작은 도시(a piece of city)를 이루고 있다. 컴퓨터 조절 채광과 대리석, 마호가니로 화려하게 장식된 내부는 외부의 수수함을 충분히 카버한다.

• 파도바의 신축 법정 빌딩 : 이 건물은 84년도에 착공하여 회사사성으로 인해 88년과 89년 사이, 92년과 93년 사이에 공사가 중지된 적이 있다.

외양은 원형경기장과도 같아 보인다.

• 밀라노의 안체 박물관 사무실 건물 : 서로 떨어져 있는 두개의 종이 작은 정원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이다. 얼핏보면 단조롭게 보이지만 변화무쌍한 도시적 감각을 나타낸다.

• Salore de Mobile, 밀라노 : 이 전시회에는 가구뿐 아니라 각종의 조명기구, 인테리어 악세사리 등이 전시되었다.

• PDA 개인용 전자 비서 : 상품명 Newton인 이 초소형 노트북은 화면에 직접 펜으로 쓰는 방식이며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해 전화, 팩스는 물론 인터넷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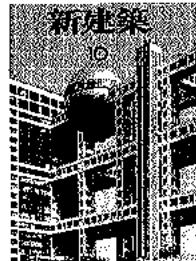
• 종합성의 미학—가상 현실 : Smdk라는 이름붙여진 이 기계는 보통의 가상현실 체험장치와는 달리 인터넷망으로부터 사용드 파일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눈앞의 가상현실을 해보고 다니며 소리도 들을 수 있다.

■ 설리반과 시카고

루이스 헨리 설리반은 MIT를 졸업한 후 W. Le Barron Jenny 사를 시작으로 건축 업에 몸담으면서 시카고, 오하이오 등지의 많은 은행과 극장 등을 설계했고 또한 고층

빌딩을 시카고에 유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 신건축



10월호에서는 지난 8월22일에 있었던 '국립국회도서관 칸사이관'(가칭) 건축설계경기결과

발표를 살고 있다. 최우수작에는 陶器二三雄씨의 침상원(沈床園)이 선정되었다. 특별 기사로는 '부운 둘(浮雲 DOME)' 설계와 10월13일까지 동경 미나토구 건축회관에서 열렸던 '池原義郎 작품전'을 소개한다.

■ 속보

• 국립국회도서관 칸사이관(가칭) 건축 설계경쟁결과발표 : 최우수작은 陶器二三雄씨의 침상원(沈床園)

■ 건축논단

• 조직이라는 것과 건축이라는 것—櫻井清 : 조직사무소의 전략

■ 작품

• 후지TV본사 빌딩 : 동경 미나토구, 설계—丹下健三·도시·건축설계연구소

• 카나자와 시립 이즈미 도서관 : 설계—岡田新一·설계사무소·鈴谷건축사무소 공동기업체

• 하루나마치 종합문화회관 : 군마현, 설계—岡田新一·설계사무소.

• 쿠로타키회관+쿠로타키아외부대 : 나라현, 설계—渡邊豊和건축공방

• 카미유베츠 고적 박물관 : 훗카이도, 설계—渡邊豊和+京都조형예술대학디자인과.

• 시키마 미술관 : 오키나와현, 설계—眞喜志好/건축연구실DAP.

• 동경토시마 협동청사 : 설계—大江匡/PLANTEC

• 카미츠에 진료소·보건센터 : 오이타현, 설계—黒川哲郎+디자인리그.

• 타카마츠대학 경영학부 : 카가와현, 설계—日本忠司건축종합연구실.

• 문경학원 시마다이시코기념관 : 동경, 설계—村野·모리건축사무소.

• 아키타공립미술공예단기대학+부속고등학교 : 아키타현, 설계—MHS松浦平介.

• 아이즈대학 : 후쿠시마현, 설계—후쿠시마현 총무부현립대학정비실·岡설계.

• 국민호텔 씬라이즈 쿠쥬쿠리 : 치바현, 설계—宮本忠長건축설계사무소.

• ATLAS오기쿠보의 분양집합주택 : 동경, 설계—渡邊誠/Architec office.

• 토다정형외과 위장과 의원 : 사이타마현, 설계—西翁陸雄/Architec office.

• 토야마적십자 병원 : 토야마현, 설계—일본설계

• BNIX본사 빌딩 : 동경 시부야, 설계—일본설계

• 그린 오아시스(수영장) : 야마구치현, 설계—仲子盛進종합환경디자인.

• 치바 국제 종합 수영장 : 치바현, 설계—梓설계.

■ 프로젝트

• 신세기통천각(닐레니엄 미디아케이트) : 오오사카, 기획·설계—渡邊豊和+교토조형예술대학디자인과

■ 특별기사

• DOME FOR SALE—건축생산 시스템에의 도전—(高橋誠一×內田祥士)

• 부운 둘(浮雲DOM) : 설계—부운 둘 연구개발그룹, 초경량, 자연채광, Low Cost의 환경순응형 둘. 각종 이벤트 광장과 스포츠 시설, 대규모 식물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의 옥외시설에 큰 지붕으로 사용되며, 천연잔디의 전천후형 축구 경기장 건설도 가능하다.

• 池原義郎작품전—대기와 자율성 : 10월13일까지 동경미나토구 건축회관에서 개최.

• 이바라키현청사계획안 1993.

• 카메오카시 중앙평생교육센터 1993.

• 쿠마타니시 제2문화센터 1994.

• 토야마현 종합복지사회관 1995.

• 사카타시민미술관 1996.

■ The Architectural Review



10월호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도됨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Sustainable Architecture)'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그외 런던 및 도쿄 등지의 유명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종이건축으로 난민캠프를 건축하는 건축가 시게루 반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다루어진다.

■ 푸른 빛—편집자칼럼

유럽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이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된다. 점차 환경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번호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대해 알아본다.

■ 디자인 리뷰

-종이도시

시게루 반(Shigeru Ban)은 지난 10년간 종이를 이용한 건축을 시도해 왔다. 이번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고베에서 그는 타카토리 성당과 수많은 난민 캠프를 복원하는데 있어 그의 기술을 사용하였다. 반은 현대 나이로비 대학에서 진흙을 사용하는 아프리카식 건축과 자신이 기술을 혼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 이슈-Sustainable Architecture

이번 이슈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에 대해 다룬다.

• 캘린카트센의 과학공원-유리 아케이드: 이 건물은 과학공원 내의 300m 짜리 유리 아케이드로 인공호수에 인접해 있으며 남쪽 벽면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다. 키슬러와 동업자들이 제작한 이 건물은 7천만 마르크가 소요되어 작년에 완공되었으며, 내부공간은 상가나 전시회 등에 활용된다. 지붕의 태양전지판과 함께 이 창은 호수에 인접한 아래층의 오픈으로 시원한 바람을 받아들여 냉방에 기여할 수 있어 에너지를 크게 절감한다. 이 건물은 유럽의 3개 주요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짐바브웨, 종합 상가 건물: 이 건물은 두터운 외벽과 그늘을 만들어 주는 차양모양의 발코니로 인하여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충과 충 사이의 빈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 에너지를 기존 건축물의 20분의 1 정도 밖에 소모하지 않는다. 내부의 냉방효과는 뛰어나 상가에서도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프랑크 푸르트, 학교 신축-피터 휴브너: 오렌발트술레 사립기술학교의 신축에 있어 제작자 피터 휴브너는 학생들을 동참시켰다. 전망이 좋은 언덕 위의 자리에 새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나무를 배지 않고 그 나무를 감싸안는 형태로 지어야 했다. 뿌리를 해치지 않기 위해 두개의 콘크리트 말뚝을 박고 그 위에 골격을 형성해 세워진 구조이다. 헤센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우주선 모양의 청년회관-피터 휴브너: UFO를 연상시키는 이 건물은 우주선 같은 둥그런 지붕에 그 중심은 태양의 각도

에 따라 회전할 수 있는 온실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내부의 장식이나 벽면은 그 지역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했다.

• 슈투트가르트 유치원-피터 휴브너: 형식에 얹매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힘할 여지를 넘겨주는 이 건물은 아이들의 크기에 맞는 2.7m 짜리 모듈이 쌓아놓은 세장처럼 조합되어 있고 그 뒤에 '보통' 모양의 사무실 건물이 붙어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단순한 견고함과 규율보다는 아이들의 자아를 실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파리 고가도 개조공사: Bastille 고가도는 나폴레옹3세때 파리시 개발계획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1969년도에 폐쇄되었다가 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재정비 시도에 의해 교각 사이에 난립한 상가를 정비하고 아치부분도 새롭게 보강하여 파리 시민과 관광객 모두로부터 성공적인 개조라는 평을 들고 있다.

• 스위스 Biel(빌)의 아파트-LOG ID 사: 시공사인 LOG ID는 건축가뿐 아니라 식물학자, 의사, 심리학자로 구성된 회사다. 이 아파트는 시외곽에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의 열이 달아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온실이나 생활공간으로 쓰이는 전면에 배치된 온실이 특징이다. LOG ID사는 최초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시도한 회사로 유명하다. 부유층 취향의 건물이다.

• 광고 대행사-프랑크 푸르트: 2천만 마르크가 소요된 이 건물공사는 기존의 건축물보다 건축비는 더 들었지만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하에 건설되었다. 북쪽 벽면은 높이 29.6m, 길이 66.6m, 폭 2.8m 짜리의 온실이 붙어 있는데 온도보온과 방음효과를 가지며 입주자의 취향에 맞는 시설 또한 이 건물의 특장중 하나이다.

• EC 환경 연구소-이탈리아 베짜: EC의 환경문제연구의 중심차고는 에너지 관리면에서 너무도 비효율적이어서 93년도에 개조안을 공모했는데 건물의 위에 얇은 침목으로 만든 차양(블라인드)을 설치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가을에 낙엽이 위에 쌓이는 문제만 제거하면 아주 편찮은 아이디어다.

• 고층 전경 말레이지아의 오피스 빌딩-메나라 부다야: 센트럴 플라자, 메나: Umno빌딩들은 킴 영이라는(Ken yeang) 건축가의 시리즈물이다. 각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면서 개성을 지니는 건물들이다. Lift Core, 실내의 자연적 환기, 그리고 전면 유리로 된 북쪽벽 등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는 실례이다.

■ 비평

허버트 드 크로닌 해스팅스(Hubert de Cronin Hastings)를 기리며

그는 본지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50년 간 수행했고 그의 책임기간 중에는 가장 뛰어난 건축비평가와 학자들이 본지와 함께 했었다. 그는 Architectural Review 창립자의 아들이기도 하다.

■ 인테리어

• 레스토랑 내부 디자인: 프랑스 외무부 직원 레스토랑은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과일나무 정원을 가졌으며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20m 길이의 유리벽은 정원과 실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지 않는다.

• 런던 Avenue 레스토랑: 고급 음식점들이 밀집한 곳에 있는 이 곳은 길게 이어지는 내부가 은은한 조형이 흰색과 어우러져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 지하 스시 레스토랑-도쿄: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음식점의 윗부분은 밖줄이 뮤인 기둥과 어우러진 빛살무늬 천정이 우산처럼 보인다. 아래층의 각 방에 있는 것은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다.

■ Process

PRO CESS Architecture



10월호에서는 일본의 현대 건축가 야마시타 카즈마사가 소개한다. 일반적인 일본적 사상 습관을 비판하고, 건축의 사회성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제공하며, 자연, 도시, 환경의 조화를 꾀하는 야마시타의 최근작과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살고 있다.

■ 야마시타 카즈마사의 최근작과 계획안

■ 논문

- 세기말에 건축과 환경을 생각한다.
- 「단위」와 「건축」 사이-우에다 마코토

■ 최근작

• 아비코시립 새(鳥)박물관 1989: 디자인컨테스트 참가 입상작이다. (치바 현 아비코시)

• 「Libre다마」 레스토랑 1989: 최대 16m의 천정 높이를 갖는 반구 둑에 객석을 설치했다. (동경 다마시)

• 카와우치무라 타카야마(高山) 클럽L 1989: 마을의 집회, 영빈(迎賓)시설로 카와우치산(產) 목재, 석재 등을 사용했다. (후쿠시마 현 후타바군)

• A하우스 1990: 3가구집합주택. Dry

Area, Sky-Light, 광정(光庭)의 수법을 도입해서 지하실의 주거성을 높였다. 동경 신쥬쿠 구)

• 하라쥬쿠의 오피스 빌딩 1990 : 그래피적인 표충표현을, 선명한 파란색 자기(磁器)타일을 이용해서 건물외장에 시도했다. (동경 시부야 구)

• 피라미드 상업단지 : 특본기에 세워진 복합상업시설. (동경 미나토 구 1990)

• 이리에 저택 : 콤팩트형의 3세대 2가구 주거. (동경 세타가야 구 1992)

• 카키모토 산장 : 동경공업대학건축과 산하연구실의 연구생들이 설계·감리했다. (1992)

• 타카네 마을, 호시노무라 회관 : GWF 목조공법을 채용하고, 원적외선복사 열난방판넬을 설치했다. (후쿠시마 현 1992)

• KW빌딩 : 동경도심의 주거와 사무실을 합친 병용(併用)건축이다. (동경 시부야 구 1992)

• 스즈메지마 영빈관 : 해변에 세워진 기업용 영빈관. 지붕은 천연 슬레트, 외벽은 돌로 완성했다. (치바현 이즈미 군 1992)

• 파크사이드 츠쿠바 마츠시로 : 분양용 집합주택. RC 벽구조인데, 외벽은 Composit공법을 사용해서 외부열을 차단했다. (1993)

• 옴니(Omny)빌딩 : 외장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다. (동경 시부야 1993)

• 미하루(三春) 이와에(岩江)중학교 : 1996년 문교사설협회장상 수상. (후쿠시마 현 타무라 군 1995)

• 멀티미디어 연구 센터 :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IPA)가 계획·건설. (나가노 현 마루코 1995)

• 인자이 시립 하라 초등학교 : '전원과 도시의 공생'이라는 개념의 도시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 (치바현 인자이시 1996)

• 캠프 플라자 : 동경 설계 사무소 의료보험 조합의 중심시설. (동경 시부야 1996)

• 아미터 오오모리히가시 : 주택도시경비공단에 의한 시가지 개축 방식의 주택단지. (동경 오타 구 1996)

• 암마시타저택 인테리어 : 동경 시부야 구. (1982)

• 암마시타 별장 인테리어 : 후쿠시마 현 후타바군 (1989)

■ 계획안

• 아비코시 문화센터 : 복합문화시설로서 93년 시설설계가 완료되었지만 재정 문제로 건설 중지되었다. (치바현 아비코시)

• 케이요데이산 본사 빌딩 : 1993년 디자인. (치바현 후나바시 시)

• 중국 해남성 해남광장 기본설계안 : 1994년 디자인.

• 사이타마 혼립 근대문화관 및 오케가와 시민회관 : 1993년 디자인.

• 쿠우치 혼립 오즈 고등학교 설계경쟁 응모안 : 1995년 디자인.

• 다마 뉴타운 16-C 가 : 1996년 디자인 집합주택단지.

• 다마 뉴타운 16-D 가 : 1996년 디자인

• 미하루 '카미사키마을' 개발 계획 : 1995년 디자인. 미하루의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댐호수 주변의 지역 개발 계획의 일환.(후쿠시마 현)

• 요코하마 서영 나세 제2주택 : 1996년 디자인. 129호의 집합주택단지. (카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 도시개발 설계경쟁 응모안 '사토야마 도시개발 계획안' : 1995년 디자인. (후쿠시마 현)

• 산림도시 카와우치 고원 개발계획 : 1988~95 기초연구. (후쿠시마 현)

• 우라야스시 후나이리 거리 재정비 기본계획 : 1995년 계획. (치바현 우라야스시)

■ 제품디자인

• 스테인레스판제 차양 '메타이브 (Metaeave)' : 1995년

• 접착공법에 의한 금속 건축 '메타베이스(Metabase)' : 1995년

• 무크판(板) 테이블 "SADAKO" "KAYOKO" : 1992년

건축문화

建築文化



10월호는 창간 600호 기념 특집으로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 1887~1965)의 연보와 작품을 중심으로 한 그의 건축 세계를 살고 있다. 현대건축에 부활, 재생되고 있는 그의 건축이념과 형태를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근대양식에 미친 영향과 작품을 형태론적으로 고찰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근원으로서의 르코르뷔지에 : 그의 이념, 건축형태는 여러가지 형태로 현재에도 재생·부활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의 이념·

형태가 생성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한다.

• 르코르뷔지에 작품 연보

• 파리의 르코르뷔지에 안내—아마나 요시유키.

• 작품사진촬영—필립 류오(Philippe Ruault), 나시모리 슈우이치.

■ 논문

• 근대라는 나르시즘—타나카 준 : 기하학으로서의 건축의 기원, 이미지의 근대적 변용과 건축.

• 변형(Metamorphosis)—나카무라 켄이치.

• 자비로 공연된 수난극(Passion) 그리고 부활—오오시마 테츠조오.

• 설계라는 '건축적 산책' —토미나가 유주르 : 르코르뷔지에 전 작품의 도면과 사진.

• '동방으로의 여행'과 르코르뷔지에—미야케 리이치.

• 유리 나라의 득신자—마츠우라 히사오 : 반(反)=장식적인 회화의 꿈.

• 연결의 문법·간격의 시(詩)—코바야시 야스오.

• 르코르뷔지에의 형태론적 재고—에치고지마 켄이치 : 원형적 상상력의 전개

• 르코르뷔지에를 순회하는 차들—요네다 아키라.

• 친절한 스팽크스—호리이 요시히로 : 친절한 스팽크스 혹은 '욕망의 애매한 대상' 스팽크스의 해부실험.

• '경사지면' 이란 무엇인가?—오쿠다 신야.

• 네개의 '바보같은' 주택—프랑소와 샤란.

• 인터뷰—르코르뷔지에 독해의 근본적인 전환을 향해서—오카자키 켄지로 : 투명성, 불룸 그리고 르코르뷔지에 이후…

• 루크에서 르코르뷔지에까지—이가라시 타로 : 미술적인 건축가들.

• 르코르뷔지에와 철(鐵)...—아마나 요시유키.

• 자중해를 향해서—우자와 타카시 : 르코르뷔지에와 이탈리아 근대.

• 르코르뷔지에와 일본의 근대양식—에치고지마 켄이치 : 영향작품의 형태론적 고찰.

• 르코르뷔지에와 일본, 그리고 국립서양 미술관 프로젝트—마츠쿠마 히로시.

96년도 9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9월분 6백8십만9천4백63m² 보다 41.6%(2백8십3만2백93m²) 증가한 9백6십3만9천7백56m²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9월누계 9천3백4십2만1천3백90m² 보다 7.1%(6백5

십9만8천9백67m²) 감소한 8천6백8십2만2천4백23m²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8월분 8백9십5만8백77m²보다 7.7%(6십8만8천8백79m²) 증가한 9백6십3만9천7백56m²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m ²)		
구 분	1995년도	1996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2,170,421	5,212,510	3,042,089 140.2
	대 구	340,963	711,487	370,524 108.7
	대 전	74,488	94,067	19,579 26.3
	강 원	109,139	126,912	17,773 16.3
	충 북	281,648	286,797	5,149 1.8
	경 남	431,509	475,178	43,669 10.1
	제 주	38,085	62,392	24,307 63.8
감소지역	부 산	907,512	875,691	(31,821) -3.5
	인 천	449,999	357,558	(92,441) -20.5
	광 주	261,594	170,847	(90,747) -34.7
	경 기	834,793	782,166	(52,627) -6.3
	충 남	177,086	139,314	(37,772) -21.3
	전 북	208,773	96,024	(112,749) -54.0
	전 남	117,496	108,458	(9,038) -7.7
	경 북	405,957	140,355	(265,602) -65.4
합 계	6,809,463	9,639,756	2,830,293	41.6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m ²)		
구 分	8월분	9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738,263	711,576	(26,687)	-3.6
다 세 대 주 택	253,313	293,200	39,887	15.7
연 립 주 택	116,119	101,810	(14,309)	-12.3
아 파 트	3,658,131	3,919,905	261,774	7.2
근린생활시설	1,177,368	1,093,698	(83,670)	-7.1
종 교 시 설	59,024	62,424	3,400	5.8
의 료 시 설	22,816	38,817	16,001	70.1
교육연구시설	495,267	342,969	(152,298)	-30.8
업 무 시 설	397,767	1,015,169	617,402	155.2
숙 박 시 설	107,404	112,400	4,996	4.7
공 장	978,355	800,512	(177,843)	-18.2
기 타	947,050	1,147,276	200,226	21.1
계	8,950,877	9,639,756	688,879	7.7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 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698	2,746	703,116	2,428	2,487	711,576	(270)	(259)	8,460	1.2	
다 세 대 주 택	436	459	174,516	490	536	293,200	54	77	118,684	68.0	
연 립 주 택	49	49	78,320	79	81	101,810	30	32	23,490	30.0	
아 파 트	120	353	2,583,159	97	213	3,919,905	(23)	(140)	1,336,746	51.7	
근 린 생 활 시 설	2,519	2,610	981,745	2,509	2,599	1,093,698	(10)	(11)	111,953	11.4	
종 교 시 설	65	68	50,729	82	94	62,424	17	26	11,695	23.1	
의 료 시 설	18	18	22,001	20	23	38,817	2	5	16,816	76.4	
교육 연구 시 설	88	98	173,562	149	159	342,969	61	61	189,407	97.6	
업 무 시 설	91	98	183,418	86	89	1,015,169	(5)	(9)	831,751	453.5	
숙 박 시 설	106	118	114,858	129	138	112,400	23	20	(32,458)	-22.4	
공 장	643	815	1,120,082	615	836	800,512	(28)	21	(319,570)	-28.5	
기 타	726	847	593,957	918	1,086	1,147,276	192	239	553,319	93.2	
합 계	7,559	8,279	6,809,463	7,602	8,341	9,639,756	43	62	2,830,293	41.6	○=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9월분)

구분 용도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33,874	34,470	8,757,003	31,627	32,312	9,509,491	(2,247)	(2,158)	752,488	8.6	
다세대주택	6,485	7,363	3,154,700	6,016	6,402	3,591,716	(469)	(961)	437,016	13.9	
연립주택	960	1,013	1,398,691	931	971	1,282,467	(29)	(42)	(116,224)	-8.3	
아파트	1,438	5,035	33,573,902	932	1,970	31,012,452	(506)	(3,065)	(2,561,450)	-7.6	
근린생활시설	30,486	31,457	14,089,971	28,496	29,681	13,488,231	(1,990)	(1,776)	(601,740)	-4.3	
종교시설	976	1,114	746,912	896	1,021	806,748	(80)	(93)	59,836	8.0	
의료시설	218	230	729,262	195	227	619,664	(23)	(3)	(109,598)	-15.0	
교육연구시설	1,050	1,211	2,709,827	930	1,024	2,819,031	(120)	(187)	109,204	4.0	
업무시설	1,001	1,045	4,696,248	743	783	4,008,172	(258)	(262)	(688,076)	-14.7	
숙박시설	1,134	1,233	1,620,289	1,176	1,244	1,217,781	42	11	(402,508)	-24.8	
공장	7,414	10,253	11,367,853	5,818	7,727	8,382,861	(1,596)	(2,526)	(2,984,992)	-26.3	
기타	8,943	10,823	10,576,732	8,371	9,854	10,083,809	(572)	(969)	(492,923)	-4.7	
합계	93,979	105,247	93,421,390	86,131	93,216	86,822,423	(7,848)	(12,031)	(6,598,967)	-7.1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9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860	864	2,170,421	1,676	1,687	5,212,510	816	823	3,042,089	140.2	
부산	901	1,011	907,512	615	842	875,691	(286)	(169)	(31,821)	-3.5	
대구	1,067	1,075	340,963	477	477	711,487	(590)	(598)	370,524	108.7	
인천	279	331	449,999	242	253	357,558	(37)	(78)	(92,441)	-20.5	
광주	291	359	261,594	250	286	170,847	(41)	(73)	(90,747)	-34.7	
대전	208	211	74,488	187	187	94,067	(21)	(24)	19,579	26.3	
경기	1,088	1,187	834,793	1,448	1,606	782,166	360	419	(52,627)	-6.3	
강원	373	396	109,139	414	460	126,912	41	64	17,773	16.3	
충북	369	407	281,648	335	369	286,797	(34)	(38)	5,149	1.8	
충남	299	304	177,086	298	254	139,314	(1)	(50)	(37,772)	-21.3	
전북	199	241	208,773	203	203	96,024	4	(38)	(112,749)	-54.0	
전남	276	332	117,496	243	271	108,458	(33)	(61)	(9,038)	-7.7	
경북	446	561	405,957	309	392	140,355	(137)	(169)	(265,602)	-65.4	
경남	787	880	431,509	779	899	475,178	(8)	19	43,669	10.1	
제주	116	120	33,085	126	155	62,392	10	35	24,307	63.8	
합계	7,559	8,279	6,809,463	7,602	8,341	9,639,756	43	62	2,830,293	41.6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9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3,985	14,053	16,735,445	21,330	21,383	41,111,177	7,345	7,330	24,375,732	145.7	
부산	8,021	9,397	6,249,325	6,179	8,279	7,981,717	(1,842)	(1,118)	1,732,392	27.7	
대구	10,937	11,425	6,214,858	6,835	6,879	5,763,074	(4,102)	(4,546)	(451,784)	-7.3	
인천	3,461	3,677	4,714,240	3,119	3,161	3,284,313	(342)	(616)	(1,429,927)	-30.3	
광주	2,536	3,323	3,508,069	2,596	3,067	2,027,550	61	(256)	(1,480,519)	-42.2	
대전	2,310	2,484	2,498,573	2,615	2,652	1,488,396	305	168	(1,010,177)	-40.4	
경기	17,318	19,495	19,430,397	15,490	16,946	9,519,880	(1,828)	(2,549)	(9,910,517)	-51.0	
강원	5,021	5,892	3,807,438	3,873	4,219	1,562,877	(1,148)	(1,673)	(2,244,561)	-59.0	
충북	4,516	5,126	3,596,512	3,388	3,770	1,911,274	(1,128)	(1,356)	(1,685,238)	-46.9	
충남	3,818	4,102	5,628,145	2,707	2,381	1,633,489	(1,111)	(1,721)	(3,994,656)	-71.0	
전북	2,417	2,743	3,557,189	1,943	1,945	1,390,817	(474)	(798)	(2,166,372)	-60.9	
전남	3,461	4,121	2,743,785	2,667	2,959	1,278,595	(794)	(1,162)	(1,465,190)	-53.4	
경북	5,635	7,390	5,827,160	3,826	4,693	1,993,785	(1,809)	(2,697)	(3,833,375)	-65.8	
경남	8,728	10,104	8,116,100	8,240	9,428	5,244,614	(488)	(676)	(2,871,486)	-35.4	
제주	1,816	1,915	794,154	1,323	1,454	630,865	(493)	(461)	(163,289)	-20.6	
합계	93,979	105,247	93,421,390	86,131	93,216	86,822,423	(7,848)	(12,031)	(6,598,967)	-7.1	(=미아너스)

제31회 정기총회 개최

- 제 22대 회장에 김영수 회원 당선 -



총회 광경

우리협회 제31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9일(화)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재적대의원 562명 중 515명이 참석한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대책', '협회 종합전산망 구축사업', '내년도 예산 승인' 등 주요안건들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신임회장 선거에서는 김영수 회원이 선출되었다. 이 날 총회는 예정보다 다소 늦은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돼 성원보고에 이은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96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승인,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규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소위 「건설분야 경쟁제한 법령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장개방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법률의 개정은 향후 우리 건축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안인 만큼 모두의 각별과 관심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결집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현명한 정책판단을 정중히 촉구하였다. 또한 김규태 회장은 '취임초의 의욕찬 건축개혁이 미완성이라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지난 임기동안의 활동을 회고하면서 새집행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추경석 건설통부장관은 이향렬 차관보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건축계가 무한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설계와 감리의 질을 높이고 경영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정부가 건축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건축시들도 건축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건축문화의 백년대계를 훌륭하게 설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회의초반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과정과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와 의견들이 쏟아져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대책」이 부의안건으로 긴급 상정되는 등 시종 긴박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또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과 이사 7인, 감사 1인에 대한 임원개선에서는 김영수(前 서울건축사회 회장) 후보와 이의구(現 서울건축사회 회장) 후보가 경합한 끝에 총 투표자 465명 중 280표의 지지를 얻은 김영수회원이 신임회장에 당선되었으며 감사에는 현 김영식감사가 유임되었다. 감리제도의 정립과 공탁제도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등 미결과제의 해결, 건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건축사의 생존권 확보 및 위상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영수 회원은 당선인사에서 '보다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 생존권 차원에서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소신껏 해쳐나가겠으며 진정 회원을 위해 노력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각 의안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폐기하고 현행대로 유지
- 제2호의안 : 97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96년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 제4호의안 : 97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5호의안 : 97년도 입회비관리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6호의안 : 97년도 건축사시험관리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7호의안 : 97년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이상 일괄 상정)

- 제3호의안부터 제7호의안까지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차기집행부에서 재조정하여 내년 임시총회시 추인키로 함.

· 제8호의안 : 건축사연금 2차정산(안) 승인의 건

- 내년 임시총회시까지 유보키로 함

· 제9호의안 : 임원개선

- 신임회장에 김영수 회원을 선출하고 감사(1인)에 현 김영석 감사를 유임함. 또한 신임이사 (7인)선출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함.

· 제10호의안 : 건설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대책의 건

- 신임회장에게 위임함



金基完 신임회장

의원

- 1941년 경북고령 生
- 영남대학교 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졸업
-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2대 부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91전국건축사대회 이사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15대 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특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신임임원 명단

- 이사(신임)

김기완(金基完) / (주)형진건축사사무소

김기철(金基哲)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

김덕수(金德洙) / 삼남, 김덕수 건축사 사무소

임근수(任根洙) / 조형건축사사무소

전학주(田學周) / 국일건축사사무소

최광수(崔光守) / (주)범한건축사사무소

최재남(崔在南) / 건축사사무소 삼양건축

- 감사(유임)

김영석(金永奭) / 극동영건축사사무소

제31회 정기총회 / 개회사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에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李鄭烈 전설교통부 차관보님과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협회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우리 협회가 있기까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에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최근 몇년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WTO출범, OECD가입 등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안으로는 세계화, 개방화의 기치아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계도 이러한 시대적 대변혁기를 맞아 슬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건축설계시장의 개방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법률의 개정」은 향후 우리 건축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본인이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퇴임인사말」의 서신에서 그간의 「건축제도 및 법률」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보고드린 바와같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위 「건설분야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 등은 따지고 보면, 모두다 시장개방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건축사의 고유영역인 「설계까지 겸업하겠다.」는 여기주의적 기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陰을 아껴 「한국건축의 세계화」에 매진하여야 할 우리 집행부의 모든 에너지를 「설계겸업」이란 끈질긴 외부의 도전을 막아내는 소모전에 낭비하고 있음을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이같은 소모전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건축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열강들과 더불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경제판단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인은 첫째, 「제도 및 법률관련」 주요사안을 개선하고 둘째, 시장개방에 대응하며 세째, 우리 건축계의 대동단결을 통한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세가지 정책기조를 설정하여, 우리 건축사의 권익을 최대한 응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그러나, 2년이란 재임기간 내내 수없이 밀어닥치는 소모적 도전 때문에 정작 우리 건축계의 도약을 위한 업무를 여러분의 기대반큼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본인의 뇌리에는 회장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한국건축의 기본틀」을 다시 짜서 세계화하고자 했던 취임초의 의욕찬 「건축개혁」이 미완성이이라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비록 「건축개혁」을 여러분이 헌실적 여인들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지향목표가 향후 한국건축의 무궁한 발전에 하나의 소중한 밀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 앞을 가로막아온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마음과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일입니다. 우리 건축사 한사람, 한사람이 분산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로 합침될 때, 우리의 힘은 10배, 100배로 증가될 것이며,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본인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각별히 강조하며, 앞으로는 우리 모든 건축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더 넓고, 더 높은 세계를 향해 매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협회가 「한국건축의 중심」이 되고 우리 건축사가 「세계화의 선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정기총회가 우리 협회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뜻깊고, 일찬 「희망의 장」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새로이 탄생될 새 집행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뽑았으면 끝까지 믿고 맡겨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주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인의 재임기간 중에 협회의 온갖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주신 여러 임원님과 시·도 건축사회 회장님,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대의원님들과 우리 회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갑을합니다.

이사회 개최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7월 9일 협회 총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1회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정관 개정(안)중 다음의 내용을 일부 수정키로 하되, 회원수 200인 이상의 건축 사회에서도 대의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31회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함.

• 제2호 의안 : 97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구 분	현 행	개 칭	수 정(안)
제20조(총회)	③ … 1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그 단수 5인을…	…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그 단수가 10인을…	개정(안)대로 승인하되, 부칙에 경과조치를 삽입키로 함.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6. …건축사연금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기타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개정한다.	…건축사연금규정 등 주요규정의 개정 및 개폐는 총회에서 의결하고, 기타 제규정의 개정 및 개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6. …건축사연금규정, 입회비 규정의 개정 및 개폐는 총회에서 의결하고, 기타 제규정의 개정 및 개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6조 (위원회 구성)현행	①…위촉할 수 있다.	①…위촉한다.	현행대로 존속키로 함.

- 97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를 96년도와 동일하게 결정하여 제31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함.

• 제3호 의안 : 97년도 사업계획 및 회계별(일반회계, 특별회계(입회비 관리회계, 건축사시립관리회계,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수지예간(안) 승인의 건

- 97년도 사업계획 및 회계별 수지예

산(안)을 원안대로 제31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되, 전산망 구축에 따른 계획서를 첨부하기로 결의함.

• 제4호 의안 : 제31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상정하되, 건축사연금 2차정산(안)에 대해서는 연금정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제31회 정기총회 / 건설교통부장관 치사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31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김규태 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축문화 창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밀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바야흐로 세계화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합니다만 세계 속에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거양하고 자부심을 살려 나가는 것이 세계화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나라 건축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할 때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건축문화가 창출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세계화도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세계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시장개방의 물결에 따라 우리 건축계도 앞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선진국과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WTO체제하에서는 정부도 너 이상 우리나라의 건축사만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계가 무한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설계와 감리의 질을 높이고 경영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건축계의 현실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다져서 건축사가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축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

나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건축사 여러분께서도 설계 및 감리기술을 향상시켜 시장개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설계의 원인이 되는 설계시장에서의 과다한 넘팡을 방지하고 설계와 감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건축사 보수요율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건전한 설계 및 감리활동 풍토가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할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세계는 지금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일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존의量의 개념에서 質의 개념으로 방향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회지향점의 이러한 변화는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소산이며 世界史의 필연적인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밖으로는 국경없는 경제전쟁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를 추구하고 안으로는 지방화, 자율화에 걸맞는 선진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살기 편하고, 기업하기 쉬운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계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에 따른 부실요인을 스스로 해결하고, 건축설계 및 감리의 기술적 향상에 매진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잊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國民建築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결집하는 건축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현재 건축계가 안고 있는 충체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百年大計를 훌륭하게 설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이 모이신 이 자리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 여러분의 전승을 기원합니다.

- 제5호 의안 : 추대회원 승인의 건
 - 강태운 회원 등 20명을 추대회원으로 추대하여 제31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함.
- 제6호 의안 : 96년도 건설전문자 광고 집행 승인의 건
 - 96년도 건설전문지 광고를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결의함.
- 제7호 의안 : 표창수여 승인의 건
 - 제31회 정기총회시 수여할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로회원은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1인씩 추천받기로 하고, 모범직원은 원안대로 4명을 표창키로 하되, 부상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함.
- 제8호 의안 : 건설기술자 등록비 면제 및 반환대상자 결정의 건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본 협회 신고 이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기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비를 면제하고 기수납한 등록비에 대해서도 반환해 주기로 원안대로 결의함.

'96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1,047명 발표

금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1,047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 2,761명에 대한 시험체점결과 이중 약 37.9%가 합격 예정자로 결정되었다.

최고득점자는 276.5점(300점 만점)을 얻은 엄학진(嚴學鎮, 39세 / 평지대 졸업)씨가 차지했으며, 합격자중 최연소자 및 최고령자는 동아대학교 출신인 서금홍(徐金泓, 27세)씨와 서울대학교 출신인 조기윤(趙基允, 56세)씨로 밝혀졌으며 여성합격자는 59명이다.

발표된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학력·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쳐 적격자에게 건축사 면허증을 교부할 계획이다.(135쪽 참조)

우리협회 대표단, 일본 건축사회전국대회 참석

김규태 회장을 비롯해 임인혁 이사, 이관영 이사, 김지덕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등 우리협회 일본방문 대표단은 지난 10월 17

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일본건축사회연합회를 방문하고 20일 귀국했다. 지난 85년 체결된 한·일건축사교류각서에 의거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의 초청으로 어진 이번 방문에서 우리 대표단은 10월 18일 일본 사바에市 셀돔 후쿠이에서 열린 제39회 일본 건축사회전국대회에 참석해 축하하는 한편 대회전날의 전국연구집회와 간담회 등 주최측이 마련한 각종 친교행사를 통해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회간 친분과 우정을 다졌다. 특히 김규태 회장은 대회 축사를 통해 앞으로 양회간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급변하는 건축환경에 대응해 양국의 건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경남건축사회, 「경남학생건축전」 작품공모

경남건축사회(회장 이동일)가 올해로 6 번째를 맞는 「경남학생건축전」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건축 인으로서의 위상을 고양하고 일반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해 건축문화의 질적발전을 꾀하고, 후진의 발굴 및 양성을 통해 건축계의 새로운 기풍조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릴 이번 건축전은 경남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학생이면 응모 가능하다. 응모작은 순수창작 작품으로서 용도, 규모 및 대지의 여건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출업작품과 겹히여도 무방하다. 작품접수는 11.7~11.9일까지이며, 전시회는 11.13~11.16까지로 접수 및 전시회 모두 경남은행본점 1층 전시장에서 갖는다. 시상내용은 특별상 1명,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입선 5명 등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가로 1m~1.2m 이내, 폐널 매수는 제한없음
 - 도면작성 : 배치도, 평면도, 주단면도, 투시도 및 조감도
 - 공동작은 2인 이내어야 함
 -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제외
 - 폐널 재료는 운반, 전시시 파손의 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
 - 모형은 입선 이상자에 한해 전시회 전에 제출.
 - 문의 : 내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사무국(0551-46-4530-1)

충북건축사회, 제2기 「시민건축대학」 개강

충북건축사회(회장 최호진)에서는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식변화로 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건축불 규모의 대형화, 기능의 고도화로 일반시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높은 관심을 감안, 건축을 하고자하거나 내집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과 관련된 기본상식을 전해줄 「제2기 시민건축대학」을 열고 있다. 「시민건축대학」은 지난 10월 17일 개강돼 오는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1시간 30분씩 8주간(8강좌)을 기본과정으로 해 기별로 실시한다. 강좌내용은 실생활과 관련된 건축상식 및 교양, 건축재료에 따른 상식 등이며 장소는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이다. 참가인원은 선착순으로 100명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며 교재 및 수강료는 무료이다. 강좌의 일정 및 내용, 강사는 아래와 같다.

문의 : 충청북도 건축사회 총무과(0431-56-2752)

- 10.17 / 1강좌 / 건축과 문화/박성언(건축사)
- 10.24 / 2강좌 / 풍수지리와 건축 / 정현석(건축사)
- 10.31 / 3강좌 / 살내환경과 에너지 절약 / 안병우(충청전문대 교수)
- 11.7 / 4강좌 / 건축설계의 이해 / 정익현(건축사)
- 11.14 / 5강좌 / 생활 속의 조경 / 품순필(청주세구서 민원실장)
- 11.21 / 6강좌 / 한국의 전통건축 / 이재현(청주대 교수)
- 11.28 / 7강좌 / 건축행정 / 김철수(상당구청 건축과장)
- 12.05 / 8강좌 / 건축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 유익선(건축사)

「제6회 영·호남 친선 낚시대회」 열려



전시회 테이프 커팅 광경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재경)가 주관하고 대구, 광주, 경남 등 영·호남지역 6개 건축사회 회원 120여명이 참가한 「제6회 영·호남 회원친선 낚시대회」가 지난 10월 10일 전남 나주호에서 열렸다. 영·호남 회원간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낚시대회에서는 전북건축사회가 대상을

차지해 트로피를 수여받았으며, 전북건축 사회의 김사우 회원 등 5명이 입상하였다. 한편 내년도 제7회 행사는 경북건축사회가 주관해 개최할 예정이다.

「제5회 광주건축사회 회원 작품전」 개최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재경)가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설계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증진코자 마련한 「제5회 광주건축사회 회원 작품전」이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남도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건축사회 소속 회원작품 59점이 전시되었으며 특히 첫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우리협회 김규대 회장을 비롯해 이대순 호남대 총장, 정태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많은 내빈과 건축인 그리고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엄덕문 회원, 「'96 문화의 날」 훈장수상

문화체육부가 주최한 「'96문화의 날」 행사에서 엄덕문(엄엔드이건축사사무소 대표)회원이 건축계 대표로 옥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엄덕문 회원은 건축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무영건축, 한국형 건축설계 CAD 개발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안길원) 산하 기술연구소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우리 건축설계 환경에 맞는 CAD프로그램을 개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캐드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사용할 때 별도의 한글지원프로그램이나 여타 캐드프로그램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토캐드사 제품 등 기존 작업과도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자측은 특히 입체화면 구성방식인 3D처리가 뛰어난 점,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 등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술로 탄생시킨 이번 한국형 건축 CAD프로그램의 개발로 그동안 외국산

CAD사용에 따른 외화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국내업체들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CAD기술의 축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042-250-3456

국립자연사박물관 건축추진을 위한 세미나 열려

한국과 일본의 풍토건축 -한·일 건축세미나

한국건축문화연구소와 도서출판 발언이 공동주최하는 한·일건축세미나가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 성유마을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일본의 풍토건축」이란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한·일 양국의 풍토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유지 및 보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계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주최자인 발언사측이 해마다 건축 인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답사형 태로 실시해 온 발언건축기행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제주전문대 신석하 교수와 일본의 후쿠시마 순스케(류쿠대)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심우갑(서울대), 전봉희(목포대) 교수와 강행생(강행생건축사사무소), 이윤하(건축사사무소 노듯들) 회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게 된다.

문의 : 02-745-3051, 02-929-3546

대전광역시 건축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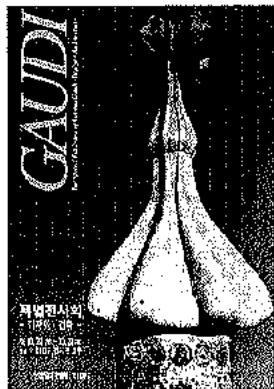
대전광역시가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대전시건축상」의 작품을 공모한다. 대전광역시건축상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오는 11월 11월 20일까지 시공완료됐거나 혹은 완료예정인 대전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응모자격은 건축가, 건축주, 시공회사 등 관계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할 수가 있으며 응모신청서 배부 및 작품접수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다. 접수처는 대전광역시 건설국 건축주택과로 하면되고 제출서류로 응모작품에 대한 양식은 대전광역시가 별도로 정한 규격에 맞게 하면 된다. 심사는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하게되며, 당선작에 대한 시상은 우수상 1점에 1백만원과 상폐, 은상에 30만원의 상금과 상폐, 동상에 20만원의 상금과 상폐가 각각 주어진다. 당선작 발표는 오는 12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전립추진 및 기본방향수립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0월 11일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가 주최하고 문화체육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5명의 관련전문가가 참여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자연사박물관의 소재가 될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중요한 방향제시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병훈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다음날인 12일에는 워크샵이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이병훈 교수 / 전북대 생물과학부
- 한국의 자연사 표본현황
- U. Vincent Wilcox 관장 / 미국 박물관 지원센터 (스미소니언 재단)
- 박물관 시설의 계획과 관리
- Chen - Hua Kao 교수 / 대만 타이중 국립자연사박물관 초대 전시부문 관장
- 타이완 국립자연과학관 전립과정
- W.g Van Der Weiden 관장 / 네덜란드 라이덴 국립자연사박물관
- 침목하는 동물원인가, 활력있는 바이오드롬이 될 것인가
- 경달래 박사 / 학예원, 미국 자연사박물관
- 「국립자연사박물관 전립 기본방향연구」 중간보고서 평가의견
- 자연사박물관에서의 민족학 전시 : 역사와 전망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스페인 태생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의 작품 전시회가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전시관에서 열렸다.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디자인·건축」이란 테마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산업



실내건축, 도시계획, 무대예술, 조경, 디자인 분야로 200자 원고지 70매 분량의 미발표작이어야 한다.

문의 : 현실비평연구소(02-304-6539, 376-7775-6)

「인텔리전트 빌딩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국제심포지엄 안내

디자인포장개발원과 동아일보사, 카테드라 가우디가 공동주최하고 우리 협회와 통상 산업부, 문화체육부 등 9개 단체가 후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실물 41점, 모조품 26점, 사진 4점, 스케치 2점 등 총 73점의 가우디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1857년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레우스에서 태어난 안토니오 가우디는 1926년 바르셀로나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세계적인 건축들을 남겼다. 가우디의 건축양식은 몇 가지의 뚜렷한 자연적·종교적 상징물을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구조와 재료를 표현하였으며, 건물의 형상과 표면에 산이 많고 해안에 지라잡은 카탈루냐의 특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등이 특징이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지금은 가우디 박물관이 된 「구엘 공원(1900~1914)」, 가우디의 작품 교육박물관이 있는 「밀라저택(1906~1912)」과 1960년대의 많은 건축가와 기술자에게 영감을 주었고 초현실주의 화가와 조각가들로부터는 거의 무비판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성 가정 교회(sagrada familia)」 등이 있다.



38년을 회고하고 자신의 건축철학과 작품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집에는 총 30여 작품이 사진을 위주로 도면과 함께 수록돼 있다.

도서출판(주)정림 발행 / 220쪽 / 5만원
/ 문의 : 02)762-9681~7

◆ 공간구조

이 책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 구조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학적 공간구조는 건축된 사물을 병렬적으로 놓았을 때 나타나는 상이한 유형의 질서이며 또한 그러한 질서의 묘사로 표현된다. 작가 볼프강 마이젠하이머는 공간구조의 관찰과 그것의 중첩들을 구분해 보려는 시도를 통해 건축의 모든 공간현상은 구조들의 배열의 현상, 분류의 현상, 내부공간 현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건축에서 공간적 질서연구를 위한 개론서인 이 책은 건축설계에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조형개념을 충실히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어 건축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출판 국제제 / 1만원

◆ 프랑크게리 작품집

1984년부터 최근까지의 프랑크게리 설계작품 가운데 박물관과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작품선정을 해서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은 「건축과 과정」이라는 제목하에 게리자신의 건축관을 표명한 글이 수록돼 있다. 또한 건축비평가 마이클 웹의 심도있는 비평문 「프랑크 게리 작업의 일관성과 창조성」이란 글도 실려 있다. 프랑크게리는 국내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작품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비록 전체작품은 아니고 박물관과 문화시설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건축과 환경 제(02-661-1811)/3만5천원

■ 현실비평연구소 주최 제2회 비평상 공모전

현실비평연구소에서는 한국현대건축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참신한 신인 발굴을 위해 제2회 「비평상 공모전」을 갖는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 문화, 그리고 신화 등이 결합된 상호작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풍토적인 것을 '지금 그리고 여기서'라는 현실의 조건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들을 「학파」라는 이름으로 보다 자각하여 식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이다.

옹모대상작품은 작가 자신이 바탕을 두고 있는 한정된 구역을 빙영하고 봉사하는데 주요 목적을 둔 현실의 건축적 전유를 그 소재로 삼아야 하며 모집부문은 건축,

■ 건축신간 안내

◆ 김정식 건축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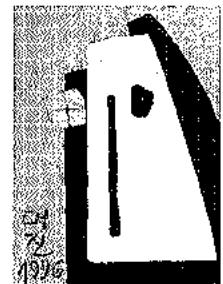
문화방송 여의도스튜디오,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난국대 천안캠퍼스 율곡기념도서관 등 유명건축물을 설계한 김정식 회원의 작품집이 발간되었다. 현 (주)정림건축을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한 김정식 회원은 이 작품집을 통해 건축계에 몸담아 온 지난

■ 제5회 건축가 미술전 개최

제5회 건축가미술전이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PLUS건축사옥내 화랑에서 건축가 미술동우회(회장 한창진)의 주최로 열렸다. 전문 회가들의 전시회가 아니라 순수한 건축가들의 동호회 활동의 결실인 이번 전시회는 한창진씨 등 25명의 동호회 회원이 출품작가로 참여하였으며, 총 47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참여작가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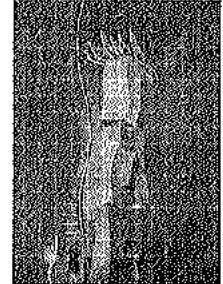
김호경/LATE AUTUMN



부대진/우리집



박승운/소래포구



김학동/A Neo-Expressionism



김선양/수락산동네의 초겨울



유희준/기울 1993



안호him/기물동경



조성렬/큐비즘시리즈 No.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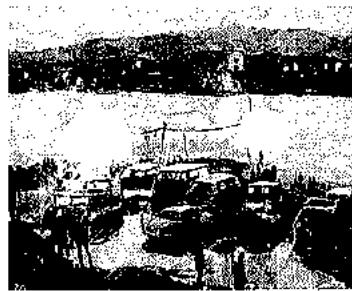
한창진/작품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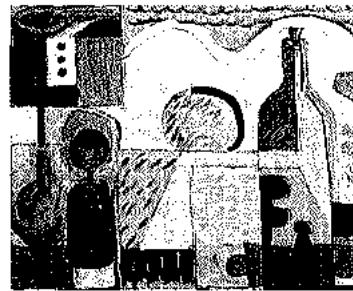
양혜운/누드 (사진)



원대연/회구



이관석/새벽항구



김석환/기타가 있는 점문



김기령/날 따라와보세요



최영진/피와 땀



김인배/소나무



이용환/빛의 서곡



손석진/기울의 중간



이상은/남한산성의 풍



최영권/광릉의 8월



양광렬/NUDE



훈성국/5月의 해변



강성익/도시탈출



송인창/화양동계곡의 봄



최현호/장풀